

畿甸考古

제 5 호

2005

일러두기

1.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연보로서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경기지역의 문화재 조사실적, 연구노트, 수필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이 책자의 수록 내용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시기를 표시하였습니다.
3. 이번 연구노트의 주제는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입니다.
4. 경기지역의 주요 유적조사 활동 부분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배포한 현장설명회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일부는 편집 사정상 침삭하였습니다.
5. 조사기관별로 유구나 유물에 대한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으나 각 기관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6. 이 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4층
 - 연 락 처 : 전화 031-898-7990 교 515) / 팩스 031-898-7970/7991
 - 담 당 : 허미형
 - 전자우편 : mhh386@ggcf.or.kr

〈기문원 연구원 직무교육〉



러시아 과학원 소속 니나 코노넨코의 흑요석기 제작법 시연 모습



동아대 김재현 교수의 인골 관련 강의

〈기문원 학술강연회〉



개회식 모습



전체토론 모습

〈해외 유적 답사 : 중국〉



서안 비림에서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서안 함양박물관에서

〈해외 유적 답사 : 일본〉



吉野ヶ里 역사공원



佐賀縣城 앞에서

〈남양주 사능 · 호평간 도로부지 유적〉



1·2호 야외노지 및 2·3호 주거지



1호 수혈내 탄화 도토리



빗살무늬토기류



작업 모습(3호 주거지)

〈오산 가장지구 유적〉



점토대토기 산포지와 구상유구



석부출토 암석 지점(의례행위 추정)



21호 수혈 유구



석곽묘 1호



석곽묘 2호

〈여주 고달사지〉



유적 전경



가-11건물지 및 기타유구 전경



가-12건물지 배수로와 탄화목재흔



청동여래입상



암막새류



귀면와

〈양주 회암사지〉



사지 중앙 진입로 전경



2단지 나건물 마루방 탄화목재



대장전지 영락장식 출토 모습



영락장식 일괄

〈용인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부지 유적〉



I-B구간 발굴조사 모습



출토 토기류 각종

〈안성 공도 만정리 유적〉



4지점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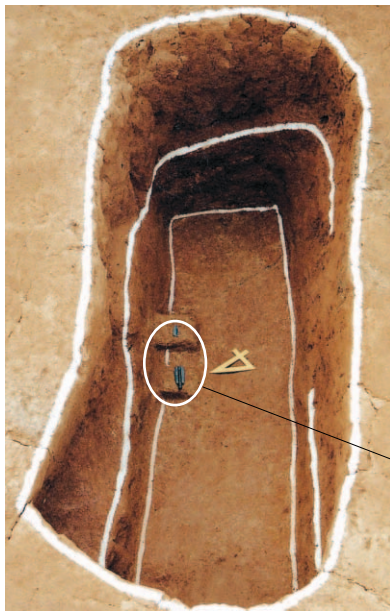
2지점 청동기시대 석관묘(화장묘)



2지점 청동기시대 소형 석관묘(화장묘)



3지점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4지점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세형동검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석기류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출토 유물

〈여러 가지 행사〉



전통문화실을 개설하며(2005년 3월)



전통문화실 개설을 축하!



(사)고구려연구회 2005년 춘계 학술대회 지원



재단 창립 기념 체육대회(2005년 7월 4일)



재단 창립 기념 체육대회 중 줄꼬기 행사



재단 창립 기념 체육대회 단체사진

〈문화재조사 보조원 양성과정 활동모습〉



가평 대성리 유적 답사



대성리 유적 석실묘 견학모습



이천 도자기 엑스포 관람



여주 연양리 유적 답사



경기도박물관 관람



용인 이동 서리 고려 백자요지 발굴조사 현장 답사

〈문화재관계자 연수〉



춘계 문화재관계자 연수 개회 모습



강의를 듣고 있는 시·군 문화재 담당자들



문화재 보존 관련 강의



추계 문화재관계자 연수 개회 모습(대상 :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관계자 연수를 마치고
(회암사에서)



양주 관아지 답사 모습

차례

일러두기

화보

I. 2005년 기문원 활동

1. 일반현황	21
2. 유적 조사 활동	24
3. 주요 유적 조사 개요	28
4. 간행물	116
5. 전통문화실 문화재 관련 사업	120

II. 2005년 경기지역 고고학계 소식

1. 유적 조사 상황	127
2. 주요 유적 조사 개요	133
3. 각종 소식	210
4. 발간 조사 보고서	228

III. 연구노트 :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1. 城廓遺蹟을 통해 본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	박종익	231
2.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김성태 · 허미형	250
3. 한강유역 신라 石室墓의 受容과 展開	홍보식	283
4. 신라토기의 한강유역 정착과정에 대한 試論	홍보식	304
5. 경기지역의 新羅系 평기와 小考	허미형	328

〈특별기고〉

신라 · 가야의 활[弓]	김일규	351
---------------	-----	-----

IV. 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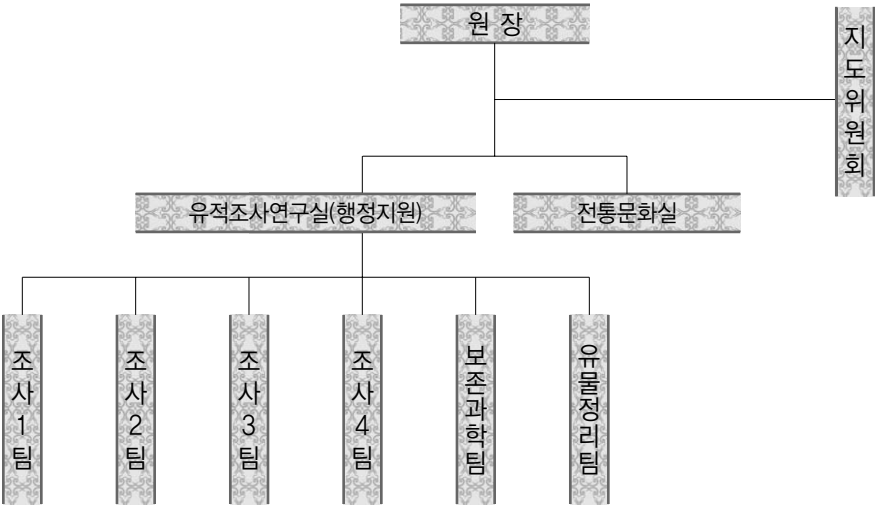
고고학과 나 II	지건길	371
-----------	-----	-----

I .2005년기문원 활동

1. 일반현황
2. 유적 조사 활동
3. 주요 유적 조사 개요
4. 간행물
5. 전통문화실 문화재 관련 사업

1. 일반현황

1) 기구표



2) 정원 및 현원 (총 51명 : 전문직 3명, 연구직 42명, 행정 및 위촉직 6명)

직 제 별		전 문 직 및 연 구 직	행 정 직	위 촉 직
원 장		전문위원 가급1 (1)		
조사연구실장		전문위원 나급1 (1)		
전통문화실장		전문위원 나급1 (1)		
조 사 연구실	조 사 1팀	연구원 7	행정직 5급 2 행정직 6급 1	위촉직 5급 1 위촉직 6급 2
	조 사 2팀	연구원 9		
	조 사 3팀	연구원 8		
	조 사 4팀	연구원 6		
	유물정리팀	연구원 6		
	보존과학팀	연구원 3		
전 통 문 화 실		연구원 3		
계		45	3	3
총 51명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구 분	명 칭	규 모(m²)	세 부 사 항
수 장 시 설	수장고 (장안분원)	280m² (85평)	•유물 보유 현황 － 국가귀속유물 : 245건 1,839점 － 학술자료 : 5,864건 8,267점
보 존 처 리 시 설	보존처리실	139m² (46.3평)	•목재처리실, 유물분석실 등 구비 •보유장비 － X-ray형광분석기, X-ray투과촬영장비, 정밀분 사가공장비, 초음파세척기, 진공함침기, C1이 온농도측정기, 향온수조, 탈염처리용수제조기 등 기자재 갖추 •연평균 보존처리 유물 : 약 500점 이상
	유물보관실	99m² (33평)	•향온합습수장고 등 필요 기자재를 보유하여 유물 별로 조건을 맞춰 수장
연 구 시 설	연 구 실	726m² (242평)	•원장실, 조사연구실(조사1~3팀), 전통문화실, 자료실
유 물 정 리 시 설	유물정리팀	363m² (121평)	•현장조사 종료 이후 유물정리 및 보고서 발간 진행 － 포천 길명리 흑유도요지, 파주 LCD지방산업단 지 문화재 발굴조사, 화성 동학산 유적 발굴조 사,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 문화유적 시·발굴 조사 등
현 장 조 사	각 현장별 사무실 임대 및 가건물 신축 입주	규모별로 조사현장 사무실 운영 중	•오산 세교지구 : 45평 현장사무실 임대 •화성 남양지구 : 약 74.5평 규모로 현장 사무실 용 가건물 신축 입주 •기타 현장별로 조사 규모에 맞게 컨테이너 등 임차
	현장별로 각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 중임		
북 부 사무소	북부분원	276m² (92평)	•임대계약 체결 － 2006년 3/4분기 입주 예정

4) 전통문화실 신설

- (1) 기문원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재조사·연구에서 나아가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전통문화실을 신설하고 윤한택 실장 외 4명의 연구원과 팀원으로 구성함.
- (2) 전통문화실에서는 기존의 문화재 관련 사업 및 무형문화재 활성화 사업, 기타 소규모 지표조
사 등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됨.

5) 연구원 증원 및 조사4팀 신설

- (1) 문화재조사 관련 업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2005년 8월과 2006년 2월까지 총 16명의 연구원
을 충원함.
- 2005년 하반기 : 7명(김진영 등)
 - 2006년 상반기 : 9명(강미숙 등)
- (2) 경기 북부지역과 구석기 유적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팀을 신설하고 2006년 4월 현재 파주 인
근에 분원사무소를 설치함.

6) 기타 조직강화를 위한 노력

- (1) 현재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에서는 지자체 산하 부설 연구원(소), 지자체
발전연구원 소속 조사기관 등이 재정·회계·행정의 예측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시에 압력과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규제하려 하고 있음.
- (2) 2006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자체 부설 발굴기관의 독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7
년도부터는 미독립 기관에는 발굴허가를 규제할 예정으로 있음.
- (3) 한편, 한문협에서는 전국의 발굴조사원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증제를 도입하
여 전체 발굴조사 인력을 관리하고자 시도하고 있어 발굴조사 기관별로 이에 대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음.
- (4) 따라서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유적 조사 활동

2005년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조사를 위하여 새로이 계약한 내용은 시굴조사 9건, 발굴조사 16건, 그리고 지표조사 등 기타 학술용역이 13건이다. 그러나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시·발굴조사를 합치면 실제 조사량은 약 30여 건 이상에 이른다. 내륙 구릉지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주목을 끌었던 남양주 사능-호평간 도로구간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한 해 동안 주목을 끌었던 조사로는 오산 가수동 저습지 발굴조사, 가평 대성리역 구간내 발굴조사 등이 있다.

1) 발굴조사

(2006년 2월 기준)

일련 번호	건 명	조 사 기 간	유 적 성 격	결 과	의뢰기관
1	오산 가장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발굴조사	2.21~'06.5.11	신석기시대 토기편, 석부, 점토대토기편 및 관련 주거지,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분묘군	조사진행중	경기지방공사
2	가평 대성리 유적	'04.02~'06.상반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0동, 수혈, 원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溝, 굴립주 건물지, 경작유구, 주혈군, 삼국시대 석실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竈 등	조사진행중	(주)삼성 엔지니어링
3	여주 고달사지 6차 발굴조사 및 복토정비	5.19~'06.3.19	고려시대 사지 각종 와류, 도자류, 석제품	조사진행중	여주군 문화재사업소
4	양주 회암사지 8차 발굴조사	5.27~'06.4.28	조선시대 사지, 각종 와류, 도자류 등	조사진행중	양주시청
5	안성 공도 만정리 유적 발굴 조사	'04.4.1~'06.2.16	구석기시대 뼈기층, 청동기시대 고인돌, 석관묘,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고상건물지, 고려시대 이후 주거지군과 분묘군	조사완료 총14기 이전복원	경기지방공사
6	남양주 사능-호평간 도로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11.25~9.30	구석기류 수습, 신석기시대 주거지 및 토기편, 도기가마 등	조사완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7	용인 주북리 단독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6.16~7.15	유적 없음	조사완료	유인홍
8	여주 영릉 수리간 건물지 발굴조사	7.6~8.5	조선시대 건물지, 건물지 기반과 박석 일부 확인	조사완료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9	광주 종합유통단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8.26~11.23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분묘	조사진행중	(주)한국물류
10	화성 태안3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9.26~'06.4.24	건물지, 소성유구, 수혈유구	조사진행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1	여주 우회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시굴조사 추가	'05.10~'06.2	신라 주거지, 조선시대 분묘, 주거지	조사진행중	풍림산업(주)

일련 번호	건 명	조 사 기 간	유 적 성 격	결 과	의뢰기관
12	양주 관아지 3차 발굴조사	10.18~'06.3.16	조선시대 관아지, 토·도자류 및 와류	조사진행중	양주시청
13	고양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10.17~'06.4.14	(5개지점 중 3~1지점 조사)유구없음, 인근 어씨분묘 이장시 참관 및 석물 보존 필요	조사진행중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14	오산 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4지점)	11.3~'06.5.31	청동기시대 주거지, 원삼국시대 토기편, 조선시대 가마, 석곽묘 등 복합유적	조사진행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5	화성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조사(1차)	11.7~'06.3.7	조선시대 분묘, 수혈유구, 와류, 토·도자류	조사진행중	화성시청
16	성남 도촌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	12.2~'06.7.28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탄요	조사진행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7	용인 이동 서리 고려백자요지 5차 발굴조사	12.16~'06.7.3	고려백자 요지	조사진행중	용인문화원
18	시흥 능곡지구 발굴조사	'04.10.15~'06.6.1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 석실분, 토광묘, 소형원형수혈, 수혈, 석렬 등	조사진행중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19	화성 향남지구 발굴조사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수혈유구, 회곽묘, 탄요, 구상유구	조사진행중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
20	문산 LCD 당동지구 시·발굴 조사	'04.11.30~'06.1.2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고려~조선시대 수혈유구 및 분묘	조사진행중	경기지방공사
21	용인 삼막곡-연수원간 도로 개설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04.10.1~11.15	삼국시대 주거지 73기·수혈유구 370기, 조선시대 주거지 34기·수혈유구 15기·굴립주 건물지 8동· 구상유구 33기·우물지 2기·소성유구 7기·부석식 소성유구 7기·적석유구 2기·석렬유구 2기	조사완료	한국토지공사 용인지사
22	성남~장호원간 도로구간 (2공구)추가 시·발굴조사	3.3.~'06.12.31	삼국시대 분묘유적	조사진행중	현대건설(주)
23	용인 흥덕지구 시·발굴조사	'04.10.5~'06.2.24	삼국시대 저습지, 고려 수혈주거지, 조선시대 수혈유구, 분묘, 건물지	조사진행중	한국토지공사 용인지사
	용인 흥덕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1지점)	6.17~'06.2.24			
24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문화유적 추가 시굴조사	3.3~'06.12.31	삼국시대 석실분, 금동방울, 각종 토기류	조사진행중	현대건설(주)
25	오산 가수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학교부지 시굴조사	3.8~5.3	통일 신라 주거지, 각종 토기류	조사완료	(주)늘푸른주택
	광주 삼리 근린생활시설 조성 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4.26~4.26	하상퇴적층 확인, 유적 없음	조사완료	(합자)성일측량 설계공사
26	성남 도촌 택지개발지구 문화 유적 시굴조사	4.6~9.23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탄요	발굴 연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7	광주 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4.6~8.10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분묘	발굴 연계	(주)한국물류

일련 번호	건 명	조 사 기 간	유 적 성 격	결 과	의뢰기관
28	양주 관아지 확장 시굴조사	4.14~7.8	조선시대 관아지 건물터 확인	조사완료	양주시청
29	용인 서천지구 문화재 시굴 조사	8.10~'06.6.3	고토양층, 후기구석기 뼉석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백제 원형수혈유구, 고려조선기 토광묘, 조선 수혈주거지	조사진행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0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설립 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9.23~12.26	유적 없음	조사완료	대전국제학교
31	고양 교하~덕이간 연결도로 (고양시구간) 문화재 시굴조사	10.4~12.23	구석기시대고 토양층 확인	발굴연계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32	용인 흥덕 주변도로 (흥덕 - 구갈) 문화재 시굴조사	12.12~'06.1.6	유적 없음	조사완료	한국토지공사 용인지사
33	광명 소하지구 시굴조사	'04.7.14~'06.5.8	조사 진행중	조사진행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 지표조사

(2005년 12. 31 기준)

일련 번호	건 명	조 사 기 간	유 적 성 격	결과 및 조치상황	의뢰기관
1	수원 화성 미복원시설 지표 조사 및 고증연구	'04.12.28~ 06.06	청동기시대 유적추정지, 화성 채석지, 화성관련 건축시설	조사완료	수원시청
2	광명 신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1.21~2.19	유적 없음	조사완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	안양 관양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2.28~5.28	청동기시대 유적추정지,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시굴 및 확인조사 필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4	군포 당동 2지구 문화재 지표 조사	2.28~5.28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무문토기편, 연질토기편, 토도자기류, 기와편	조사완료	군포시청
5	수원 호매실지구 문화재 지표 조사	6.1~8.29	유물산포지, 추정지석묘, 효자정려, 전통사찰	조사완료 시굴조사 필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6	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6.7~8.5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분묘군	조사완료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7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간) 확장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	'04.8.23~ 4.19	청동기시대~조선시대, 무문토기편, 연질토기편, 토·도자편, 분청자편 등	시굴 및 확인 조사 필요	(주)우대기술단
8	안양 관양지구 문화유적 지표 조사 중 사회민속분야 연구	6.20~8.8	사회·민족 분야 조사 추가	조사완료	(주)우대기술단
9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취장 지표조사	10.~11.	사업지역 인접지 유물산포지 확인	조사완료	풍림산업(주)

일련 번호	건 명	조 사 기 간	유 적 성 격	결과 및 조치상황	의뢰기관
10	화성 향남2지구 문화재 지표 조사	11.4~'06.7.1	조사 완료, 시·발굴조사 예정	조사진행중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장
11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11.28~12.17	유적 없음	조사완료	경기지방공사
12	시흥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	11.8~'06.11.7	시흥시 광역지표조사 분포지도 작성	조사 진행 중	시흥시
13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 중 문화재 지표조사	11.22~'06.1.31	유물산포지 3개 지점 (갱신세층 확인, 백제토기편 수습)	시굴조사업정	(주)유신 코퍼레이션

3) 보존처리 및 기타 용역

(2006년 2월 기준)

일련 번호	건 명	처 리 기 간	내 용	결과 및 조치상황	의 례 기 관
1	용인 마북리 발굴출토 금속유물 66점	1.13부터 6개월	보존처리	조사진행중	한신대학교박물관
2	하남 덕풍~감북간 도로공사 구간내 발굴출토 금속유물 4점	4.6부터 6개월	보존처리	용역완료	세종대학교박물관
3	철제초두 등 금속유물(2점) 보존처리	4.30부터 약 5개월	보존처리	용역완료	태평양박물관
4	여주군 원향사지 동종 복제	9.6~10.25	유물복제	용역완료	여주군 문화재사업소
5	수원시박물관 기증유물 탈초 및 한글번역	'06.1.3~'06.3.2	탈초 및 한글번역	초서 탈초 작업 및 번역작업	수원시



3. 주요 유적 조사 개요

1) 가평 대성리유적(경춘선 복선전철 사업구간 제4공구 내)

가) 위 치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3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4년 3월 1일 ~ 2006년 5월 31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라) 조사내용

대성리유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경춘선복선전철 사업구간에 대한 조사과정 중 확인되었다. 대성리유적은 북한강 서안을 따라 남북길이 약 1600m, 동서 폭 약 200m, 해발 35~39m의 세장한 하안층적지의 자연제방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범위는 자연제방 중 남쪽에 해당되는 남북 길이 800m, 동서 폭 30~50m의 범위인데, 편의상 대성리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경계로 북쪽을 A지구(12,637㎡), 남쪽을 B지구(16,306㎡)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범위는 자연제방의 중심부에서 북한강 쪽으로 약간 치우친 사면부분에 해당되는데, 대개 자연제방에 형성되는 유적이 제방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견해에서 본다면 현 조사범위는 유적의 중심, 즉 취락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으로 추정된다.

조사는 대성리 역사부지에 대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A지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A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와 관련하여 주거지 6동, 소구획 논으로 추정되는 1곳을 확인하여 조사 중이다. 원삼국시대 후기의 취락과 관련되는 유구로는 주거지 26동, 竪穴 27기, 掘立柱 2기, 柱穴群 2곳, 溝 1기가 확인 조사 중이다. A지구에 대한 조사 중에 일부결과를 토대로 2004년 11월 지도위원회 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기전고고 제4호에 수록하였다.

B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주거지 16동, 수혈 3기가 조사 중이고 원삼국시대 초기의 유구로는 주거지가 5동, 수혈 7기가 확인 조사 중이며 원삼국시대 후기의 유구로는 주거지 9동, 수혈 3기가 확인되어 조사 중이다. 또한 삼국시대의 석실 2기가 조사 중이다. 조선시대 유구로 수혈주거지 1동, 온돌시설 1동, 노지 6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근대의 것으로 보이는 도로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시기와 성격이 불명한 주혈군과 수혈을 비롯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 조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7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조사 중인데 이 중 110기는 성격이 파악되었으나 나머지 유구는 향후 조사의 진행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해 질 것이다. 그리고 B지구의 남쪽부분에서 현재 유구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기에 향후 유구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B지구 전체에 대한

지도위원회를 2005년 5월에 개최하였고, 다시 3번째 지도위원회의를 2005년도 12월에 개최하였다.

유구

• 청동기시대

A지구에서는 6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청1호~청4호주거지는 A지구의 남쪽범위에 위치하는데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로 내부에 이색점토가 깔려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춘천 천전리유적 등 북한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이다. 청5호 주거지는 원삼국시대 후기의 9호 주거지와 중복되는데 위석식 노지로 보이는 시설이 내부 조사용 트렌치 상에서 확인되었다. 이로 볼 때 청5호 주거지는 앞의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의 주거지로 추측된다.

B지구에서는 현재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판명된 것은 주거지 16동, 수혈 3기 정도인데 앞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는 증가할 것이다.

주거지는 장단축비가 2:1정도인 장방형주거지가 대부분인데 방형에 가까운 형태도 확인된다. 주거지 내의 일부에 적황색의 이색토를 깔 것과 깔지 않은 것이 있지만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내부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주거지의 배치는 강의 흐름과 평행한 것과 강의 흐름과 직교하게 배치 된 것이 있지만 평면형태와 구조, 출토유물로 보아 시기적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부 출토유물은 공열토기와 호형토기, 석부, 석창, 석검편, 반월형석도, 석촉, 찰절석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원삼국시대

A지구에서는 凸字·呂字·方形住居址와 抹角方形(圓形)과 圓形竪穴, 溝, 掘立柱 등이 확인되었다. 凸자형주거지는 8·9·18·19·23호 주거지가 대표적이고, 呂자형주거지는 1·2·3·4·5·7·12호 주거지가 대표적이다. 凸자형주거지와 呂자형주거지는 14호 주거지 등 몇몇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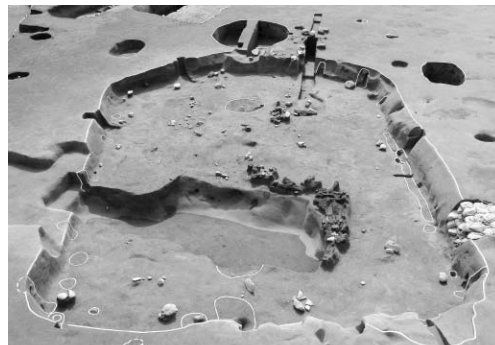


A-4호 주거지 정지층 및 주혈 조사완료 전경 (북→남)

먼저凸자형주거지는 노지에 돌과 점토를 이용한 시설이 확인된다. 즉 기본적인 형태의 부뚜막 구조를 제작하거나 노지바닥에 부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9호 주거지의 경우 기다란 강돌 3개를 세워 삼발이를 만든 구조이다. 그러나 呂자형주거지는 상면을 그대로 노지로 사용하는 無施設式 노지이다. 이것으로 볼 때凸자형주거지와 呂자형 주거지는 취사방법에서 차이가 예상된다.

둘째,凸자형주거지는 출입구와 주거공간의 높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반면 呂자형주거지는 출입구와 주거공간의 높이차이가 심하고 출입구에서 주거 공간으로 연결부에 계단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다. 계단구조는 하층에 봉토고분의 판축양상과 같은 판축을 한 후에 점토를 이용하여 상면을 조성한 것이 토층상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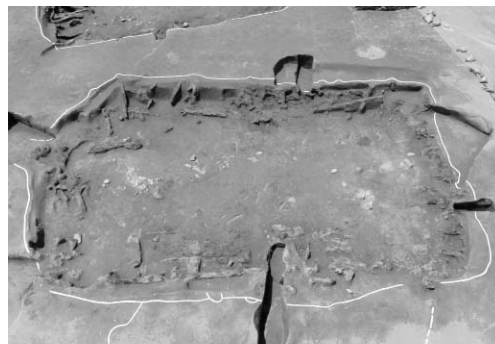
凸자형·呂자형 주거지는 모두 굴광을 판 후 깊게는 30cm 이상, 얇은 곳은 5cm 정도의 두께로 정지를 한 후 상면을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고 벽면에는 壁柱가 설치되었다. 벽주는 床面의 구성과 동시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면에 주혈을 파고 벽주를 설치한 것과 굴광면에 벽주를 세우고 整地層과 상면을 조성한 두 가지 방법으로 후자가 주로 확인된다. 또한 벽주는 굴광의 벽면을 파내고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벽주를 세우고 주거 공간 쪽에 판자벽을 대어 굴광의 벽면과 판자벽면



A-5호 주거지 상면조사원료 전경 (북→남)



A-5호 주거지 정지층 및 주혈 조사원료 전경 (동→서)



A-9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동→서)



A-9호 주거지 출토 청동단추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주거지의 공간과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잔존하는 목탄화된 벽주와 굴광 벽면의 벽주혈로 볼 때 벽주는 角材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부의 장벽 쪽에는 벽구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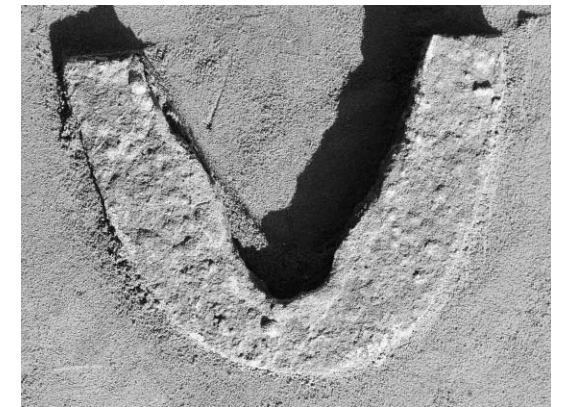
주거지의 主柱穴은 주거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규모가 큰 주거지인 23호는 4개, 4호 주거지는 3개, 5호 주거지는 2개(교란을 생각하면 3개), 19호 주거지는 3개의 主柱穴이 중앙 주축에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6·19호 주거지는 主柱穴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상면을 달구질한 후 그대로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구와의 연결부 모서리와 출입구 내측의 벽면에는 벽주로 보기에 다소 큰 주혈이 좌우대칭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출입구의 구조 및 문과 관련된 주혈로 판단된다.

방형주거지는 15·17·20·26호가 있다. 이 중 15호와 20호 주거지에서는 온돌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15호 주거지는 온돌 옆 공간의 벽에 판자를 이용하여 선반을 제작한 흔적이 탄화된 판자상의 목탄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수혈은 말각방형 내지 원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직경 2~3m에 깊이가 1m 이상의 것으로 내부에는 아무런 구조가 없는 수혈이다. 토층상에서는 전형적인 자연퇴적이 확인



A-9호 주거지 출토 삼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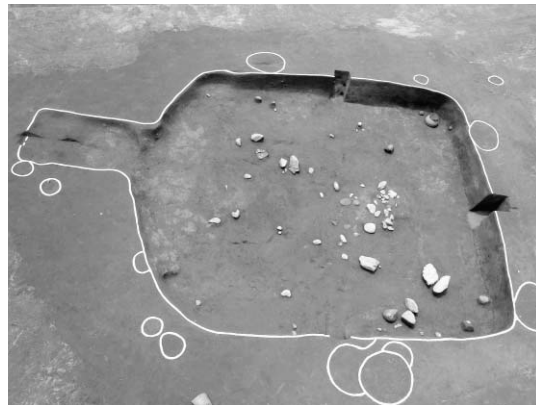
A-23호주거지 상면 조사원료 전경(서→동)



A-23호 주거지 노지 부석상태



B지구 원-7호 주거지 상면 조사완료 전경



B지구 원-5호 주거지 전경

된다. 이는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판단되는데 토층을 복원하면 조성당시에는 단면을 플라스크의 형태로 굴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호 수혈은 기능을 다한 후 폐기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은 처음 자연퇴적이 일부 진행 된 후 재층이 형성되어 있다. 재층에는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마치 가마터의 회원부와 같은 양상이었다. 19호 수혈 출토 유물 중에는 日本 弥生時代の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樂浪系토기와 더불어 당시의 대외교섭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중도식토기의 절대편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나머지는 직경이 앞의 수혈과 비슷하지만 깊이는 10~20cm 정도이고 구조에 있어서 앞의 것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으며 노지를 갖추거나 부뚜막시설이 확인된다. 이것으로 볼 때 취사만 전문적으로 한 공간으로 생각된다.

A지구에서의 掘立柱와 溝는 취락의 경계와 관련된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호 굴립주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30m 정도의 발굴범위 내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매표소와 B지구를 포함하면 굴립주에서 약 9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유구가 확인된다.

동-서향의 구는 깊이가 20~30cm 정도인데 발굴구역을 동서로 가로 지른다. 구의 북쪽에는 5棟의 주거지와 몇몇 수혈이 위치하지만 규모는 모두 소형이고, 밀집도로 볼 때 이 5棟의 주거지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취락의 남쪽은 굴립주, 북쪽은 구를 구성하여 취락의 경계를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A지구와 마찬가지로 B지구에서도 呂·凸字形 주거지와 저장용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이 확인된다. 그런데 B지구에서는 A지구의 14호주거지와 동일한 형태의 주축이 동-서향이고 출입구를 동쪽에 설치한 주거지 2棟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장방형 평면의 내부에 온돌을 설치한 소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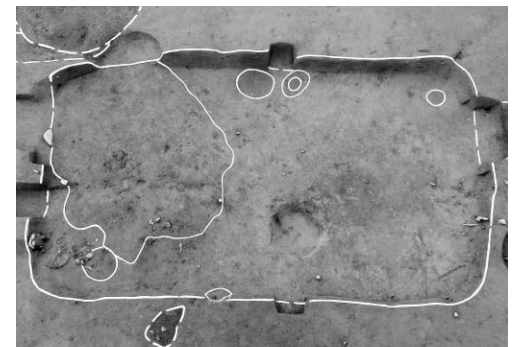
출입구가 동쪽에 설치되고 주축이 동-서향인 주거지는 남북향주거지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고, 또한 모두 凸字形이며 출입구와 주거 내부 바닥의 높이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내부에는 돌과 점토를 이용하여 노지 시설을 한 것이 A지구의 凸字形주거지의 형태와 같다. 그리고 출입구와 주거부의 경계에는 단을 지우고 또한 출입구의 중간부분에도 점토를 이용하여 턱을 만든 것이 확인된다. 주거지의 구조는 A지구와 동일하다.

한편 소형의 장방형 주거지 원7호는 A지구 20호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원7호 주거지가 온돌시설을 가진 부뚜막과 같은 한층 발전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시간성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B지구의 남쪽, 즉 자연제방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원형의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이들



A-19호 수혈 조사 후 전경



A지구 청-1호 주거지 전경



B지구 원-9호 주거지 출토 철부



B지구 원-3호 수혈 출토 말이빨

유구는 출토유물로 볼 때凸자·呂자형주거지보다 빠른 원삼국시대 초기(초기철기시대 중말)의 시기로 판단된다.

원-9호 주거지는 원형이며 남쪽 벽면에 노지가 위치하는데 소토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소토 내에서 돌이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벽면에 접하여 부뚜막시설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에서는 주조철부와 함께 소찰편이 3점 출토되었다.

원-3호 수혈은 원형이며 주거지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다. 내부에서는 주조철부와 함께 화분형토기와 환원염소성의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말 이빨이 소토덩이와 목탄편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원-3호 수혈은 의례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 삼국시대

A지구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B지구에서는 횡구식석실묘가 2기 확인된다. 1호 석실묘는 주축이 북동-남서향이며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상부의 파괴가 심하여 벽석은 1~3단 정도만 잔존한다. 수혈식으로 축조되었고 남단벽 쪽에 굴광선이凸자형으로 돌출하여 나타나는데 묘도로 판단된다. 시상은 직경 5cm 전후의 자갈돌을 깔았는데 추가장에 의한 2차 屍床의 조성도 확인된다. 1차 시상은 북쪽단벽에서 시작하여 내부의 2/3지점에 직경 20cm 전후의 납작한 천석 2매로 경계를 지워 그 안쪽에 천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2차 시상은 1차 시상위에 다시 작은 자갈돌을 깔아 조성하였다. 1차 시상에는 북단벽에서 40cm 정도 간격을 두고 관대로 추정되는 돌이 놓여 있다. 유물은 남단벽의 발치에 대부완과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북단벽 부근에서 꺾형토기와 단경호, 그리고 관대 위에서 솥돌과 집게를 비롯한 철제단야구와 철검이 출토되었다. 발치의 토기와 관대위에서 출토된 철기 유물은 출토위치로 볼 때 추가장의 유물로 판단된다. 북쪽단벽에 접해서 1차 시상위에 놓인 토기는 1차장의 유물로 판단되는데 유물의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철제 단야구는 이 석실묘에 묻힌 피장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2호 석실묘는 1호와 달리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였다. 시상은 직경 10cm 내외의 강돌을 이용하여 깔았는데 횡구 쪽의 일부에는 시상면이 조성되지 않았다. 묘도부의 토층으로 볼 때 追加葬이 확인된다. 추가장의 頭枕石은 횡구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횡구식석실묘의 상황과 달리 2호 석실묘는 추가장 시 주검의 두향이 횡구 쪽임을 알 수 있다. 유물은 횡구 쪽에서 확인되는데 대부장경호와 대부완, 개, 도자가 출토되었다.

석실의 구조와 유물로 볼 때 1·2호 횡구식석실묘는 신라묘제로 판단되는데 이는 신라의 한강유역의 진출, 즉 新州의 설치와 관련지을 수 있다. 시기는 유물로 볼 때 6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49호 주거지 출토 화분형토기



A-19호 수혈 출토 瓦土器



B지구 청-5호 주거지 출토 공렬토기



B지구 청-5호 주거지 출토 석기

마) 조사성과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초기와 후기 취락, 삼국시대의 분묘,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적을 남북으로 길게 종단하는 발굴범위로 인해 대성리유적의 대략적인 범위 및 해당 시대별 유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부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화재에 의해 목탄화 된 구조물이 양호하게 잔존하여 주거지 상부구조 복원의 좋은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A지구凸字形·呂字形往居址는床面과整地層 조사를 통해 당시 주거지의 구조와 건축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지구의 청5호 주거지에서 위석식노지의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B지구에서 수습된 돌대문토기와 함께 대성리유적에 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이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A지구에서 조사된 굴립주와 구를 통해서 당시 취락의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다. A지구의 원삼국시대후기의凸자형·呂자형주거지에서 출토된二條突帶鑄造鐵斧, 鑄造鐵片, 鑄造鐵壺片과日本

甌土器片, 樂浪系토기, B지구 원삼국시대초기의 유구에서 출토된 鐵莖銅簇, 鑄造鐵斧, 花盆形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대외교류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대성리 유적을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 대외교류를 수행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한 집단이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

A지구 1·7·9호 주거지에서 다수 출토된 철편과 주조철기편, 그리고 1호 주거지출토의 모루돌과 망치돌, 철참 등을 통해 철기제작과 관련된 공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토된 철기유물 상에서 당시의 철기제작기술 단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B지구의 원삼국시대 초기의 유구에서 출토된 花盆形土器와 환원염소성의 打捺文土器 및 鑄造鐵斧, 小札은 외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는 인근의 달전리유적 출토의 樂浪유물과 더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漢四郡(樂浪)과 관련지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B지구에서 조사된 황구식석실묘는 출토유물과 분묘의 형태가 신라계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신라가 6세기 중엽 한강하류를 점령하고 新州를 설치한 것과 더불어 한강 중상류로의 진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시대의 유구 등을 통해 대성리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합적인 대규모 유적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규)

2) 용인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 구간내 유적

가) 위 치 :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019-220 · 마북리 502-273 일대

나) 조사기간 : 2004년 10월 1일 ~ 2006년 1월 31일

다) 시 대 : 삼국시대, 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따른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읍 보정리 · 마북리 · 언남리 일대 3개소(31,375㎡, 약 9,500평)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24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지점은 조사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고, 삼국시대 주거지 및 관련시설이 확인된 1지점은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조치되었다. 또한 지표조사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지점과 2지점 사이의 구간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적 범위 파악을 위한 추가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지점과 동일한 성격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전체 조사지역 전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019-220 · 마북리 502-273 일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동쪽으로는 23번 국도가 인접해 있으며 탄

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건설사업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천이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최근의 복토 및 경작으로 인해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복토층(150~200cm, 최대 250cm), 회청색 니질토층(최근의 논경작층, 30cm), 암갈색 산화망간층(5~10cm), 흑갈색 사질점토층(문화층, 30~50cm), 자갈+사질층²⁾(하천층)으로 대별되며 유구는 대부분 흑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확인된 유구는 川邊에 입지한 관계로 하천에 의한 침식 및 퇴적, 중장비를 이용한 최근의 논 조성 등으로 인해 상부의 유실이 심한 상태이다.

조사지역은 서측부터 I-A·B구간, II구간, III구간, IV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73기·수혈유구 370기, 조선시대 주거지 34기·수혈유구 15기, 굴립주 건물지 8동, 구상유구 33기, 우물지 2기, 소성유구 7기, 부석식 소성유구 7기, 적석유구 2기, 석렬유구 2기 등 총 55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I-A구간

삼국시대 주거지 5기·수혈유구 9기, 조선시대 주거지 34기·수혈유구 15기, 구상유구 2기, 우물지 1기, 소성유구 7기, 부석식 소성유구 7기 등 총 8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

• 삼국시대

- 주거지

모두 5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부정형이다. 구간 내 서측에 위치하는 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후대의 하천이나 조선시대 주거지로 인해 유실이 심한 상태이다. 1·3·4호 주거지 내에는 부뚜막이 시설되었다. 출토유물로 보아 1·2·4호 주거지는 신라시기, 3·5호 주거지는 백제시기로 추정된다.

-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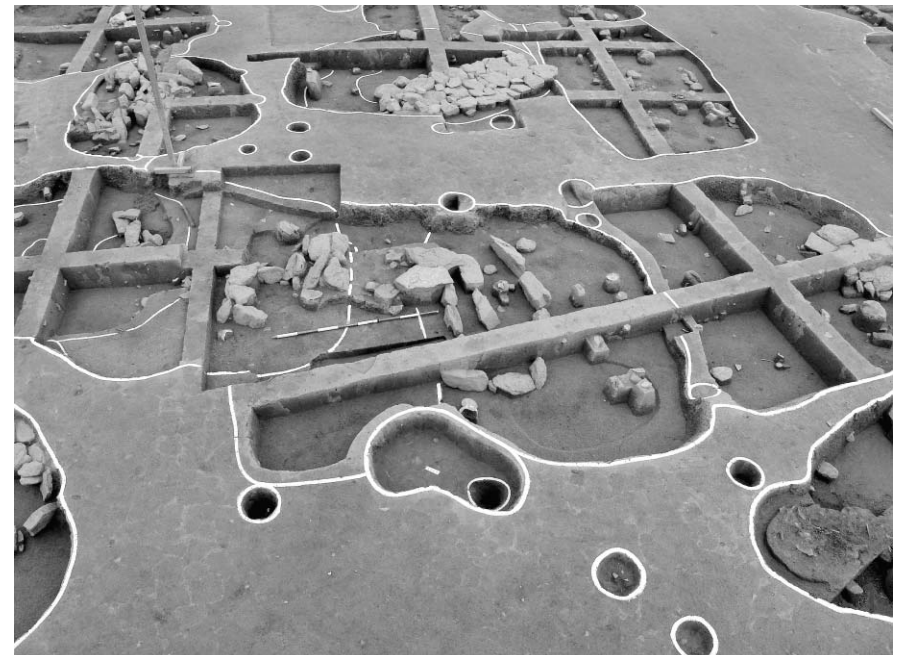
총 9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와 유관한 시설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부정형이며 규모는 대략 장축 290~480cm, 단축 160~417cm 정도이다. 내부토는 흑갈색 내지 암갈색사질점토로서 대부분

소토알갱이와 목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1호 수혈유구의 바닥에서는 다량의 목탄흔이 확인되었다.

• 조선시대

- 주거지

모두 34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 6기, 장방형이 5기, 방형이 4기이며 나머지는 원형 내지 타원형이다. 대부분 내부에는 할석과 점토를 이용하여 부뚜막을 조성하였고, 일부는 주거지 내부의 모서리나 벽에 잇대어 온돌을 시설하기도 하였다. 유구 분포 양상을 볼 때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하천변의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어 유구간의 중복 또한 매우 심한 편이다.



삼국시대 2호 주거지 및 조선시대 11·14·19·20호 주거지 전경

- 수혈유구

총 15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와 유관한 시설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 장타원형으로 규모는 일정치 않은 편이다. 특히 7호 수혈에서는 다량의 소토덩어리가, 8호 수혈에서는 국지적으로 소토와 목탄이 산포하고 있다. 한편 4·10호 수혈은 바닥 레벨로 보아 주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조선시대 7호 주거지와 중복 및 하단 교란 등으로 인해 정확한 성격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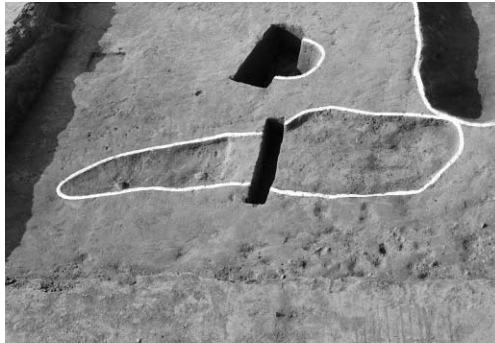
2)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I-A구간의 서측은 지표 하 7.5m, IV구간은 지표 하 4.2m 정도에서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다.

- 구상유구

총 2기가 조선시대 주거지 하부에서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도·자기편이 출토되었다.



1호 구상유구 전경



2호 구상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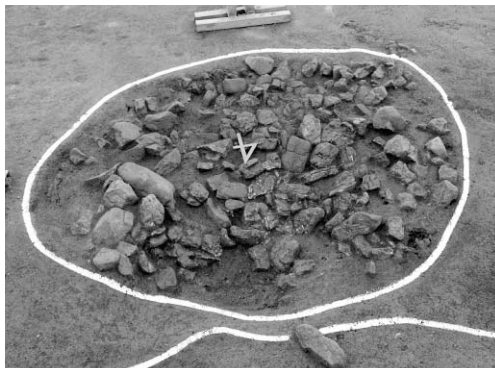
우물지 전경

- 우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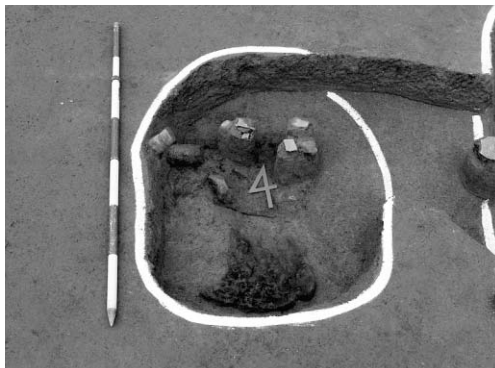
I-A구간 북동측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12호 수혈유구 하부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상·하부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원통형에 가깝다. 규모는 249cm(상부)×239cm(하부)×241cm(깊이) 정도이다. 내부에서 도·자기편이 출토되었다.

- 소성유구

모두 14기가 조사되었다. 그 중 7기는 평면형태가 원형 및 타원형으로서 내부 전체가 적갈색으로



6호 소성유구 전경



1호 소성유구 전경

소결되었기에 ‘소성유구’로, 나머지 7기는 평면형태가 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서 유구의 가장자리만 소결되고 중앙부에는 불규칙한 크기의 소할석이 불 먹은 상태로 산재하고 있어 ‘부석식 소성유구’로 구분하였다.

유물

• 삼국시대

I-A구간에서 출토된 백제시기 유물은 심발형토기, 적갈색 연질호 등이며, 신라시기 유물은 적갈색 연질발, 회백색 연질고배, 회청색 연질완, 회백색 연질호 등이다.



삼국시대 3호 주거지내 연질호 출토상태



삼국시대 3호 주거지내 심발형토기 출토상태

• 조선시대

조선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자기편이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접, 접시, 잔 등으로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굽이 대부분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인 것으로 보아 15~16세기경으로 생각된다. 특히 15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선상감분청이나 16세기에 보이는 철화분청편의 존재로 인해 대략 15세기 중·후반~16세기라는 시간적 위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내 출토 熟盥



3호 소성유구내 출토유물 각종

I-B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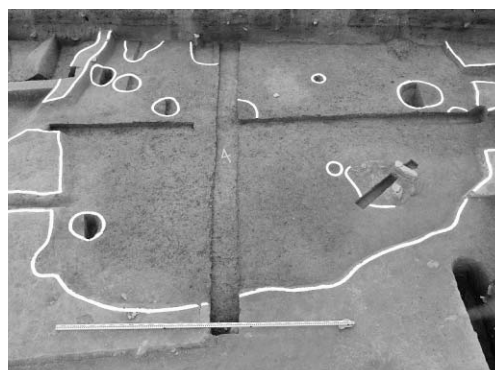


I-B구간 전경



I-B구간 근경

15·18·20·21·22·23·25·28·31·33호 주거지이다. 8호 주거지는 ‘ㅁ’字形, 28호 주거지는 육각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8·28·32호 주거지에서는 출입부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3·



1호 주거지 전경

삼국시대 주거지 31기, 수혈유구 164기, 구상유구 10기(삼국시대 9기, 조선시대 1기), 굴립주 건물지 1동, 석렬유구 2기 등 총 208기가 확인되었다.

유구

- 주거지

모두 31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 장방형, 육각형, ‘ㅁ’字形, ‘ㄱ’字形, 부정형이다. 주로 백제시기의 것이 다 수며 신라시기의 것(12·13·18·21·26·27호)이 조사구역의 남측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백제시기의 주거지는 대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며 부뚜막 등 내부 시설이 확인된 유구는 7·1·2·3·5·6·7·8·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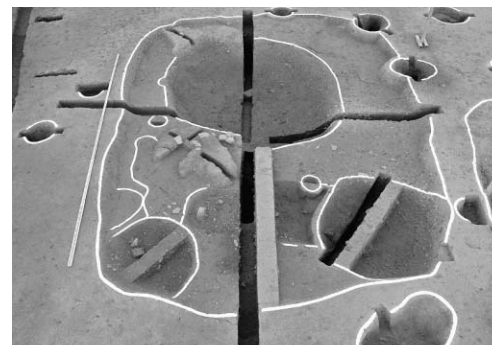
8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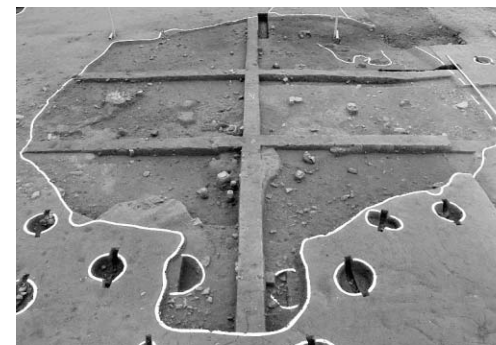
8호 주거지 내 방형 점토시설



20호 주거지 및 90·91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



21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26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10주거지에서는 배수호가 확인되었다. 특히 10호 주거지는 바닥면에 회황색, 회흑색, 적갈색 소결층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목탄이 확인되고 있어 화재로 인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시기 주거지는 단독으로 존재하며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을 띠고 있다. 27호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내부에 온돌시설이 있으며 신라토기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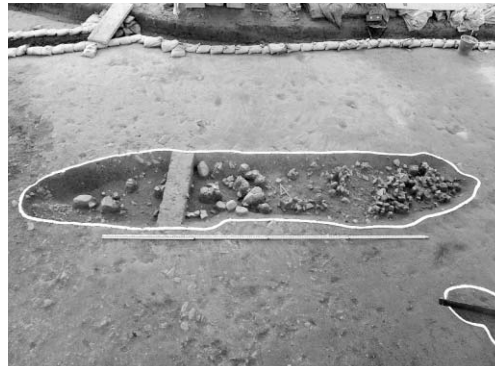
- 수혈유구

총 166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와 유관한 시설로 추정된다. 평면 형태는 원형과 타원형, 방형, 장방형, 부정형이며 대부분이 백제시기의 것이며 신라시기의 것(13·40·59·75·87, 106·109·162호)이 일부 확인되었다.

백제시기의 것 중에서 24·42·44·67·70호 수혈유구는 원형으로 상면에 황적갈색 소토가 보이며 내부에 적갈색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는 공통점이 보인다. 특히 67호 수혈유구는 황적갈색 소토층이 17cm 가량 두껍게 쌓여 있으며 내부에서 고배, 회청색 연질호, 삼발형토기 등이 완형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9, 123호 수혈유구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123호 수혈

유구에는 완형의 토기가 보이고 있어 동시 폐기 가능성이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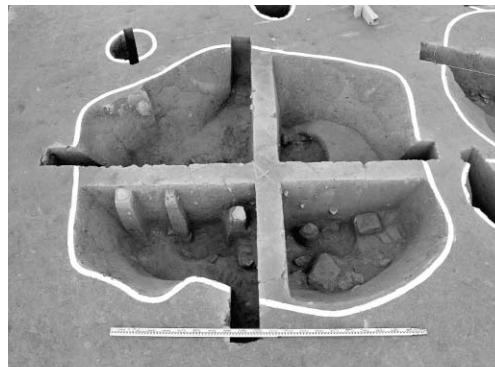
신라시기 유구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거나 장방형이고 이 중에서 109호 수혈유구에서는 바닥에 판석이 보이며 적갈색 연질, 회청색 연질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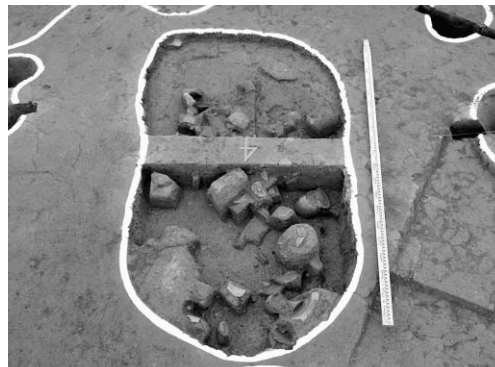
9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



67호 수혈유구내 유물출토상태



109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



123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

- 구상유구



1호 구상유구 조사 중 전경

총 10기가 확인되었는데 2호를 제외하고는 백제시기로 추정된다. 단면 형태는 대부분 弧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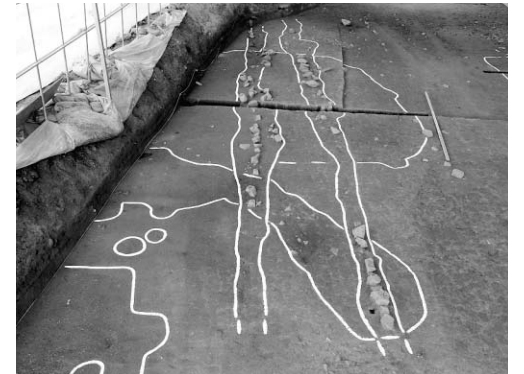
- 굴립주 건물지

20호 주거지의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기둥간의 간격은 약 110~150cm를 보이며 2×2칸이다. 그 남측으로도 5기의 기둥자리가 확인되

었으나 남측 벽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기둥자리는 내부에 소토와 목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98, 299, 300, 305, 317, 318, 319호 주혈)와 황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진 경우(306, 308호 주혈)가 있으며, 대부분이 남서측에 치우쳐 기둥을 세웠다. 유물은 타날문토기편이 소토와 목탄이 혼합된 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내부 출토 유물로 보아 백제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굴립주 건물지 전경



1호 석렬유구 조사 전 전경

- 석렬유구

• 1호 석렬유구

1호 주거지의 상면에 2열의 석렬(북측: 1200×28~88×15cm, 남측: 1320×27~98×15cm)이 평행하게 동서방향으로 확인되었다. 弧形의 단면에 부정형의 돌들이 박혀있으며 내부에서 타날문토기편 등 백제시기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 2호 석렬유구

1호 석렬유구의 남측에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다. 내부는 황갈색 점토층으로 채워져 있으며 단면은 弧形을 띠고 바닥에는 3열의 석렬이 보인다. 내부에서 회청색 경질고배 배신부를 포함하여 타날문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유물

I-B구간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제시기와 신라시기로 구분된다. 백제시기 유물은 옹,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직구호, 원저호, 뚜껑, 완, 고배, 반형토기 등으로 한성백제시기의 대표 기종이 대부분 출토되고 있으며, 신라시기 유물은 호, 소호, 동이, 뚜껑, 완, 고배 등이다.



27호 주거지내 회청색 연질고배 출토상태



28호 주거지내 회청색 연질호 출토상태



3호 주거지내 유물출토상태



27호 수혈유구내 유물출토상태

Ⅱ 구간

삼국시대 주거지 12기, 수혈유구 52기, 구상유구 13기, 굴립주 건물지 2동, 적석유구 1기 등 총 8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

- 주거지

백제시기 11기, 신라시기 1기 등 총 12기가 조사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이다. 백제시기 주거지가 조사지역 전체에 분포하는데 비해 신라시기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측에서 1기만이 확인되었다.

백제시기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장방형(3·5·6·7·8·10·11호)이지만 2·4호 주거지

는 동측과 북측이 파괴되어 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특히 2호 주거지의 경우 토층상에서 3개층의 소결층이 확인되어 이 유구의 성격에 주목하였으나 내부에서 주거지 이외의 유구로 판단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출토유물이 없어 3기의 유구가 중복된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시설로는 부뚜막과 점토시설 및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1·3·5·6·7·1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시설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주거지의 북동측(3·5·6·11호)에 시설되어 있다. 3호 주거지는 거의 바닥만 남아있는데 부뚜막시설로 여겨지는 붉은 소토의 서측으로 구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있어 주거지의 배수로로 추측되며, 6호 주거지에 접해있는 6호 구상유구는 주거지의 부뚜막시설과 관련된 시설로 보여진다.

11호 주거지는 7호 구상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는데 내부에서 광구반형호편과 심발형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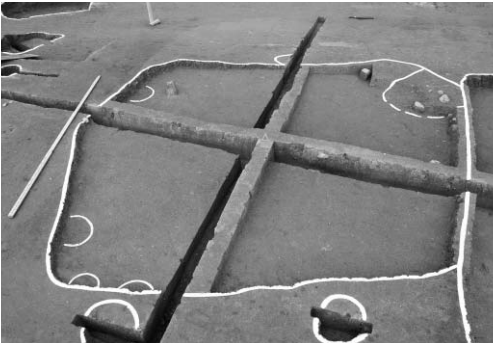
신라시기 주거지는 1기(9호)가 조사되었는데 남측과 서측이 파괴되어 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내부에는 할석을 이용하여 ‘ㄱ’자로 한번 꺾어서 조성한 온돌이 위치하며 이러한 온돌시설은 신라시기의 주거지에서만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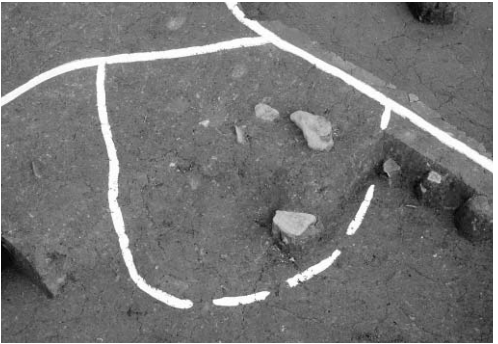
3호 주거지 전경



3호 주거지내 부뚜막시설 전경



5호 주거지 전경



5호 주거지내 부뚜막시설 전경



6호 주거지 전경



6호 주거지내 부뚜막시설 전경

－수혈유구

총 52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와 관련한 시설로 추정된다. 평면 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타원형, 방형, 장방형, 부정형 등 대부분이 백제시기의 것이며 신라시기의 것(4·12·21·25·36·41·42호)도 일부 확인되었다.

백제시기의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과 원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부정형(13·14·20·30호)의 것도 있어 주목된다. 내부에는 황갈색의 점토가 폐기된 가운데 대상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평면 장방형의 23호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경질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고배대각편 등 비교적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상부는 신라시기 4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신라시기의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대부분 원형임에 반해 25호 수혈유구는 장방형을 보이고 있다. 4호 수혈유구에서는 臺附平皿이, 49호 수혈유구에서는 단각고배가 출토되어 신라시기 유구의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2·3호 수혈유구 전경



2호 수혈유구내 토기완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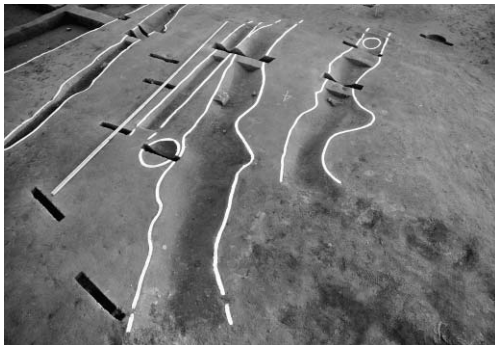
4·23호 수혈유구 전경



4호 수혈유구내 臺附平皿 출토상태

－구상유구

총 13기가 확인되었으며 1·2·3·4·13호는 신라시기, 5, 6·7·8·10·11·12호는 백제시기로 추정된다. 단면 형태는 弧形을 보인다.



1·2·3호 구상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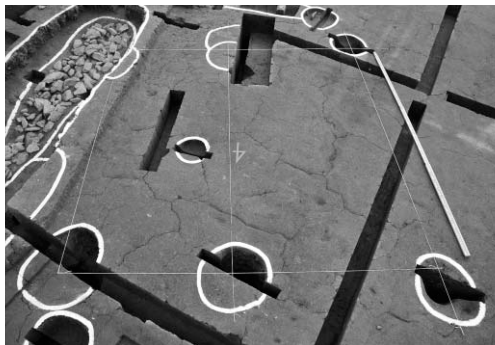
3·4호 구상유구 전경

－굴립주 건물지

조사지역 서측에 1동, 동측에 1동 등 총 2동이 확인되었으며 1호 굴립주 건물지는 2×2칸, 2호는 2×1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호 굴립주 건물지는 굴광의 깊이가 평균 50cm 이상으로 깊고, 내부는 소토와 목탄 등이 채워져 있다.



1호 굴립주 건물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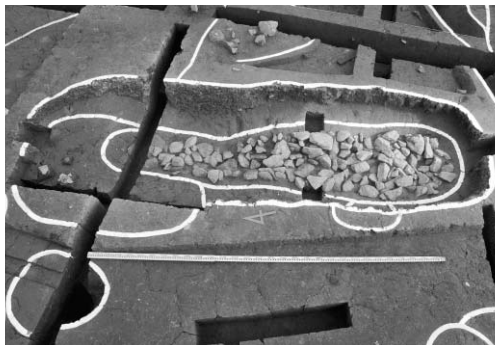
2호 굴립주 건물지 전경

– 적석유구

조사지역의 남동측에 위치하며 장타원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470×125×42cm). 바닥면에는 2단 굴광의 형태로 깊이 10cm 가량의 내부 굴광이 위치한다. 내부에는 크기가 일정치 않은 할석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으며 바닥에는 약 30~40cm 정도 크기의 할석이 깔려 있다. Ⅲ구간의 1호 적석유구와 양상이 유사하며 비슷한 성격의 시설로 추측된다. 내부에서 신라시기의 회색 경질고배편이 출토되었다.



적석유구 조사 중 전경



적석유구 상부 할석 제거 후 전경

유물

Ⅱ구간에서는 백제시기의 용, 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광구호, 고배 등과 신라시기의 호, 臺附平皿, 동이, 뚜껑, 완, 고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Ⅲ구간

삼국시대 주거지 21기, 수혈유구 95기, 구상유구 4기, 굴립주 건물지 5동, 적석유구 1기, 우물지 1기 등 총 12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

– 주거지

백제시기 8기, 신라시기 13기 등 총 21기가 조사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 장방형, 부정형이다. 백제시기 주거지가 조사지역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데 비해 신라시기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측에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제시기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12·21호), 장방형(15·16호), 부정형(1호) 등이 확인되며, 4·13호 주거지는 토층확인을 위한 시굴트렌치에 의해 반파되어 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내부시설로는 부뚜막과 점토시설이 확인되었다. 1·3·12·16·2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시설이 확인되었는데 부뚜막은 점토로 만든 것(1호)과 점토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3·12·21호), 할석을 이용한 것(16호) 등이 있다.

21호 주거지의 경우 부뚜막의 동측에 점토시설이 보이며 내부에서 토기호가 정치된 채 출토되어 부뚜막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



Ⅲ구간 전경



12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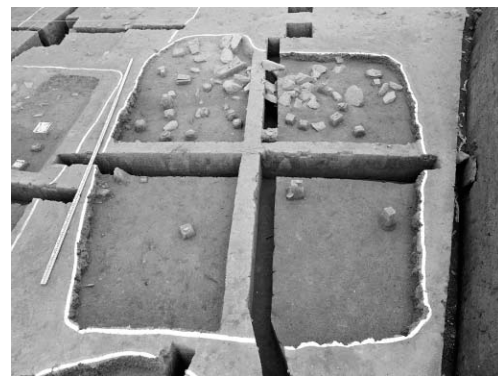
14·15·16호 주거지 전경

다. 그리고 일부 주거지에서는 출입부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부뚜막의 맞은편에 위치하며, 동서방향(3·16호)과 남북방향(21호)으로 조성되었다. 이 외에 주거지 외부에 기둥자리를 설치하는 외주식(3×4)의 형태가 2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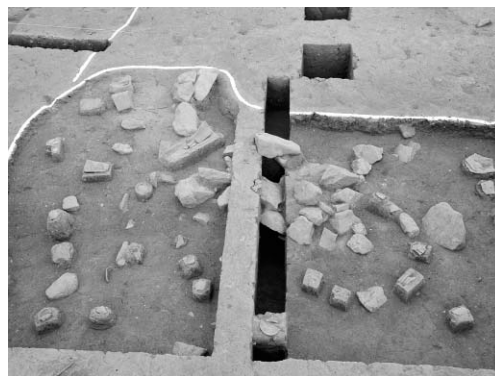
한편 백제시기 주거지 중 3·12호 주거지는 바닥 전체에 소토알갱이 및 목탄흔이 분포하고 불탄 목재가 일정한 방향으로 쓰러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보아 화재 주거지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뚜껑, 병, 방추차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신라시기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2·6·8·10·11·17·18·19·20호), 장방형(5·7·9·14호) 등이 보인다.

내부시설은 부뚜막, 온돌, 석재시설이 확인되었으며 판석과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특히 온돌은 신라시기 주거지에서만 확인되는 시설로서 두 번 꺾어(ㄷ) 조성하였는데 이는 바람에 의해 火氣가 역류하는 것으로 방지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18호 주거지 전경



18호 주거지내 온돌시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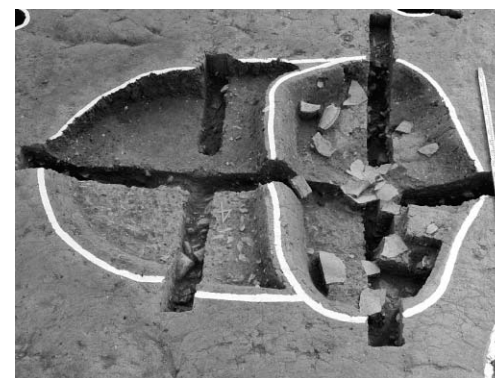
8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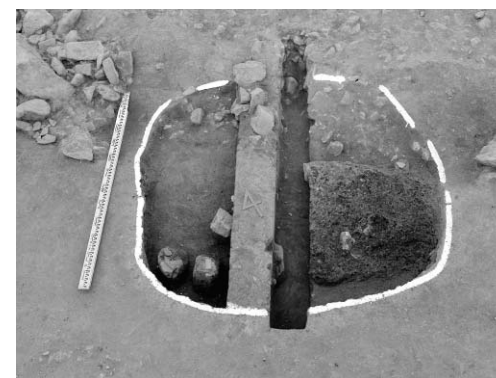
8호 주거지내 부뚜막시설 전경

-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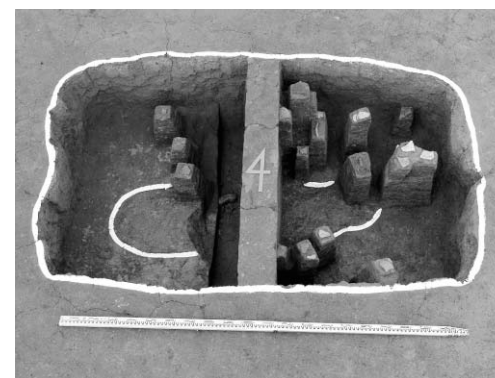
총 95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와 유관한 시설로 추정된다. 평면 형태는 방형, 장방형, 말각방형, 원형, 타원형, 장타원형으로 대부분이 백제시기의 것이며 신라시기의 것(2·4·28·31·49·51·65·66·67·68·70·71·72·74호)도 일부 확인되었다. 백제시기의 수혈유구 중에서 14·17·32·81호는 평면 장방형으로 내부에서 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병, 고배, 개배, 뚜껑 등의 기종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14호는 토층상 하부의 유구(91호)가 폐기된 후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7호와 17호의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목탄이 깔려있는데 유구 자체에서 불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폐기되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81호 수혈유구의 내부에는 장타원형 흙이 중심부에 조성되었는데 정확한 성격 및 기능은 알 수 없다. 한편 8·29·47·48호 수혈유구는 평면 장타원형 내지는 타원형으로 29호에서는 삼족기편이, 47호에서는 구연부가 넓게 벌어진 회청색 경질호, 회백색 경질장군이 완형으로 공반출토되었다. 그리고 14·15·17·18·91호는 1·2호 굴립주 건물지 내부에 중첩되어 있고, 82호는 5호 굴립주 건물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굴립주 건물지와 상관관계



2·3호 수혈유구 전경



7호 수혈유구 전경



81호 수혈유구 전경



81호 수혈유구 토층상

가 추정된다.

신라시기의 수혈유구는 대부분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주거지에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옹, 호, 시루, 발형토기, 고배, 뚜껑, 완, 반, 방추차,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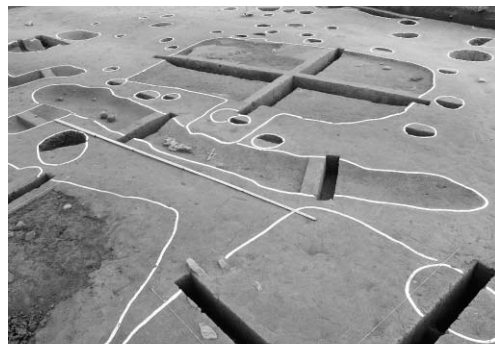
특히 71·72호에서 출토된 어망추는 본 유적의 입지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구상유구



1·2호 구상유구 전경

총 4기가 확인되었으며 1·2호는 신라시기, 3·4호는 백제시기로 추정된다. 단면 형태는 弧形을 보인다.



3호 구상유구 전경



1·2호 굴립주 건물지 전경

- 굴립주 건물지

조사지역 북측에 3동, 남측에 2동 등 총 5동이 확인되었으며 2호(2×1칸)를 제외하고 2×2칸의 건물지로 확인되었다. 이 중 1·2·5호는 내부에 백제시기 수혈유구가 중첩되어 있어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주목된다.

- 적석유구

조사지역의 남서측에 위치하며 장타원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489×134×37cm). 내부에 크기가 일정치 않은 할석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으며 바닥에는 약 30~40cm 정도 크기의 할석이 깔려 있다. 내부에서 회색 연질토기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적석유구 전경



적석유구 근경

- 우물지

조사지역의 동측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上廣下狹形이다. 크기는 146(상부)×75(하부)×230cm(깊이) 정도이다. 암갈색 사질점토층과 자갈층을 파내고 축조되었다. 내부는 갈색 사질점토가 상면에서부터 약 110cm 정도로 보이며 그 아래에 할석과 천석 편이 깔려 있고, 암황색 사질토가 하부까지 이어져 있다. 중앙부에는 19~43cm 정도의 천석과 할석이 부분적으로 쌓여 있다. 바닥에는 약간의 니질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바닥에서 회청색 연질고배편과 회색 연질옹 저부편이 출토되었으며 신라시기로 추정된다.



우물지 전경

유물

Ⅲ구간에서의 백제시기 유물은 옹, 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광구호, 뚜껑, 완, 고배, 삼족기, 병, 장군, 방추차, 鐵鎌, 鐵鑿 등으로 한성백제시기의 대표 기종이 대부분 출토되고 있으며, 특



우물지내 유물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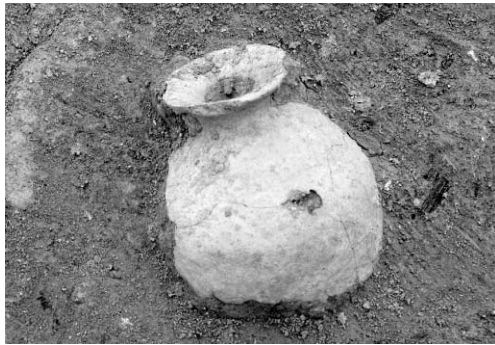
히 병(3호 주거지)과 회청색 경질 광구·장군(47호 수혈유구) 등의 기종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한성백제시기의 늦은 단계로 파악된다.



1호 주거지내 출토유물(시루)



3호 주거지내 출토유물(뚜껑)



3호 주거지내 출토유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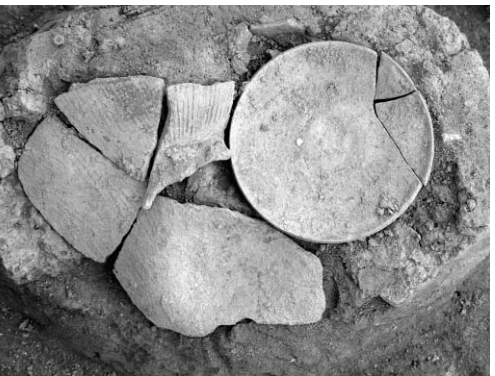


4호 주거지내 출토유물(호)

신라시기 유물은 호, 臺附平皿, 동이, 시루, 뚜껑, 완, 고배, 반, 기와, 방추차, 어망추, 유리구슬 등이며 출토된 단각고배로 미루어 보아 6~7세기대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4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광구호 및 장군)



14호 주거지내 출토유물(臺附平皿)



18호 주거지내 출토유물(기와)



21호 주거지내 출토유물(난형호)

IV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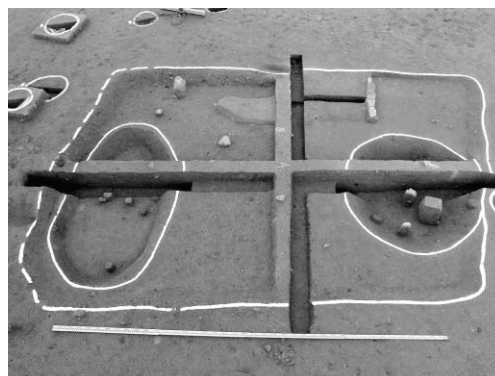
삼국시대 주거지 4기, 수혈유구 50기, 구상유구 4기 등 총 5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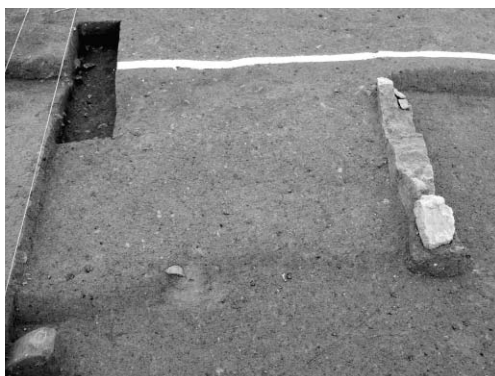
- 주거지

모두 4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2기, 장방형 2기 등으로 주축은 거의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었다. 1호 장방형주거지는 서측부에 1매의 판석을 시설하였고 그 주변에 소토가 다량 산포하고 있어 화덕시설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거지 내부에는 후대에 조성된 2기의 수혈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2호 장방형주거지는 주거지의 굴광선이 모두 삭평되어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내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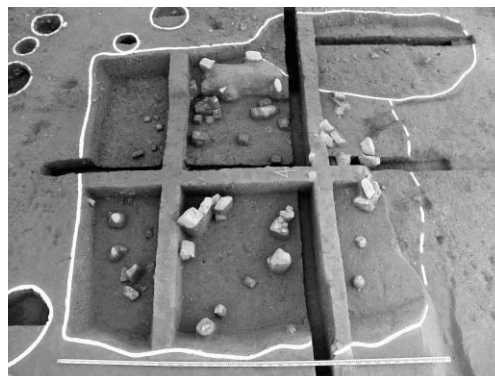
5기의 주혈이 위치한다. 3호 방형주거지는 남측에 추정 화덕시설이 위치하며 남동측 일부는 후대에 조성된 41호 수혈유구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으나 출토유물로 보아 두 유구간의 시기 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다량의 토기편과 철제 화살촉, 소형 철검편(?) 등이 출토되었다. 4호 방형주거지는 유구의 중앙부에 넓게 위치한 점토가 특이한데, 남측에서 북측으로 흘러내리는 토층양상으로 보아 내부시설이라기보다는 상부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퇴적층으로 추정된다.



1호 주거지 전경



1호 주거지 점토 및 할석시설



3호 주거지 전경



3호 주거지내 점토시설 근경

- 수혈유구

총 50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와 관련한 시설로 판단된다. 평면 형태는 원형과 타원형, 장타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방형과 부정형이 각각 3기와 2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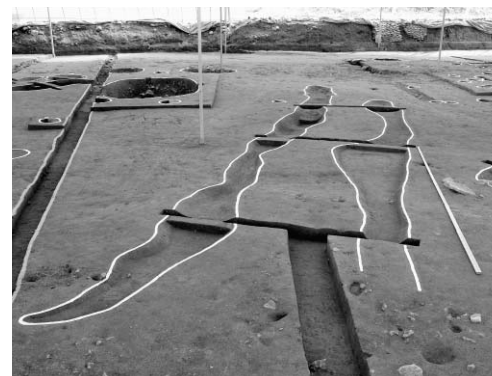
백제시기의 것으로는 21기가 확인되었고, 신라시기의 것으로는 4, 30, 31, 37, 41호의 5기가 확인되었다. 백제시기의 48·49호 수혈에서는 다량의 소토와 토기편들이 출토되어 폐기장으로서의 용도가

추정된다. 그리고 12호 수혈의 경우, 층위에서 목탄의 혼재양상이 상·하층으로 구분되어 2회 이상의 폐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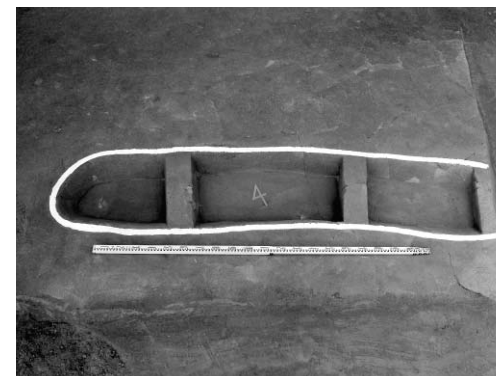
신라시기의 4호 수혈은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의 유구에서 단각고배, 잔, 완, 시루편, 뚜껑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 구상유구

총 4기가 확인되었는데, 단면 형태는 모두 弧形이다. 2·3호 구상유구는 남북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다.



2·3호 구상유구 조사 중 전경



4호 구상유구 조사 중 전경

유물

IV구간에서 출토된 백제시기 유물은 고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원저호, 시루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46호 수혈유구 출토 고배는 유적 주변에 위치한 용인 수지 백제주거지의 유물과 동시기 것으로 판단되며, 19호 수혈유구에서는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시루편 등의 일상생활용기들이 출토되어 2호 주거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시기 유물은 3호 주거지에서 호, 고배, 뚜껑, 완이, 4호 수혈유구에서 고배, 완, 잔, 뚜껑, 시루편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한편 3호 주거지내에서 출토된 뚜껑에는 명문 ‘크(?)’가 외면 3곳에, 지표에서 수습된 완에는 ‘ㄴ(?)’ 명문이 시문되어 있어 주목된다.



3호 주거지 출토유물 각종



3호 주거지내 출토유물(‘ㄱ’자 명문 뚜껑)



3호 주거지내 출토유물(명문 뚜껑-세부)



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각종



1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각종



1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심발형토기)

마) 조사 성과

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73기·수혈유구 370기·굴립주 건물지 8기·구상유구 33기, 조선시대 주거지 34기·수혈유구 15기, 우물지 2기, 소성유구 14기, 적석유구 2기, 석렬유구 2기 등 총 55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들 유구는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주거지와 그 관련시설 등으로 이 지역 전체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규모 취락지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삼국(백제·신라)시대 유구는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수지 백제주거지, 구갈리유적, 대덕골유적, 서울 EMS 테크센터부지내 유적, 보정리 소실유적, 보정리 고분군, 내대지유적 등 삼국시대 제 유적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한성백제기 문화권역의 확산 및 백제시기에서 신라시기로의 전환과정 등 이 지역 일대의 삼국시대 문화상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백제시기의 생활유적과 고분유적, 신라시기의 생활유적과 고분유적이 정확히 세트를 이루는 지역으로 백제에서 신라로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단각고배는 6세 후반대의 점유기간이 상당히 짧은 표지적 유물로서 주변유적들의 조사성과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유적의 경우 유적주변에 6세기에서 9세기후반까지 조성된 보정리 고분군이 위치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조사된 조선시대 주거지가 구릉사면이 아닌 저평지에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철희)

3) 남양주 사능-호평간 도로구간내 유적

가) 위 치 : 남양주시 사능동, 호평동 일대

나) 조사기간 : 2004년 10월 1일 ~ 2006년 1월 31일

다) 시 대 : 삼국시대, 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주)한진중공업에서 시행중인 남양주 사능-호평간 도로건설구간으로서 2001년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두 지점의 유물산포지(이하 1지점, 2지점)가 확인된 곳이다.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2004년 5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1지점과 2지점에서 가마 및 석렬유구를 확인하였다. 발굴조사는 2004년 11월 25일에 착수하였다. 동절기 이후 재착수하여 도기가마 2기, 기와가마 1기, 탄요 2기, 폐기장 등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등을 확인하였다. 출토된 유구 대부분은 도로의 I.C구간내 녹지공간에 해당되고 훼손 없이 복토되는 상황이라 지도위원회의를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현장보존토록 하였다.

2지점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노지 2기, 주거지 1기, 수혈 1기와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구들유구 3기, 축대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유구가 포함된 지역은 공사구간을 벗어난 사유지인 관계로 노출된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복토하고, 구들 및 도로공사 구간에 일부 포함되는 축대는 파괴가 심하므로 내부조사 후 기록 보존토록 하였다.

그리고 1지점 조사과정 중 조사지역 밖에서 기와편과 벽편이 확인되어 문화재 발견신고를 하고, 이 지역을 3지점으로 이름하였다. 3지점에서는 석영제 석기가 출토되는 구석기시대 고토양이 조사지역 전면에 분포하고, 그 위에 고려·조선시대 유구인 가마 2기, 구들유구 1기, 폐기장 2기, 민묘 2기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유구에 대한 조사완료 후 구석기시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05년 9월 30일 전체적인 문화재조사를 마무리하였다.

1지점

1지점은 산사면에 위치하며 목장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부분 삭평이 진행된 상태이다. 전면제토를 통해 도기가마 2기, 기와가마 1기, 탄요 2기 및 기타유구 등을 확인하였다.

유구

• 가마유구

- 1호 가마

도기가마로서 생토층을 굴착하여 만든 $1500 \times 210 \times 60\text{cm}$ 의 사다리꼴의 등요로 장축방향은 $N-29^\circ-W$ 이다. 아궁이 쪽은 파괴되어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없고, 바닥은 외고내저형으로 가마쪽으로 갈수록 깊은 편이다. 가마 소성실 중간에서 재층이 확인되어 측면 쪽에 불을 때던 출입구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닥은 회청색으로 강하게 소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벽은 진흙을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보수흔적이 동벽에서 확인되었다. 연도는 가마 끝부분 가운데에 정사각형 돌을 놓고 좌·우측으로 조성하였다.

가마 바닥에서 확인된 인화분청사기편은 15세기 후반에 사용되던 자기편으로 가마 운영시기가 조선전기임을 말해준다.

- 2호 가마

기와가마로서 유구의 장축방향은 $N-34^\circ-W$ 이며, 사다리꼴 형태이다. 아궁이와 연도는 파괴되었고 연소실과 단벽, 소성실만이 남아 있다. 연소실의 규모는 $200 \times 205 \times 73\text{cm}$ 이며 평면모양은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다. 기와를 굽기 위해 좌·우벽에 언강 쪽을 위로 하여 기와를 쌓아 놓았으며 벽의 소결상태는 좋지 않아 적갈색 소결면이 바로 보인다. 단벽의 높이는 60cm로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이다. 소성실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 최대 깊이가 32cm에 불과하다. 기와는 단벽 위에 수키와 등면을 위로 하여 엇갈리게 쌓아 올렸으며, 그 뒤쪽에 수키와를 세워놓았다. 소성실 중간부터는 암키와 분할면을 하늘로 향하게 한 후 일정 간격을 두고 배면을 서측, 동측으로 엇갈리게 놓았다. 기와 사이는 모래나 깨진 벽체를 두어 번조과정에서 불지 않게 하였다.

- 3호 가마

도기가마로서 유구의 장축방향은 $N-33^\circ-W$ 이며, 규모는 $600 \times 230 \times 30\text{cm}$ 이다.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아궁이와 연도는 파괴되어 형태를 알 수 없다. 소성실과 아궁이는 바닥의 상태와 재의 범위로 구분되는데 아궁이로 추정되는 부분은 편평하게 진행되다가 소성실로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약 10° 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가마 앞쪽과 좌·우측은 폐기공간으로서 남측과 동측은 재와 폐기물이 섞여 폐기된 장소이고, 서측은 가마 폐기물과 함께 모래를 넣어 다져놓은 배수로이거나 태토를 파내던



1호 가마 전경



3호 가마 전경

구덩이일 가능성도 있다.

- 4호 가마

탄요로 추정되며, 유구 규모는 235×125cm이고 장축방향은 N-3°-W이다. 평면형태는 역사 다리꼴 형태의 평요이다. 아궁이와 소성실, 연도가 잘 남아 있다. 아궁이는 외고내저형으로 소성실쪽으로 갈수록 깊은 편이며, 좌우 벽에 할석을 붙여 조성하였다. 소성실은 경사도가 없으며 벽

면은 수직에 가깝게 조성되었다. 연도는 폭 19cm, 깊이 32cm 정도로 소성실이 끝나는 부분과 벽면 사이에 타원형 모양 구멍을 뚫어 놓아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평면도 타원형으로 소성실 바닥보다 깊게 파여 있으며 위는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 기타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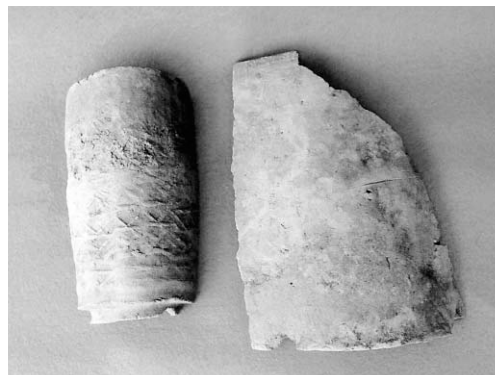
이외 성격불명의 유구가 5기 확인되었는데, 대개 가마유구로 추정되지만 심하게 파괴된 상태여서 확인하기 어렵다.

유물

출토된 유물은 기와편, 자기편, 도기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도기편은 평저가 기본이며 종류로는 단지, 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연은 외반되어 있으며 문양은 거의 무문이나 단선파상문이 구연에 음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색조는 회흑색이 대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흑색, 회색 등이 보인다. 기와는 수키와와 암키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암키와의 주된 등문양은 무문이며, 수키와는 등면 한



출토유물(도기류)



출토유물(기와류)

쪽에만 기하학적 문양을 넣고 있다. 기와의 태토는 적갈색을 띠고 있으나 등면은 회흑색이 보인다.

2지점(신석기시대)

신석기유적이 확인된 2지점은 사능천으로 유입되는 지사천의 최상류 계곡부에 자리하고 있어 지형상 내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적에서 시작된 사능천이 서쪽으로 약 10km를 흘러 왕숙천과 합류한 후 남으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들고, 마치고개 동쪽으로는 약 10km 정도에 북한강이 흐르고 있어 사실상 한강 수계권 내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지역은 해발 160m 내외의 하천 상류 계곡부로서, 계곡을 향해 동→서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조사 전까지 밭으로 경작되던 곳으로, 경작층을 제거한 결과 고려~조선시대의 유구와 유물 및 빗살무늬토기를 포함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북측에는 바위와 할석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 하층에는 굵은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일정한 기간 계곡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에도 조사지역 북측에는 산의 협곡을 따라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신석기시대에도 수원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의 전체적인 층위 양상은 경작층 -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토층 - 석립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토층 -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주로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으며, 유구 내부에는 대부분 석립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구는 총 9기가 확인되었으며, 유구별 성격은 주거지 3기, 야외노지 4기, 수혈유구 2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2호 주거지와 3호 주거지는 중복상태로, 조사결과 3호 주거지가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외노지는 모두 할석을 채워 만든 부석식 노지로, 3호 노지는 1호 주거지의 내부 퇴적토를 일부 굴토하고 조성되었다. 이밖에 소형의 수혈유구 2기는 평면이 부정형 혹은 타원형인데, 내부에서 탄화된 도토리가 다량 수습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유적내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사격자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 토기편이 대부분이며, 석기류는 숫돌, 타제석기, 마제석기 등이다. 이밖에 4호 주거지는 내부에서 공렬토기 및 구순각목 공렬토기편과 빗살문토기편이 혼재되어 수습되므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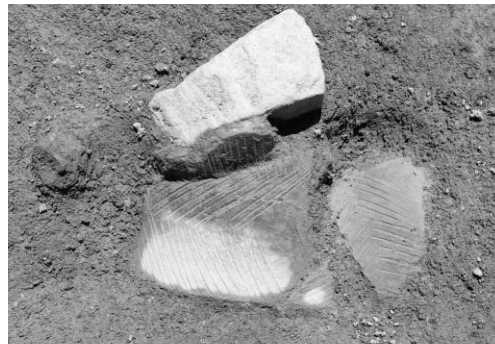
- 1호 주거지

3호 주거지와 4호 야외노지 사이에서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사면 하단부인 서측은 유실되었고, 북측은 계곡물의 침식과정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3호 야외노지가 주거지 내부토 및 동쪽 벽선을 파괴하고 조성된 관계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음 정도이나 말각방향에 가깝다. 주거지는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 퇴적토는 대부분 암갈색 부식토이다. 벽면은 전형적인 'L' 형이 아닌 완전한 곡선상으로 바닥과 연결되며, 바닥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은 생토층으로 파악된다. 내부시설은 장방형의 위석식 노지 1기가 확인되었고, 기타의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아있는 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250cm, 깊이 54cm이다. 유물은 바닥에서 황주어골문의 빗살무늬토기편 및 타제석기류가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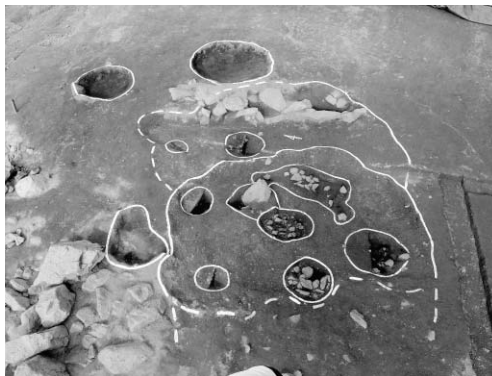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빗살무늬토기

- 2호 주거지



2, 3호 주거지

1호 주거지의 동측인 해발 167~168m 사이에 위치한다. 사면하단부인 서측은 3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었고, 북측은 유실되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 퇴적토는 암갈색 부식토이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소형의 수혈식 노지 1기와 소혈 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식 노지는 목탄으로 채워져 있으나 소토흔

은 바닥에만 희미하게 남았다. 또한 내부에 일정한 석렬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노출되었는데, 인위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본 주거지 내의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있는 규모는 길이 400cm 내외, 너비 290cm, 깊이 40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에서만 빗살무늬토기 소편이 수습되었다.

- 3호 주거지

1호 주거지의 동측에 위치한다. 2호 주거지의 서측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다. 1호 수혈유구가 본 주거지 내부토 일부를 굴토하고 조성되었으나 바닥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내부퇴적토는 1호, 2호 주거지와는 달리 목탄 혼입률이 많은 암갈색 부식토이며, 바닥 근처로 갈수록 목탄혼입이 많아져 흑갈색 색조를 띤다.

사면 하단부인 서측이 유실되었으나 남아있는 형태로 미루어 평면형태는 말각방향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소형의 적석식노지 3기, 수혈 3기가 확인되었다. 소형 노지는 작은 할석들로 채워져 있고, 할석들 아래는 목탄가루로 채워진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지 외부의 적석식 야외노지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날 뿐 형태와 조성방법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잔존 규모는 길이 325cm, 너비 268cm, 깊이 26cm이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빗살무늬 토기 소편 및 탄화 도토리가 수습되었다.

- 4호 주거지

확인된 유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169m 부근에 위치한다. 기타의 유구와 마찬가지로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토는 암갈색 부식토와 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주거지의 북측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W이다.

동측의 벽면은 윤곽선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약 25° 정도로 완만하게 내려오며, 벽 자체는 거의 수직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벽면과 바닥면은 뚜렷한 경계 없이 완만하게 이어져 있다.

바닥은 부분적으로 불다짐이 이루어져 있으나, 불다짐이 아닌 부분도 생토층 자체가 대체로 단단한 것으로 볼 때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바닥전체를 불다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바닥에는 목탄이 다량 노출된 것으로 미루어 폐기원인은 화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빗살무늬토기편, 공렬토기편, 구순각목 공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1호 수혈

2호 수혈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67~168m 사이에 위치한다. 3호 주거지 내부퇴적토를 굴토하고 조성하였고, 내부에는 목탄가루가 다량 혼입된 암갈색부식토로 채워져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벽면은 완전한 곡선을 이루며, 바닥은 균일하지 않다. 규모는 지름 110cm, 깊이 17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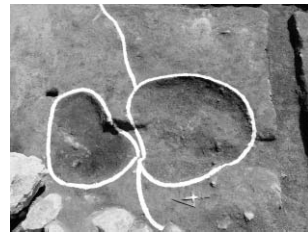
유물은 내부토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소량 및 탄화 도토리가 다량 수습되었다.

- 2호 수혈

1호 수혈 및 3호 주거지의 남측에 인접해 있다.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하였고, 내부에는 목탄가루가 다량 혼입된 암갈색부식토로 채워져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벽면은 완만한 곡선상이며, 바닥은 균일하지 않다. 규모는 길이 100cm, 너비 70cm, 깊이 17cm 내외이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탄화 도토리가 소량 수습되었다.



4호주거지



1, 2호 수혈유구



1호 수혈 출토 탄화 도토리

- 1호 야외노지

2호 주거지의 동측에 인접해 있으며, 해발 167~168m 사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거의 원형이며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하였다. 상부에는 할석들로 채워져 있으며, 할석의 아래에도 일부 할석이 혼입되었으나 대부분은 목탄가루로 채워져 있다. 수혈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 자형으로 오목하게 파여져 있다. 규모는 길이 157cm, 너비 134cm, 깊이 36cm이며,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 2호 야외노지

1호 야외노지의 북측에 인접해 있으며, 해발 167~168m 사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거의 원형으로,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하였다. 1호 야외노지와 마찬가지로 상부는 할석들로 채워져 있으며, 하부는 목탄가루로 채워져 있다. 수혈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 자형으로 오목하게 파여져 있다. 규모는 길이 129cm, 너비 125cm, 깊이 24cm이며,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 3호 야외노지

1호 주거지 내부토와 어깨선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해발 166~167m 사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내부에 할석과 목탄가루로 채워져 있으나 1호 및 2호 야외노지 만큼 돌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후대에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할석 자체의 크기도 1, 2호 노지보다 작은 편에 속한다. 규모는 길이 135cm, 너비 125cm, 깊이 22cm이며,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소편이 수습되었다.

- 4호 야외노지

1호 주거지 내부토와 어깨선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해발 166m 부근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상부에는 할석, 하부에는 목탄가루로 채워져 있다. 수혈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 자형으로 오목하게 파여져 있다. 3호 노지와 마찬가지로 할석 자체의 크기가 1, 2호 노지보다 작은 편에 속한다. 규모는 길이 105cm, 너비 110cm, 깊이 22cm이며,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소편이 수습되었다.



유적 출토 토기류



유적 출토 석기류

3지점(구석기시대)

유구

유적이 자리한 곳은 사면퇴적에 의하여 형성된 산록완사면이 산지의 계곡부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능선의 하단부에 자리하며, 조사 당시 사능-호평간 고속화도로의 I.C 진입로 공사로 인하여 남쪽과 서쪽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였다.

유적의 전체적인 층위구조는 다음과 같다.



3지점 전경

I 지층 : 10~20cm 두께의 표토 및 교란층이다. 조선시대 가마유구 조사에 의한 전면 제토로 인하여 조사지역 내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조사지역 밖의 밤나무 숲에 잘 남아 있다.

II 지층 : 20~30cm 두께의 황갈색점토층이다(10YR yellowish brown 5/6). 암편이 거의 없는 고운 입자의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토양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3지층과의 경계 및 바로 상부에서 유물이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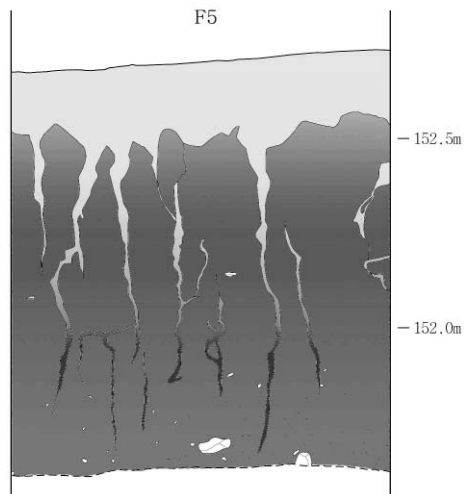
토되며 1문화층에 해당한다.

III 지층 : 30~120cm 두께의 (암)갈색 점토층이다(7.5YR brown 4/4). 지대가 가장 높은 F6칸에서 가장 두텁게 남아 있고 서쪽이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점토층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암갈색에서 갈색으로 변화하며 암편의 양이 증가한다.

점토층 내에는 토양층기 구조와 엽상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토양층기는 상부에서 5~10cm F5 칸 층위 단면도 정도의 두께로 시작되어 하부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며, 내부토의 색이 황갈색→회백색→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점토층이 암갈색 점토에서 갈색사질점토로 점이적인 변화과정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 층의 중간부분에 유물포함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물포함층은 점토층이 두텁게 남아 있는 E·F, 5·6열에서만 확인되고, 남쪽이나 서쪽으로 내려가면서는 2문화층과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2문화층은 IV지층과의 경계면에 형성되어 있고, 조사지역 전면에 걸쳐 나타난다.

IV 지층 : 80~100cm 두께의 사면봉적 기원의 적갈색 쇠설층이다(7.5YR strong brown 4/6). 점토, 암편질 모래, 편마암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상부의 점토질이 우세한 부분과 하부의 모래질이 우세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암석의 크기는 다양한 편이며, 특히 다른 지층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1m 규모의 바위



F5칸 층위단면도

덩이도 포함되어 있다.

V 지층 : 30~50cm 두께의 황갈색 실트질 점토층이다(10YR yellowish brown 5/8). 이 층의 상부는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퇴적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하부는 VI지층의 기복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단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흐르는 물에 의해 깎여나간 단면에서는 수십 cm의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층상구조를 보이고 있어 유수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VI 지층 : 100~120cm 두께의 갈색 쇠설층이다(7.5YR strong brown 4/6). 전체적인 모습은 IV지층과 유사하지만, 내부 구성물질에서 점토성분이 거의 없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IV지층에 비해 암편의 풍화 정도가 심하며, 지층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모래퇴적이나 고인 물에 의한 회청색의 렌즈상 퇴적이 관찰된다.

이상 살펴 본 층위는 2지층을 제외하고는 2002~2004년에 걸쳐 조사한 인근의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의 층위구조와 유사하다. 특히 3지층에서 관찰되는 토양층기의 형성시기를 감안하면 1문화층은 15,000 B.P.를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고, 2문화층은 20,000~30,000 B.P.의 연대폭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

3지점 구석기 유물은 두 개의 문화층과 한 개의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되었다. 조사결과 1,13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조사지역 전면에 걸쳐 분포되어 나타나며 특히 D9칸에서는 300여 점이 집중 출토되었다. 유물 대부분은 주변 계곡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영맥암으로 제작되었는데 몸돌, 격지 등 석기 제작과정의 산물들로서 돌조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잔손질된 석기로는 굽개, 밀개 등이 출토되었다.

1문화층 석기는 석영맥암 가운데서도 결정구조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정질의 우유빛 석영이 많이 활용되었다. 몸돌은 1점이 출토되었는데, 돌결면과 격지면을 때림면으로 활용하였다. 격지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2cm 내외의 작은 크기의 격지가 비교적 많이 출토된다. 잔손질된 석기는 밀개 2점과 굽개 3점이 확인되었다. 밀개는 돌조각의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가파른 잔손질을 베풀어 만들었다. 굽개는 격지를 활용하였고, 등면에서 배면쪽으로 집중적인 잔손질을 하여 직선날을 만들었다.

2문화층 석기는 석영맥암을 주로 활용하였고, 자연면과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직접떼기로 격지를 제작하였다. 격지의 크기는 다양한 편이지만 4~5cm 크기의 돌날형 격지가 관찰된다. 잔손질된 석기로는 굽개 2점이 확인되었는데, 편평한 돌결면을 가진 돌조각에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완만한 경사를 가진 외날굽개이다.



1문화층 출토유물(몸돌과 격지)



1문화층 출토유물(긁개와 밀개)



2문화층 출토유물(몸돌과 격지)



2문화층 출토유물(긁개)

마) 조사성과

1지점에서 확인된 도기가마는 조선시대 가마로서 구조상 안성 산정리, 나주 우산리, 해남 백야리, 청도 순지리와 유사하며 출토유물도 비슷하다. 기와가마는 주변에서 조사된 호평·평내 기와가마와 구조 및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탄요 2기는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남양주 호평, 용인 보정리, 용인 구성 마북리 등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출토유물 가운데 1호 가마 바닥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은 15세기 후반경에 해당되는 인화분청사기로 가마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호 가마 폐기장 채층에서 나온 자기편은 17세기 자기로서 오목굽의 형태를 하고 있다. 1, 3호 출토 도기편들은 당초 조선시대 후기로 파악되었으나 인화분청사기편과 백자편으로 미루어 조선 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호 가마 출토 기와는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두께가 매우 두껍고 짧은 미구를 가지고 있으며, 기하문이 부분적으로 시문된 것으로 미루어 조선기와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선기와에서 보이는 창해파문이 확인

되지 않아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초사된 주변 유적과의 기와문양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지점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3기, 수혈유구 2기, 야외노지 4기 및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전기로 비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호평동 2지점의 경우 해변이나 천변이 아닌 내륙 산간지역의 하천 최상류에서 확인되어 기존에 조사되었던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의 입지여건과 크게 차별되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야외노지와 주거지가 공반된 사례도 이례적이며, 탄화 도토리가 출토된 소형 수혈유구 또한 신석기시대 생활환경 규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지점 구석기유적은 층위상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판단되며 두 개의 문화층을 이루어 출토되는 등 인근에서 조사된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평동 구석기유적’에서 흑요석 등 여러 가지 돌감이 사용된 것과 달리 사능-호평 구석기유적에서는 석영제 석기만 출토되고 있어 두 유적간의 상호비교는 이 지역 후기 구석기문화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길덕·김종현)

4) 용인 서천택지개발사업부지내 유적

- 가)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농서동 일대
 나) 조사기간 : 2005년 9월 12일 ~ 2006년 6월 3일
 다) 시 대 : 구석기 ~ 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서천지구 전경

조사지역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농서동 일대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의해 택지개발이 시행 중인 1,171,253.6㎡ (354,304평)에 속해 있다. 지표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2003년 3월에 실시하였고, 모두 3개 지역(유물산포지 2개소, 조선시대 묘역 1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靑銅器時代 無文土器片을 비롯하여 百濟時代 打捺文土器片, 高麗~朝鮮時代 磁器類·陶質土器類·瓦類 등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조사지역인 서천택지개발지구의 전체 지형을 보면, 東高西低形으로 지구 동쪽 매미산(158m)이 南-北으로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매미산에 속한 50m 내외의 10여 개 小支脈이 점차 고도를 낮추어 서·북서쪽으로 뻗어 있다. 구릉 사이는 좁은 곡간지역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계단식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지역내에 큰 하천은 없고 매미산에서 발원하여 서쪽 黃口池川으로 유입되는 폭 3~4m 내외의 작은 내(川)가 남동-북서로 흐르고 있다. 서천지구 주변의 큰 하천을 보면 서쪽으로 3m 가량 떨어진 향구지천이 북동-남서로 흐르고 있고, 동쪽 매미산 너머로 烏山川이 신갈저수지를 경유하여 역시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斑狀變晶片麻巖과 硅長片麻巖, 角閃石黑雲母片麻巖, 花崗片麻巖이 고루 분포하며 암질이 모두 무른 結晶으로 풍화와 침식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 사이에는 석영암맥이 종종 관입되어 석기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구릉지역과 구릉에 부속된 경작지에는 화강암 내지 편마암 암쇄토와 사질토양이 분포하며 주변으로 배수가 불량한

흑갈색 충적토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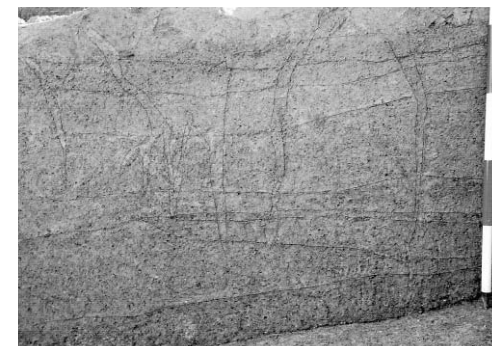
이처럼 조사지역은 5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성 산지와 계곡이 넓게 나타나고 작은 하천이 흘러가고 있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천 주변지역 또한 높지 않은 저구릉성산지와 계곡, 하천주변의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구석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화성의 동학산유적·석우리 먹실유적·기안리유적·발안리유적·고금산유적·천천리유적 및 수원의 꽃피유적·서둔동유적·금곡동유적·울전동유적, 용인의 흥덕유적·공세리유적·구갈리유적·상갈리유적·마북리유적·보정리유적·삼막곡유적·죽전리유적 등에서 구석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 생산, 관방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1지역은 구릉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릉지역은 연결되는 잔구성산지의 말단부로, 편평한 정상과 완만한 사면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를 가로지르는 작은 내가 연결해 있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상부로부터 부식토층(부엽토)-적갈색사질점토층(太沙質혼입)-화강편마암(흑운모편마암)반층으로, 단순한 퇴적구성을 보인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1개소,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2기, 백제시대 수혈유구 17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25기 등이다.



조사지역 전경(동쪽에서)

-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층위모습



구석기 유물

기울기가 완만한 동사면의 말단부에서 토양층이 발달된 명갈색점토층과 암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층에서 몇 점의 구석기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이 확인된 곳의 층위를 보면, 지표로부터 경작층-암회색사질점토층-명갈색점토층(토양층기시작점, 구석기유물포함)-암갈색점토층(토양층기발달, 구석기유물포함)-흑운묘편마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은 석영 및 석영맥암 등으로 만든 몸돌, 밀개, 격지가 출토되었다.

-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수혈주거지는 해발 50m의 구릉 정상부에서 2기가 15m 간격을 두고 확인되었다. 잔존한 모습으로 보이는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이 4m 내외의 규모로 생각된다. 적갈색점토층에서 화강편마암 반층까지 굴광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거지 내부는 흑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주거지 윤곽선이 노출되는 높이에서 無文土器 底部 2점을 비롯하여 砥石 2점, 石劍片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

- 백제시대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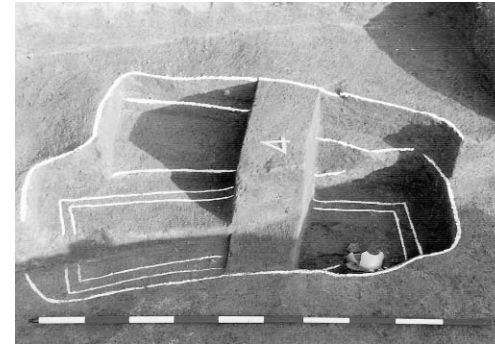


백제시대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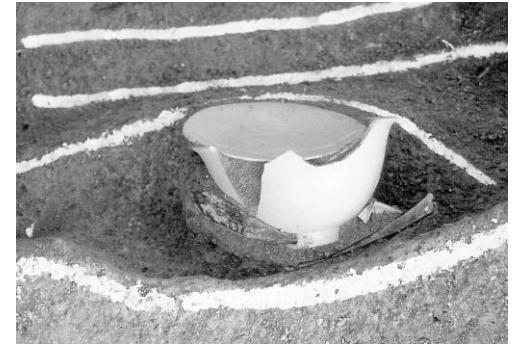
저장유구로 생각되는 원형수혈유구는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모두 17기가 확인되었다. 모두 해발 46~50m 사이의 구릉 정상부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구릉 말단부에는 2~3기가 중복된 것도 확인된다. 노출된 윤곽선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대체로 지름 2~3.5m에 이른다. 유물은 윤곽선 높이에서 繩蓆文土器 동체부편과 格子打捺文土器 저부편이 각각 1점씩 수습되었다.

-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확인된 토광묘는 모두 25기로 해발 51~40m 사이 구릉의 정상부, 사면부에 걸쳐 고루 분포한다. 윤곽선으로 확인되는 묘의 크기는 장축이 2m 내외이며 장방형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물은 龜室이 구축된 토광묘 1기에서 白磁大 〰・白磁 匙・靑銅匙・鐵製유물(鐵造)이 출토되었다.



1・2호 토광묘



토광묘 유물 출토모습

마) 조사성과

금번 조사대상지역인 1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1개소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백제시대 수혈유구 17기・조선시대 토광묘 25기 등이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은 동사면의 말단부 중 토양층이 잘 발달된 고토양층에서 확인되었고, 이 층에서 밀개・몸돌・격지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2기가 확인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는 추후 발굴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형태와 시기가 밝혀질 것으로 여겨지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화성 동학산유적・천천리유적・고금산유적, 수원 울전동유적・이목동유적, 용인 죽전동유적 등과 좋은 비교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장유구로 알려진 백제시대 수혈유구 17기가 금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수혈유구는 이번 조사지역과 연접한 화성 신영동유적에서 44기를 비롯하여 인근 화성 반월리유적・석우리 먹실유적, 용인 구갈리유적・보정리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발굴결과에 따라 시대와 성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토광묘는 모두 25기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정상부와 사면에 중복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감실이 구축된 토광묘에서 백자대접・백자접시・청동시・철제유물이 출토되어 조선시대의 매장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부성)

5)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유적

- 가)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원
- 나) 조사기간 : 2004년 11월 30일 ~ 진행중
-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등 여러 시기 복합
- 라) 조사내용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시굴조사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원에 대한 공단건설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고려문화재연구원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시굴조사 대상지역은 당초 총 9개소 220,425㎡이었으나, 제1차 지도위원회의(2005. 4. 27) 결과 유구의 존재가 의심되는 4지점 주변지역(4지점 주변 구릉과 5지점과의 곡간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어 총 10개소 316,204㎡에 이르렀다.

각 지점별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동절기 혹한으로 조사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차년도 조사를 위한 동절기 유구 보존책을 마련하고 2005년 12월 22일에 현장조사를 마쳤다.

시굴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벌목 후 지형을 고려하여 20×20m의 그리드를 설정하고 경사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2×16m의 트렌치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굴토하였다. 트렌치의 길이와 간격은 지형

〈표 1〉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조사지점	위 치	면적(㎡)	성 격	시 대	비 고
1	당동리 164전 외	14,286	유물산포지	삼국~조선	미조사
2	당동리 552답 외	42,520	유적 없음	·	조사완료
3	당동리 111-1답 외	34,681	유적 없음	·	조사완료
4	당동리 114전 외	26,519	주거지 외	구석기, 청동기, 조선	연장(발굴)조사 중
4주변	당동리 산57-1임 외	95,779	유물산포지	청동기, 고려이후	조사완료(37,747㎡) 미조사(58,032㎡)
5	당동리 산57-1임 외	30,617	유물산포지	초기철기~원삼국	미조사
6	당동리 195-5임 외	19,945	주거지 외	청동기~조선	연장(발굴)조사완료
7	당동리 208-4전 외	27,501	주거지 외	조선	연장(발굴)조사 중
8	당동리 산57-1임 외	22,788	석곽묘 외	고려~조선	연장(발굴)조사결정 3,448㎡
9	당동리 64전 외	1,568	유적 없음	·	조사완료
계		316,204			
시굴조사완료		213,269	2~4, 6~9지점 및 4지점 주변지역(곡간부)		
미 조 사		102,935	1·5지점, 4지점 주변지역(구릉부)		
연장(발굴)조사 중		34,219	4지점 26,519㎡, 7지점 7,700㎡		

에 따라 조절하였으며, 유구의 확인을 위해 일부 트렌치의 경우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장(발굴) 조사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트렌치 상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상부퇴적토를 전면제토하였다. 일부 지역은 상황에 따라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를 확인하였다. 지점별 조사 내용 중 유구가 확인된 지역 중심으로 서술하면 〈표 1〉과 같다.

4지점

행정구역상 당동리 114(전)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26,519㎡이다. 조사지역은 사업지구 남서편 경계지점의 구릉과 구릉 말단부의 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표조사에서는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과 백자, 청화백자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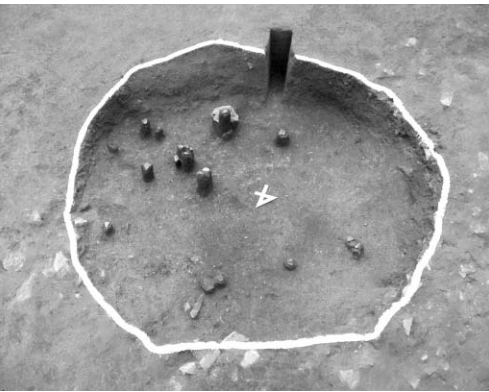
시굴조사 결과 총 5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 33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 가마 3기, 토광묘 12기, 시기를 알 수 없는 집석유구 6기, 구상유구 1기 등이다. 이 가운데 분묘 및 일부 주거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4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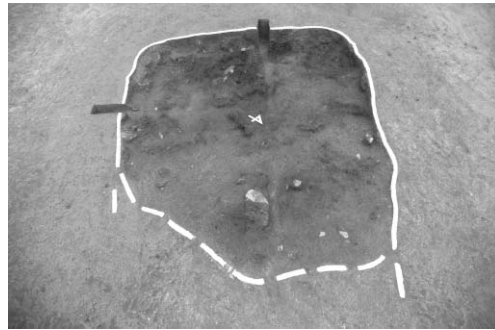
4지점 4호 주거지 주거지 조사 중 전경



4지점 10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4지점 12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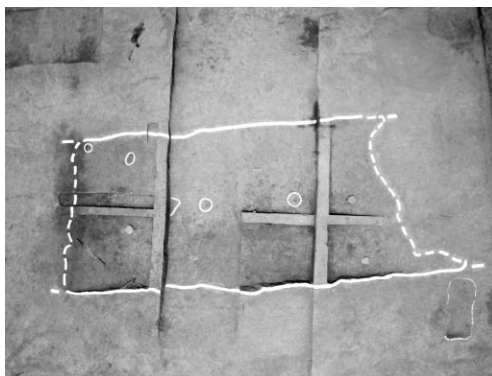
4지점 13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목탄노출상태)

6지점

행정구역상 당동리 195-5(임)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19,945m²이다.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구릉과 구릉 말단부의 밭과 축사, 민가가 들어선 지역으로 지표조사에서는 고려시대 도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제토하여 총 1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조선시대 주거지 9기, 그리고 성격불명의 수혈유구 5기이다. 이 가운데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2기 모두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구릉의 삭평이 심하여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잔존형태로 미루어 세장방향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주공 등이 있으며, 유물은 무문토기편과 석촉, 석창 등이 출토되었다.

- 1호 주거지



6지점 1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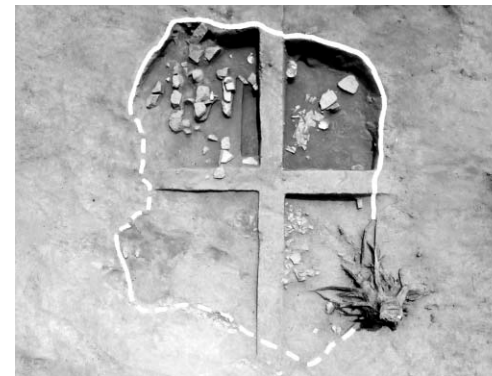
6지점 1호 주거지 유물 출토상태

시굴조사 중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향으로 잔존크기는 1050×410×24cm이다.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남-북방향인 능선과 직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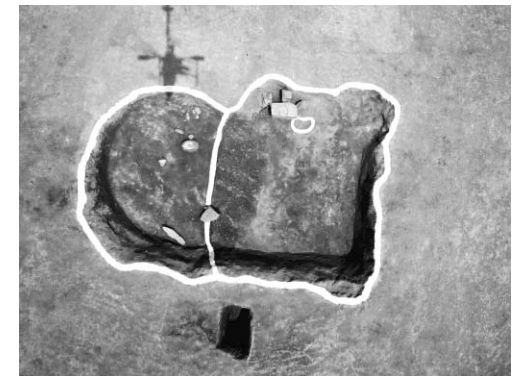
주거지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바닥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2기와 주공 14개(벽구내 4개)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마제석촉 2점과 무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 조선 6호 주거지

구릉 서사면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서벽이 유실되어 정확하지 않지만 잔존형태로 미루어 장방향으로 추정된다. 잔존크기는 490×385×38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시설로는 구들, 굴뚝, 아궁이, 주공 1기, 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다. 구들은 주거지의 북측에서만 3줄 확인되며, 구들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구들시설이 없는 주거지 남측에서 도기병, 분청자, 백자 등이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6지점 조선 6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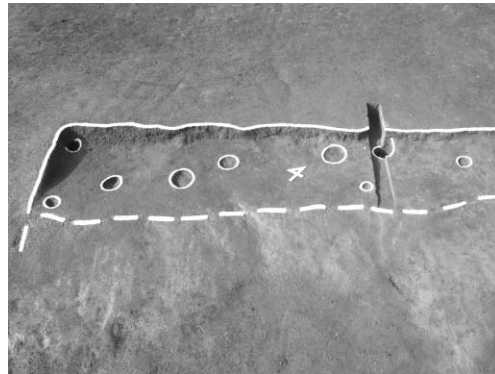
6지점 조선 4·5호 주거지

7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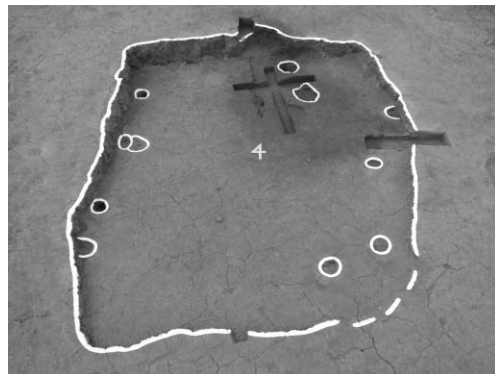
행정구역상 당동리 208-4(전)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27,501m²이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제토하여 총 2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추정되는 야외노지 3기, 청동기~원삼국시대 5기, 조선시대 12기, 수혈 5기, 가마 1기 등이다. 야외노지는 구릉 남동사면 하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변에서 황주어골문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주거지 가운데 일부 조사가 진행된 것은 중도식토기와 함께 부뚜막시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불 때 중도식토기 단계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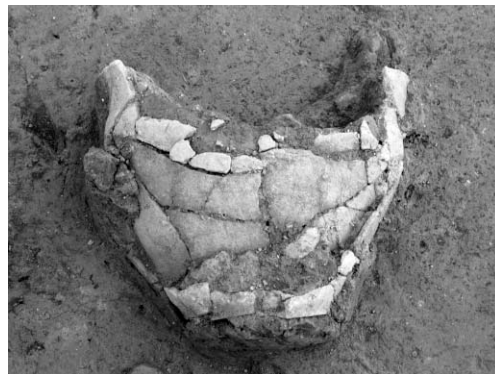
7지점 신석기 1호 주거지



7지점 2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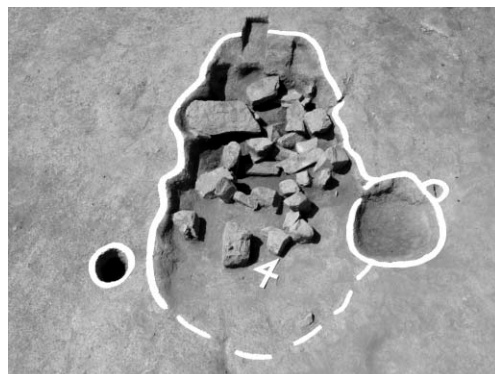
7지점 3호 주거지



7지점 3호 주거지 유물 출토상태



7지점 4호 주거지 부뚜막 전경



7지점 소성유구

8지점

행정구역상 당동리 산57-1(임)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22,788㎡이다. 이 지역은 지표조사에서 고

려시대 도기편과 청자편이 수습된 지역이다.

조사지역은 사업지구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43~53m 내외의 구릉으로 대체로 북서-남동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구릉은 중앙 동측에 소로를 만들면서 절토되어 조사지역이 2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며, 편의상 도로 서측을 1구역, 동측을 2구역으로 나누었다. 전체적으로 조사지역 구릉은 능선을 중심으로 북동사면은 경사가 급한 반면 남동사면은 완만한 편이다. 1구역의 서측 능선에는 등산로가 나 있으며, 평탄지가 형성된 정상부 일부에는 5×8m규모의 시멘트 건물기초 등의 교란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은 전체 구릉 능선을 기준으로 20m 그리드를 구획하고, 그 내부에 2×14~16m를 기본단위로 하는 트렌치를 설정하여 굴토하였다. 그러나 구릉 경사면 하단이나 급경사 부분은 지형에 따라 트렌치 방향과 길이를 조절하였다.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Tr.20, Tr.30, Tr.66, Tr.67) 주변으로 유구의 전체적인 규모 및 또 다른 유구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모두 98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전체 구릉 정상부에서는 표토하 5~20cm내외에서 풍화암반층이 바로 확인되었으며, 사면에서도 표토하 자연퇴적층(갈색사질토층, 적갈색사질토층) 또는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다. 1구역과 2구역의 남동사면 끝자락 일부 트렌치에서는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나 문화층 및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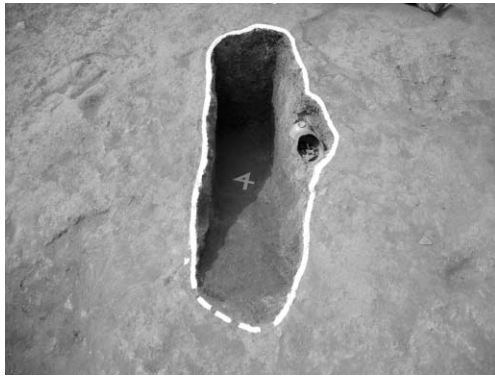
유구는 2구역의 동사면과 남동사면에서 고려시대 석곽묘 2기, 조선시대 토광묘 9기, 수혈 2기 등 총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구역에서는 정상부와 남사면에서 교란흔적이 확인되었을 뿐 유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조선시대 토광묘의 측감에서 장군 3점, 백자 2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2호묘와 4호묘 사이의 표토층에서 백자접시 2점, 백자대접 1점, 흑갈유단지 1점 등이 수습되었다.

-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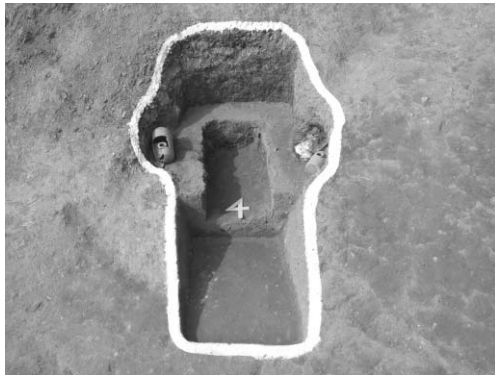
석곽묘는 8지점 2구역에서 모두 2기가 확인되었다. 1호묘는 2구역의 정상부가 끝나는 해발 42.5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120×238cm이다. 등고선에 직교하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2호묘는 1호묘에서 남서쪽으로 48m 정도 떨어진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시굴조사 트렌치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당시 북측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8지점 1호 석곽묘 전경



8지점 1호 토광묘



8지점 2호 토광묘

- 토광묘

토광묘는 8지점 2구역의 남사면에서 모두 9기가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모두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등고선에 직교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1~3호묘는 측감이 마련되었고, 측감에서 도기장군, 백자 등이 출토되었다. 측감에서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분묘로 판단된다.

- 수혈

수혈은 8지점의 2구역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수혈은 Tr.30 남동측 하단에서 확인된 것으로 1호 석곽묘에서 남동쪽으로 약 12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2호 수혈은 4호 토광묘의 북측에 토광묘와 직교되게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9지점

행정구역상 당동리 64(전)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1,568㎡이다. 조사지역은 사업지구 동쪽 외곽 경계지점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조사당시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곳이다. 지표조사에서 고려시대 도기편이 수습되었다.

조사는 구릉 경사면을 따라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굴토하였다. 조사결과, 층위는 표토층-유수퇴적층-풍화암반층 순으로 유구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유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지점 주변 谷間部

조사지역은 4지점과 5지점 사이의 곡간부로 해발 15m 내외에 해당한다. 북쪽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지역을 40×40m 그리드를 구획하고 그 내부에 북서-남동방향의 트렌치를 설정하고 굴토하였다. 또한 트렌치의 폭과 길이는 지형에 따라 조절하였으며, 많은 양의 침출수로 인해 트렌치 동쪽 끝부분을 ‘ㄱ’ 자형으로 굴착하여 집수조를 두었다.

총 5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곡간부의 층위는 지표하 2m까지 복토층이 확인되었다. 최근 경작층 및 복토층 아래로는 회색점토층-회색사질토층-흑색점토층(자연목재 포함)-모래층 순이다. 유물이나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유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조사성과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와 지도위원회의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굴조사 단계여서 뚜렷한 조사성과는 보이지 않으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조사지점	위 치	면적(㎡)	성 격	시 대	조 치 사 항
2	당동리 552답 외	42,520	유적 없음	·	공사진행가능
3	당동리 111-1답 외	34,681	유적 없음	·	·
4	당동리 114전 외	26,519	주거지 외	구석기, 청동기, 조선	연장(발굴)조사 중
4주변	당동리 산57-1임 외	95,779	유물산포지	청동기, 고려이후	조사완료(37,747㎡), 미조사(58,032㎡)
6	당동리 195-5임 외	19,945	주거지 외	청동기~조선	연장(발굴)조사완료후 공사진행됨
7	당동리 208-4전 외	27,501	주거지 외	조선	연장(발굴)조사 중
8	당동리 산57-1임 외	22,788	석곽묘 외	고려~조선	연장(발굴)조사결정 3,448㎡
9	당동리 64전 외	1,568	유적 없음	·	시굴조사완료후 공사진행됨

위 표와 같이,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문화재 시굴조사 2005년도 조사는 총 10개소 중 7개소의 조사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진행중이며, 시굴조사 이후 연장(발굴)조사 2개소가 진행 중이다. 또한 1개소(8지점)는 시굴조사 이후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결정되어 조사개시 준비 중이다. 조사단은 흑한으로 인해 더 이상의 실외조사가 불가하여 2005년 12월 22일로 현장조사를 중지하고, 실내정리작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 3월 현장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조사는 시굴조사 3개소와 연장(발굴)조사 3개소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연장(발굴)조사는 4·7·8지점이며, 특히 7지점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원삼국시대 주거지와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및 유물포함층이 확인되고 있어 조사대상지역의 일부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란)

6) 여주 고달사지 6차 발굴조사

- 가) 위 치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7-1번지 일원
- 나) 조사기간 : 2005년 5월 19일 ~ 2006년 5월 28일
- 다) 시 대 : 고려시대
- 라) 조사내용



여주 고달사지 6차 발굴조사 지역 전경 (E→W)

여주 고달사지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지방사찰로 1993년에 국가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어 왔다. 경기도와 여주군은 사역의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경기도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을 시작으로 2005년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지금

까지 고달사지의 연도별 사업내용 및 발굴조사 성과는 [표]와 같다.

2005년도 발굴조사 지역은 총 4,800㎡ 면적으로 크게 3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나말려초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된 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11~12세기에 경영된 건물지가 위치한 지역, 마지막으로 기타 후대 유구로 인해 파괴되거나 복토되어 별다른 유구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다.

유구

2005년도 발굴조사 지역은 4차 발굴조사 지역의 동쪽, 마을이 들어서 있던 자리로 유구의 교란 및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총 7동의 건물지와 담장지 1기, 미상유구 및 매립유구가 발굴되었다.

〈표〉 고달사지 연도별 사업내용 및 발굴조사 성과

사 업 년 도	시행 및 조사기관	사업내용 및 조사경과	해당면적
1980~1983	여주군	• 토지매입	31,291㎡
1983~1984	여주군	• 지장물 철거	가옥 14동
1984. 10.	예그린건축연구소	• 지표조사 - 고달선원지 지표조사보고서 발간	41,035㎡
1990~1994	여주군	• 정비사업 - 고달사지 부도 진입로 · 계단 · 배수로 · 석축 · 경계석 설치	
1996~1998	여주군	• 토지매입	
1998.7.27~1999.1.27	경기도박물관	• 1차 시굴 및 발굴조사 - 유적의 범위 일부 확인	41,035㎡
1999.9.27~2000.6.22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 2차 발굴조사 - 가-1축대 서쪽 지역 발굴 - 10세기말 이후 15여 동 건물지 발굴 - 쌍사자석등 지대석 및 옥개석 발굴	
1999	여주군	• 주변 정비 및 주차장 정비	
2000.11.1~2001.9.5	기전문화재연구원	• 3차 시굴 및 발굴조사 - 가-1축대 동쪽 지역 시굴	1,000평
2002.8.28~2003.7.30	기전문화재연구원	• 4차 발굴조사 - 가-1축대 동쪽 지역 발굴 - 초창 가람 지역, 선대 유구 발굴 - 건물지 3동 및 석조 2기 발굴	3,600㎡
2004.3.3~2004.11.12	기전문화재연구원	• 5차 발굴조사 - 가-1축대 남쪽 지역 발굴 - 사역내 생활 공간 지역 발굴 - 건물지 6동 및 탑지 추가 발굴	2,800㎡ (보완조사- 2,000㎡)
2005.5.19~2006.5.28	기전문화재연구원	• 6차 발굴조사 - 가-1건물지의 동쪽 지역 발굴 - 건물지 7동 및 미상유구 발굴 - 나말려초 시기 관련 건물지 발굴	4,800㎡

- 가-10건물지

가-1건물지의 동쪽 하부에 위치한 건물지로,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향한 건물지로 추정된다. 2004년도 조사 당시 이 유구는 가-1건물지 기단 상면보다 약 1.5m 아래에서 노출되었으며, 확인된 석렬의 길이는 2.8m이고,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선문와편과 인화문토기편 2점이 출토

됨에 따라, 「홍각선사비문」(886년)의 내용을 뒷받침 해줄 별도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건물지의 기단석렬은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 북쪽 기단석렬에 인접한 적심은 한변이 0.55m 정도인 자연석을 가운데에 놓고 주변에 작은 할석으로 감싸도록 만들었으며, 그 남쪽으로 약 9.5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지름이 0.55m인 원형초석과 작은 부정형의 초석이 1.6m 거리를 두고 놓여져 있다.

동쪽 단벽 가까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진 작은 원형 수혈이 있었는데, 내부에는 목재 2점이 묻혀있었고, 그 밑에는 두개의 원형 돌이 놓여져 있었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12엽세판연화문수막새, 8엽복판연화문수막새, 도식적으로 표현된 당초문암막새편, 무·유단식 수키와, 선문 및 사격자문 평기와편, 편병을 비롯한 도기편 등이 있다.



가-10건물지 적심



기단석렬 밖 하부 토층



가-11건물지 및 기타유구 전경

- 가-11건물지 및 미상유구

가-10건물지 하부에서 확인된 흑갈색 점질토층(VI-③층)과 비슷한 층이 노출되었고, 이 층에서 목재편과 와편이 출토됨에 따라 별도의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주변으로 확장조사를 한 결과, 나말려초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유구 및 건물지 1기가 각각 발굴되었다.

가-12건물지(3차)의 기단토인 황갈색 사질점토층 아래에는 사질토층(VI-①층)이, 그 아래는 흑회색 점질토층(VI-③층), 회색 및 황색 사질토층(VI-

④층), 하상퇴적층(VIII층)순으로 놓여져 있다. 이 가운데 미상유구는 흑회색 점질토층(VI-③층)에, 가-11건물지는 그 윗층에 위치하지만, 두 유구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11건물지 폐기 후 적심 상부 기단토는 유실되고, 그 위에 여러 층의 사질토층(VI-④층)이 쌓인(복토된) 후 가-12건물지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상유구는 소형 할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남북방향으로 1열을 이루고 뒤쪽(동쪽)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토층에는 나무조각이 부분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동쪽 단벽과 인접한 부근에는 건축부재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목재편(단면 5×2cm, 5×1cm, 6×2cm, 10×10cm)이 4점 출토되었다. 또한 흑회색 점질토층 상면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맷돌편(지름 1m, 두께 0.17m)이 위치하고 있으며, VI-③층과 VI-④층에서 확인된 주요 유물로는 귀면와편, 6종류의 연화문 수막새편(8엽단판연화문수막새와 16엽세판연화문수막새, 12엽세판연화문수막새편 등), 입체감 있게 표현된 당초문 암막새편, 무·유단식 수키와편, 해무리굽 백자, 여러 점의 도기병 및 호 등이 출토되어 조영시기를 짐작케 해 준다. 이 점질토층은 북쪽 부근으로 갈수록 사질토 함유량이 늘어가는 데, 실제로 이 두 층을 나눌만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층으로 분류하였다.

미상유구의 동쪽에 위치한 가-11건물지는 퇴적된 황색 사질토를 굴광한 후 적심을 얹힌 건물지로, 황색 점토가 부분부분 충전된 원형에 가까운 적심 10기와 전면(동쪽) 기단석렬이 남아있다. 현재 전면 4칸, 측면 1칸이 확인되었으며, 전면의 주칸거리는 남쪽에서부터 2.05m-1.74m-1.5m-2.35m, 측면의 주칸거리는 약 3m로 일정하지 않다.

특이한 점은 이들 적심 주변으로 흑회색 사질점토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2기의 적심 중앙을 지나가는 길이 1.2m, 너비 1m인 탐색 피트를 넣어 조사해 보니, 적심의 굴광선 내부에는 흑회색 사질점토 위에 할석이 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적색 점토로 채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마치 이중 굴광을 한 후 적심을 얹힌 모습이다. 또한 우측 적심 1기의 한쪽 모서리에는 토기 모양의 흑회색 점토



탄화목재편 및 맷돌편 (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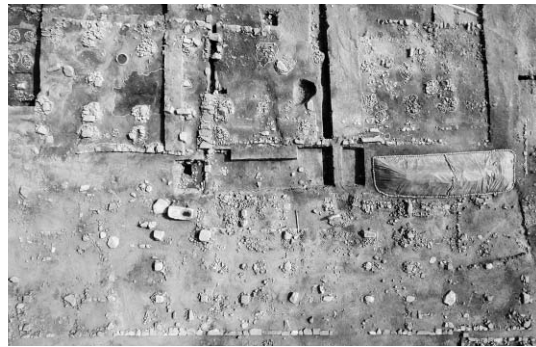


가-11건물지 적심 하부 토층 (E-W)

층이 나타나는데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이밖에 건물지의 서쪽면에는 소토 흔적 및 교란된 와적층이 확인되는데, 이는 건물지의 폐기와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지와 함께 그리드의 동쪽 단벽 가까이에는 최대 2단으로 남아있는 길이 9.8m의 석렬이 확인되었으며, 그 석렬 뒤쪽으로는 작은 할석이 채워져 있다. 이 석렬 밖의 토층은 적심이 위치한 내부 토층과는 달리 적갈색 소토층과 적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하토층 및 축으로 볼 때 가-11건물지의 기단석렬로 추정된다.

- 가-12건물지(1~3차 건물지)



가-1·10·12건물지 전경



가-12건물지(2차) 내부 토층 (NW→SE)

가-1건물지의 동쪽에 위치한 건물지로 동향하고 있으며, 크게 3차례에 걸쳐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는 상부가 심하게 교란되어 기단석렬, 초석 및 적심, 배수로의 흔적이 후대 민가유구와 혼재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기단토도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경사면을 따라 전면의 기단석렬 및 적심도 상당 부분 유실되거나 밀려난 상태로 확인되었다. 유물도 대부분 표토 및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우선 1차 건물지는 S1E5 그리드에서 확인된 전후면 기단석렬과 추정 적심들이다. 그렇지만 이는 2~3차 건물지와 뚜렷하게 중복되어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심이나 기단석렬이 일부만 확인되어 가-12건물지의 선대 건물지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

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2차 건물지는 S1E5~N1E5 그리드에서 발굴되었다. 남아있는 유구로는 1차 건물지의 전후면 기단석렬에서 밖으로 각각 1.9m,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기단석렬과 초석 및 적심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몇몇 적심은 3차 건물지에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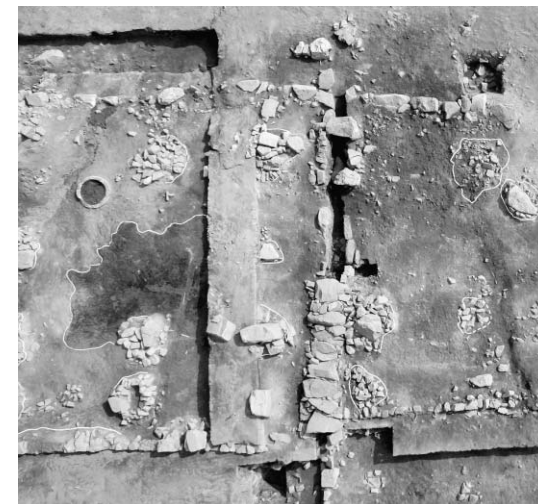
3차 건물지는 N1E5~N2E5 그리드상에 노출된 건물지로 가장 후대에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전면이 28.3m, 후면이 13.15m 정도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전면의 기단은 후면에 비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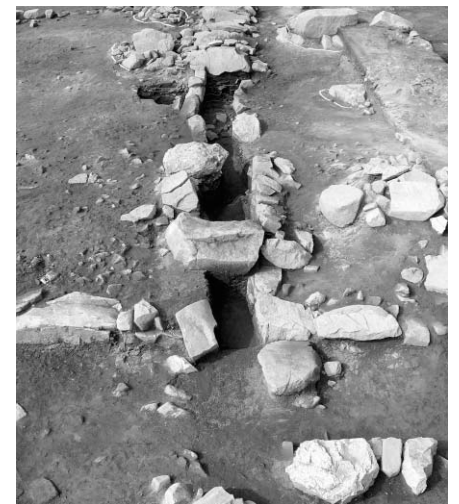
교적 큰 자연석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보축하는 축대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N2E5 그리드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탄화재가 적심 하부에 깔려 있다.

이밖에 건물지 내 2차 건물지와 중복되는 지점에는 길이 17m 정도 되는 배수로가 놓여져 있다. 이는 대형건물지인 가-1건물지의 정면 기단(약 61m)에 모인 빗물을 아래 단지로 배출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수로 내부(배수구 단면 너비 0.85m, 높이 0.8m)는 기와와 숯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메워져 있고, 바닥은 작은 할석이 깔려 있으며, 측면과 상부는 각기 다른 크기의 옆막이 돌과 덮개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나-2건물지에서 출토된 8엽단판연화문수막새편, 가-1축대에서 출토된 16엽세판연화문수막새편, 여러 건물지에서 출토된 8엽복판연화문수막새편이 있으며, 청자와 도기편도 소량 출토되었다.



가-12건물지(2, 3차) 배수로와 탄화목재흔



가-12건물지 배수로(W→E)

- 가-13건물지(1~2차 건물지)와 매립유구

조사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북향한 건물지로 전면 3칸, 측면 1칸이 노출되었다. 전면(남쪽) 기단석렬 앞에는 이와 직교하여 계단지로 추정되는 3단의 석렬이 놓여져 있으며, 이들 추정 계단지간의 폭은 2~2.1m이다.

건물지의 전면 기단석 및 초석렬은 잘 남아있는데 비해, 배면 기단석 및 초석렬은 건물지의 중축 및 후대 교란으로 기단석렬이 2차례 중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전면의 주칸거리는 4.06m이고, 측면의 주칸거리는 4.63m(1차 건물지)와 3.5m(2차 건물지)로 추정된다.



가-13건물지와 매립유구 전경

건물지 내부에는 도기 2점이 적심 옆에 묻혀 있으며, 용도를 알 수 없는 소형수혈 내부는 소토와 기와로 채워져 있다. 고려백자편, 청자접시 및 청자상감국화문화형잔탁, 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가-13건물지의 서쪽에 위치하는 매립유구는 동서방향으로 길이는 19.2m, 상면 너비는 2.4m, 매립높이는 1.2m이며, 단면은 'U' 자형이다. 이는 생토면을 판 후 막새는 물론 다량의 기와를 매립한 것으로, 여러 점의 청자편도 함께 매립되어 있다.

- 가-14건물지와 축대

가-15건물지 서쪽 담장 너머에 위치한 건물지로 적심 2기(지름 1.2m)와 추정 기단석렬이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구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건물지의 윤곽이나 성격을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가-15건물지(2차)와는 낮은 담장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지의 동쪽 기단석 밖으로 여러 단의 축대 및 박석이 깔려 있는데 축대는 4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기 길이 7.7~10.3m에 걸쳐 남아 있다.

- 가-15건물지(1~2차 건물지)와 가-2담장지



가-14~16건물지 전경

가-14건물지의 동쪽에 위치한 동향한 건물지로, 배면(2차: 서쪽) 기단석렬에서 서쪽으로 0.7m 지점에 가-2담장지가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건물지는 일부 초석과 기단석렬이 남아있어 크게 2차례에 걸쳐 중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14건물지를 연관해서 보면, 가-15건물지(1차)가 폐기되고 새로

이 건물(2차)이 중수된 연후(2차)에야 가-2담장지와 가-14건물지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곧 1차 건물지로 추정되는 0.5~0.6m 내외의 초석 7기와 기단석렬을 통해 볼 때, 정면 4칸, 측면 1칸(정면 주칸거리는 3.06m, 측면 주칸거리 2.75m)의 규모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건물지는 배면 기단석렬(길이 4.83m)과 초석 1기만 남아있다.

가-2담장지는 가-14건물지와 가-15건물지 사이에 위치하여 공간을 분할해 준다. 가-14건물지의 최하단 축대와 담장지와의 거리는 3m이다. 담장지는 현재 최대 3단 남아있으며, 그 잔존길이는 16m, 너비는 0.6m이고, 한단 퇴물림 하였다.

- 가-16건물지

가-14건물지의 하부이면서 북쪽에 중복되어 나타난 유구로, 초석 1기와 9.8m에 이르는 기단석렬만 남아있는 건물지이다.

기단토로 추정되는 적암갈색 사질점토층이 기단석 아래로 두께 약 40cm에 걸쳐 깔려 있고, 그 하부에 고운 회갈색 사질점토층과 하상퇴적층이 위치한다. 기단석에 묻혀있는 기단토는 건물지 북쪽 밖으로 약 2m 정도 떨어진 범위까지 깔려 있으며, 그 밖으로는 후대의 폐기물과 함께 쌓인 흙이 경사져 내려가면서 높이 1.5m까지 두껍게 복토되어 있다. 하부는 하상퇴적층으로 별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14 · 15건물지 전경(NE→SW)



가-16건물지 밖 하부 토층(NW→SE)

유물

금번 조사지역은 민가가 철거된 후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가 쌓여있던 지역으로, 유구의 교란 및 유실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 가-12~16건물지에서는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이 적다.

－와전류

와전류는 크게 가-10·11건물지·미상유구에서 출토된 유물과 가-12~16건물지·매립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나말려초 또는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10·11건물지·미상유구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은 사질토층(VI-①' 층), 암갈색 사질점토층(VI-②' 층), 흑회색 점질토층(VI-③' 층), 회색 및 황색 사질토층(VI-④' 층)으로 나누어 수습하였다. 이 가운데 상층인 VI-①' ~ VI-②' 층에서는 앞서 조사된 4~5차 발굴조사와 비슷한 양상의 유물과 함께 선문이나 격자문의 두께가 얇은 와편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VI-③' 층~VI-④' 층에서는 6종류의 수막새와 볼륨감 있는 당초문암막새, 귀목문이 출토되어 눈길을 끈다.

평기와의 경우 가-10~11건물지와 미상유구에서는 주로 선문, 격자문, 사격자문이 주를 이루는 반면, 가-12~16건물지에서는 주로 복합문과 어골문, 화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키와 또한 가-10~11건물지, 미상유구에서는 유단식과 함께 무단식 수키와가 다량 출토되었다.

전은 대부분 가-11~12건물지의 상부 퇴적토 내에서 출토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이형기와도 출토되었다.



연화문 수막새편



귀면와, 귀목문 수막새편, 당초문 암막새편

－도·자기류

도기는 대부분 회청색 또는 회흑색의 고려시대 경질도기편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12~16건물지 내부 바닥에는 원형에 가까운 소형 구덩이 내에 호나 웅이 1~2기 정치되어 있다. 미상유구가 위치한 회흑색 점질토 내에서는 여러 점의 도기병편이 수습되었다.

자기는 고려청자편이 대부분이며, 고려백자 및 분청사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가-11건물지 하부에 위치한 회흑색 점질토층과 사질토층에서는 해무리굽 백자저부편과 중국백자로 추정되는 자기편이 출토되어 9~10세기를 전후한 시점의 유구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가-13·15

건물지에서는 여러 모양의 청자상감화형잔탁이 나왔는데, 이는 가-13건물지의 남쪽에서 발견된 매립유구에서도 출토되어 건물지의 사용 시기와 주변 유구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곧 이러한 상황과 분청사기편이 소량 출토되는 것을 통해 볼 때, 가-15건물지가 가장 오래 동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유물의 출토량이 적어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출토 자기편



출토 도기편

－청동여래입상

기발굴조사지역에 대한 내부 정밀조사를 하던 중 가-1건물지(1차)의 기단토 내(V-4 층: 흑갈색 점질토층)에서 초창기 사역의 정후 및 건물지의 중복 양상을 보여주는 청동여래입상(불신 높이 17.5cm)이 출토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계승하는 청동여래입상으로, 머리는 둥근 육계가 낮게 자리잡고 있으며, 네모진 얼굴에 살이 올라 있고, 두 손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하고 있다. 법의는 통견의를 걸쳤으며, 다리 부분에는 좌우로 갈라져 대칭을 이루면서 발목까지 드리워진 음각선이 보인다. 불상 후면은 움푹 패어 있으며, 목부분에는 일부 결실된 원형의 광배꽃이가 남아있고, 불상의 전후면에는 지류로 추정되는 섬유조직이 일부 남아있



청동여래입상(보존처리중)

다. 이러한 법의처리와 주름 표현, 뒷면 처리 등은 9세기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많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

출토 당시 표면에 매우 고운 진흙과 굵은 모래 등이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어 보존처리 중에 있으므로, 청동여래입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서에 수록하려 한다.

마) 조사성과

4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던 나말려초대 유구가 발굴되어 유적의 상한을 올려주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이제껏 조사된 건물지들과는 구별되는 층위상에 위치하며, 그 축조기법 및 유물면에서도 차이를 보여 고려전기 이후의 고달사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하층에 위치하여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한 규모 및 공간 구성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존속시기가 각기 다른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7동 및 미상유구가 발굴됨에 따라, 사찰이 경영되던 시기 및 사역 범위(현 유구 노출 면적 : 약 24,000㎡, 7,260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줌과 아울러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승연)

7) 오산 가장지방산업단지내 유적

가) 위 치 : 오산시 가장동 일원

나) 조사기간 : 2004년 7월 12일 ~ 2006년 5월 11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고려·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烏山市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남부 개발로 인해 신규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佳長地方産業團地 조성부지는 현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오산 세교지구의 남쪽으로 금암리 지석묘군이 사업지구 북쪽에 인접해 있다. 또한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유적 및 필봉유적 등 백제시대 관련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고고학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佳長洞유적의 지표조사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 京畿道 烏山市 佳長洞 46-1번지 일원 451,090㎡(약 136,000평)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굴조사는 2004년 7월 12일에 착수하여 동년 12월 14일에 완료하였으



조사지역 전경(A+B지역)

며 조사결과 3개 지점에서 無文土器와 豆形土器片이 출토되어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지도위원회의 결과, 기존의 시굴지역(A지역)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구릉 북쪽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시굴조사를 병행하기로 결정되었다. 2005년 6월 17일 시굴지역(B+C지역)에 대한 1차 지도위원회의와 동년 8월 2일 중간검토회의, 8월 31일 발굴지역(A지역)에 대한 2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시 12월에 B지역(18,500㎡, 약 5,596평)에 대한 3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구상유구, 고려·조선시대 분묘군 등에 대한 학술적 자문 및 유적의 향후 처리 방향을 자문받았다.

佳長洞遺蹟은 여계산 남쪽 해발 135m에 이르는 석산의 남쪽 가지능선 일대에 위치하며 해발 80m 내외의 구릉부와 일부 곡간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의 석성산에서 발원한 오산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노적봉(해발 160m) 등 해발 100m 이상의 준봉들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B지역은 전체유적의 북쪽 구릉에 위치하며 능선을 따라 비교적 평탄한 면이 이어지며, 서쪽사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C지역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除土過程에서 8~9개의 소형 곡간이 확인되어 원지형이 많이 훼손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동쪽사면은 경사가 심한 편으로 A지역과는 매우 깊은 谷間을 사이에 두고 있다.

유적의 층위양상을 살펴보면, 구릉의 정상부는 약 10~20cm 내외의 표토 바로 아래에서 풍화암반토가 노출되고 있으나,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며 점차 두터운 퇴적이 이루어져 하단부는 약 150cm 내외의 퇴적토가 확인된다. 퇴적양상은 대체로 경사면 상부에서는 표토 아래 황갈색 사질점토층, 풍화암반층의 순으로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구릉 하단부로 내려가며 대체로 표토 아래 적갈색 사질점토층과 황갈색 사질점토층, 풍화암반층의 순으로 토층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대부분은 황갈색 사질점토층과 풍화암반층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住居址와 溝狀遺構, 土壙, 豎穴 등은 구릉 정상부와 경사면의 약간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기반층으로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풍화암반층까지 굴토하여 造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외에 구릉 경사면 중간부와 하단부에 분포하고 있는 高麗時代 石槨墓와 朝鮮時代 墳墓들은 대체로 풍화암반층에 조성되었다.

調査方法은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기준으로 퇴적양상을 확인하여 조사지역 전체 구릉의 전면제토를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토시 유구가 확인되는 층위까지 제토 하였으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제토과정을 통하여 풍화암반층까지 노출 확인하였다. 곡간부 등 유물 산포지역은 소형 트렌치와 병행하여 Grid를 구획, 층위를 확인하며 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구

B지역에서 표토제거를 통해서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2동, A지역에서 연결되는 구상유구 1기, 토광 및 수혈 26기와 함께 고려시대 석곽묘 3기, 조선시대 분묘 11기 등 총 43기이다.

유구확인 조사가 이루어진 B지역은 전체 시·발굴조사지역 중 비교적 완만한 사면을 형성하고 있는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구는 성격과 시대에 따라 立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정상부와 동쪽사면, 그리고 동남쪽 곡간부 일대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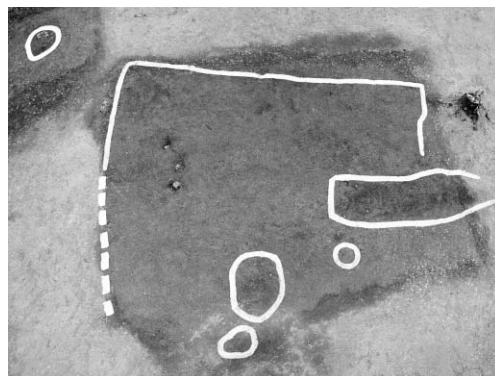


점토대토기 주거군과 구상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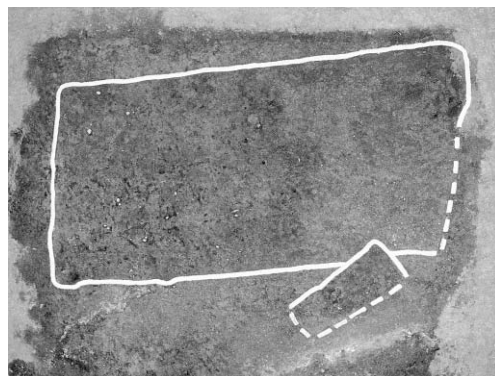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와 수혈은 대체로 A지역과 연결되는 구릉의 정상부에서 확인되며 구상유구는 주거지와 수혈보다 경사면 약간 아래 부분에서 정상부를 에워싸듯 분포하고 있어 유구가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유구 밀집 분포지역과 약 20m의 거리를 두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2호 주거지는 규모에서 타 주거지 보다 대형에 속하며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띠고 있다. 내부조사 전이지만 현재 앞선 주거지군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석곽묘는 2호주거지의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분묘는 동남쪽 A지역과의 곡간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조사, 확인된 상태이다.

2005년 말까지 B지역에서 2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B-1호 주거지는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풍화 암반토층과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기반층으로 하고 있다. 상부의 삭평이 심하여 주거지의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으나 무시설식 爐址로 추정되는 燒土部가 확인되었다. 잔존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523cm, 단축 422cm이다. B-2호 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형을 하고 있으며 풍화암반을 굴토하고 만들어 졌다. 주거지 굴광선 내에서 無文土器片이 일부 수습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시기를 판단할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26호 수혈과 일부 중복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920cm, 단축 470cm로 장축과 단축이 1.96 :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B-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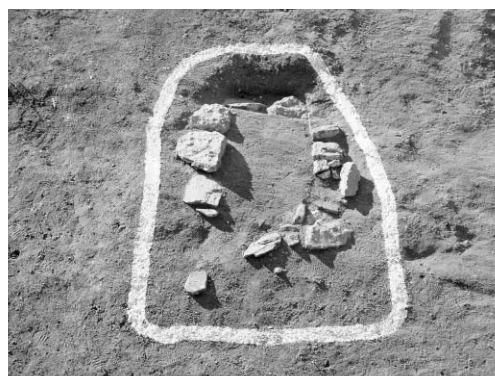


B-2호 주거지

B지역에서 현재까지 분묘유구는 고려시대 석곽묘 3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회곽묘 10기 등 모두 14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석곽묘는 모두 조사지역 북단 동쪽 사면에 연립하여 위치하고 있다. 1호 석곽묘는 잔존 상태가 양호하며 규모는 길이 250cm, 폭 150cm이다. 2호 석곽묘는 하단부가 삭평에 의해 결실되었다. 잔존길이 224cm, 폭 11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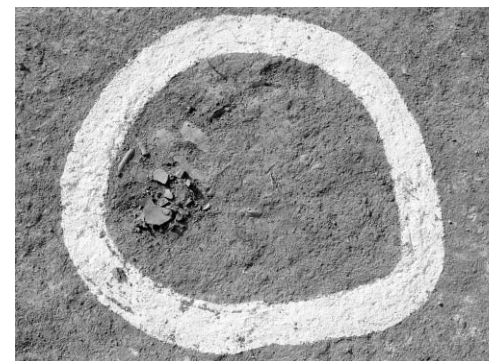
B-2호 주거지와 석곽묘의 배치



석곽묘 1호



석곽묘 2호



21호 수혈유구



21호 수혈유구 유물노출 세부



13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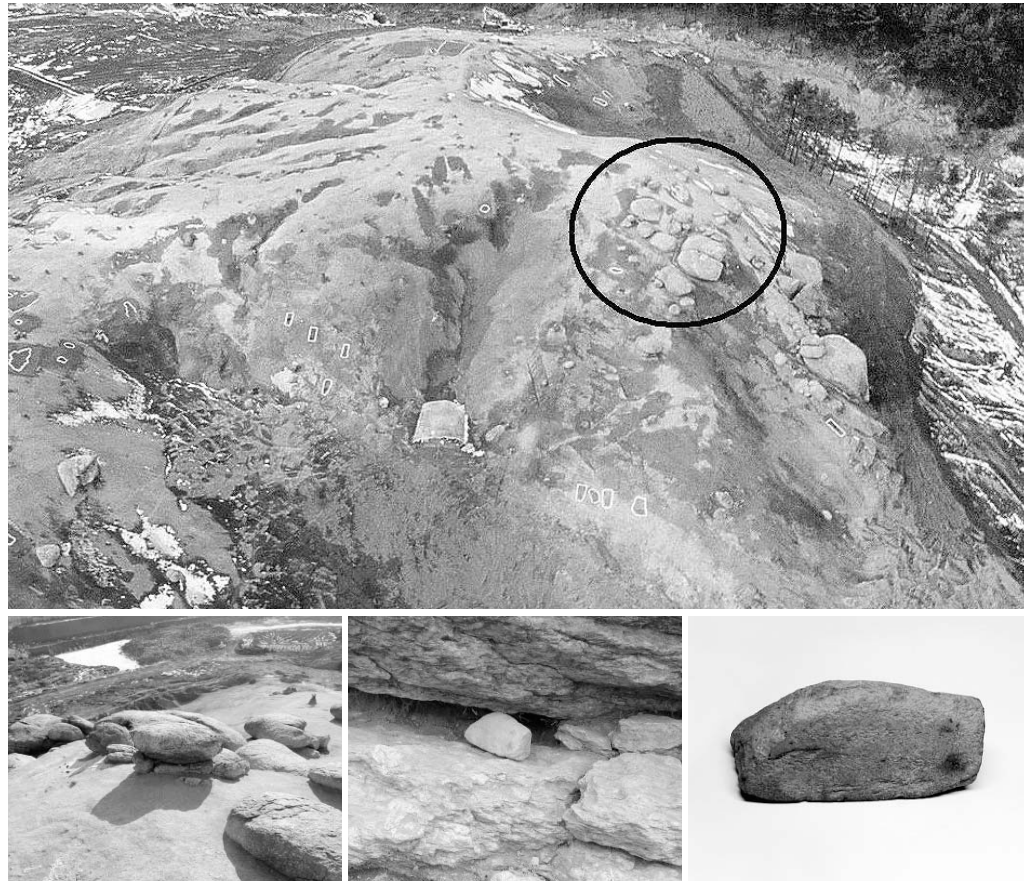
10호 수혈유구

조선시대 분묘는 현재까지 토광묘와 회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주 분포 추정지역은 현재 제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유구 수는 확인 되지 않은 상태이다. 발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분묘 유구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수혈유구는 현재까지 모두 26기가 확인되었다. 규모는 비교적 소형이며 일부 토광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혈유구는 성격과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혈유구의 위치는 점토대토기 주거지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징적인 수혈을 살펴보면 21호 수혈에서는 원형점토대 토기가 거의 완형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13호 수혈에서는 무문토기 저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10호 수혈에서는 도기편이 확인되어 수혈유구의 조성이 동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물

현재까지 본격적인 유구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물의 조합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전반적으로 유구확인 지역의 표토층이 얇아 수습유물도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石斧 1



석부출토 지점 전경 및 세부

점이 주변에 유구가 없는 암석사이에서 단독으로 확인되어 의례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조사성과

鳥山 佳長洞 遺蹟은 京畿道 일대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최근 발견 예가 많아지고 있는 점토대토기 출토유적으로 관련 시기의 학술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점토대토기와 관련한 주거군과 구상유구를 통해 동시기 취락의 구성과 입지 및 편년연구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석사이에서 수습된 석부는 출토위치의 특이성과 용도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의례행위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석곽묘와 조선시대 분묘자료는 당시의 장송의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김재호)

8) 안성 만정리유적

가)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85-3과 일원

나) 조사기간 : 2004년 4월 1일 ~ 2006년 2월 16일

다) 시 대 : 구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이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2002년 2월 23일 ~ 5월 3일까지 실시하여 고인돌 1기, 유물산포지 6개소에 대한 시굴조사를 상정하였다. 시·발굴조사는 2003년 8월 4일 ~ 2004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고인돌 1기의 발굴조사와 함께 6개 지점을 시굴조사 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및 분묘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된 5개 지점과 추가 1개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상정하였다.

발굴조사는 2004년 4월 1일 착수하여 2006년 2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발굴면적은 122,804㎡(약 37,806평)으로 1지점 8,995㎡(2,721평), 2지점 34,623㎡(10,473평), 3지점 31,992㎡(9,667평), 4지점 22,310㎡(7,375평), 5지점 19,799㎡(5,889평), 6지점 5,085㎡(1,681평)이 조사되어 경기도 지역에선 단일유적 중 최대 규모이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를 제외한 고고학적 전 시기에 해당하며, 1지점 4기, 2지점 210기, 3지점 124기, 4지점 67기, 5지점 64기, 6지점 22기와 2·3지점에서 조사된 주혈군 340기 등 총 831기로, 유구별로 보면 구석기 유물포함층,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주거지, 지석묘 및 석관묘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통일신라시대 고상건물지·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군, 분묘군, 고상건물지, 조선시대 주거지군·분묘군 등이다.

1지점에서는 수혈유구 4기만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완전한 탄집과 M1 탄환, 발포된 탄알과 탄피가 발견되었고 각종 철제유물과 연료탄, 미국주화 등이 출토되어 수혈유구의 성격을 짐작케 하는데, 韓國戰爭 당시 사용된 美軍 塹壕 및 관련 시설로 추정된다.

2지점에서는 구석기·청동기·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주거지와 분묘 유구가 확인되었다. 계곡부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형성된 가지능선이 발달한 지형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서쪽 능선을 가구역, 동쪽 능선을 나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역에서는 구석기시대 갱신세층, 청동기시대 고인돌 1기·석관묘 4기·주거지 2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98기, 조선시대 회곽묘 8기·주거지 7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12기, 나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2동·고상건물지 5동,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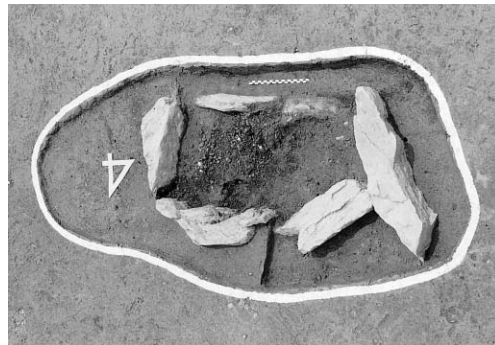
2지점 근경

주거지 5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64기, 조선시대 주거지 11기·야외노지 3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6기, 주혈군(200기)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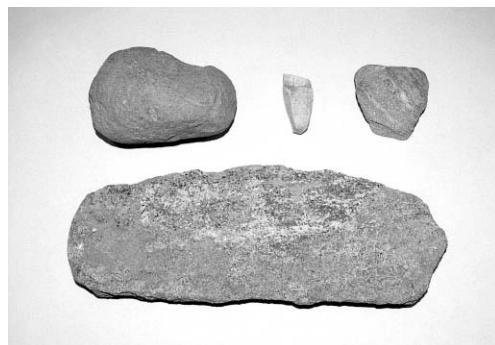
구석기시대 갱신세층은 토양층이 잘 남아있는 북사면에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한 결과, 지표상에서 수습된 석영제 몸돌, 찍개, 긁개, 격지 등의 유물들은 상면의 토양 층이 침식되면서 지표에 노출된 것으로 유물포함층은 이미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역 13구덩 갱신세층 토층 단면



가구역 청동기시대 3호 석관묘(화장묘)



가구역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가구역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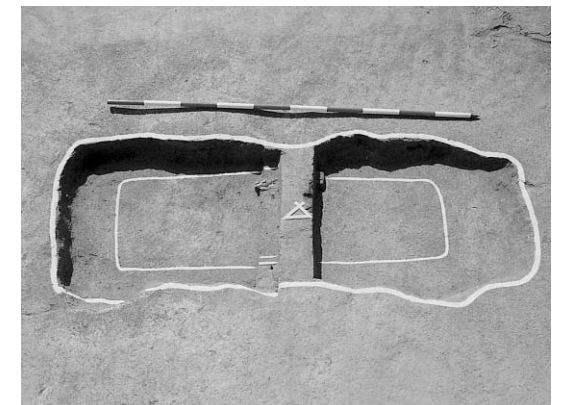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2기·고인돌 1기·석관묘 4기·수혈유구 1기이다. 주거지는 평면형태상 장방형(1호)과 방형(2호), 내부시설에서 무시설식노지(1·2호)와 벽구시설(2호), 저장혈(2호) 등의 특징을 보인다. 유물은 口脣刻目文土器壺(1호), 二重口緣+短斜線文土器甕(2호), 深鉢形土器(1·2호), 鉢形土器(1호) 등의 토기와 갈판(1호), 갈돌(2호), 砥石(1·2호) 등이 출토되었다. 무시설식노지(토광

형노지)가 확인된 곳은 안양 관양동(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화성 천천리(한신대학교박물관, 2002), 평택 현곡리(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평택 소사동(고려문화재연구원, 2005), 안성 반제리(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부천 고강동(한양대, 1996) 등이며, 벽구시설은 화성 천천리, 화성 동학산(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평택 소사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二重口緣+短斜線文土器가 확인된 유적은 부천 고강동, 여주 혼암리, 화성 동학산, 평택 현화리(충북대선사문화연구소, 1995), 평택 현곡리, 평택 소사동, 안성 반제리 등이다. 따라서 주거지는 기원전 12~10세기에 해당하며, 경기 남서부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고인돌은 괴석형 덮개돌과 석곽시설을 한 매장주체부를 가지는 개석식고인돌로, 경기 남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개석식고인돌로는 안성 용두리, 안성 만정리, 화성 병점리, 화성 봉담리, 오산 금암동, 수원 교동, 수원 이의동 등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정식 발굴조사는 본 유적이 처음이다.

석관묘는 화장된 인골이 출토된 화장묘의 존재(평택 토진리 1기), 몇 개의 할석만으로 만든 소형석관, 지석묘와 동일묘역 내에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석묘와 석관묘가 동일묘역 내에서 조합관계를 가지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보령 평라리(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산청 강루리(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진주 내촌리(동아대박물관, 2002), 대구 대봉동(경북대박물관, 1991), 여천 우산리(전남대박물관, 1988), 대전 추목동(충청문화재연구원, 2004) 등으로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묘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에서는 피장자의 좌측 보강토 내에서 삼각형석촉과 三角形靑銅鏃, 一段莖式鐵簇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는데 삼각형석촉은 세형동검기의 청동유물과 공반되며 분묘에 부장되는 의기화된 유물로, 화성 동학산(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안성 반제리(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등의 주거지와 대전 괴정동, 장수 남양리 등의 분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동측은 취락 유적인 합천 영창리(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철촉은 오이도패총(경기도박물관, 2002)에서 출토된 바 있다.



나구역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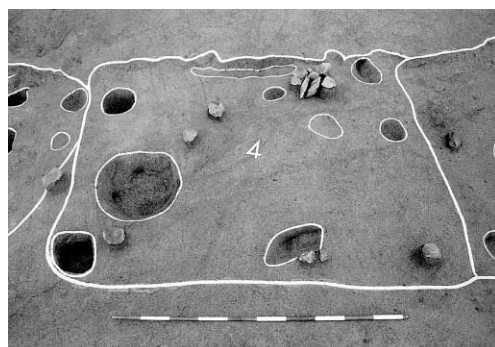
統一新羅時代 住居址 2기와 高床建物址 5동이 계곡을 바라보는 사면의 하단부에만 국한하여 입지한다. 특히 出入口 및 爐址, 排水路를 갖춘 고상건물지는 중부지역에서 흔치 않은 자료로 통일신라시대(8~9세기대)의 주거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나구역 통일신라시대 고상건물지 전경



나구역 통일신라시대 고상건물지 출토유물



나구역 고려시대 3호 주거지



나구역 고려시대 3호 주거지 출토 유물

고려시대 이후의 토광묘는 모두 162기로, 입지는 가지능선 말단부의 남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유물이 출토되는 토광묘는 1)요갱이 설치되고 靑瓷碗·土器瓶·철제가위·鐵錠이 출토된 것, 2)보강토 내에 청동합·청동손가락이 출토된 것, 3)관위 또는 관내에서 유리옥·동곳·청동이식·상평통보가 출토된 것, 4)세장한 二段壙式에서 日本鑄貨가 출토된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곳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던 묘역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조선시대 주거지는 아궁이, 구들, 출입구(단), 저장공, 배수로 등의 내부시설을 갖춘 말각장방형 또는 타원형의 수혈주거지로,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군과 입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주거지에서 모두 구들시설이 확인되어 두 시기 간 구들형태를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된 수혈식 구들시설은 부여 합정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화성 기안리(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화성 구문천리(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용인 보정리(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안성 신소현동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2004)에서 확인되어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연구에 좋은 비교자료로 판단된다.

3지점은 청동기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주거지와 분묘 유구가 확인되었다. 지형은 북쪽 능선 정상부(해발고도 44.3m)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과 계곡부를 끼고 있다. 유구는 대부분 동측 능선 말단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장방형, 원형, 타원형), 고려시대 석곽묘 1기, 주거지 1기, 구상유구 1기, 주혈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회곽묘 1기, 야외노지 4기, 수혈유구 1기, 이장묘 13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101기 등 총 124기와 주혈군(약 140기)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4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형태상 장방형(1호), 원형(2·3호), 타원형(4호)으로 송국리유형이 조사된 것이 주목된다. 내부시설은 무시설식 노지(1호), 작업공(2·4호), 주공(1·2·3·4호), 벽구(2호), 출입시설(2·3호), 배수로(3호) 등이 확인되었다. 바닥처리는 점토다짐 후 불처리 한 것이 2기(1·2호), 점토 다짐한 것이 2기(3·4호)이다. 폐기 원인은 2·4호가 토층상으로 볼 때 바닥층에 이어 목탄층이 부분적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판단된다. 출토 유물은 토기의 경우 무문토기 저부 및 동체부편이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4호에서 심발형토기 완형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2호에서 갈돌, 갈판, 숫돌이, 4호에서 갈돌, 유경식석촉 1점, 석창 2점이 출토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안성천 이북 지역에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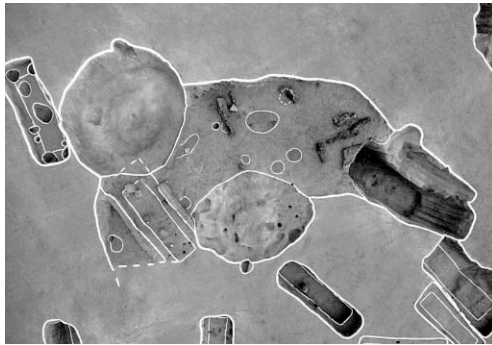
3지점 전경(남쪽에서)



3지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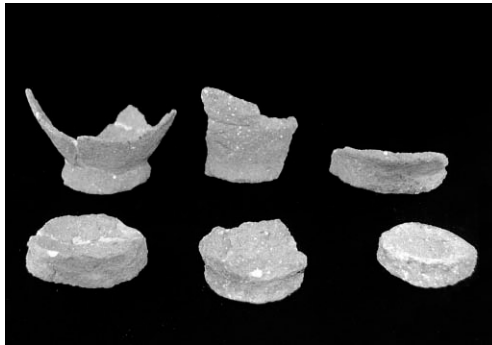
3지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출토 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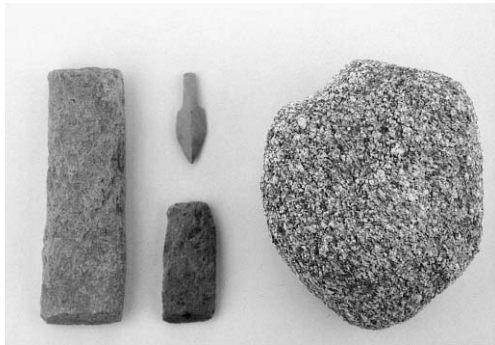
3지점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3지점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출토 심발형토기



3지점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출토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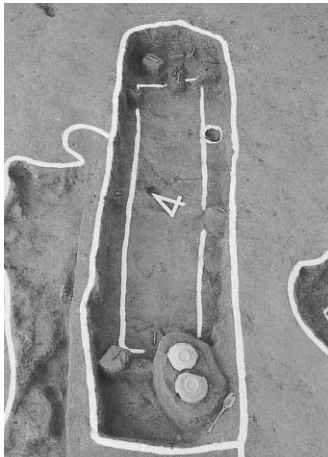
3지점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출토 석기

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점과 4호 타원형 주거지의 출토유물로 볼 때 유물조합상은 송국리 유형에 속하나 공열계 토기인 심발형토기가 공반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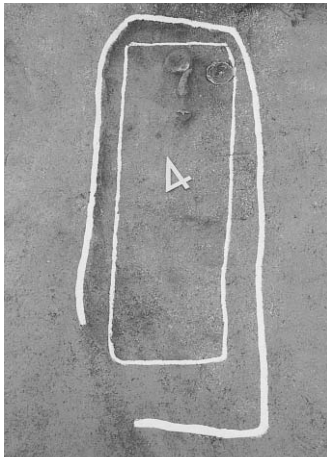
첫째, 현재 안성천 이북에서 확인된 송국리유형 주거지로는 평택 토진리유적과 평택 소사동유적 뿐이며 이 유형의 북쪽 한계선이 한강유역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태상 특성 및 출토유물의 공반관계를 감안하면 최근 조사 예가 급증하고 있는 서해안을 따라 천안·보령·서천-공주·대전-부여-보성강 일대-남강·황강 일대로 연결되는 송국리유형과의 관련성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셋째, 출토유물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열계 심발형토기와 송국리형 유물조합이 전형적인 송국리유형 주거지 내에서 공반되어 출토되는 것이다. 이는 금강 이북의 천안 업성동·대흥리·석곡리, 청원 내수리, 청주 봉명동, 대전 구성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소규모의 주거지유적, 석기는 송국리식이나 토기는 전형적인 유물이 적은 점, 공열계 토기와 공반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는 향후 송국리 유형의 형성 및 변천, 다른 문화유형(혼암리유형, 역삼동유형)과의 관련성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경기도지방의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설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3지점 고려시대 이후 20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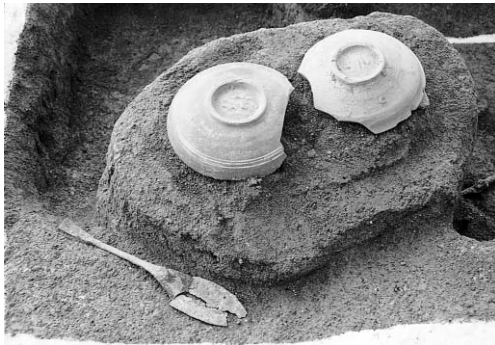


3지점 고려시대 이후 28호 토광묘



3지점 고려시대 이후 54호 토광묘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는 모두 101기로, 입지는 능선 말단부 남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 묘향은 주로 북향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다. 장법은 木棺墓와 直葬墓로 구분되며



3지점 20호 토광묘 유물 노출모습



3지점 28호 토광묘 출토 팔각능형 동경



3지점 토광묘 출토 분청사기



3지점 토광묘 출토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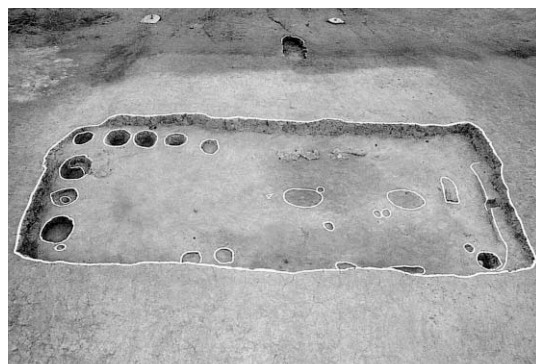
3지점 토광묘 출토 청동순가락



3지점 토광묘 출토 청동합

목관묘가 91기이고 직장묘는 모두 10기로 규모상 유·소아용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목관묘에서만 확인된다. 유물조합은 1) 銅鏡·土器壺(요갱 내)가 출토된 것, 2) 보강토 내에 청동합·청동순가락, 청동순가락이 출토된 것, 3) 청동순가락과 분청사기 완·접시, 백자 완 등 자기류와 세트를 이루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묘군은 이장묘와 회곽묘, 2단굴광식 토광묘 등이 공존하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던 묘역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동일 묘역 내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조영된 대규모 유적은 평택 소사동, 안성 신소현동, 청주 용암동, 청주 가경4지구, 청원 부강리, 논산 원북리, 군산 내흥동, 용인 보정리유적 등으로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의 편년 및 축조방법, 유물부장, 출토유물의 변화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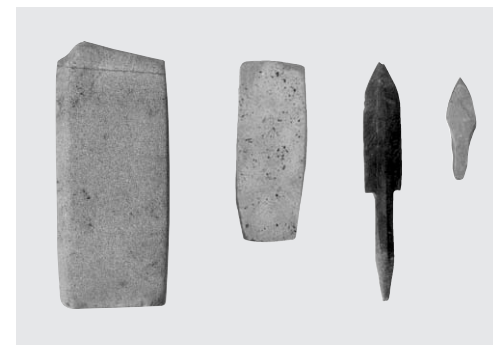
4지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4지점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조선시대 토광묘군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혼암리유형으로 파악되며 공열+단사선문토기유형인 여주 혼암리, 하남 미사리, 강릉 교동, 춘성 신매대교, 아산 군덕리유적과 공열+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유형인 연천 삼거리, 속초 조양동, 강릉 방내리, 천안 백석동, 두정동, 청당동, 쌍룡동, 아산 와우리, 신달리, 갈산리, 명암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주변의 가락동유형(안성 반제리유적) 및 혼암리유형(평택 토진리유적), 역삼동유형인 본 유적 5지점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므로 B.C. 10세기 전후에 해당하는 각 문화유형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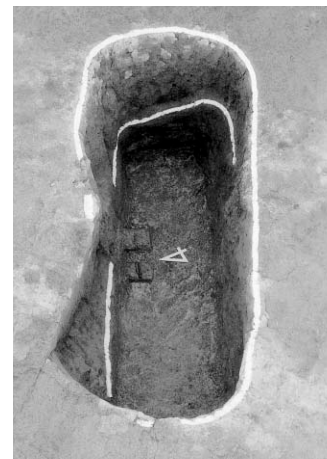


4지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출토 무문토기



4지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출토 석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경기도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된 토광묘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처음 보고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세형동검의 형식분류상 B.C 4~3세기 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공주 수촌리유적 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토광묘의 출토 상황면에서는 부장위치가 허리부분인 점과 병부와 인부 끝부분이 출토되는 점에서 논산 원북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향후 아산만유역 및 금강유역 출토 유물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편년 및 석관묘와의 관계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지점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4지점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출토 세형동검

조선시대 주거지는 모두 3기가 확인되었는데, 아궁이시설을 갖춘 장타원형 수혈주거지로, 既조사된 5지점 주거지들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즉, 조성시기는 5지점과 同一 구릉상에 위치하는 점,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상에서 백자대접과 백자접시는 굽받기 形態와 시유방식에서 동일 수법이 확인되

며, 灰靑色 또는 灰黑色을 띤 자배기, 平底盃, 鉢 등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므로 15세기 중반 ~ 16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지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 출토 유물



4지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 출토 유물

조선시대 민묘는 총 유구수 64기 중 53기가 확인되어 中心遺構로 볼 수 있다. 입지는 완만한 남동사면 및 동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조성시기는 출토 유물의 형식분류 및 부장품 매납방식이 補强土 내인 土壤木棺墓, 횡대를 갖춘 灰槨墓 등으로 보아 15세기 중반~16세기에 해당한다. 금번 4지점의 토광묘를 통하여 각 墓制 類型別 配置樣相, 補强土 副葬方式, 磁器遺物과 靑銅遺物의 조합부장 등과 관련된 시기별 부장공간의 변화 추이 및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5지점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출토 격지

5지점은 舊石器時代遺物包含層을 비롯하여 靑銅器時代 住居址 2기 · 朝鮮時代 이후 土壤墓 28기 · 朝鮮時代 住居址 24기 · 불토펜자리 5기 · 溝 7기 · 豎穴遺構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舊石器時代 遺物包含層은 두 번의 토양째기가 발달된 것으로 암갈색점토층이 두꺼우나 유물은 격지 1점 만이 출토되었다.

5지점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군이 조사되었으며,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역삼동유형으로 파악되며 주변의 평택 지제동 및 현화리유적과 유사하고 비슷한 연대로 판단된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주변의 가락동유형(안성 반제리유적) 및 혼암리유형(평택 토진리유적)의 유적과도 비교연구가 가능하여 청동기시대 중기(B.C. 10~8세기)의 연대 및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주거지는 모두 24기가 규모와 평면형태 및 방향성 등이 유사한 점과, 출토유물의 조합상에서 분청사기와 회청색경질토기, 회색계통 연질토기 등이 모든 주거지에서 공통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주거지간의 시기 차이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궁이와 결합된 구들시설이 3기(11호-석재구들 · 15호-수혈구들 · 17호-점토구들)에서 확인되었는데, 화성 구문천리, 화성 기안리, 용인 보정리유적에서 조사된 바 있다. 연대는 분청사기가 모든 주거지에서 기면 전체에 국화문+점열문+연판문이 조합되어 시문된 것, 상감선문이 중복 시문된 것, 상감선문+점열문으로 시문된 것 등 인화문 또는 상감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어 15세기 중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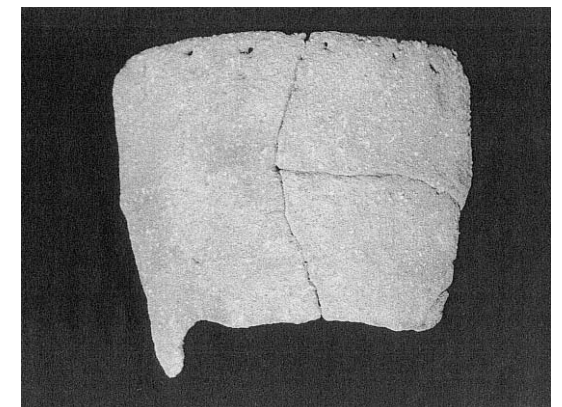
6지점은 초기철기시대 · 고려 ·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합유적임이 밝혀졌다. 특히 6지점에서 발굴조사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이 시대 경기남부 지역의 문화양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구로, 주변의 화성 발안, 수원 울전, 안성 반제리유적과 충청지역인 공주 수촌리, 대전 궁동, 대전 노은동 등에서 확인된 바 있어 유구의 선후관계와 출토유물(흑도장경호, 삼각형 점토대토기)의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6지점 조선시대 유구는 주거지 9기, 토광묘 10기,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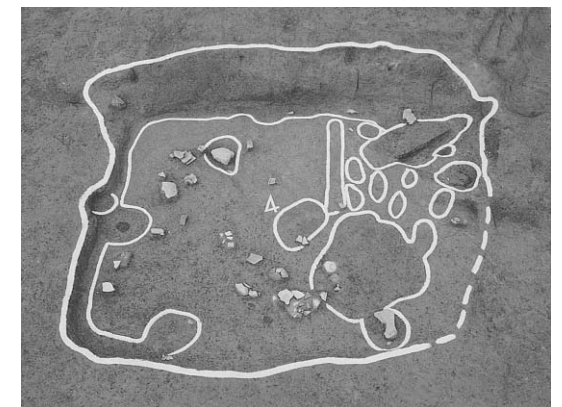
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 장축방향이 동서향, 내부시설로는 아궁이와 단시설, 판석시설(작업대)이 공존하는 점과 출토유물은 모두 분청사기인 점으로 보아 동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



5지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5지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공열문토기



6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된다.

토광묘는 폭이 좁은 순수 토광, 목관, 1단굴광, 2단굴광이 공존한다. 특히 5호 토광묘는 목관 내부에서 철제 요대와 철제 도자가 출토되어 피장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임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는 장축방향이 남서향인 것으로 보아 동일 시기에 조성된 유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1지점 4기, 2지점 210기, 3지점 124기, 4지점 67기, 5지점 64기, 6지점 22기와 2·3지점에서 조사된 주혈군 340기 등 총 831기이다.

마) 조사성과

첫째, 구석기시대 갯신세층의 시굴조사(2·5지점) 결과 안성천 일대의 갯신세층 층위구조가 2개의 토양층기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10만년 이후에 생성된 토양으로 안성천 일대의 낮고 완만한 능선과 사이 계곡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라도 갯신세층의 구석기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동기시대 고인돌 및 석관묘는 묘역을 이루어 확인된 점이 특징적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개석식 및 반수혈의 북방식고인돌이 대부분이므로 향후 조사 예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화장묘에 대한 연대측정을 통하여 실연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전·중기를 대표하는 역삼동식·흔암리식·송국리식이 확인되어 천안·아산·안성·평택지역이 전·중기 사이의 문화적 접이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주변 유적인 평택 소사동, 안성 반제리, 평택 현곡리, 평택 칠괴동, 아산 탕정지구, 아산 기지동, 천안 업성동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문화의 변천 및 접촉현상과 문화상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B.C. 4~1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서부에서 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세형동검-흑도장경호-점토대토기-동촉-철촉-석촉 등 출토유물의 조합상 연구를 통하여 유구의 선후관계 및 매납방식 등 이 시기 매장전통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고상건물지는 경기도에서 처음 발굴조사된 예로 2지점에서 6동, 3지점에서 4동 정도가 확인되었으며, 주혈과 소혈들의 위치로 보아 건물의 중·개축 및 출입시설, 기타 부속시설, 내부시설 등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고려시대 이후 주거지군과 분묘군은 동시기에 권역을 달리하면서 조성된 것이 주목된다. 특히 주거지는 고려시대 이후 구들의 변화상 및 가구구조의 변화연구, 토광묘의 유형변화와 부장품의 매납 및 매장방식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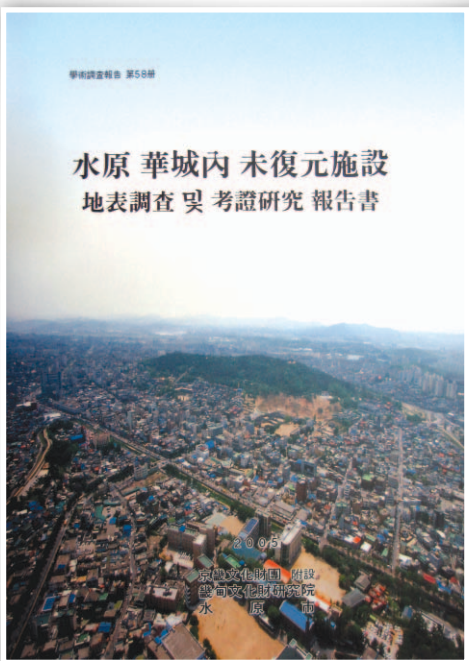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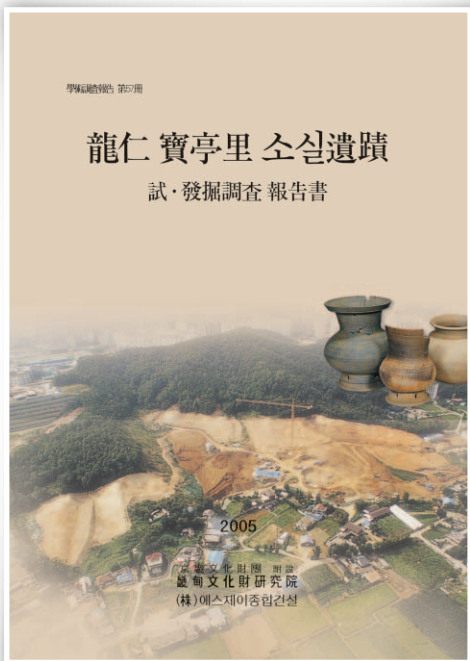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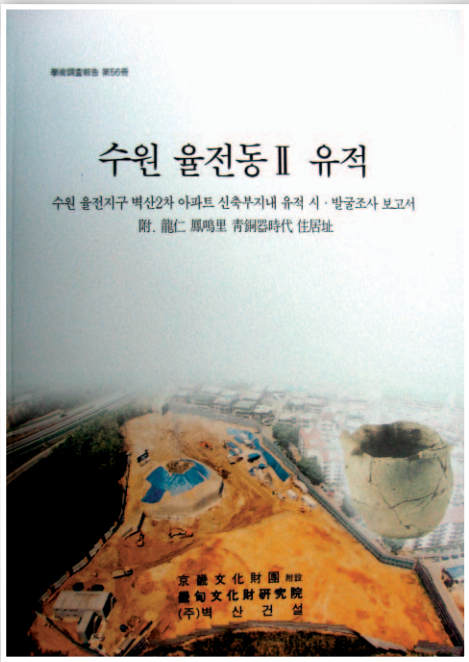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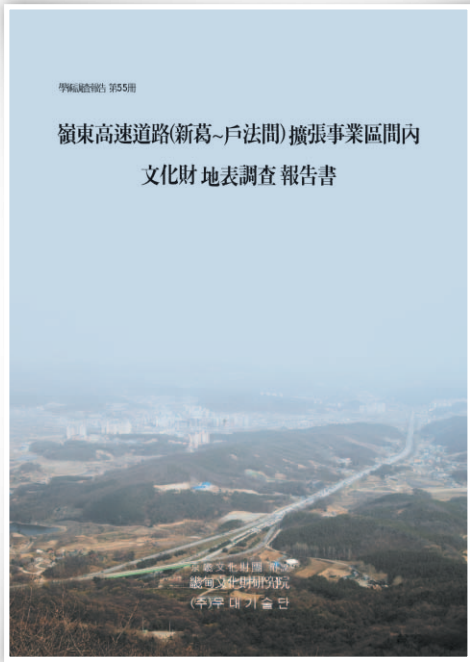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안성 만정리유적은 구석기시대 중기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해당하는 흔암리·역삼동식·송국리식 주거지와 고인돌·석관묘군,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삼각형 점토대토기·흑도장경호가 출토되는 토광묘, 통일신라시대 고상건물지·우물·주거지, 고려시대 고상건물지·주거지·분묘군, 조선시대 주거지군 및 분묘군 등 다양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어 향후 경기 남부지역의 고고학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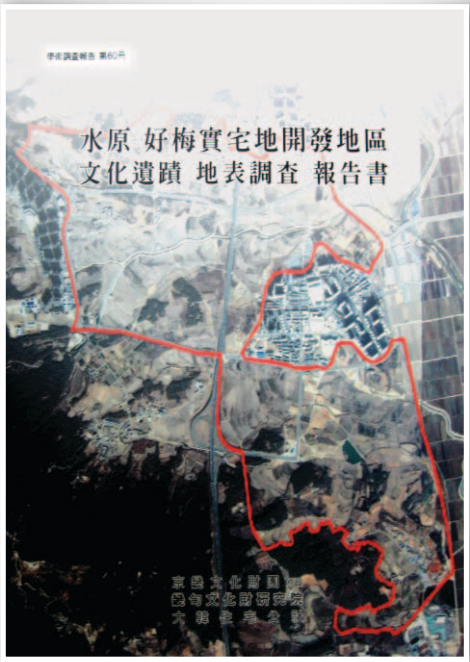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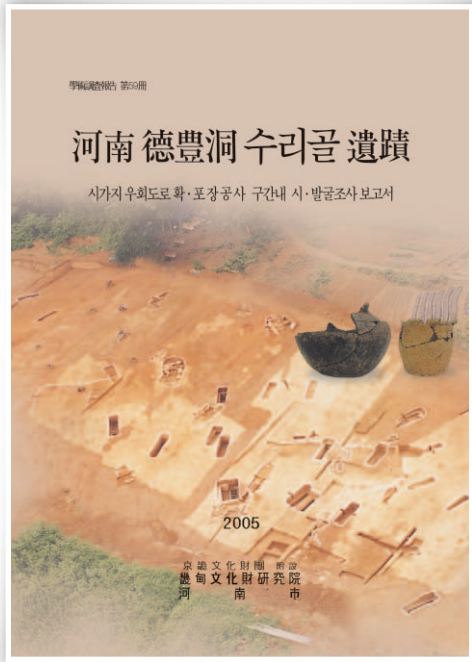
(이동성)

4. 간행물

1)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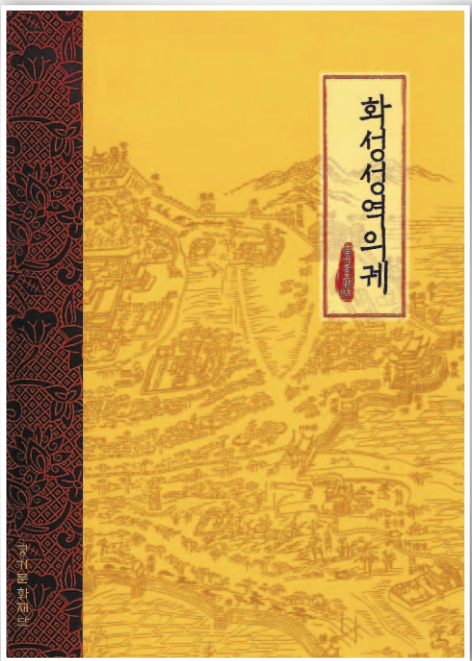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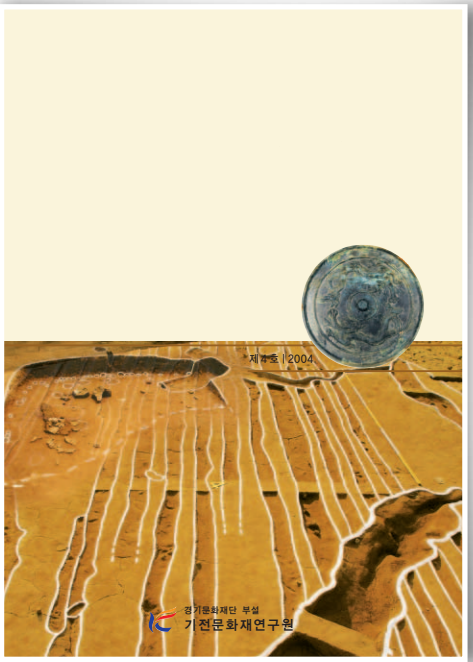
연 번	서 명
45책	龍仁 麻北里 百濟 土墳墓
54책	水原二儀地區宅地開發事業敷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55책	嶺東高速道路(新葛~戶法間) 擴張事業區間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56책	수원 읍전동Ⅱ유적(附：龍仁 鳳鳴里 靑銅器時代 住居址)
57책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58책	水原 華城內 未復元施設 地表調査 및 考證研究 報告書
59책	河南 德豐洞 수리골 遺蹟
60책	水原 好梅實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61책	華城 清溪宅地開發地區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62책	華城 東芝宅地開發地區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 기타 간행물

제4호	畿甸考古
-----	------



華城城役儀軌 국역증보판
漢城百濟 史料研究(漢城百濟叢書Ⅰ)
漢城百濟 考古資料(漢城百濟叢書Ⅱ)

5. 전통문화실 문화재 관련 사업

1)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①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소재 국가지정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활성화 ○ 기획공모지원을 계기로 향후 무형문화재 활동의 자생력 확보 ○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 특성화 전략 모색
사업내용 (요약)	○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대상 공개행사 지원 ○ 기능부문은 연합전시회 및 고려자 고려 개인 전시회 1건 지원 검토
사업기간	2005. 1 ~ 12

② 추진실적

• 공연분야(14종목), 기능분야(특별 지원 포함 4건) 총 18건 120,000천원 지원

종 별	문 화 재 명	보유자	행 사 명	행사기간	행 사 장 소
계			18개 사업		
중요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김순희)	정기공연	5. 5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중요11호	평택농악	보존회(김용래)	2005 파일난장굿	5.21~22	평택시 덕동산 잔디공원
중요29호	서도소리	이춘목	서도소리	10. 4	광명시민회관
중요58호	줄타기	김대균	줄타기공연	8. 13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죽주산성
중요70호	양주소놀이굿	보존회(김병옥)	22회 정기공연	4. 24	양주소놀이굿 놀이마당
중요98호	경기도당굿	오수복	2005년 공개행사	5.21~22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 야외무대
경기8호	승무(살풀이춤)	김복련	김복련의 '연화무'	4. 28	도 문화의전당 소공연장
경기20호	광명농악	보존회(유홍무)	정기발표회	9. 3	광명시 실내체육관
경기22호	고양송포 호미걸이	보존회(조경희)	제2회 고양송포가와 지법씨축제	6~12월	일산 라페스타 공연장, 덕양어울림누리
경기31호	경기소리 - 휘몰이잡가	이성희	휘몰이잡가 및 경기12 잡가, 서도잡가 음반제작	6~10월	-
	경기소리 - 긴잡가	임정자	정기공연 -소리여행	8. 27	군포시민회관
경기32호	송서·율창	이윤희	정기공연	10. 8	동두천시시민회관공연장
경기33호	파주 금산리민요	보존회(추교현)	발표회	7~10월	파주시 특설무대
경기34호	안성향당무	이석동	정기공연	5.25	안성향당무 전수관
경기38호	풀피리	오세철	홍보 음반제작	9~10월	-
경기26호	벼루장	신근식	영춘공예사 특별전시회	수시	영춘공예사 내
경기14호	소목장	김순기	김순기 창호전시	수시	김순기창호전시관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김귀성	회원전	4.14~17	고양시 KINTEX

2) 경기도 전통문화연구 및 콘텐츠개발

① 개요

사업목적	○ 경기도의 전통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 경기도의 유·무형문화재, 민속, 고고미술, 근대문화유산 등의 조사성과를 종합하여 역사문화적 의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계획함
사업내용 (요약)	○ 경기도 각 분야의 전통문화 성과 및 자료정리 ○ 경기도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의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개발
사업기간	2005. 1 ~ 12월

② 추진실적

- 실무기획단 구성(5월) : 외부(4명), 재단(2명)
- 5개 분과(고고, 역사, 민속, 고건축, 고미술)별 콘텐츠 중분류안 작성(7. 28~8. 12)
- 5개 분과별 집필계약과 집필 진행

수 번	분과 구분		집 필 자	
			성 명	소속(경력)
계	5개 분과(26주제)			
1	총 론		공 동 집 필	
역 사 : 3개 분야				
2		과학기술	정성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천문학사
3		분묘와 풍수	이민식	수원시 문화관광과 전문위원
4		역사지리	김종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역사지리
고건축 : 6개 분야				
5		고 가	정정남	경기대학교강사
6		관 아	윤희상	신흥대학교 교수
7		향교와 원우	강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8		사 찰	김왕직	명지대학교 교수
9		누정과 원림	이경미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10		근대건축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고미술 : 5개 분야				
11		금 속	주경미	서울대학교 강사
12		도 자	임진아	홍익대학교 석사
13		석 조	엄기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14		서 화	황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15		공 예	김희수	국립민속박물관 전시기획 담당

수 번	분과 구분		집 필 자	
			성 명	소속(경력)
민 속 : 6개 분야				
16		의식생활	고부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7		사 회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18		세시와 놀이	김지옥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19		신앙과 의례	안혜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20		구비전승	이인경	인제대학교 교수
21		민속예술	허용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고 고 : 5개 분야				
22		생활유적	이승연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23		생산유적	장기훈	조선관요박물관
24		분묘유적	하문식	세종대학교 교수
25		관방유적	백종오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26		구 석 기	성현경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박사

3) 경기도 문화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개요

사업목적	○ 문화재 담당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문화재 체험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습득과 인식제고 ○ 문화재 관련 사업의 대외 홍보 및 관련 정보 공유
사업내용 (요약)	○ 문화재관계자 연수개최 및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문화재관련 학술기관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2005. 1 ~ 12월

② 추진실적

○ 춘계 연수개최(4. 7~4. 8 수원 나프리 리조트 및 안성 공도지구 발굴조사 현장)

• 참석자 수 : 75명(시·군 문화재 담당자)

• 주요내용 및 발표자

구분	주 제	발표자	경력사항
1주제	경기도 석조문화재의 현황과 관리방향	박경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2주제	2004년도경기도 문화재 관리 방향 － 효과적인 문화재주변 영향성 검토방안 등	이창수외 4인	경기도 문화정책과
3주제	경기도의 건축문화재	양윤식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4주제	무형문화재의 효과적인 전승보전	임영주	경기도 문화재위원
5주제	문화재보호법의 변천과 발전방향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 추계 연수개최(11.24~25 용인 한화리조트 및 양주 회암사, 관아지 발굴조사 현장)

• 참석자 수 : 62명(경기도 문화유산해설사)

• 주요내용 및 발표자

구분	주 제	발표자	경력사항
1 주제	문화재의 이해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2 주제	고구려 보루가 아차산에 있는 까닭은?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
3 주제	전통 건축의 개요	윤홍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4 주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와 이해	하문식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답 사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현장 견학 양주 관아지 및 회암사지 발굴조사 현장	박종규 김종현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문화재 관련 학술기관 지원

• (사)고구려연구회 학술대회(4. 29 재단 다산홀)

－ 주제 : 고구려 문화의 원류와 한강유역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학술대회(11. 4~5)

－ 주제 : 발굴문화재와 보존처리

－ 장소 : 경주대학교

구 분	주 제	발표자및토론자	경력사항
1주제	오녀산성 축성법 연구	발표:서길수	서경대학교 교수
		토론:서영일	단국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주제	오녀산성, 환도산성, 국내성 궁전터 발굴의 의의	발표:김왕직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양윤식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3주제	환도산성과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철기의 금상학적 비교분석	발표:박장식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조성석	충남대학교 교수
4주제	고구려남방한계선에 대한 문헌사적검토	발표:김락기	시흥시향토사료실상임위원
		토론:서봉수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5주제	중국 동북지역과 한강유역 출토무기 비교연구	발표:김성태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토론:김영민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6주제	한강유역 출토 고구려 척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발표:유태용	경기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
		토론:박찬홍	고려대학교 강사

- 문화재 관련 학술대회 개최
 - 기문원 연구원 직무교육을 겸한 소규모 학술대회

구 분	강 의 명	강 사			소 속	
1회 7.26	파푸아 뉴기니의 흑요석 석기 사용 예 연구와 국내 흑요석 석기의 사용 체험 및 관련 토론	Nina Kononenko			러시아과학원시베리아 분소 선임연구원	
2회 8.26	발굴 인골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해석	김재현			동아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3회 12.21	수혈주거지의 조사방법과 해석의 주안점	발 표	김권중	토 론	강원문화재연구소/울산문화재연구원	
			권태용		지현병	우리문화재연구원/강원문화재연구소
			김성태		조원창	영남문화재연구원/중원문화재연구원
		사 례 발 표	서 길 덕		기전문화재연구원	
			이 상 업		중원문화재연구원	
			박 경 신		기전문화재연구원	
		종합토론			토론사회 : 정의도(경남문화재연구원)	

- 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 진행
 - 1차(10. 7) : 회암사 발굴조사현장, 2차(10. 14) : 대성리 발굴조사현장, 3차(10. 22) : 남한산성 및 경기도박물관
 - 참석인원 : 총 112명

4) 『기전고고』 발간사업

① 개요

사업목적	○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연보로서 기문원의 연구실적 및 조사내용 정리 ○ 경기지역 문화재 학술조사에 대한 종합전문지적 성격과 수도권문화재 분야의 연간동향을 담은 책자 발간
사업내용 (요약)	○ 기전고고 제4호 발간 및 제5호 기획
사업기간	2005. 1~12월

② 추진실적

- 제4호 발간 및 배포완료(7. 30)
- 제5회 발간계획 확정 및 원고 의뢰(8. 3)
- 제5회 수록 원고 일부 취합 및 원고료 지급(12. 29)/2005년도 기문원 실적 정리

Ⅱ. 2005년 경기지역 고고학계 소식

1. 유적 조사 상황

2. 주요 유적 조사 개요

3. 각종 소식

4. 발간 조사 보고서

1. 유적 조사 상황

유 적 이 름	조사기관	조사기간	의 례 기 관	유 적 성 격	조사면적(㎡)
수원 유통단지조성부지내 유적 조사	경기대박물관	2005.05.25 ~06.21	DCM하우징	유물산포지	9,332
오산 청호동 LG자이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3.07 ~03.26	LG건설	조선시대 주거지	56,351
안성 임광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3.16 ~04.14	임광아파트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 민묘 3기	34,500
양주 금오·마전간 도로구간내 유적 조사		2005.03.29~04.02	양주시청	지석묘	118
양평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4공구 내 유적		2005.08.17 ~11.20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석묘 3기, 적석유구 5기, 석관묘 2기, 구석기유적	13,567
이천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공사부지내 유적 조사		2005.07.18 ~08.20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유적 없음	134,102
양평 개군면 공세리 유적 조사		2005.06.28 ~07.25	양평군청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	3,773
안성 매산리 고분군 유적 조사		2005.03.14~08	안성시청	고려시대 석실묘, 토광묘	
파주 육계토성 유적 조사	경기도박물관	05.07.04 ~10.26	파주시청	백제 토성, 주거지, 수혈유구	18,600
연천 동이리유적 조사		2005.11.20 ~12.27	연천군청	유적 없음	1,000
연천 당포성(2차) 연합 유적 조사	경기도박물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5.11.22 ~50일간	연천군청	관방유적	35,174
구리 아차산 3보루 1차 유적 조사	고려대매장	2005.08.17 ~12.24	구리문화원	관방유적	3,100
양주 고읍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조사	문화재연구소 (現)고려대고고	2005.07.09 ~ 130일간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취락, 조선시대 분묘	42,626
화성 수영리 아파트 신축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환경연구소	2005.06.07 ~ 30일간	(주)케이에이치이	유적 없음	31,417
김포 수안산성 주변 이주단지 내 유적 조사	고려문화재 연구원	2005.02.02 ~ 30일간	김포시청	성곽관련 유구	5,182
안산 신길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조사		2005.02.18 ~ 40일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유물산포지	41,043
파주 덕은리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2.22~2일간	개인	사적주변지역 유물포함층	352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조사		2005.03.15 ~ 60일간	대한주택공사	구석기~원삼국시대 유구, 가마터 등	8,526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부지(1공구)내 유적 조사		2005.04.19 ~ 60일간	(주)서울춘천 고속도로	청동기~백제 주거지 등	8,211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부지내(2공구, D·E지구 내 유적 조사		2005.04.25 ~ 110일간	(주)서울춘천 고속도로	유물산포지	143,708
평택 소사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마지점) 유적 조사		2005.05.09 ~ 25일간	(주)MM건설	유적 없음	14,549

유 적 이 름	조사기관	조사기간	의 례 기 관	유 적 성 격	조사면적(㎡)
파주 덕은리 504-1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고려문화재 연구원	2005.08.18 ~ 7일간	(주)제우파트너스	자연유수층	1,000
파주 군도7호선(통일로·파주리) 도로확포장 구간내 유적 조사		2005.09.05 ~ 5일간	파주시청	청동기시대 주거지	900
가평 청평·현리간 도로건설부지내(B지구) 유적 조사		2005.09.26 ~ 18일간	(주)경남기업	초기철기시대 취락	40,336
평택 오성지방산업단지내 유적 조사		2005.10.25 ~ 65일간	경기지방공사	고인돌군, 유물산포지	94,046
용인 백남준미술관 건립부지내 유적 조사		2005.11.30 ~ 20일간	경기문화재단	백제 토광묘 등	12,87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1지구) 내 유적 조사	단국대매장 문화재연구소	2005.06.28 ~ 20일간	(주)서울춘천고속도로	유적 없음	12,585
이천 설봉산성(6차) 유적 조사		2005.03.17 ~ 60일간	이천시청	삼국시대 산성	3,300
이천 설봉서원 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3.17 ~ 60일간		유물산포지	6,600
안성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조사		2005.03.31 ~ 15일간	안성시청	유물산포지	1,322
여주 상거리 유통단지내 유적 조사		2005.04.14 ~ 15일간	(주)신세계	분묘유적	265,500
이천 설성산성(4차) 유적 조사		2005.05.31 ~ 12일간	이천시청	산성	3,300
안성 망이산성(3차) 유적 조사		2005.07.26 ~ 80일간	안성시청	관방유적	3,300
의왕 ICD진입로 개설공사구간내 유적 조사		2005.06.07 ~ 15일간	의왕시청	유물산포지	1,600
이천시청사 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16~	이천시청	유물산포지	825
파주 문발천 개수공사 부지내 유적 조사	동국대박물관	2005.05.19 ~ 14일간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유적없음	49,829
파주 군도1호선(문발공단·출판단지) 도로확·포장공사 부지내 유적 조사		2005.10.04~			30,186
용인 만골근린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조사	명지대박물관	시굴:’05.09.12 ~11.11	용인시청	수혈유구, 토광묘, 신석기 유구	10,500
		발굴:’05.11.18 ~’06.01.27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수혈유구, 석곽묘, 토광묘	7,400
양주 고읍 IC-고읍 지구간내 유적 조사	명지대한국 건축문화 연구소	2005.04.15 ~ 05.30	대웅건설(주)	추정 양주 고 관아지 였으나 유구없음	540
양주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내 유적 조사		2005.08.05 ~ 09.15	(주)한화건설	조사지역으로 이전된 석재분재 확인 추정 건물지는 조사지역 북쪽으로 추정.	405
하남 춘궁동 451-3번지 일원 주민공동시설 부지내 유적 조사	상명대박물관	2005.07.01 ~ 40일간	개인	유물산포지	3,612
파주 탄현면 갈현리 공장신축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3.29 ~ 45일간	세화엔지니어링(주)	백제 토광묘	9,257

유 적 이 름	조사기관	조사기간	의 례 기 관	유 적 성 격	조사면적(㎡)
시흥 오이도 군사시설 신축부지내 유적(추가) 조사	서울대박물관	2005.05.30 ~ 30일간	제51보병사단	유물산포지	3,463
용인 평창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조사		2005.02.11 ~ 45일간	(주)더뮤지엄양지	유적 없음	48,000
연천 전곡리선사유적지내 화장실 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9.13 ~ 15일간	연천군청	구석기	150
고양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유적 조사	서울역사 박물관	2005.06.17 ~ 60일간	고양시청	건물지	2,575
성남공원 묘원 납골당 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세종대박물관	2005.05.03 ~ 7일간	성남공원	유적 없음	300
용인 창리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1.19 ~ 7일간	(주)나노컴텍	유적 없음	1,000
하남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공사 4차구간 내 유적 조사		2005.06.03 ~ 40일간	하남시청	삼국시대 고분군	1,800
하남 춘궁동 하구관거 시설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07 ~ 5일간	고려개발(주)	건물지 유구	26
하남 춘궁동 303-14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유적 조사		2005.06.09 ~ 20일간	개인	건물지 유구	1,701
과천 주공11단지 재건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28 ~ 11일간	과천주공11단지 재건축조합	건물지 유구	500
화성 쌍봉산 근린공원조성부지내 유적 조사	수원대박물관	2005.01.27 ~ 60일간	화성시청	유적 없음	31,695
고양 서울외곽순환 일산·퇴계원간 도로부지 내 유적 조사		2005.07.11 ~ 30일간	한국도로공사 일산-퇴계원건설사업소	유물산포지	17,161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조사		시굴:’05.03.28 ~60일간 발굴:’05.09.13~	(유)동부디엔시	구석기, 기와류	시굴:6,612 발굴:6,612
용인 경량전철구간내 차량기지창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11.01 ~ 20일간	(주)대림산업	유적 없음	2,952
양주 광적면 덕도2리 도축장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5.04.11 ~ 15일간	태광축산(주)	유물산포지	2,190
포천 운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5.31 ~ 30일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기 가마	1,695
양주 남방·녹양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조사		2005.11.08 ~ 10일간	양주군청	유물산포지	5,000
연천 청산·백의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조사		2005.11.10 ~ 15일간	연천군청	유물산포지	5,236
연천 당포성(2차)연합 유적 조사	경기도박물관 연합발굴	2005.11.22 ~	(주)서광건설	관방유적	35,174
광주 곤지암변전소 건설부지내 유적 조사	조선관요 박물관	2005.03.19 ~ 60일간	한국전력	유적 없음	2,000
광주왕실도예단지조성부지내 유적 조사	중앙문화재 연구원	2005.09.27 ~ 20일간	왕실도예가협회	유적 없음	3000
이천 갈산동 현진에버빌아파트부지내 유적 조사		시굴:’05.12.06 ~12.24	(주)현진에버빌	나말여초 주거지, 수혈유구, 고려 토광묘, 온돌유구	시굴:27,198

유 적 이 름	조사기관	조사기간	의 례 기 관	유 적 성 격	조사면적(㎡)
이천 갈산동 현진에버빌아파트부지내 유적 조사	중앙문화재 연구원	발굴:06.02.01 ~03.02	(주)현진에버빌	나말여초 주거지, 수혈유구, 고려 토광묘, 온돌유구	발굴:1,550
평택 삼계리 공장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12.08 ~12.19	개인	조선시대이후 토광묘, 시대미상 수혈유구	28,981
의왕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확장부지내 유적 조사		2005.12.07 ~12.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적 없음	18,860
용인 하수처리시설(모현) 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12.12 ~2006.01.02	용인시 용인클린워터(주)	유적 없음	45,847
평택 청북·고덕간 도로공사구간내 유적 조사		2005.02.01 ~03.25	경기건설본부 (주)삼웅건설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시대이후 토광묘	4,900
평택 쌍용자동차 2단계 증설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27 ~09.13	(주)쌍용자동차	조선시대 구상유구, 주거지, 수혈유구	시굴:74,500 발굴:12,500
오산 한솔지역 주택조합아파트부지내 유적 조사		2005.04.20 ~07.03	한솔지역주택조합	고려시대 석곽묘, 고려 이후 토광묘, 조선시대 주거지, 시대미상 우물지, 소혈·소성 유구	시굴:37,382 발굴:10,020
안성 장능리 골프장 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10.10 ~2006.05.24	(주)축산개발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온돌, 종각지	시굴:32,500 발굴: 4,500
용인 326호선 학일·고당간 도로확포장구간 내 유적 조사		2005.04.25 ~05.28	경기도건설본부 삼성중공업(주)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시대미상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고상건물지 외	3,300
용인 지방도 317호선 반송·기흥간 도로구간 내 유적 조사		2005.03.23 ~03.28	경기도건설본부 대주건설(주)	유적 없음	7,900
안성·음성 고속도로 구간내 신능리유적 조사		2005.04.11 ~07.09	한국도로공사 경기건설사업소	고려시대 석곽묘, 고려이후 토광묘, 조선시대 화곽묘	12,000
평택 지상탱크 건설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01 ~06.23	한국석유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유적 없음	32,030
고당·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내 유적 조사		2005.04.21 ~11.30	경기도건설본부 대보건설(주)	통일신라 석실묘, 백제 토광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분묘, 기와가마	118,202
여주 가남 C.C 골프장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23 ~10.12	(주)건화엔지니어링	고려시대 청자가마, 토기가마, 가마관련 유구, 고려이후 토광묘	76,780
안성 공도 물류단지조성 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4.27 ~10.28	지비씨앤디	구석기 유물포함층, 시대미상 수혈유구 외, 조선이후 토광묘, 시대 미상, 고상가옥, 주혈	44,106
안성 가사동 개발진흥지구내 유적 조사		1차:04.11.12 ~11.22 2차:05.05.09 ~05.12	안성시도시개발사업소	유적 없음	1차:20,000 2차: 5,000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5.09 ~07.30	평택신도시 개발사업소	삼국시대 주거지, 고려 토광묘, 시대미상 수혈유구	13,500
용인 동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조사		2005.06.27 ~07.16	용인동천도시 개발사업조합	유적 없음	47,382
파주 문산 선유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조사		2005.06.15 ~06.28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유적 없음	12,850
용인 사암리 809-6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부지내 유적 조사		2005.07.19 ~07.26	개인	조선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	6,000

유 적 이 름	조사기관	조사기간	의 례 기 관	유 적 성 격	조사면적(㎡)
평택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구간내 유적(2차) 조사	중앙문화재 연구원	2005.10.11 ~2006.06.07	평택시 (주)한화건설	고려~조선시대 수혈 주거지, 적석유구, 조선시대 구상유구, 토광묘, 화곽묘 외	시굴:53,725 발굴:21,190
용인 하수처리시설부지내 유적 조사		2005.11.04 ~12.06	용인시 용인클린워터(주)	유적 없음	124,560
안성 육군○○부대창설 시설공사 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11.23 ~2006.01.10	육군본부	유적 없음	86,700
이천 갈산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내 유적(2차) 조사		1차:04.11.15~05.07.23 2차:05.10.10 ~06.01.05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나말여초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외	1차:20,810 2차: 8,961
안성 서운·안성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내 유적 조사		2005.11.07 ~2006.06.01	경기도건설본부 (주)대우건설	조선시대 옹기가마, 소성유구, 화곽묘, 나말여초 기와가마, 백제 서곡묘, 백제~조선 토광묘	시굴:20,740 발굴:24,120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조사		2005.10.19~2006.03.13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백제 고분, 옹관묘, 고려이후 분묘, 나말여초 기와가마	32,485
평택 금곡리 건물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10.31 ~11.05	(주)업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선시대 수혈유구, 수혈주거지	21,037
남양주 연평리 물류시설부지내 유적 조사		2005.10.24 ~11.08	삼성전자(주)	유적 없음	23,150
화성 수영리 아파트건설부지내 유적 조사		2005.11.27~2006.02.03	(주)신창건설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 수혈, 토광묘, 나말여초 와요지	13,440
남양주 양지지구 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10.21 ~11.14	(주)셀그룹	유적 없음	133,051
용인 MBC문화동산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7.06 ~10.31	용인시 (주)문화방송	조선시대 분청가마, 도기가마, 분묘, 수혈유구	13,600
양주 덕정2지구 국지도56호선 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조사		2005.08.11 ~09.28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조선시대 숯가마, 건물지	9,214
남한산성 성곽 암문(4), 수구지일대 유적 조사	중원문화재 연구원	2005.04.04 ~ 40일간	경기문화재단	조선시대 이전 유구 확인	800
평택 신왕·도일간(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내 2차 유적 조사		2005.4.13 ~5.27	평택시청	통일신라시대 고상가옥, 저장수혈, 주공 등	
중앙선 복선화사업 제5공구(5.17)내 유적 조사		2005.04.25 ~ 105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생활유적	6,476
용인 현대모비스(주) 마북리 연구소신축부지 내 유적 조사		2005.08.31 ~ 15일간	현대모비스(주)	유물산포지	10,798
안성·음성간 고속도로구간내(양기리, 한운리) 유적 조사		2005.10.21 ~ 34일간	한국도로공사 경기건설사업소	유물산포지	28,462
용인 청계목장 초지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07 ~ 15일간	청계목장(개인)	유물산포지	10,650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 5공구 (5.3.4지구)내 유적 조사		2005.06.08 ~ 18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유물산포지	9,404
화성 반월리 초등학교부지내 유적 조사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5.05.09 ~ 30일간	(주)애경건설	유물산포지	12,875

유 적 이 름	조사기관	조사기간	의 례 기 관	유 적 성 격	조사면적(㎡)
남한산성 행궁지(7차) 유적 조사	토지박물관	2005.03.28	경기문화재단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800
연천 호로고루 2차 유적 조사		2006년 착수	연천군청	관방유적	21,768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1차관로매설부지내 유적 조사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5.01.31 ~ 10일간	한국수자원공사	유적 없음	861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조사		2005.03.30 ~ 200일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사진행중, 청동기시대 건물지, 고려시대 분묘유구, 건물지	490,090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3.30 ~ 230일간	경기지방공사	구석기문화층 조선시대 분묘유구	204,430
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3.31 ~ 40일간	한국수자원공사	유적 없음	19,945
용인 구성택지개발지구내 유적(추가) 조사		2005.07.15 ~ 40일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황혈식 석실묘	72,809
용인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신갈C램프변경구간)내 유적 조사		2005.08.18 ~ 40일간	용인시청	석실, 백제 수혈	17,110
용인 지곡리 531번지 복지시설 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8.19 ~ 5일간	복지재단	유적 없음	4,805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내 유적 유적 조사		2005.08.30 ~ 80일간	평택시청	(일시중지) 신석기 수혈, 분묘	136,000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내 유적 조사		2005.10.21 ~ 70일간	경기지방공사	조사진행중 민묘 40기, 수혈유구, 추정탄요	345,420
하남 춘궁동 494-3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조사		2005.11.07 ~ 3일간	개인	유적 없음	330
경기북부 급수체계조정사업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02 ~ 90일간	한국수자원공사	유적 없음	22,102
용인 보정리 1028-1번지외 근린생활시설조정 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03 ~ 10일간	개인	유적 없음	4,509
화성 백곡리 근린생활시설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6.16 ~ 20일간	개인	당성 인접지역, 백제 수혈, 기와가마, 건물지	8,238
양평 중앙선복선화사업 제5공구내 유적 조사	한국선사 문화연구원	2005.09.26 ~ 15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구석기, 추정 고인돌 등	6,185
국도 37호선 청평·현리간 도로공사부지내 (C지구) 유적 조사	한림대박물관	2005.03.29 ~ 35일간	경남기업(주)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8,000
용인 우림아파트인도설치구간내 유적 발굴 조사	한신대박물관	2005.01.17 ~ 60일간	용인시청	통일신라~조선시대 취락유적	3,564
포천 영송리 삼보산업공장부지내 유적 조사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2005.05.16 ~ 21일간	삼보산업	유구분포 가능지역	13,384
안산 상낙사 신축부지내 유적 조사		2005.02.28 ~ 7일간	상낙사	도문화재 인접지역	1,690
양평 지평우회도로부지내 유적 조사		2005.07.01 ~ 25일간	쌍용건설	강원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에 의함	14,999
시흥 거모동 군부대 대체시설 조성 예정 부지 내 유적 조사		2005.08.04 ~ 30일간	한국도로공사 충부지역본부	유물산포지	26,725
고양 풍동지구 주변도로(310호선) 부지내 유적 조사		2005.08.30 ~ 10일간	대한주택공사	유물산포지	710
수원 권선구 행정타운예정부지내 유적 조사	한양대박물관	2005.07.01 ~ 40일간	권선구청	추정농경유적	56,000
하남 광주향교 수복사부지 유적 조사		2005.08.19 ~ 40일간	하남시청	건물지	480

2. 주요 유적 조사 개요*

1)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

- 가) 위 치 :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 109-1일원
 - 나) 조사기간 : 2005년 3월 14일 ~ 2005년 8월 현재
 - 다) 시 대 : 고려시대
 - 라)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 마) 조사내용
- 고분군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9-1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죽주산성 북치성에서 북서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고분군이 입지한 곳은 비봉산의 북서사면에 해당하며 유적의 남쪽으로는 비봉산(해발 372m)을 등지고, 동남쪽으로는 죽주산(해발 250m)을 바라보는 형세이다. 이 유적은 1997년 안성 봉업사지 1차 발굴조사시 처음 찾아졌으며 1999년 경기문화유적지도를 통해 매산리 장광고분군으로 보고되었다¹⁾. 하지만 발견 당시부터 자연현상과 도굴로 인해 크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인접한 죽주산성과 봉업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봉업사지와 죽주산성, 망이산성의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죽산지역의 중세도시 구조에 대한 복원이 시도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죽산지역 지배세력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 안성 매산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5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발굴조사는 고분의 규모 및 축조방법을 알아보고 부장품을 통해 축조집단의 성격 및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지역은 석실묘²⁾와 석곽묘가 노출되어 있는 능선을 중심으로 I·II 지점으로 구분하였다. I 지점은 유적의 남쪽부에 해당되며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에 자리한다. II 지점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비봉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상면과 사면상에 유적이 분포한다. 이곳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능선 사면에 해당하는 II-1지점과 가지능선의 상면부에 위치한 II-2지점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수록한 자료는 각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개요를 편집한 것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기관에 감사와 아울러 편집자 임의로 내용을 첨삭함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 I, 184쪽.
2) 일반적으로 석실 이상의 무덤에 대해서는 ‘墓’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墳’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분이라는 명칭은 전체시기 또는 어떠한 특정시기의 무덤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세부적인 서

발굴조사 결과 매산리 고분군 고분은 모두 비봉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내려온 주능선의 가지능선에 위치한다. 1~8호묘는 해발 200~205m 사이에 자리하고 9호묘만 해발 225m에 입지하고 있다. I·II-1지점에 위치한 1~7호묘는 능선의 남사면에 축조하였으나 II-2지점에 입지한 8~9호묘는 능선상면에 축조되어 지역에 따른 입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7호묘는 주향이 남향이나 앞에 다른 가지능선이 뻗어 나와 있어 앞으로 시야가 꼭 막혀 있는데 반하여 8~9호묘는 동향하고 있어 일죽일대와 음성방면까지 조망된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1~7호묘가 입지한 I·II-1지점과 8·9호묘가 위치한 II-2지점간에는 뚜렷한 입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은 분포밀도는 지점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I 지점의 경우 석실분을 중심으로 4개의 유구가 중첩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II-1과 II-2지점의 경우 단일묘의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분이 급경사지역에 자리하여 봉토가 모두 유실되고 바닥시설도 남아있지 않았고 대부분 도굴된 상태로 출토 유물의 양이 극히 적다.

현재까지 조사된 매산리 고분군의 유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매산리 고분군 유구 현황

유구명	장축방향	현실규모(cm)	묘 제	출 토 유 물	입 지	비 고
1호묘	남-북	274×130×140	석실묘		능선 남사면	
2호묘	남-북	260×81×83	석곽묘		능선 남사면	
3호묘	북동-남서	146×80×43	토광묘	청동 발, 청동 손가락, 동곳	능선 남사면	
4호묘	북동-남서	120×68×65	토광묘		능선 남사면	
5호묘	남-북	200×84×80	석곽묘		능선 남사면	
6호묘	남-북	190×90	석곽묘		능선 남사면	
7호묘	남-북	290×88×85	석곽묘	관정	능선 남사면	
8호묘	동-서	277×120×86	석곽묘	호, 청자 발, 청자 병, 청자 접시, 청동 손가락, 관고리, 관장식, 관정	능선 상면	
9호묘	동-서	90×80×81	석곽묘	옹, 호, 흑유완, 고려백자, 인골	능선 상면	
수혈유구1	남-북	157×56×12				용도미상
수혈유구2	남-북	258×110×6				용도미상

1호묘는 석실묘로 벽면축조는 무덤 안쪽 단벽인 북벽을 축조한 후 동·서 양 측벽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생토를 오목하게 경사지도록 처리하였다. 이것은 물이 스며들었을 경우 배수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측벽의 부재로 대형의 석재를 사용한 점이며, 동벽은 1매의 석재만을 사용하였고 서벽은 2단으로 축조되었는데 최하층을 대형의 석재로 조성하였다. 개석 또한 대형의 판석형 석재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축조방법이다.

석곽묘는 총 6기로 2·5·6·7·8·9호묘에 해당된다. 2·5·6·7호묘는 급경사에 위치하며 ‘L’자형으로 굴광한 후 벽체를 구성하고 바닥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석곽묘는 굴광의 20~30cm 안쪽에 측벽을 세로쌓기와 가로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으나 주로 가로쌓기를 사용하였다. 석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2·5·6·7호묘는 급경사지역에 조성되어 남벽이 유실되었으므로 출입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석곽묘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급경사지역에 축조된 것으로 보아 추가장의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인근의 용인 좌항리 고려고분군³⁾과 용인 마북리 고분군⁴⁾의 석곽묘와 유사하다.

8호묘는 다른 석곽묘와 달리 내부 공간이 넓고 동벽에 출입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횡구식석곽묘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시설은 별도의 바닥시설을 만들지 않았고 암반층을 평평하게 조성하였다. 바닥면에서 관고리 4점과 100여점의 철정과 기타 철제유물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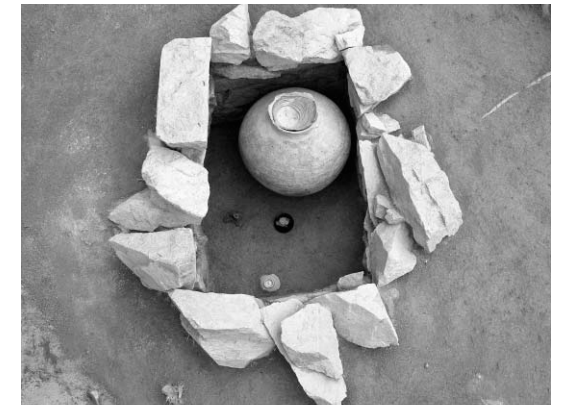
9호묘는 다른 석곽묘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석곽묘의 축조방법은 각 측벽 내면에 다른 측벽이 접하도록 조성하였다. 벽체는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동벽에서만 세로쌓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옹 안에서 인골이 출토되고 있어 관 대신 옹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무덤 가운데 석곽 안에 옹관을 사용한 예는 보고된 바가 없어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토광묘는 2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I 지점의 석실묘에 접해 조성하였다. 3호묘는 선단부 연미형의 청동제 손가락이 출토되어 하한을 12세기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4호묘는 3호묘와 중첩되어 있고 파괴가 심하며 부장품도 출토되지 않아 조성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8호묘 조사 후 모습



9호묘 조사 후 모습 및 유물 노출 상태

3)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龍仁 佐恒里 高麗墳墓群 發掘調査報告書』.

4) 京畿道博物館, 2001, 『龍仁 麻北里 高麗 古墳』.

이상의 매산리 고분군은 석실묘와 석곽묘, 토광묘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석곽묘는 북벽에 대형의 석재를 2~3단 쌓아올려 축조하였는데 이 같은 형태는 고려시대 경기지역과 충북지역의 석곽묘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⁵⁾이다. 또한 인근지역에서 나타나는 석곽묘의 일반적인 구조이외에 횡구식석곽묘와 석곽 안에 옹관을 사용한 석곽옹관묘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I 지점 가Tr.에서 용도 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노출되었다. 가Tr.는 해발 209m의 능선 정상부의 비교적 평평한 지역으로 제토작업 중 암갈색 사질토의 굴광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유구의 상면은 완전히 유실되었으며 바닥면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유물

- 토기류

매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유물은 2호묘의 외곽에서 병의 견·경부편과 8·9호묘의 내부에서 호의 저부편 및 옹 등이 출토되었다.

2호묘는 크게 훼손되어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곽묘의 남쪽 퇴적층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청자 잔탁편과 함께 수습되었다. 유물은 병의 경·견부편으로 추정되며 두께는 0.8cm로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외면에는 예리한 도구로 3줄 이상의 파상문과 여러 줄의 횡선을 그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유물은 청자접시와 함께 출토된 점과 파상문이 정교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⁶⁾의 것으로 판단된다.

8호묘에서는 동벽과 인접한 곳에서 회색 연질토기 저부편이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수습되었다. 연질토기의 바닥은 편평하고 동체는 약간 벌어져 올라가고 있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을 가해 문양의 대부분이 지워졌으며 내면에는 불규칙 선문이 관찰된다. 내외면의 타날문은 고려시대 토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9호묘에서는 석곽안에서 서북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호의 저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옹이 출토되었다. 옹 안에는 인골이 담겨져 있어 옹관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연은 인위적으로 타격하여 훼손되었으나 일부분은 남아있다. 이처럼 구연을 일부러 훼손시킨 예는 고분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어 훼손행위의 한가지로 보여진다. 구연은 경부에서 수평하게 바라졌으며 바닥은 편평하다. 경부와 견

부의 경계에는 한줄의 돌대를 조성하였고 견부에는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외면에는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0.3×0.3cm 정도의 격자문을 시문하였고 내면에는 불규칙선문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옹의 크기는 높이 60cm이고 최대경이 50cm 정도이다. 최대경은 동체 중상에 있으며 밑지름은 최대경의 1/2로 25cm 정도이다. 경부 지름은 17~18cm이고 구연은 이보다 약 10cm 정도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뚜껑은 호를 깨뜨려서 저부만을 남겨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외면은 자연유가 흘러 부분적으로 유리화되었고 일부는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물레질할 때 생긴 골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크기는 잔존높이가 13.7cm이며 저경은 11.0cm, 두께는 0.5~0.7cm 정도이다.

이처럼 소형의 석곽 안에서 출토된 토기는 형태나 내·외면에 남아있는 문양을 볼 때 고려시대의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공반 출토된 자기를 통해 볼 때 12세기 전반의 것으로 편년된다. 또한 토기저부를 떠단지의 뚜껑으로 사용한 예는 그동안 보고된 바가 없어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 자기류

자기류는 청자 병, 청자 화형발을 비롯하여 고려백자 접시와 흑유완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완형이나, 9호묘 유물의 경우 훼손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호묘 남쪽 퇴적층에서 수습된 청자편은 전이 수평을 이루며 깨진 몸체의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것으로 볼 때 잔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색은 녹색을 띠며 내·외면의 시유상태가 고른 편이다. 태토는 회색으로 매우 치밀하다. 남아 있는 편이 유색과 태토로 볼 때 고급청자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작시기는 매우 작은 편인데다 공반된 유물이 없는 관계로 추정하기 어렵다.

8호묘에서는 청자 화형발과 조질청자계통의 병 1점, 접시 3점이 확인되었다. 청자 화형발은 구연부를 ‘V’ 형태로 오려 6엽을 이루고 있다. 내면에는 구연부에서 1.5cm 정도 내려간 지점에 폭 0.1cm의 가는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지름이 약 5cm 정도로 작고 접지면 폭도 0.4cm 정도로 좁은 편이며, 접지면에는 내화토를 5곳 정도 받친 흔적이 있다. 청자 병은 유색이 녹색을 띠지만 일부 유약이 제대로 흡착되지 않아 무광에 연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외면은 얇은 유층이 구연에서 동체까지 균일하게 있으나 동체 중간 이하는 대부분 박락되어 있어 거친 편이다. 바닥에는 모래가 부분적으로 묻어있어 모래를 받침을 이용하여 소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외면에는 견부 이하부터 대칼로 그어내려 각이 지는 형태로 만들었다. 경부는 내만하는 견부에서 직립했으며 길이는 4cm 정도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외반되었으며 외면에는 두 개의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깨진면에서 작은 기포들이 관찰되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크기는 높이 24cm, 구경과 저경이 8cm 정도이며 두께는 0.5~0.6cm이다. 청자 접시는 몸체가 사선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되었다. 내면에는 내화토를 4곳 정도 받친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깎지 않고 바닥을 편

5) 황정욱, 2001,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29·36쪽.

6) 파상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부나 견부에 화려하고 정연하게 시문되다 불규칙적이고 곡선이 둔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혜선,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저장·운반용 질그릇 연구」, 『한국상고사학보』40, 88쪽).

평하게 처리한 평굽이며 바닥에도 내화토를 4곳 정도 받친 흔적이 있다. 유약은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지만 일부 유약이 제대로 흡착되지 않아 무광에 연갈색을 띠기도 한다. 태토는 회색이며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표면이 거칠다. 함께 발견된 청자 접시 2점은 몸체기형, 굽형태, 번조방법, 유색, 태토 등이 동일한 형태이다. 기형은 몸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곡면이다. 굽은 수직굽이며 접지면 폭이 일정하지 못하다. 유색은 담갈색을 띠고 굽주위를 제외한 전면이 시유되었지만 곳곳이 묻쳐있어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한 편이다. 태토는 산화되어 적갈색이며 가는 사립이 포함되어 표면이 매우 거칠다. 이러한 유물의 주요특징으로 볼 때 제작시기는 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의 자기들 중 청자 화형발은 유색과 시유상태, 태토 등으로 볼 때 고급청자가 생산된 강진 지역의 가마에서 12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면의 바닥과 몸체 하단부에 사용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이루어진 그릇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자 병과 청자 접시는 전반적으로 고르지 못한 유색과 시유상태 등으로 볼 때 조질청자계통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유물은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의 청자와 비교해 볼 때, 평굽의 형태와 유약의 시유상태, 태토의 질 등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⁷⁾. 이에 유물의 제작시기는 대략 12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형발과 같이 사용흔적이 굽 접지면의 가장자리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고급자기와 조질자기가 실생활에서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9호묘 출토 유물 (1.호, 2.옹관, 3.옹관내 인골, 4.흑유완, 5.고려백자)

9호묘에서는 흑유완과 고려백자 접시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흑유완은 몸체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와 만난다. 굽은 직립하였고 접지면폭은 0.4~0.5cm 정도이다. 유약은 검은색을 띠며 몸체 하단부와 굽부분은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갈색을 띤다. 내부에는 사용 흔적이 뚜렷히 남아있으며, 저부에는 墨書의 흔적이 관찰되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고려백자 접시는 몸체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와 이어지며 내저곡면이다. 내면에는 내화토비짐을 4곳 받친 흔적이 남아 있어 포개구웠음을 알 수 있다. 굽은 직립하였고 접지

7) 國立中央博物館, 1990,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면에는 내화토가 붙어 있다. 유약은 청자와 유사한 담록색을 띠며 전면시유되었고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밀하다.

이상의 자기류 중 흑유완은 기형과 유색·시유상태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중국 建窯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고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⁸⁾. 또 백자접시의 기형과 유색, 번조방법 등은 용인 서리 중덕 고려백자요지⁹⁾ III기층 이후에서 출토된 접시와 흡사하기 때문에 11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유물은 대략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류

청동류는 청동 발 1점, 청동 숟가락 2점, 동곳 등이 있다. 이중 청동 발 1점과 청동 숟가락 1점, 동곳이 3호묘에서 출토되었다. 청동 발은 동체에서 구연까지 직립한 형태이며 구연은 외면에 붙었다. 바닥은 편평하고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는 몸체와 굽을 따로 제작한 후 결합한 흔적으로 굽은 유실되었다. 구경은 14.6cm, 높이는 7.3cm, 두께는 0.1cm이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용인 좌항리¹⁰⁾에서 출토된바 있다. 함께 출토된 청동 숟가락은 선단부가 긴 燕尾形이며 병부에 8개의 음각선을 교차하여 새겨 놓았다. 전체 길이는 23.3cm이며 형태는 'S' 자형이다. 동곳은 일반적인 'ㄷ' 자 형태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8호묘에서 출토된 청동 숟가락은 선단부가 삼각형으로 병부에 죽절무늬가 있으며, 측면형태는 'S' 자형이다.

- 기타

이외에 관정과 인골 등이 출토되었다. 관정은 7호묘와 8호묘 바닥면에서 수습되었으며 7호묘는 8점, 8호묘는 101점으로 총 109점이다. 7호묘 출토 관정 길이는 3.2~7.6cm 정도이다. 관정은 못머리가 남아 있는 것이 5점으로 약간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8호묘 출토 관정의 크기는 2.2~13cm 정도로 다양하며, 크게 4종류로 분류된다. 8호묘에서는 관정과 함께 관고리 4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관고리는 능형의 장식이 달린 원형의 손잡이가 못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고리를 포함한 전체길이는 20cm, 고리의 지름은 9~10cm이며, 능형장식의 크기는 7.5×4cm이다.

9호묘의 옹관에서 출토된 인골은 1차적으로 세골된 후 매납되었는데 화장흔적은 발견되지 않았

8) 建窯는 중국의 福建省에 위치한 建陽窯를 말하며 宋代 흑유자기의 유명한 생산지이다(先銘, 1998, 『中國古圖典』, 文物出版社, 275쪽). 이 유적의 흑유완에서 보이는 유색과 기형 등이 일부 遼代 陶磁에서도 확인된다(路菁, 2003, 『遼代陶磁』, 遼 面報出版社, 118·121쪽).

9)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Ⅱ』.

10)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龍仁 佐恒里 高麗墳墓群 發掘調査報告書』.

다. 두개골, 치아, 팔뼈, 갈비뼈, 대퇴부, 다리뼈 등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한 개체분에 해당한다. 두개골은 완형에 가까우며, 치아는 다량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부서진 상태이다. 어금니의 상면은 에나멜질이 많이 마모되었다. 팔뼈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위팔뼈의 경우는 골두가 많이 손상되었으며 척추와 경추의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하지만 갈비뼈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대퇴골은 하부골두와 상부골두만이 남아있는데 두 골두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생전에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가락뼈는 많은 부분이 세골당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발가락뼈 가운데 엄지 중족골은 매우 대형화되어 있는데 이는 대퇴골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아 있는 뼈의 길이로 복원한 신장은 160~170cm 정도이며 성인 남성으로 보인다. 뼈의 굵기나 크기로 보아 영양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인골은 개체수가 많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고려시대 형질인류학적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조사성과

매산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묘제는 석실묘와 석곽묘, 그리고 토광묘로 나뉘어진다. 석실묘는 1기로 대형의 석재를 이용해 축조하여 축조당시 피장자의 신분 내지 경제력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석곽묘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석곽묘의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이외에 횡구식석곽묘와 석곽옹관묘가 나타나고 있다. 석곽은 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나 세로쌓기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토광묘는 2기가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훼손되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3호묘에서 출토된 청동 순가락을 통해 볼 때, 토광묘의 하한은 12세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고분군은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봉토가 완전히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암반층을 이용하여 별다른 바닥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무덤들이 석곽묘로서 매산리 고분군이 형성될 당시 주된 무덤양식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물은 8·9호묘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굴된 상태에서 옹, 호편 등의 토기류와, 흑유완, 청자병·완·발·접시, 고려백자 접시 등의 자기류, 청동 발, 청동 순가락, 관정, 인골편 등이 출토되었다.

토·자기류는 2호묘 외곽 출토 경·견부편의 경우 파상문이 정교하지 못하고 청자편과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8호묘 출토품은 녹유를 시유한 광구병과 저부편 외면에 격자문과 내면에 선문이 타날된 연질토기 저부편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8호묘 출토 자기류는 고급청자와 저급청자가 공반 출토됨으로써 실생활에서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기류의 제작시기는 기형과 유색, 번조방법 등을 살펴보았을 때 대략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기류 중 흑유완은 중국 建窯의 생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9호묘에서는 호의 저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옹이 출토되었는데 내외면의 문양으로 볼 때 고려시대 것으로 보여진다. 9호묘에서 출토된 옹관은 공반유물로 보아 12세기로 편년되어 고려시대 토기 편년의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석곽묘에 옹관을 사용한 석곽옹관묘의 고려 묘제를 처음으로 확인한 점이다. 9호묘의 석곽 서북쪽에서 호의 저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옹관이 발견되었다. 수혈식석곽묘에 옹관을 사용한 예와 뼈단지의 뚜껑을 토기 저부로 사용한 예는 그동안 보고된 바가 없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옹관 내부에 매납된 인골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완전한 1개체분을 이루고 있을 뿐아니라 부장된 유물을 통해 매장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고려시대 형질인류학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넷째, 매산리 고분군의 입지를 살펴보면 능선사면의 급경사 지형에서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석곽묘와 토광묘의 구조가 사용된 반면, 능선상면의 완경사 지형에서는 횡구식석곽묘와 석곽옹관묘 등 특수한 묘제가 나타나고 있어 지형에 따라 축조방법이 차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축조집단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선호하는 묘제에 따라 입지를 달리 하였음은 분명하다. 이 같은 입지에 따른 묘제의 구분은 주변지역에 분포한 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2) 하남 덕풍동 청동기시대 집터·제의유적 및 고분

가) 위 치 : 하남시 덕풍동 산 64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5년 3월 21일~5월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라) 조사기관 : 세종대학교 박물관

마) 조사내용

이 유적은 2002년 6~7월에 이루어진 『공영사업구-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과정에서 처음 찾아졌으며, 그 이전부터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유적의 일부가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지역인 덕풍골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민무늬토기 산포지와 고분군이 확인되었는데, 민무늬토기 산포지의 경우 산 정상부 바위 틈과 그 주변에 민무늬토기조각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유물의 분실 우려가 있어 수습조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고분군도 등산로를 따라 분포하여 도굴 및 훼손된 것이 많았으므로 보존대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민무늬토기가 산포되어 있는 바위를 중심으로 유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고분군의 분포현황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덕풍골 유적은 二聖山의 북쪽지역에 해당하고, 하남시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유적이 있는 산의 지형은 크게 두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동쪽이 서쪽에 비해 경사도가 심하며, 가지능선이 동남쪽으로 뻗어 덕풍골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고분과 청동기시대 집터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등산로와 동쪽 경사면에 주로 입지해 있으며, 일부는 서쪽 경사면에서도 확인되었다. 조사는 산능선의 북쪽 정상부에 위치한 제의유적과 고분군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제의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와 석기조각들이 출토되었고 능선에서는 석실과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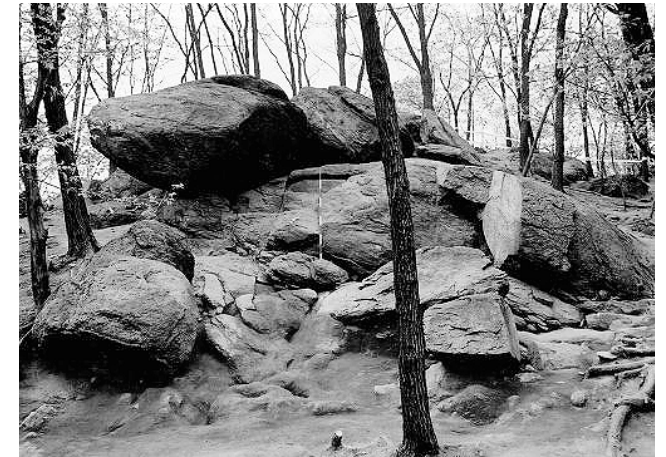
제의유적은 산의 북쪽 정상부(해발 113m)에 위치한 바위이다.

유적은 정상부에 솟은 암반과 그 위에 커다란 3개의 바위가 얹혀 있는 상태이고, 큰 바위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흩어져 있다. 암반은 평면 네모꼴 형태로 솟아 있으며, 큰 바위들은 암반의 가운데와 가장자리쪽에 얹혀져 있는 모습이다.

처음 조사 때에는 바위 남쪽 틈에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조각이 폐기된 상태로 있었고, 바위 주변

에서도 유물이 수습되었다. 조사는 바위의 남쪽면과 경사면을 중심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암반의 남쪽 면에 인공적으로 손질한 3단의 단(段)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바위 틈과 바위 주변에서 민무늬토기와 석기조각들이 출토되었다. 단 시설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단으로



제의유적

여겨지며, 1단은 너비 240cm · 높이 120cm 정도이고 2단은 너비 120cm · 높이 40~60cm이다. 3단제는 바닥이 평편하고 비교적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간 규모가 남-북 130cm · 동-서 250~300cm이다. 2단에서 3단으로 오르는 단 높이는 약 60cm이다.

바위의 규모는 18.0(동-서)×16.0(남-북)×6.0m(남면 기준)이다. 한편 바위의 남쪽 단면부 아래에는 채석한 흔적과 떨어져 나온 큰 바위들이 있다.

- 청동기시대 집터

청동기시대 집터는 모두 4채가 찾아져 2채를 조사 하였고, 2채는 위치만 확인하였다.

1호 집터는 능선 남쪽 사면부의 경사가 조금 급한 곳에 위치하는데 4호 석곽묘가 집터의 북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풍화암반층을 L자로 2단 굴착하여 만들었는데 1단은 경사면을 따라 완만하게 하고, 2단부는 수직으로 깎아 내었다.

전체적인 평면 생김새는 細長方形으로 긴 방향은 능선의 흐름과 같은 동북-서남쪽이고, 규모는 580×200~250×80cm이다. 화덕자리와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배수로로 추정되는 시설과 기둥구멍이 조사되었다.

기둥구멍은 집터 앞쪽(동남쪽)바닥을 따라 7개가 있고,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2개의 구멍은 다른 구멍들과 달리 밖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둥구멍의 평면 생김새는 원형이고 단면은 원추형에 가까우며, 기둥간의 간격은 60cm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기둥 지름은 16~20cm, 깊이는 14~20cm 정도이다.

배수시설은 안쪽 벽면을 따라 바닥을 파서 만들었는데, 일부는 자연암반층과 풍화암반층 사이를,



2호 집터 전경

대부분은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만들었다. 배수시설의 단면형태는 자연암반쪽은 V자형이고, 풍화암반쪽은 U자형이며 전체 길이는 700cm, 너비는 10~20cm, 깊이는 1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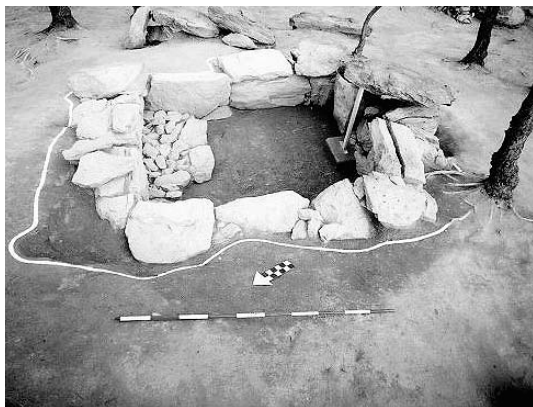
2호 집터는 1호에서 남동쪽으로 20m 정도 떨어진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층을 L자로 2단 굴착하여 만들었는데 1호 집터와 마찬가지로 1단은

경사면을 따라 완만하게 하고, 2단부는 수직에 가깝게 만들었다. 전체적인 평면 생김새는 細長方形이며 긴 방향은 능선의 흐름과 같은 동-서쪽에 가깝고, 집터의 크기는 1,020×300×60cm이다.

기둥구멍과 불탄자리가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집터의 앞쪽과 안쪽 벽면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북벽을 따라서 위치한 구멍의 크기는 지름 14~20cm, 깊이 10~20cm, 간격은 30~80cm이다. 남벽에 있는 구멍의 크기는 지름 20~26cm, 깊이 10~20cm, 간격은 40~120cm로 1호 집터에 비해 구멍의 평면 생김새라든가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상당히 거칠게 만든 예도 있다.

화덕자리로 보이는 불탄자리는 북벽과 동쪽에서 2군데가 확인되었다. 불탄자리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어 단순히 구덩이를 타원형으로 파고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집터의 바닥은 1호 집터와 달리 찰흙을 5cm 정도 두께로 바닥면 전체 걸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1호 석실분

고분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50여 기가 확인되었고, 그중에서 석실분 1기와 석곽묘 7기를 발굴조사 하였다. 대부분의 고분은 외형상으로도 훼손이 심하였고, 부장품도 도굴된 상태였다.

1호 석실분은 평면 네모꼴(方形)이고, 긴 방향이 북동-남서쪽이다. 내부에는 북벽에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고, 남벽쪽에 입구가 있다. 시상대는 다듬지 않은 돌로 1~2단을

쌓았고, 바깥쪽에는 큰 돌을 놓아 밀려 나지 않도록 했다. 입구는 남벽의 가운데에 너비 90cm로 시설하고, 길쭉한 돌을 가로로 3단 정도 놓고 마감하였다.

축조법은 풍화암반층을 파고 다듬은 큰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돌의 다듬은 면이 석실의 내면을 이루고 있다. 벽체는 1~3단이 남아 있는데, 1단은 넓직한 판석을 세웠고 2단부터 두툼한 돌을 얹어 놓았다. 벽체의 1단은 입구쪽인 남벽을 제외하고 각 2기의 판석을 놓은 것이 특징적이고, 돌과 돌이 맞닿는 부분의 빈 틈에는 작은 돌로 채웠다.

석실분의 규모는 최대 크기가 430(남-북)×360cm(동-서)이고, 안쪽 크기는 260(남-북)×240(동-서)×80cm이다.

- 1호 석곽묘

석곽묘는 1호 석실분에서 남쪽으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석곽묘는 평면 긴 네모꼴(長方形)이고, 능선의 흐름과 직교하며 긴 방향이 북서-남동쪽이다. 축조 방법은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판 후 돌을 놓았으며, 크기는 250×170×50cm(북벽)이다.

각 벽면은 2~3단 정도 남아 있는데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벽면의 남아 있는 상태는 서벽이 가장 양호한 편이고, 남벽은 파괴되어 벽면을 이루었던 할석만 일부 관찰된다.

유물

제의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류와 석기류, 자기류가 있는데, 토기류는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와 거친 빗살문이 시문된 민무늬토기, 심발형 토기의 입술조각 등이다. 석기류로는 반월형 돌칼(石刀)과 돌끌 등이 출토되었다. 자기류는 조선시대 백자조각들로 모두가 깨진 상태여서 器形을 알 수 없다.

1호 집터에서는 숫돌류의 석기와 민무늬토기 조각이 출토되고 2호 집터에서는 石劍片과 화살촉, 가락바퀴, 구멍무늬+골아가리 민무늬토기, 민무늬토기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주로 집터의 북서쪽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1호 석실분 출토 토기

1호 석실분 서벽의 가운데 부분에서 개배 3점, 뚜껑 2점 등과 관뭇이 출토되었고 1호 석곽묘에서는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기조각이 찾아졌을 뿐, 오래전에 도굴되어 축조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이 없었다.

바) 조사성과

제의유적은 자연 암반과 바위를 이용하여 남쪽면에 段 시설을 하고,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와 석기 등의 유물을 매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단 시설은 마치 계단처럼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윗단은 평편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 좁은 면적이 아니며, 바위 틈에서 민무늬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집터는 2채가 조사되었는데, 긴 네모꼴로 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기둥구멍이 찾아져 집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탄 목재가 남아 연대측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분은 지표조사를 통해 모두 50여 기가 확인되었고, 그중에서 석실분 1기와 석곽 7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고분은 크게 석실분과 석곽묘로 구분되는데, 지표조사를 통해 능선상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들도 형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고분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유 구 명	규 모	장축방향	출토유물	잔 존 상 태	비 고
1호 석실분	430×360×80cm	북동-남서	개배, 뚜껑 등	시상대, 네벽 2~3단 남음, 입구시설·입구덮개돌 남음	
1호 석곽묘	250×170×50cm	북서-남동	없음	부석시설 있음, 북벽과 서벽 상태 양호	
2호 석곽묘	154×120×50cm	동-서	없음	부석시설 일부 남음, 훼손 심함	
3호 석곽묘	230×150×60cm	북동-남서	없음	부석시설 일부 남음, 벽체 상태 양호	
4호 석곽묘	190×150×40cm	남-북	단지, 개배	부석시설 일부 남음, 북벽과 서벽 상태 양호	청동기시대 집터와 겹침
5호 석곽묘	200×100×22cm	남-북	없음	훼손 심함	
6호 석곽묘	180×120×60cm	남-북	없음	부석시설, 북벽과 동벽 상태 양호	3호 석실분과 인접
7호 석곽묘	230×100×60cm	남-북	없음		

3) 고당-수산간 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가) 위 치 :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백암면 근삼리·백봉리 일원

나) 조사기간 : 2005년 4월 21일 ~ 2005년 9월 27일 현재

다) 시 대 : 삼국시대

라)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늘어나는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에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를 잇는 총연장 16.64km 도로의 신설을 계획하면서 노선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지표조사 결과 11개소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어 2005년 4월 21일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두창리 유물산포지와 근삼리 유물산포지, 백봉리 유물산포지에서 백제 토광묘를 비롯하여 수혈주거지와 기와가마 등이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구가 확인된 3개소 유적 6,480㎡ 범위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두창리 유적에서는 백제초기 토광묘 17기가 확인 조사되었고, 근삼리 유적에서는 통일신라 석실묘 1기와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 토광묘 30기 등이 확인 조사되었다. 백봉리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토광묘 1기 등이 확인 조사되었다.

두창리 유적

두창리유적은 백암면에서 318번 지방도를 따라 원삼면 방향으로 3km 정도 나아가면 남서쪽으로 두창교회 뒤편 능선에 위치한다. 시굴조사에서 백제 토광묘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의 북동편에 위치하는 두창교회는 1970년대에 설립되어 2002년에 개축되었다고 전하는데, 설립시에 다수의 토기가



두창리 유적 전경

노출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두창교회 뒤편 능선 정상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는데, 시굴조사 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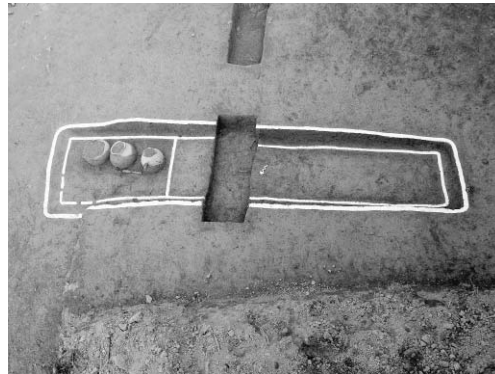
을 주면에 의해 발 부분이 절토된 상태이다. 한편, 유적의 뒤편 능선을 따라 다수의 봉토분이 도굴된 채 노출되어 있어 시간을 달리하면서 무덤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창리유적의 조사 결과 17기의 백제토광묘가 확인되었다.

- 1호 토광묘

조사지역의 서쪽 상단부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은 암갈색사질토층에서 황갈색사질층으로 채워진 내부퇴적토가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15cm, 너비 92cm, 최대깊이 25cm로 평면비가 4.51 : 1로 세장하다. 장축은 북동-남서(N-65°-E) 방향이며,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 단면 조사를 통해 묘광벽에서 12cm 정도의 보강토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동단벽쪽에 별도의 부장공간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주체부와 유물부장공간 사이에는 격판을 끼워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386cm, 너비 71cm 정도이다.

유물은 유물부장공간에서 원저단경호 3점과 철모 1점이 출토되었으며, 매장주체부 중앙부에서 철도자와 불명철기가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두창리 1호 토광묘



두창리 1·2호 토광묘 출토유물

- 3호 토광묘

조사지역의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은 적갈색사질층에서 암갈색사질층의 내부퇴적토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276cm, 너비 94cm, 최대깊이 20cm로 동단벽쪽이 파괴되었다. 장축은 남동-북서(N-65°-W) 방향이며, 등고선과 평행하다. 묘광 상부에서 초승달형의 주구가 확인되었는데, 동쪽 부분이 유실되었다. 단면조사를 통해 너비 72cm 정도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으며, 매장주체부의 서편에 유물부장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매장주체부와는 격벽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유물부장공간에서 원저단경호 5점이 출토되었으며, 단경호 하부에서 경식으로 사용된 구슬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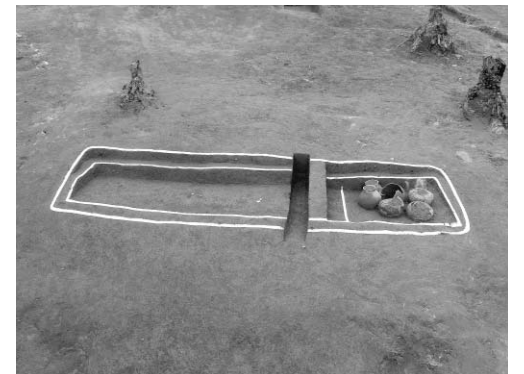
두창리 3호 토광묘



두창리 3호 토광묘 유물노출 모습

- 7호 토광묘

조사지역의 동쪽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은 암황색사질토층에서 황갈색사질의 내부퇴적토로 확인되었다. 묘광은 길이 451cm, 너비 107cm, 최대깊이 43cm로 평면비 4.21 : 1로 세장하다. 장축은 동-서(N-72°-E) 방향이며, 등고선과 평행하다. 단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311cm, 너비 85cm이며, 매장주체부의 서편에 격벽으로 분리된 유물부장공간



두창리 7호 토광묘



두창리 7호 토광묘 출토유물



두창리 1·2·9호 토광묘 출토철기

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유물부장공간의 동쪽모서리에 암반이 노출되었으며, 단경호가 암반위에서 출토되고 있어 암반 부분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유물부장공간에서 원저단경호 6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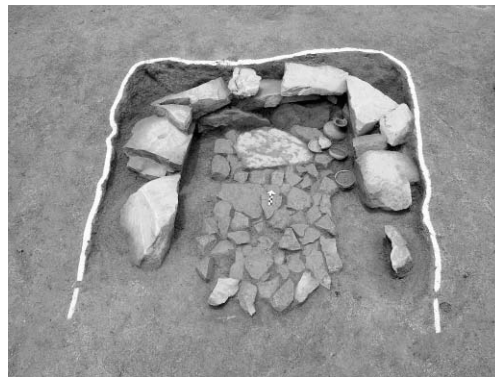
근삼리 유적

근삼리유적은 백암면 소재지에서 329번 지방도를 따라 안성 방향으로 2km 정도 진행하면 근삼리에 이르게 된다. 유적은 근삼리 영곡교에서 동쪽으로 난 시멘트 포장 도로를 따라 나아가면 만나게 되는 구릉으로 청미천을 향해 뻗어 있는 능선상에 위치한다. 능선은 북서-남동방향으로 이어지는 해발 120m 가량으로 구릉의 남사면과 동사면으로 도로가 설계되어 있으며, 시굴조사 결과 토광묘와 기와가마 등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능선의 남사면은 계곡으로 요철이 심하며 동사면은 정상부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구릉의 말단부는 소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작지로 개간되면서 일부 형질이 변경되었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30기, 바닥만이 남은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 등이 확인 조사되었다.



근삼리 유적 조사후 전경



근삼리 유적 석실묘 전경

- 1호 석실묘

석실묘는 능선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등고선에 직교되게 묘광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사면 아래쪽인 남단벽쪽이 유실되어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묘광은 황적색풍화암반층을 잔존길이 175cm, 너비 190cm 정도로 굴착하여 내부에 잔존길이 145cm, 너비 104cm의 석실을 축조하였다. 벽석은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최대 잔존깊이는 42cm이다. 석실 내부에 잔존길이 145cm, 너비 75cm의 시상을 북단벽에 붙여 중앙부에 설치하였으며, 사상과 양장벽 사이에

는 약 15cm 범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시상은 20cm내외의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북단벽쪽에는 50×40cm의 석재를 깔아 상면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북단벽과 동장벽 모서리 공간에서 광구병과 개 2점, 배 1점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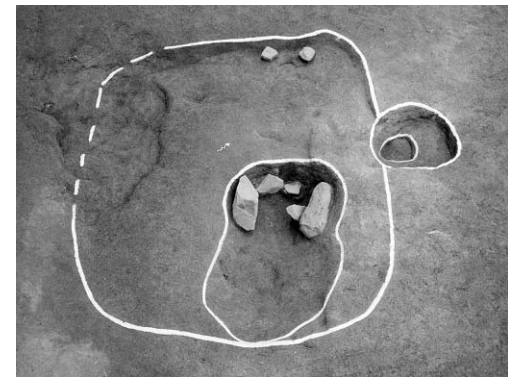
석실묘 유물 노출 전경



토광묘 출토유물

백봉리 유적

백봉리유적은 백암면에서 17번 국도를 따라 죽산방향으로 4km 정도 나아가면 동쪽으로 대우종합기술연구소 방향으로 연결되는 소로와 만나는데, 소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우종합기술연구소 북편에 형성된 구릉에 위치한다. 시굴조사 시 수혈주거지 1기가 확인된 완만한 경사의 동쪽구릉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수혈주거지 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백봉리 유적 수혈주거지 조사후 전경

마) 조사성과

발굴조사 결과 두창리유적에서 백제토광묘 17기가 확인되었으며, 근삼리 유적에서 석실묘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30기, 기와가마 1기, 백봉리유적에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와 토광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두창리유적에서 조사된 토광묘는 장단비가 4 : 1 정도로 세장한 편이며, 관·곽의 구분이 분명하

지 않지만, 한쪽 단벽을 택해 매장주체부와 격벽으로 분리된 유물부장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두창리유적에서 조사된 17기의 토광묘 가운데, 6기에서 상부의 주구가 확인되어 주구토광묘로 확인 되었으며, 나머지 11기에서는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출토유물의 특징은 중서부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의 조합이 보이지 않고, 원저단경호만이 집중 부장되고 있으며, 일부 철기유물이 함께 부장되었다.

이러한 두창리 토광묘의 조사를 통해 중부지방 토광묘 성격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한편, 두창리 고분의 상부에 위치한 석곽분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이 지역 묘제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삼리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묘는 신라의 진출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조선시대 토광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명기들을 통해 당시 매장의례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화성 반월리 유적

가) 위 치 :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263-1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5년 7월 4일~ 9월 8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라) 조사기관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마) 조사내용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263-1번지 일원은 도시계획 관리 결정 부지조성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005년 지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지표조사 결과 구릉 사면에서 조선시대 자기 및 토기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인근 지역에서 조선시대 주거지와 분묘가 발굴조사된 바 있어 지형적으로 조선시대 분묘 및 생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주)에정건설에서는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범위로 설정된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우리 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2005년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30일간의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굴조사 결과 전체부지 12,875㎡ 중 4,000㎡의 범위에서 백제시대 수혈 유구 및 경작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2005년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현장조사일수 총 50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제1지점에 해당하는 구릉 정상부의 1,400㎡에서는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1기,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9기와 구상유구 2기, 조선시대 분묘 2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범위의 서쪽지역에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어 4×4m 크기의 pit 2기를 설치하여 석영제 박편 1점을 수습할 수 있었다.

제2지점에 해당하는 구릉 사면 말단부의 2,600㎡에서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발정작유구 및 유수가 확인되었는데, 경작면 표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굴지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범위의 남동지역에서도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어 5×5m크기의 pit 1기를 설치하였으나, 구석기 유



조사지역 전경

물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발굴조사 진행 중 제1지점에 분포하는 고토양층에 대해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부설 한국고환경연구소에 OSL 연대측정을 의뢰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및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에서 수습한 목탄시료에 대해서는 미국 Beta Analytic Inc.에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2지점 발경작유구 및 유수로의 지형에 대해서는 (주)위프코에서 3D digitizing 작업을 실시하였고, 발경작층에 대한 Plant Opal 및 철제유물 분석은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부설 한국고환경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유적에 대한 항공촬영은 상산문화유적발굴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출토 유물은 광파측정기 Topcon 350과 측량소프트웨어 Survey Pro V.2로 수습된 위치에 대한 3차원 좌표를 기록하였다.

제1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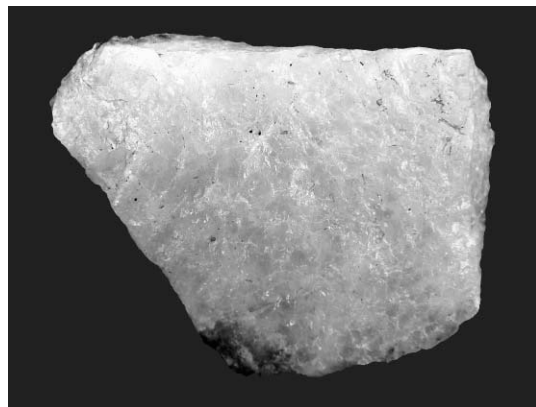


제1지점 전경

제1지점은 해발 40m(상대고도 약 15m)의 낮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과 서쪽은 현재 도로에 의해 현상변경이 이루어졌다. 시굴조사 결과 고토양층 및 수혈유구의 분포가 예상되었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1기,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9기와 구상유구 2기, 조선시대 분묘 2기가 확인되었다

- 고토양층

반월리 유적에서는 낮은 구릉을 사이에 두고 1지점과 2지점에서 모두 구석기시대 퇴적층이 사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지점에서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구석기시대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다만 시굴조사 때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계획은 유보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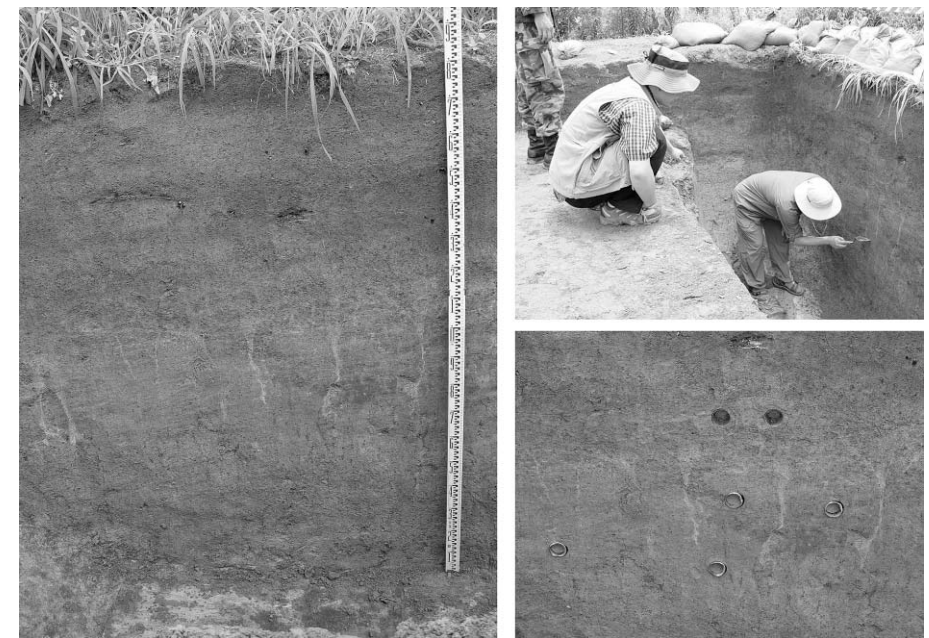
고토양층 탐색 1pit 출토 박편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며 백제 및 청동기시대 유구 조사를 진행시켰다.

일단 시굴트렌치 상에서 확인된 퇴적 단면의 양상을 통해, 구석기시대 퇴적층이 국지적으로 다양한 두께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시굴트렌치 상 깊은 곳은 2m를 넘고 있다. 퇴적층은 먼저 표토 아래 갈색층이 있는데, 이 층의 분포는 상당히 국지적이다. 그 아래 황갈색 사질점토층이 있는데, 시굴트렌치 단면에서는 두께가 약 20cm에 이른다. 이 황갈색점토를 모층으로 이른바 토양썰기가 발달하고 있다. 토양썰기는 초콜렛색이 나는 점토층에 형성되어 있다. 트렌치 하부는 황색의 점토층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시 연대측정(OSL) 샘플을 확보하였는데, 주로 토양썰기 상하에서 샘플을 채취하였다.

백제 및 청동기시대 유구를 확인하던 중 구석기시대 박편을 수습함으로써 구석기유적 조사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 두 개의 4×4m 발굴구덩이를 구획하였다. 그러나 실제 발굴 조사 시에는 단 한점의 박편을 제외하고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 이 한점의 석영암제 박편은 토양썰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층의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구석기시대 퇴적층이 존재하는 곳에는 시굴트렌치, 시굴조사 시 3×3m 구덩이 두 개, 그리고 발굴조사 시 두 개의 4×4m 구덩이를 발굴하여 많은 부분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석기시대 퇴적층은 유물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적 조사가 초등학교 부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넓게 조사하였다면 좀더 명확한 유적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



제1지점 분포 고토양층(좌) 및 OSL 시료채취 모습(우)

단된다.

2지점에도 현 백제시대 층 아래에서 구석기시대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1지점과 마찬가지로 백제시대 경작유구에 접하여 5×5m의 발굴구덩이를 구획하여 발굴하였으나,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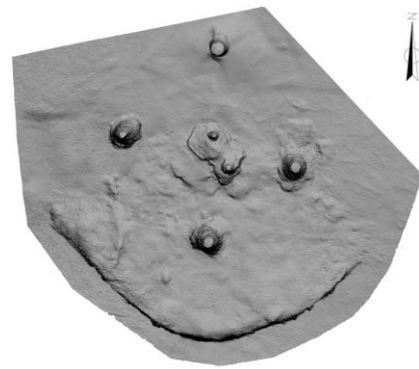
-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조사범위 최북단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주거지는 작업공을 중심으로 4개의 기둥구멍이 위치하는 형태이다. 구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남벽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평 혹은 침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깊이는 대략 10cm 내외이며, 4개의 기둥구멍의 깊이는 약 40~50cm이다. 주거지 내부 퇴적토는 백색조 혹은 밝은 갈색조의 점질토(10YR 7/2~7/6)인데, 점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둥구멍 내부에서는 소량의 목탄이 수습되어 미국 Beta Analytic Inc.에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잔존하고 있는 남벽과 4개의 기둥구멍 위치를 토대로 추정되는 주거지의 면적은 약 6.5평(21.23㎡)이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송국리형 토기의 저부 및 흉도, 다량의 무문토기편, 석제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송국리형 주거지(남쪽에서)



송국리형 주거지 3D digitizing 도면(S=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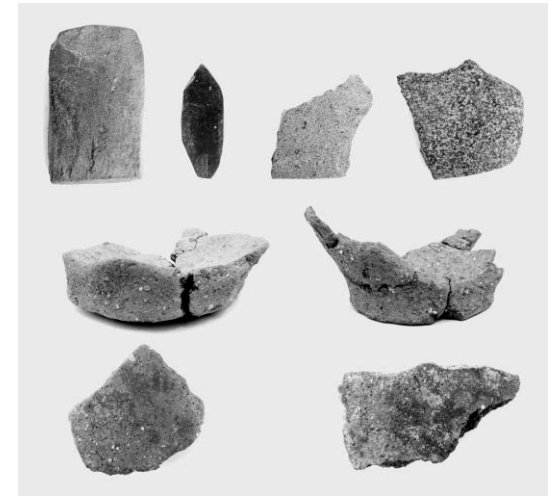
-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동지역에서 8기, 그리고 고토양층 및 구상유구가 분포하고 있는 북서지역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북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1호 수혈은 직경이 103cm, 깊이가 17cm로 다른 수혈유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이며 깊이도 매우 얇고,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나머지 8기의 수혈이 모두 풍화암반토 혹은 풍화암반잔적토를 기반으로 굴착되었던 반면, 1호 수혈은 위치상 고토양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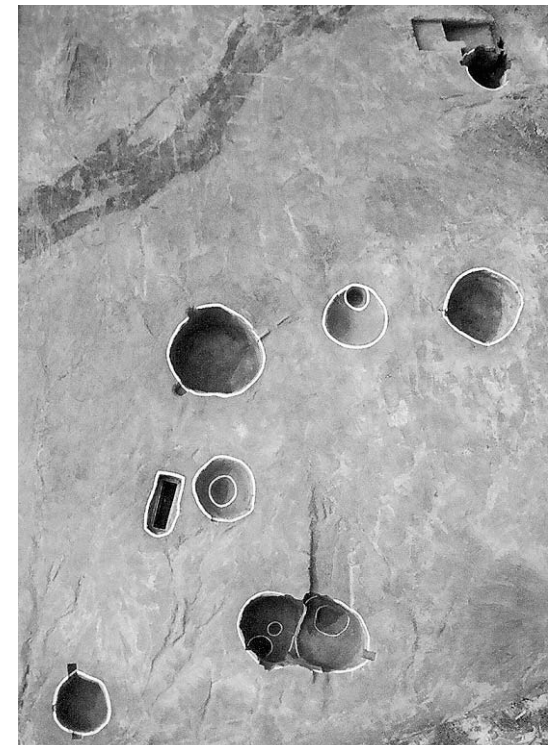
착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적으로 현재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는 제1지점 서쪽지역에는 1호 수혈 및 구상유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혈계 유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동지역의 수혈은 조성계획단계에서 대부분이 단면 플라스크형으로 의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폐기 이후 수혈의 상단부가 붕괴되어 잔존양상은 단면 원통형에 가깝다. 이 중 5호 및 7호 수혈의 단면은 U자형으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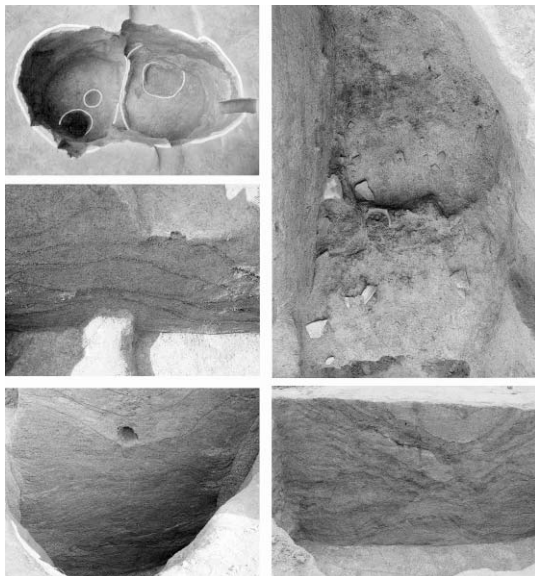
수혈의 내부에는 다량의 풍화암반잔적토가 퇴적되어 있어 폐기 이후 수혈 상부의 붕괴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주목할 점은 모든 수혈의 내부에서 목탄을 다량 함유한 흑색 혹은 회흑색의 점질토층이 관찰되는데, 단일한 수혈내에서 2~3개 층이 존재하고 있다. 수혈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 흑색 혹은 회흑색 점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흑색 혹은 회흑색 점질토층을 제외한 내부 퇴적토(풍화암반잔적토 혹은 적갈색 사질점토가 주류를 이룸)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그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마모 정도가 심하고 복원 혹은 접합율이 매우 낮다. 반면 흑색 혹은 회흑색 점질토층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복원율(접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토층의 퇴적에 인위적인 행위 혹은 의도가 수반되었을 것으로도 추정해 볼 만하다.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출토유물



제1지점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세부
(좌상)3호 및 4호 수혈 평면, (우상)4호 수혈 유물 출토 모습
(좌중)2호 및 4호 수혈 인접부분 층위 양상 및 잔존 벽면
(좌하)9호 수혈 층위양상, (우하)6호 수혈 층위 양상

사용외 시점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며, 백제시대 토기편이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적갈색연질토기 장란형토기편 및 심발형토기편, 회색연질토기 개배 및 호류, 회청색경질토기 개배, 고배, 호, 용류편 등이 수습되었다. 개배 및 고배 등 토기들의 형식학적 특징으로 볼 때, 토기의 제작 및 사용시점에 대한 중심연대는 대략 한성백제Ⅱ기에 해당하며, 원형수혈의 조성 및 사용시점 역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출토 고배·개배·뚜껑

특히 3호 및 4호 수혈은 동서로 인접해 있는데, 인접한 벽은 하단에만 약 30cm 내외로 존재한다. 내부퇴적토의 양상에서는 인접한 부분의 퇴적의 단절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부의 회흑색 점질토층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서로 접합되기 때문에(평면적으로 3호 및 4호 수혈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서로 접합됨), 폐기 당시 이 두 수혈은 연결된 상태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두 수혈의 바닥에서는 약 10~15cm 깊이의 소형 수혈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4호 수혈의 바닥에서는 완형의 회색연질토기 뚜껑이 수습되었다.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에서는 무문토기편 및 석부도 출토되었으나, 이는 폐기 혹은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편

제1지점 백제시대 원형수혈유구 규격 및 평면형태 (직경은 바닥을 기준으로 함, 단위 m)

	1	2	3	4	5	6	7	8	9
직 경	1.03	2.14	2.56	2.44	1.14	3.52		2.54	2.46
깊 이	0.17	0.84	1.9	2.04	0.9	1.78	0.72	1.76	2.9
단면형태	플라스크형	플라스크형	플라스크형	플라스크형	U자형	플라스크형	U자형	플라스크형	플라스크형

- 백제시대 구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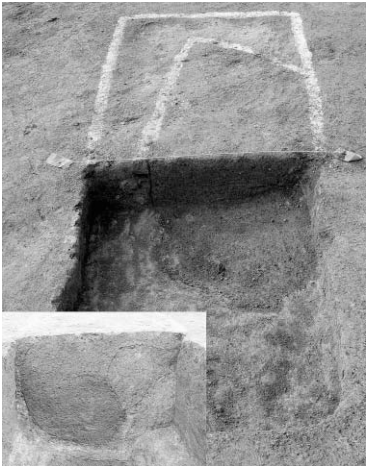
구상유구는 제1지점 남서쪽에 분포하며, 1호는 남북, 2호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고 있다. 폭은 대략 50cm 내외이며, 깊이는 5~10cm 가량 된다. 이 두개의 구상유구가 연속적인 평면이었을 것으로도 추측되나, 구체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내부에서는 소량의 무문토기편과 백제시대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백제시대 구상유구(사진 아래가 동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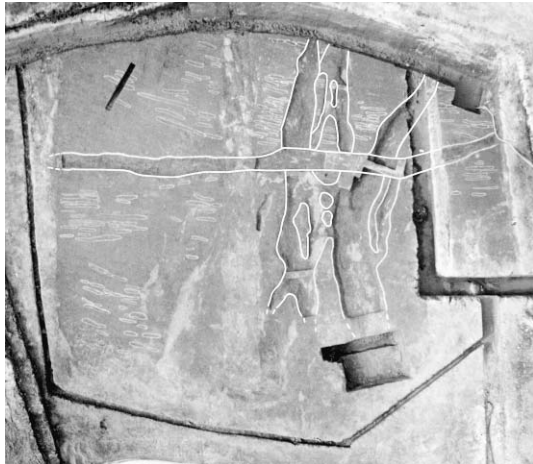
- 조선시대 민묘

조선시대 민묘는 2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후대의 도굴로 인해 파괴된 회곽묘이다. 1호 회곽묘의 크기는 80×210×60cm이고, 2호 회곽묘의 크기는 90×220×195cm이다. 회곽묘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인골편들만 확인되었을 뿐 유물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민묘 파괴모습(상: 2호묘, 하: 1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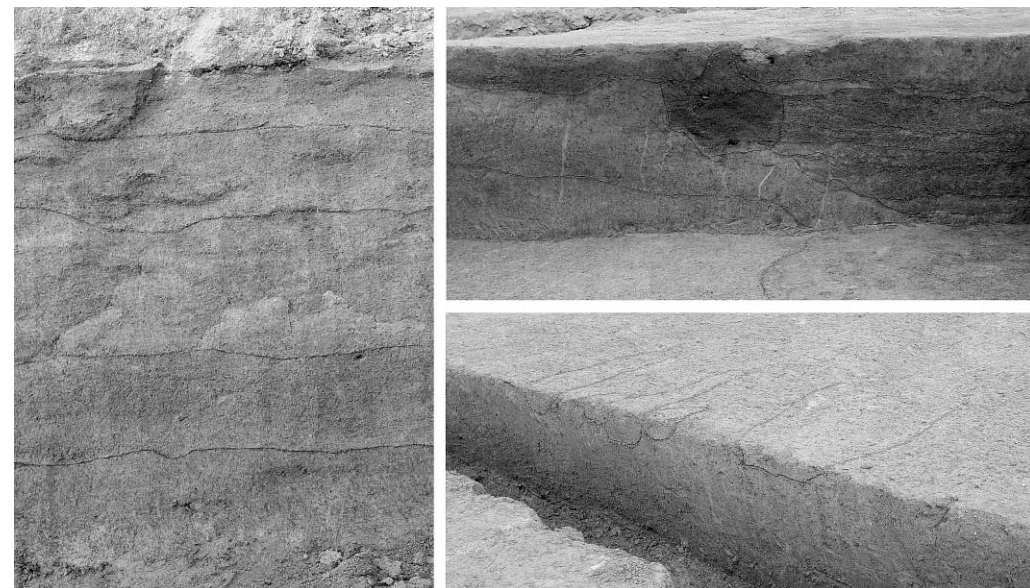
제2지점



제2지점 백제시대 발경작면

제2지점은 제1지점의 구릉 북쪽 말단부에 해당하는 해발 29m의 저평탄지대이다. 시굴조사 이전에는 논과 밭으로 활용되었으며, 시굴조사 결과 경작유적의 존재가 예상되었다. 제2지점에서는 백제시대 밭경작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조사범위의 남쪽지역에서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위한 pit를 설치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유적의 형성과 후퇴적과정을 살펴보면 풍화암반(토) 상부에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아래쪽은 점성이 강한



제2지점 층위 및 굴지흔 세부

(좌) 밭경작층에서 최근 매립토까지의 퇴적양상, (우상) 고토양층 및 자연수로 퇴적양상, (우하)밭경작면 상부 굴지흔 세부

경작활동과 관련된 회청색 사질점토층(10R 5/1)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상부에는 다시 약 1.2m 가량의 매립토가 퇴적되어 있다. 이 매립토상에 시굴조사 이전까지 경작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밭경작면에서는 동서방향(등고선방향)으로 굴지흔적이 관찰되었다. 깊이와 폭이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대략 폭 10cm, 깊이 5cm 내외이다. 굴지흔적 이외에 이랑 및 고랑과 같이 경작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경작면에서는 10개의 우수로가 확인되었는데, 경작면의 사용 혹은 폐기시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조사범위의 동쪽에서 확인된 8개의 우수로이다. 수로가 아닌 우수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작면과의 평면적인 분포양상이나 층서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관개수로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며, 평면적으로 이 우수로들에 의해 밭경작면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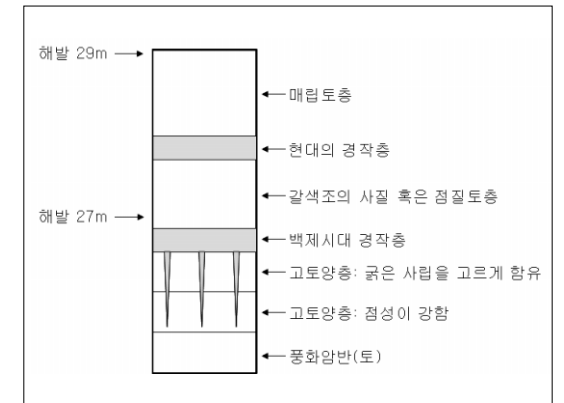
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면적인 분포양상을 통해 보면 동서로 확인된 수로가 관개수로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층서적으로 남북방향의 우수로들이 완전히 퇴적된 후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개수로로써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경작면과 우수로 내부에서는 무문토기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토기편들과 함께 석영제 박편, 그리고 철기편 등도 수습되었다. 특히 북동쪽의 경작면상에서 수습된 철기편은 심하게 변형되어 구체적인 형상을 판단할 수 없으나, 경작활동과 관련된 도구일 수도 있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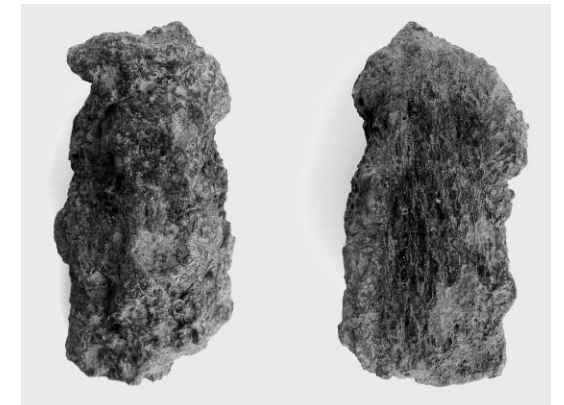
바) 조사성과

금번 화성 반월리 유적의 발굴조사에서는 구석기시대 퇴적층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백제시대 원형 수혈유구 9기 및 구상 유구 2기와 백제시대 경작층, 그리고 조선시대 민묘 등이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 출토유물로는 구석기시대의 경우 소량의 석기가 있는데, 표토 및 토양꺾기층 상부에



제2지점 퇴적양상에 대한 모식도



백제시대 밭경작지 출토 철기편

서 수습되었다. 모두 석영암제 박편을 비롯한 석기들이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송국리유형의 분포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시켜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고 하겠다. 아울러 다수의 토기편과 석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반월리 유적에서 대부분의 유구와 유물은 백제시대의 것이다. 특히 9기가 확인된 원형의 수혈유구 들은 앞으로 유구의 크기, 배치와 출토유물 등에서 타지역 및 타유적과 비교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지대의 추정 경작유구 역시 백제시대 농경의 양상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출토 된 유물에는 원형의 토기를 포함한 각종 토기편과 철기가 포함되어 있다.

5) 파주 육계토성

- 가)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80번지 외
- 나) 조사기간 : 2005년 7월 4일~10월 26일(실조사일수 30일)
- 다) 시 대 : 삼국시대
- 라)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 마) 조사내용

육계토성은 백제 한성기 평지토성으로 서 울 풍납토성과 함께 초기백제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적 은 1996년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벽과 북벽일부 및 내성벽이 완전히 유실되었고 성내부도 상당히 훼손되었다. 이 에 경기도박물관은 1996년 10월 17일부터 10일간 긴급수습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현 상과 함께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육계토성 전경

후 유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¹⁾. 그동안의 조사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파주 육계토성 조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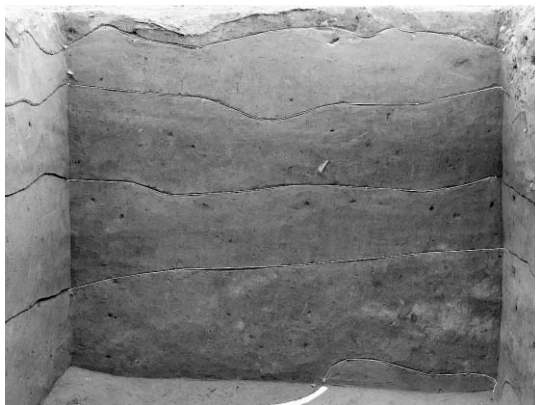
횟수	연 도	성 격	기 관	지 역	성 과
1차	1996년	긴급수습조사	경기도박물관	413번지일대	유물수습, 유적의 층위 및 범위확인
2차	1996년	긴급발굴조사	경기도박물관	413번지일대	주거지 6, 수혈유구 4, 백제토기 및 철기류
			한양대박물관	407번지일대	주거지 3, 부뚜막시설 2, 고구려토기류
3차	1997년	발굴조사	경기도박물관	405번지일대	주거지 7, 수혈유구 10, 백제토기류
4차	2005년	시굴조사	경기도박물관	380번지 외	시굴조사 : 주거지 15, 수혈유구 11
					지표조사 : 추정 문지 2, 고대지 2, 추정 수구지 1, 추정 외옹성 1

1) 파주 주월리유적은 육계토성내에 위치한 주거유적이다. 기존의 조사와 연구는 주거유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토 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경기도박물관, 1999, 『坡州 舟月里遺蹟』). 이번 조사에서는 성곽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내 주거유적을 육계토성유적으로 명기하였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육계토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병행 하되 토성의 범위와 구조파악 그리고 지하유구의 분포확인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안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육계토성은 행정구역상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일대로, 유적은 임진강이 사행곡류하여 북 쪽으로 돌출해 있는 만곡부의 안쪽으로 서쪽의 호로탄과 동쪽의 가여울 사이에 위치하며 북에서 남 으로 흘러드는 사미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리고 유적의 남동쪽에는 파주 의 鎭山인 紺岳山(해발 675m)이 있는데 이 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에 중성산이 솟아있다.

유구



유적의 층위

이번 시굴조사는 총 11개의 시굴트렌치에 서 ‘凸’자형 주거지 1기를 포함한 주거지 15 기와 수혈유구 11기, 용도 미상 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구의 하강조사는 N3W1과 N4W1 트레 니치의 유구 가운데 윤곽선이 명확한 2기의 원 형 수혈유구와 1기의 장방형 주거지에 대해 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N3W1 트렌치의 수혈유구는 깊이 110cm, 지름 220 cm로 벽체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작은 강자갈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N4W1 트렌치의 원형 수혈유구는 벽체와 바닥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만 소량 수습되었다. 이로 볼 때 이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는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유구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육계토성 유구 조사 현황

위 치	유구번호	평면형태	성 격	시 설	출 토 유 물
N3W1	㉗	원형	수혈유구	·	타날문토기편, 줄문토기편
N3W1	㉙	장방형	주거지	·	타날문토기편, 줄문토기편
N4W1	㉚	원형	수혈유구	·	대웅편, 호구연부편, 줄문토기편

유물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 류이며 적은 양이다. 시대로 보면, 백제 토기 가 주를 이루며 경질무문토기와 신석기시대 즐문토기가 소량 수습되었다.

백제토기는 대부분 IV층인 암갈색사질층 에서 수습되었다. 모두 잔편이라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많았는데, 구연과 저 부 등을 보고 기종을 추정해 보았다. 대부분 이 호·옹이며 이외에 발·동이·기대·파 수부 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N5E1 트레 니치 교란층에서 발견된 옹 구연부편의 아래쪽 에 방형의 구멍이 뚫린 것이 있는데, 이는 다 른 한성백제기 유적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어 주목된다.

기대편은 발견된 예가 드문 기종에 속하 는 것으로 N5E1 트렌치 교란층에서 수습되 었다. 원통형에 연한 황갈색을 띠고 외면에는 돌대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나 잔편이라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기대가 출토된 한성백제기 유적으로는 한강유역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이천 설봉산성, 포천 자작리 유적 등이 있다.

이외에 동이와 완류, 파수부편이 각각 1점 씩 있는데, 동이류는 구연이 90° 정도로 외반 되었고 완은 동체부만 확인되었다. 파수부는 적갈색을 띠며 끝이 잘려 뭉툭한 형태이다.

경질무문토기는 총 4점으로 이중 구연이 남아있는 것이 2점 있다. 잔존해 있는 것으



N3W1 트렌치 유구노출 전경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전경



북벽전경



남벽 II 구간 전경



동문지 1 전경



동남망대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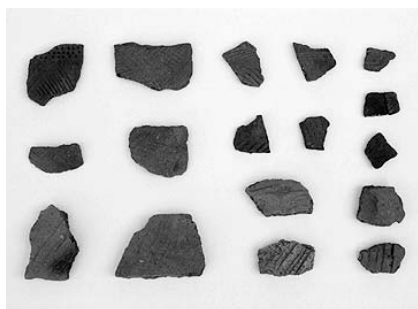
대웅 구연부편



대웅 동체부편



경질무문토기편



즐문토기편



기대 및 동체부편

로 보아 호로 추정된다.

즐문토기는 대부분 IV층인 암갈색사질층과 유구 내부퇴적토 그리고 지표에서도 일부 채집되었다. 작은 편들이라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밝은 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무문토기태토와 유사한 것으로 다량의 석립과 사립이 포함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굴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출토된 유물의 양도 적고 기종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 백제토기는 호·옹류와 동이류, 완류, 발류 등 일상 생활용기가 대부분이나 기존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기대편이 확인되어 앞으로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전체 유물의 양상과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대략 3~4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빗살무늬토기편은 무문토기와 태토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근의 구석기 유적을 비롯한 선사유적이 산재해 있어 이 지역이 오랜 시기 동안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음을 확인케 해준다.

마) 조사성과

이번 시굴조사의 목적은 그동안 개략적인 보고에 그쳤던 육계토성에 대한 범위와 규모, 성벽,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토성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방안을 세우고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정비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표조사 지역이 대부분 경작지화 되어 있고, 성벽 상면은 인삼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굴조사지역 역시 토지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지금까지 실시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계토성 내부 시굴조사에서 총 11개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N2W1, N3W1, N5W1 트렌치를 제외한 모든 트렌치에서 ‘ㅁ’ 자형 주거지를 비롯한 주거지 15기, 수혈유구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구는 후에 군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상층의 대부분이 교란되었지만 조사지역 서쪽의 하층 유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추정 문지 2개소, 고대지 2개소, 수구지 1개소, 추정 외옹성 1개소 등의 성내 시설물이 조사되었으며, 남벽부가 잔존해 있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조사에서는 북벽 일부와 동벽 및 남벽 일부 구간만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조사를 통해 현재 성내부의 주출입로 서쪽에 성벽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해로 유실되어 지금까지 불확실했던 서벽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복원·정비계획 수립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셋째, 유물은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백제 한성기에 사용된 저장용 생활용기인 호와 옹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기대편과 동이류 및 완·발류 등이 출토되었다. 기존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기종의 구성은 거의 유사하나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등의 기종이 비교적 적게 출토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지난 96, 97년 조사에서는 즐문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어 신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도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석기 유물이 소량 출토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기존 조사 유물에 대한 재정리 과정에서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고구려 유물과 같은 장동호·대상파수호·철기류·기와 등의 고구려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백제 이후 고구려에 의해 일정기간 이 성곽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6)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요지

가) 위 치 :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 190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5년 7월 6일 ~ 8월 15일(예정)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조사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화현리 도요지는 운악산 일대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림청의 의뢰로 화랑대연구소에서 2004년 11~12월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분청사기 도요지 4곳이 확인되었는데 2곳이 휴양림 내 도로개설 구간 내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를 건의하는 조사단 의견서를 제시하였다¹⁾. 따라서 발굴 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퇴적층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의뢰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퇴적층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피트를 구획하여 유구를 확인하였다. 탐색 피트 조사결과 분청사기 1호 요지는 도로개설 예정지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2호 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호 요지에서는 가마 1기와 가마 좌우에 형성된 퇴적층(폐기장)이 확인되어 탐색 피트와 트렌치를 구획하여 가마와 퇴적층의 규모를 확인한 후 전면제토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출토 유물은 발과 접시가 대부분으로 이외에 다양한 기종과 도지미, 불창마개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

발굴 조사는 유구가 확인된 2호 요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지표조사에서 퇴적층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15×2m의 피트를 구획하여 조사하였으나 소규모의 퇴적층(폐기장)만 확인되어 1m의 독을 남기고 10×3.5m와 10×1.5m 탐색 피트를 추가로 구획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가마와 추가적인 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아 林道를 개설하면서 퇴적층이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퇴적층 아래 부분을 임도를 이용하여 20×2.5m의 탐색 트렌치를 구획하였다. 탐색 트렌치 조사에서 퇴적층 중심부가 확인되어 퇴적층 좌측을 전면 제토하여 가마의 윤곽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2호에서는 가마 1기와 도자 실패품·폐기물 등을 버린 폐기장(퇴적층)이 조사되었다. 가

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포천 운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화현리 2호 요지 조사후 전경

유리질화되었으며, 번조실 바닥은 도지미의 수평을 위한 모래층이 두텁게 깔려 있다. 퇴적층은 가마의 좌우에 형성되어 있는데 조사는 가마 우측(동측) 퇴적층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퇴적층은 표토층을 포함하여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된다.

유물

출토품은 분청사기와 문양이 없는 회청사기²⁾, 백자, 흑유자, 연질 도기, 요도구 등이 있다. 출토품의 대부분은 분청사기와 회청사기이며 백자와 흑유자, 연질 도기는 매우 적은 양이다. 분청사기와 회청사기는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회청사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백자는 소량 출토되었으나 분청사기(회청사기)와 함께 포개어 번조한 것으로 화현리 가마터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토는 정선된 정도와 색깔을 기준으로 입자가 고르고 색깔

마는 조사 지역의 산사면에 남-북에 가까운 남동-북서 방향의 半地下式 單室 登窯이다.

구조는 봉통부 앞 작업공간(窯前部)과 봉통부(燃燒室, 燔造室(燒成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뚝부분(排煙部)은 유실되었다. 크기는 잔존 길이 28m로 작업공간은 길이 120cm×너비 75cm×깊이 10~20cm, 봉통부는 길이 160cm×너비 105cm×깊이 72cm, 번조실은 길이 18cm×너비 140cm 내외×깊이 10~15cm이다. 경사도는 약 30°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火口部는 너비 75cm×높이 30cm이다.

가마는 생토층인 황갈색 풍화암반층을 파고 바닥과 벽을 축조하였으며 천정부지는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벽은 부분적으로 도지미와 도편 등을 이용하여 일부 수리하였다. 벽은 남아 있는 부분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이 밝은 양질과 입자가 거칠고 색깔이 어두운 조질로 구분할 수 있다.

기종은 발과 접시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종지, 잔, 병, 호, 마상배, 장군, 대발(大鉢), 삼족기(제기) 등이 있다. 발은 대부분 완만한 곡면형의 넓은 내저면을 갖고 측면선에 양감이 있으며 구연은 외반한다. 접시는 지름 10cm 내외의 내저면이 평평하고 측면이 직립한 것이 가장 많은데, 구연부 형태가 花形과 거치형인 접시도 출토되었다. 병과 호는 크기가 다양하다. 굽 형태는 대부분 높이가 낮은 죽절형이다.

문양 장식은 상감기법과 印花기법이 혼용되었는데 인화기법은 단독인화기법이 대부분이고, 적은 양이지만 集團連圈印花技法이 나타난다. 텀병기법과 귀얄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감기법의 문양은 여러 겹의 선을 한꺼번에 새긴 과상문과 渦線文이 있으며, 단독인화기법의 문양은 국화문과 육각문, 연판문, 연주문, 삼원문, 육원문 등이 있고, 집단연권인화기법의 문양은 작은 국화 2-4개를 한 구획 안에 나타냈다.

시유는 기종에 따라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대접은 기면 전체를 시유하였으나, 접시는 굽 부분을 시유하지 않았다. 번조 기법은 2~3개의 그릇을 포개어 번조하였으며, 갑발이 출토되지 않아 모두 포개 번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큰 그릇 위에 작은 그릇을 포개었으며, 맨 아래 쪽에는 모래를 깔고, 기물과 기물 사이에는 태토빚음을 받쳤다. 백자와 마상배 등 특수 기형은 1점만 놓고 번조하거나 포개 구이의 최상에서 번조하여 내저면에 받침 흔이 없다.

요도구는 대부분 도지미로 높이 15~17cm 내외의 원통형이 가장 많으며, 소형 도지미는 소량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불창마개가 1점 출토되었다.



화현리 2호 요지 출토 발



화현리 2호 요지 출토 병

2) 분청사기와 태토, 유약, 기종, 기형, 번법 등이 동일하지만 백토분장을 이용한 일체의 장식이 없는 무문 분청사기를 의미한다.

마) 조사 성과

조선시대 전기의 대표적 貢納用 자기였던 분청사기는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적 특징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은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된 최초의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로 경기도 지역 분청사기의 특징뿐만 아니라 조선전기의 陶磁文化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에서 연대추정이 가능한 銘文資料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도편의 양식적인 특징을 고찰하여 가마의 운영시기를 상대편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현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에서는 흑백상감 기법의 연당초문을 비롯한 고려 말 상감청자의 양식적인 특징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형에서도 내저원각형의 내만형 구연 대접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양은 인화문 분청사기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국화문과 육각문, 삼원문 등의 단독 인화기법이 주류를 이루며 적은 양의 집단연관국화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분청사기와 함께 백자를 포개어 변조한 점 등은 가까운 경기도 廣州地域의 분청사기 가마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³⁾. 특히 화현리 출토 분청사기의 양식적 특징과 백자를 함께 제작한 점은 廣州 도수리 6호와 변천리 17호 제작양상과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있어 1420~1440년대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화현리 분청사기에서 양식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집단연관인화문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 할 때 그 운영시기를 1420~1430년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磁器所 139개소와 陶器所 185개소가 조사된 기간에 해당되는 시기로, 『世宗實錄地理志』京畿道 楊州都護府 抱川縣 東蜂巢里 磁器所 下品 1곳, 縣 東 其帖 陶器所 下品 1곳의 기록과의 관련성은 화현리 가마터에서 갑발과 명문자기가 출토되지 않아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화현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은 경기도 지역의 분청사기 특징과 백자로의 전환 시기를 비롯하여 경기도 이외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들의 백자로의 전환 시기 등을 비교하여 조선 전기의 도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일부 굴뚝부가 유실되었으나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가마도 도요지 변천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姜敬淑, 1986,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72~143쪽.
_____, 2001, 「廣州地域 가마출토 粉靑沙器와 白磁」 『廣州分院과 朝鮮陶磁』 京畿道博物館, 41~88쪽.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1998, 『京畿道 廣州 中央官窯』 圖版篇, 119~133쪽.
_____, 2000, 『京畿道 廣州 中央官窯』 解說篇, 97~117쪽.

7) 의왕시 고천동 유적

가) 위 치 : 의왕시 고천동 일원

나) 조사기간 : 2005년 8월 ~ 12월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라)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마) 조사내용

의왕시 고천동 유적은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왕 ICD진입로 개설사업 구간내에 위치한 유물산포지 1구역이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3동과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곽묘 4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 13동은 조사구역 능선의 경사면에 위치하여 지형이 삭토되는 과정에서 일부 벽면이 훼손되었으나, 잔존하는 유구의 상황을 통해 각 주거지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었다. 특히 1호 주거지와 11호 주거지에서는 벽체 마감시설이 확인되어 당시 주거지 조성방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는 구순각목공열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류와 간돌검, 화살촉, 석부를 포함한 석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맞은편 능선 아래로는 지표조사 당시 유물이 산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¹⁾, 근처의 정원고등학교 주변에 지석묘 1기 확인되었다²⁾.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그리고 두 번의 연장발굴조사를 통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3동과 고려시대 이후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곽묘 4기가 확인되었다. 우선 주거지는 능선의 정상부를 중심으



조사지역 전경(오봉산 일대)

1) 지표조사 시 유물산포지 2로 보고된 지역이다.
(財)高麗文化財研究所, 2004, 『의왕 국도 1호선 확포장공사, 오전-침계동간 도로개설공사, ICD진입로 개설공사부지 지표조사 보고서』, pp. 21~24.
2) 세종대학교박물관, 2001,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벽체시설 일부와 화덕, 기둥구멍 등 주거지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공열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류와 간돌검, 화살촉, 돌도끼 등의 석기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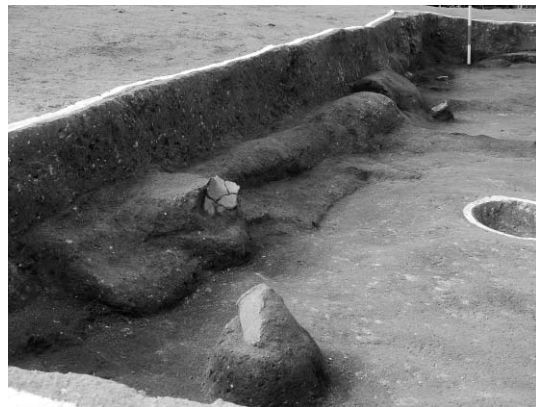
석곽묘는 3호 석곽묘를 제외한 3기가 경사면에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었지만 하부구조는 남아있어 대략적인 규모나 형태의 파악은 가능한 상태이다. 내부에서는 연질의 회흑갈색 완류와 경질의 병이 출토되었으며, 2호 석곽묘에서는 철제 요대가 출토되었다.

유구

-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벽체 노출 모습

1호 주거지는 서쪽 능선의 북쪽 경사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동서 745cm×남북 360cm이고, 평면 형태는 동서축이 긴 장방형이다. 풍화 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65cm이다.

주거지 내부 토층을 살펴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I 층 암갈색 점토 + 모래(30~50cm), II 층 흑갈색 점토 + 모래 + 목탄(10cm)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층은 주거지 외부 층적토와 같은 층으로 주거지 폐기 후 유입된 층이다. II 층은 풍화암반면에 접하고 있는 층으로 소토층이다. 주거지 내부의 유물은 모두 II 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면 바닥면에서는 다짐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볼 때 점토와 모래(II 층)를 바닥에 깔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덕은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중앙부 바닥 풍화암반면에 원형의 그을림 흔적이

확인되었다. 지름이 약 40cm 정도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바닥면에 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거지 내부 바닥면에 내벽선을 따라 평행하게 폭 10~15cm 정도의 목탄층이 확인되었다. 북벽과 동벽에서는 목탄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남벽과 서벽에서는 흑갈색의 소토층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목탄층은 벽체에 마감재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목재가 화재로 인하여 주저앉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벽에 접하여 목탄층 위로 적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 점토층은 남벽 전체와 동벽과 서벽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점토층은 폭과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점토층 아래로 목탄층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확인된 점토층은 주거지 내벽 조성시 목재와 암반벽 사이에 생긴 틈을 메우기 위해 시설하였던 것으로 주거지 폐기 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벽체를 따라 확인되는 점토층과 목탄을 제거하자 풍화암반면에서 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기둥구멍은 지름이 약 10~15cm 정도이고, 벽선을 따라 약 45~70cm 정도의 간격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 내부 동벽과 인접하여 지름 40cm, 깊이 10cm 정도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토기 저장공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있다. 토기는 주로 주거지 내부 동쪽에서 출토되었는데 심발형의 구순각목공열토기가 대부분이다. 석기는 바퀴날도끼 1점을 비롯하여 2점이 출토되었다.

-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는 능선 정상부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동서 740cm×남북 285cm로 동서축이 긴 장방형의 주거지이다. 풍화 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약 25cm이다. 북벽과 서벽의 일부는 2-1호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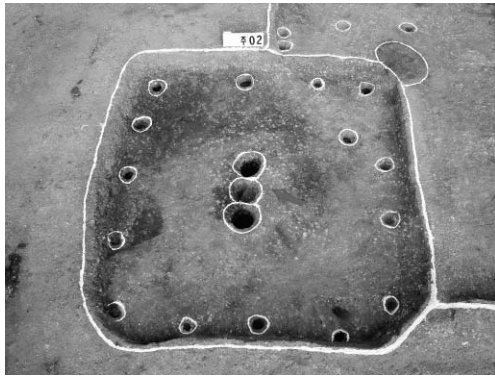
주거지 내부는 나무뿌리로 인하여 바닥면이 많이 훼손되어 바닥시설의 흔적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화덕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화덕은 지름 약 60cm의 암적갈색 소토층으로 바닥 암반층에 접하여 있다.

기둥구멍은 남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벽체선을 따라 일부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기둥구멍의 지름은 10cm 정도이다.

출토 유물은 소수의 무문토기편과 반달형 돌칼이 1점 출토되었다.

- 2-1호 주거지

2-1호 주거지는 2호 주거지의 북서쪽에 조성된 주거지로 조성하면서 2호 주거지의 북서쪽 모서리 일부를 파괴하였다. 정방형 평면으로 풍화 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2-1호 주거지 조사후 전경

약 40cm이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중앙에 두 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의 크기는 각각 지름 30cm, 26cm이고, 깊이는 30cm이다. 두 기둥구멍 사이의 공간에 편평한 석재 한 개가 놓여 있었으며, 주변으로 편평한 석재들이 흩어져 있었다. 석재를 제거하자 두 기둥구멍 사이에 지름 30cm, 깊이 17cm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 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확인되

었다. 확인된 기둥구멍은 지름이 약 10~15cm 정도로 75~8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바닥시설이나 화덕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 유물은 소수의 무문토기편과 석기 2점이 출토되었다.

- 3호 주거지

3호 주거지는 풍화 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최대 깊이는 약 40cm이다. 주거지 내부 바닥에는 갈색 점토를 10cm 정도 다짐하여 바닥면을 조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덕은 주거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바닥 풍화암반면에 원형의 그을림 흔적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지름 40cm 정도이다. 기둥구멍은 지름 10~30cm 정도의 다양한 크기로 확인되고 있으나 정연하지 않다. 다만 중앙에 조성된 기둥구멍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중심 기둥구멍 열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호 주거지는 바닥면에서 확인된 화덕과 내부 토층상황 그리고 유물이 출토되는 층위로 볼 때 모두 각각 시기를 달리하면서 2번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풍화암반면을 그대로 사용한 시기와 10cm 정도의 점토를 다져 바닥시설을 한 후 재사용한 시기로 구분된다.

출토 유물은 주거지 내부 퇴적토 상면에서 석재 화살촉 2점과, 돌끌 1점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 4호 주거지

4호 주거지는 풍화 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약 20cm 정도이다. 바닥 일부에 불에 구워진 점토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래는 주거지 내부 암반 상면에 점토를 깔아서 바닥면을 조성하고 불을 피워 굳혔던 것으로 파악된다. 점토층의 두께는 약 1cm 정

도이다.

화덕은 모두 4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쳐 두 개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덕은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았고, 바닥면에 그을림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동쪽에서 두 번째 화덕은 암반면을 굴착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덕의 크기는 모두 지름 약 40cm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 유물은 소수의 무문토기편과 간돌검 1점, 숫돌 1점이 출토되었다.

- 5호 주거지

5호 주거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남북축이 긴 장방형이다. 풍화 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약 50cm이다. 기둥구멍은 북벽과 서벽일부에서 내부에 벽선을 따라 확인되고 있다. 크기는 지름 10~15cm 정도로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출토유물은 주거지 내부 북쪽 바닥면에서 심발형의 구순각목공열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 내부퇴적토 상면에서 자귀(주상편인석부)가 1점 출토 되었으며, 돌도끼 1점도 출토되었다.

- 6호 주거지

6호 주거지는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남쪽 경사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약 80cm이다.

한편 주거지 내부 남서쪽 모서리면에 접하여 폭 30~40cm의 적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 점토층은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벽체를 조성하였던 점토층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목탄 또는 소토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화덕이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내부 중앙에 지름 20cm의 기둥구멍이 조성되어 있으며, 좌우 장축방향으로 각각 한 개의 기둥구멍이 조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수의 무문 토기편과 돌도끼 1점이 출토되었다.

- 7호 주거지

7호 주거지는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남쪽 경사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내벽은 동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바닥시설 및 소토층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형태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주거지 내부는 적갈색 점토를 다져 바닥면을 조성하였고 주거지 내부 북쪽 바닥면에서 원형 소토층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풍화암반면에 지름 65cm의 암적갈색 소토흔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3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이 주거지 역시 풍화암반면에 화덕을 조성해 사용한 시기와 점토를 다져 바닥면을 조성한 후 사용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두 시기의 편차는 출토 유물로 볼 때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구멍은 중앙에 남북 장축방향으로 3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있다. 화덕시설은 중앙 기둥구멍과 북쪽 기둥구멍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심 기둥구멍 외에 주거지 내부에서는 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북벽과 서벽은 지형이 삭토되어 정연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남벽과 동벽은 대체적으로 잘 확인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동벽에서 확인되는 기둥구멍의 배치상태이다. 지름 20~30cm 정도의 기둥구멍 사이에 지름 10cm 정도의 작은 기둥구멍이 2~3개 정도씩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둥구멍의 배치는 다른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단순히 주거지 조성방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조성 시기의 차이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토유물은 심발형 무문토기편과 돌끌 1점이 출토되었다.

- 8호 주거지

8호 주거지는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동벽과 북벽일부가 지형이 삭토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고, 또한 주거지 중앙에 자생하던 나무로 인하여 주거지 내부 중앙도 파괴된 상태이다. 하지만 잔존하는 서벽과 남벽 그리고 기둥구멍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추정된 규모는 남북 680cm×동서 380cm이다. 평면형태는 남북축이 긴 장방형이다.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50cm 정도이다.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면 풍화암반면 위로 10cm 정도의 갈색점토를 다져 바닥면을 조성하였다. 화덕은 중앙에서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 확인되고 있다. 크기는 지름 약 45cm이다. 특징적인 것은 화덕 주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구멍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확인된 기둥구멍은 지름 10~15cm 크기로 약 40~80cm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덕을 중심으로 방형을 이루고 있다. 화덕과 관련하여 어떤 시설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기둥구멍은 벽선을 따라 조밀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둥구멍의 크기는 약 10~15cm 정도이며, 간격은 50~90cm 정도로 일정하지는 않다.

출토 유물은 무문토기편과 돌끌 1점이 출토되었다.

- 9호 주거지

9호 주거지는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동서 790cm×남북 350cm이다. 평면형태는 동서축이 긴 장방형이다.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90cm 정도이다.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면 바닥면은 풍화암반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덕은 주거지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조성되었는데, 크기는 지름 약 60cm 정도이다. 9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화덕은 주변으로 기둥구멍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8호 주거지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8호 주거지에 비해 정형성은 떨어진다.

기둥구멍은 주거지 벽선의 따라 지름 10~15cm 정도 크기로 50~70c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벽에 12개, 남벽에 7개로 북벽 쪽에 기둥구멍이 좀 더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벽과 서벽의 각각 5개, 6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 10호 주거지

10호 주거지는 서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지형이 삭평되는 과정에서 동벽이 유실되었다. 하지만 잔존하는 벽선과 내부에서 확인되는 기둥구멍을 통해서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있다. 규모는 남북 710cm×동서 300cm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남북축이 긴 장방형이다.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약 100cm이다.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면 풍화암반면 위로 5~10cm 정도의 점토를 다져 바닥면을 조성하였다. 화덕은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풍화암반면에 지름 30cm 정도의 그을림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기둥구멍은 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의 크기는 지름 10cm 정도이며,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남서쪽 모서리 기둥구멍 앞으로 3개의 토기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심발형 무문토기와 바퀴날도끼 1점, 옥 1점 등이 출토되었다.

- 11호 주거지

11호 주거지는 북서쪽 모서리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주거지의 형태나 규모는 파악할 수 있다. 규모는 동서 720cm×남북 340cm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동서축 긴 장방형이다.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 수혈 최대 깊이는 약 80cm이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남벽과 접하여 남벽선을 따라 점토층이 확인되었으며, 북벽 및 동벽과 서벽에서는 벽선과 평행하게 목탄 또는 흑갈색 소토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흔적은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벽체를 조성했던 목재가 화재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벽선을 따라 확인되는 점토층과 소토층을 제거하자 풍화암반면에 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서벽과 북벽 일부는 지형의 삭토로 인하여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있지 않았다. 확인된 기둥구멍의 크기는 약 10~15cm 정도이며, 배치간격은 50~80cm 정도로 일정하지는 않다. 화덕은 서쪽으로 치우쳐 확인되는데 풍화암반면에 지름 50cm 정도의 그을림 흔적으로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남서쪽 모서리부근의 점토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간돌검 1점과 약간의 무문 토기편들과 돌도끼, 숫돌 등의 석기 2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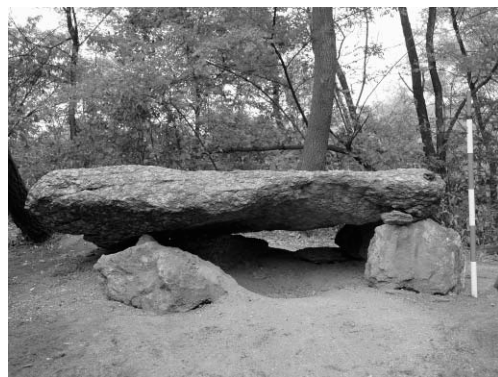
- 12호 주거지

12호 주거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의 서쪽 경사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12호 주거지는 서쪽 부분이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내부에 북벽과 접하여 굴착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12호 주거지 남쪽에서 확인되는 이장된 민묘 조성시 생긴 굴착흔적으로 추정된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약 3.3m×동서 약 3m 정도이다. 잔존 수혈 최대 수혈 깊이는 약 60cm 정도이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주거지 중앙 동벽 쪽으로 바닥면에 지름 40cm 크기의 화덕으로 추정되는 소토 흔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 주변에서 무문토기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바닥시설 및 기둥구멍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 출토유물은 소수의 무문토기편과 석기 1점이 출토되었다.



오봉산 지석묘

1호 석곽묘는 고려시대 석곽묘로 추정되며, 능선 상면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1호 석곽묘

석곽묘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의 서쪽 경사면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석재는 덮개석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석재를 들어내자 석재 밑에서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석곽묘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여 북서쪽으로 4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

석곽묘 내부에서 청자편 1점과 무문기와편 3점이 출토되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 2호 석곽묘

2호 석곽묘는 1호 석곽묘의 북쪽 아래로 약 10m 지점에 떨어져 있다. 무덤의 잔존 깊이는 약 60cm 정도이고, 현재 1~5단의 석재가 남아있다. 측벽석은 할석의 크기에 따라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병행 하였다. 대체로 아랫단은 석재의 긴면을 석곽묘의 긴 방향과 일치하게 놓은 반면, 윗단은 석곽묘의 긴 방향과 직교하도록 놓았다. 위의 석재는 아래 석재에 비해 비교적 작고 납작한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석재 사이의 틈은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채워 넣었다. 측벽에 사용된 석재는 주위의 암반석으로 대개 내부면과 상면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현재 남벽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인데, 동쪽으로는 5단 가량의 석재가 남아있고 동벽은 현재 남쪽으로 5단 가량의 석재가 일부 잔존한다. 그 외 북벽과 서벽은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남벽과 동벽은 직교하여 맞물린다. 바닥은 2가지 종류의 할석을 이용하여 빈틈없이 시설하였다. 묘의 내부 남쪽 바닥은 너비 30cm 내외의 장방형 석재를 2열로 깔았고, 북쪽 바닥에는 15cm 내외의 할석을 촘촘히 깔았다. 바닥은 측벽의 아랫단 석재높이까지 올려 조성되었다.

2호 석곽묘의 특징은 바닥석으로 추정해 볼 때 추가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합장묘로 추정되며 장방형 석재가 깔린 남쪽 바닥에서 철제 요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남쪽에 남성이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철제 못과 장방형 철제 요대편 5점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주변에서는 무문토기편과 내박이 있는 회청색 경질토기편, 고려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 3호 석곽묘

3호 석곽묘는 조사지역 남쪽능선의 상부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약 98m 지점에 위치한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석곽을 조성하기 위해 암반을 굴착하였다. 무덤의 잔존 깊이는 약 30cm 정도이고, 현재 1~2단의 석재가 남아있다. 측벽석은 할석의 크기에 따라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병행 하였다. 위의 석재는 아래 석재에 비해 비교적 작고 납작한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석재 사이의 틈은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채워 넣었다. 석재를 쌓아 올리면서 밖으로 석재와 암반면 사이를 점토로 채워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벽은 현재 2단이 남아있다. 아랫단은 대형의 석재 1매로 측벽을 마감하였고, 그 위로 비교적 작은 석재를 올렸다. 양쪽의 장변과는 모서리각을 죽여서 둥글게 쌓았다. 남벽은 모두 유실되었다. 바닥은 북쪽의 가장자리에 너비 약 20cm 가량의 머릿돌을 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5~10cm 크기의 차돌과 할석을 사용하여 바닥을 시설하였다. 석재의 약 10cm 밑에서 암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재와 암반사이에는 점토를 채워 넣었다. 사용된 석재의 상면은 비교적 거친 편이다. 내부에서는 머리말의 왼쪽으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기종은 회청색 경질의

병 1점과 회갈색 연질의 완 3점이다.

- 4호 석곽묘

4호 석곽묘는 3호 석곽묘의 북쪽 아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장축 방향은 동서방향,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 무덤의 깊이는 약 47cm 정도이고, 현재 1~2단의 석재가 남아있다. 경사면의 아래쪽으로는 석곽묘의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측벽석은 할석을 사용하여 가로쌓기를 하였고, 특히 아랫단은 세워쌓기를 하였다. 위의 석재는 아래 석재에 비해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서벽은 아랫단을 1매의 석재로 마감하였고, 그 위로 납작한 석재를 쌓아 올렸다. 서벽과 양쪽의 장벽은 직각으로 맞물려 쌓았다. 바닥은 상면이 비교적 편평한 20cm 내외의 할석을 촘촘히 깔아 사용하였다. 내부에서는 회갈색의 연질 토기인 완 2점이 남측벽에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유물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유물과 석곽묘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 유물은 대부분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크게 구순각목공열토기를 포함한 무문토기류와 석기류로 나눌 수 있다.

무문토기는 조사된 주거지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다. 태토는 적갈색의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다. 1호·3호·5호 주거지에서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심발형의 구순각목공열토기이다. 이 토기들은 구연단에 침선문이 새겨져 있으며, 구연에서 1cm 정도 아래로 작은 구멍이 연속하여 뚫려있다. 구멍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것과 그 반대인 경우 모두 나타나고 있다.

석기류는 무기류와 공구류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출토된 석기의 종류 및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호 주거지와 11호 주거지에서 각각 한 점씩 모두 2점의 간돌검이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간돌검은 검신의 끝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잔존길이는 17cm이다. 손잡이 중앙부 양 끝에 홈이 파여져 있다.

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간돌검은 손잡이 부분이 유실되어 검신만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 길이는 12.5cm이다. 검신부에는 양쪽면 모두에 두 개의 홈이 길게 새겨져 있다.

화살촉은 3호 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1호 주거지 외부에서 1점 출토되었다. 화살촉은 습

베가 있는 것이 2점, 습베가 없는 것이 1점 출토되었다. 습베가 있는 화살촉은 단면이 마름모꼴로 일단습베식이다. 습베가 없는 화살촉은 단면이 편평육각형으로, 기부 중앙에 홈을 파서 화살대와와의 결합을 용이하게 만든 쌍각촉이다.

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돌도끼는 양쪽날을 모두 간 양날도끼이며, 날은 둥글게 간 조갯날도끼이다. 또한 몸통의 단면은 각의 모를 죽인 사각형의 네모돌도끼로 분류된다. 길이는 11.5cm이고, 몸통 최대 두께는 4.3cm이다. 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숫들은 크기가 6×2.5cm, 두께 0.6cm로 소형이다. 한 면만 사용하여 홈이 생겼다.

자귀는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둥글고 긴 강돌의 한쪽면을 갈아 사용하였다(주상편인석부).

돌칼은 2호 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다. 2/3정도만 남아 있는데, 물고기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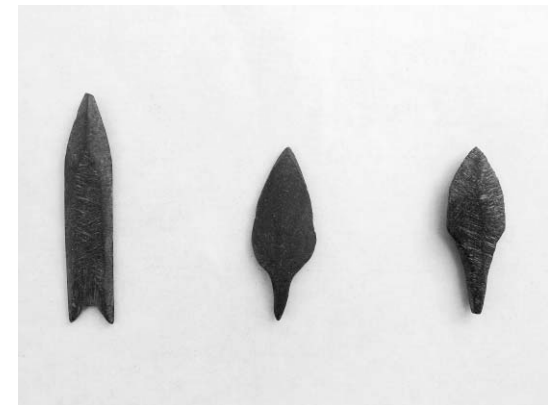
방추차는 1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에서 각각 1점씩 모두 2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방추차는 지름이 각각 5cm, 6.5cm이고,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밖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돌도끼와 돌끌,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은 석곽묘를 중심으로 주로 경사면 하단부에서 출토 또는 수습되었다. 토기류는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완과 병이 있다. 완은 회흑갈색 연질토기로 3호 석곽묘와 4호 석곽묘에서 출토되었다. 병은 3호 석곽묘 내부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2호 석곽묘 외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돌칼



화살촉



주거지 출토 무문토기

바) 조사성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3동을 살펴보면 주거지의 형태는 장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형 주거지와 세장방형의 대형 주거지도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우선 위계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간돌검이 출토되어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으로 세장방형 주거지의 용도가 단순히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닌 공동 작업장이나,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된 주거지의 내부를 보면 3호·7호·8호·10호 주거지 등에서는 점토를 다져 바닥면을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주거지들에서는 편평하게 굴착한 풍화암반면을 그대로 바닥면으로 사용하거나 점토를 다지지 않고 마사토를 깔아서 바닥면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점토를 깔고 불을 질러 바닥처리를 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화덕은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 그을린 흔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을 따로 하지 않고 주거지 바닥면에 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적으로 주거지 내부 중앙이나 중앙에서 단벽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의 화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세장방형의 대형 주거지인 4호 주거지는 4개의 화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8호 주거지와 9호 주거지에서는 화덕 주변으로 기둥구멍이 확인되는데 화덕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부 주거지에서 벽체시설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에서는 벽체를 통나무나 판자와 같은 마감재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던 흔적이 노출되었다. 마감재와 암반 사이 공간에는 진흙을 채워 고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벽체시설의 흔적은 11호 주거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주거지와 11호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주거지에서는 이와 같은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6호 주거지에서는 벽면을 따라 목탄층이 확인되지는 않고 점토층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흔적 역시 주거지 내부 벽체시설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기둥구멍은 대체로 벽선을 따라 조밀하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의 크기는 약 10~15cm 정도이며, 기둥구멍간의 간격은 약 40~80cm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벽선을 따라 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주거지에서는 벽선을 따라 나타나는 기둥구멍의 선이 정연하지 않고, 화덕의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된 기둥구멍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주거지의 보수나 재사용의 흔적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이는 좀 더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면 명확해질 것이다.

이상 확인된 주거지의 형태와 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주거지는 규모는 장단비가 2:1정도이며, 주거지 내부에 1개의 화덕을 가지고 있다. 주거지 내부 바닥시설은 점토 다짐을 하여 바닥면을 조성한 주거지와 평탄하게 굴착된 암반면을 그대로 바닥면으로 사용한 주거지가 있다. 벽체시설은 마감재를 사용한 주거지와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점토만 사용한 주거지로 나뉘어

진다. 기둥구멍은 대부분 벽선을 따라 조밀하게 조성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주거지 내부 중앙에 장축방향으로 중심 기둥구멍 열이 조성된 주거지와 조성되지 않는 주거지로 구분된다. 중심 기둥구멍 열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는 화덕시설 주변으로 기둥구멍이 조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형으로 보아 낮은 쪽으로 출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장방형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차이는 주거지 조성 시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토 유물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 자 사이에 시차가 역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심발형의 구순각목공열토기(역삼동식 토기)가 주를 이루는데, 주거지 한 쪽 단벽으로 몰려 출토되었다. 비교적 주거지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된 1호 주거지와 5호 주거지의 경우 토기가 출토되는 반대편 단벽 쪽에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내부 생활공간이 구별되고 있는데 성에 따른 공간 활용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사된 주거지 중 정방형의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는 2-1호 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부 중앙에 송국리형 주거지의 전형적인 특징인 두 개의 기둥구멍이 조성되어 있다. 확인된 2-1호 주거지는 중앙에 2개의 중심 기둥구멍이 확인되었으나 타원형구덩이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두 개의 중심 기둥구멍사이에 원형의 수혈 공이 1개 확인되었다. 또한 4개의 기둥구멍은 확인되지 않고 벽선을 따라 지름 10cm의 기둥구멍이 약 80cm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송국리형 주거지의 변형된 형태로 추정되어 진다. 현재까지 송국리형 주거지의 북한계는 안성천 이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사된 주거지의 조성 시기는 세장방형 주거지를 포함한 장방형 주거지는 주거지의 구조와 내부 출토유물로 볼 때 기원전 8~10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정방형 주거지(2-1호)는 평면형태와 내부 출토유물로 볼 때 기원전 4~6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석곽묘는 4기가 확인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내부 및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로 추정해 볼 때 모두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석곽묘는 훼손이 심한 1호 석곽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기의 석곽묘는 동일한 축조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축조 방식은 우선 측벽의 조성은 대형 석재를 기단석으로 하여 그 위로 얇은 판석을 쌓아올렸다. 각 모서리는 말각축조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닥시설은 비교적 편평한 석재 또는 차돌과 할석을 촘촘하게 깔아 조성하였다.

한편 2호 석곽묘는 다른 석곽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조성되었다. 내부에서 확인된 바닥석으로 추정해 볼 때 추가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합장묘로 추정되는 2호 석곽묘는 내부 남쪽에서 철제요대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쪽에 남성이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 남한산성 행궁지 7차 조사

가) 위 치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3일원

남한산성 행궁 하궐지 마당 하층유구 및 유물포함층/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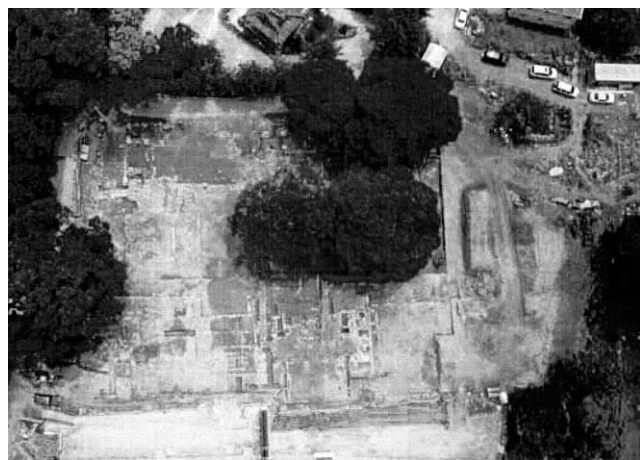
하궐지 일대 하층유구/시굴

나) 조사기간 : 2005년 5월 2일 ~ 2006년 8월

다) 시 대 : 통일신라시대

라) 조사기관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마) 조사내용



조사지역 전경(조사전)

남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조사는 행궁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98년 행궁 전체 범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행궁 관련 유구에 대해 총 6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다. 7차 조사는 조선시대 행궁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궐지 마당 하층 유구에 대한 조사이다. 지난 6차 조사시 하궐 마당에 설치한 시굴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층과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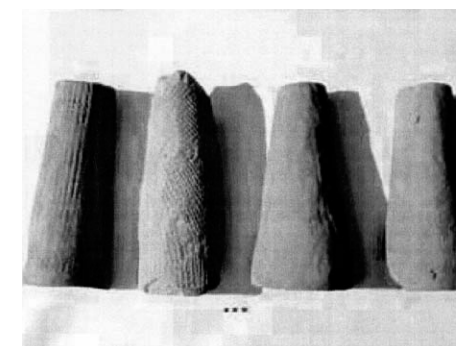
석 등이 확인된 바 있고 이러한 유물과 유구는 삼국사기 문무왕대 주장성 축성 기록과 관련이 있는 등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궐 복원에 앞서 하궐지 마당 하층 유구를 발굴하여 행궁조성 이전에 있었던 유적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유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하고자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다.

행궁지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 유구와 유물포함층의 발견은 1차 조사시 시굴갱에서 확인된 대호와 선조문 기와, 4차 조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기와 그리고 연차 조사마다 지표에서 채집된 소량의 인화문토기편과 기와편 등으로 보아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현장조사기한이 가까워지자 동편의 건물지 일부와 다섯 겹의 기와포함층 중 1층을 노출시킨 상태로 2005년 9월 9일 1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村主명 기와, 주장성 축성 기록 등



기와포함층 1층 노출



1층 출토 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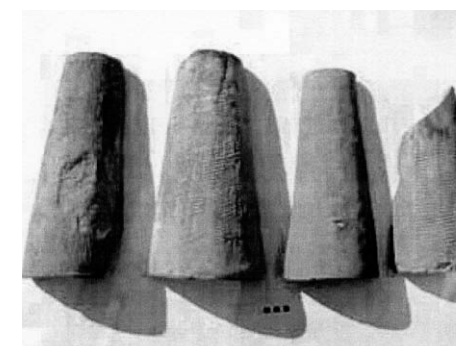
1층 출토 명문와편



1층 출토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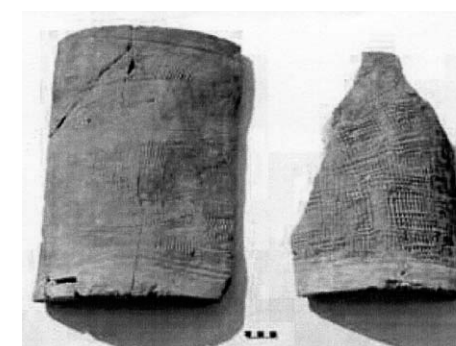
기와포함층 2층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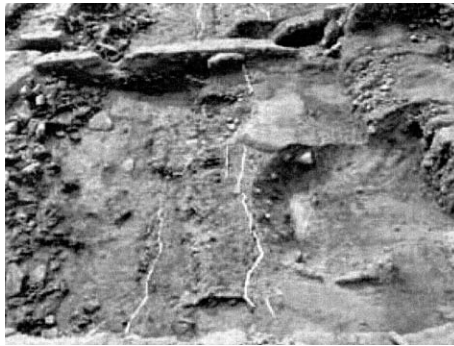
2층 출토 수키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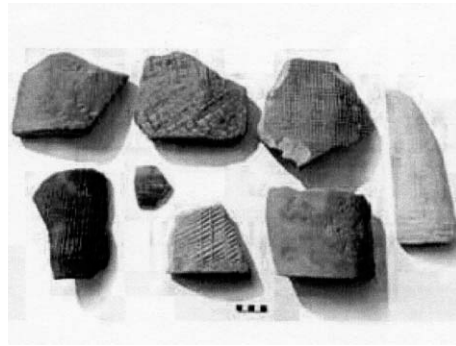
2층 출토 암키와편(1)



2층 출토 암키와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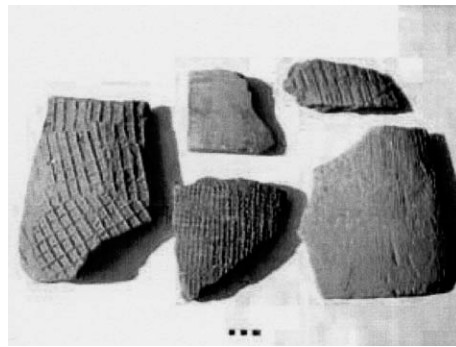
기와포함층 3층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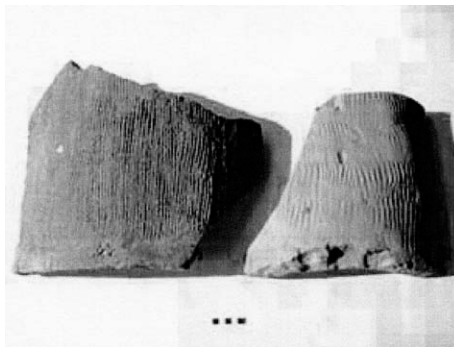
3층 출토 기와편



기와포함층 4층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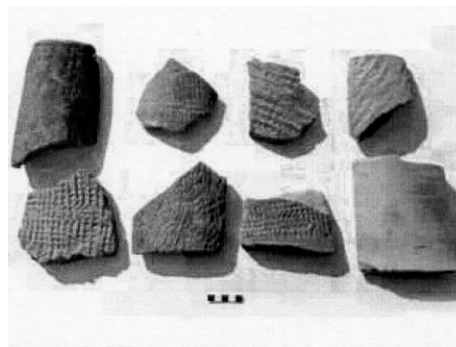
4층 출토 암키와편(1)



4층 출토 암키와편(2)



기와포함층 5층 노출



5층 출토 기와편

으로 보아 하궐마당 하층유구는 매우 중요하고 행궁복원 공사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기와퇴적층과 유구가 조사지역 바깥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행궁복원에 앞서 발굴지역 주변에 대해서도 발굴조사를 해야 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복원공사시 원형을 유지하기 힘든 행궁관련 유구를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기간을 45일 연장하여 발굴을 계속하는 한편 발굴지역 바깥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와퇴적층과 유구의 범위, 다른 유구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도 하게 되었으며 이후 2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발굴조사

- 건물지 서편 퇴적층

건물지 서편 퇴적층에서 5개층의 기와포함층을 확인하였다. 이중 1층은 하궐지와 건물지 사이의 구상 공간을 메운 것이고, 2층은 건물지가 소실된 흔적이며 3, 4, 5층은 하궐건물지 쪽에서 흘러내리거나 밀어 넣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중 3, 4층은 그 부분에 있는 석축의 뒤를 채우면서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퇴적층들은 하궐지와 건물지 사이의 공간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건물지

건물지는 발굴지역의 동쪽부분에 위치한다. 건물지의 서쪽부분 일부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남북 양단부와 동쪽부분은 발굴지역 바깥으로 연장되고 있다. 현재 노출된 건물지의 범위는 동서 7~8m, 남북 40m 정도이다.

남북 방향으로 벽체가 있고 벽체의 서단부에는 기단 석렬이 있다. 기단 석렬의 중간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초석이 놓여 있고 그 바깥인 서편에 기단 석렬상의 초석과 나란한 위치에 외진주 초석이 있으며 외진주 초석 바깥에는 남북방향으로 배수로가 길게 뻗어 있다. 각 그리드에 노출되어 있는 초석으로 보아 건물지는 정면이 최소한 11칸 이상이다. 측면은 알 수 없지만 발굴지역에서 노출된 기단석렬, 초석과 같은 것들이 하궐 문지 아래에 노출되어 있다. 두 기단 석렬과 초석은 남북방향



건물지(벽체, 수혈 등)

으로 대칭되게 놓여 있고 높낮이도 비슷한 점으로 보아 같은 건물지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두 기단 석렬간의 거리는 13.5m이고 외진주 초석간의 거리는 17.4m 정도이다.

벽체의 서단부에서 배수로까지는 소토와 목탄, 기와, 할석들이 많이 섞인 황갈색 점토 내지는 사질 점토로 되어 있다. 기와와 할석들을 중심으로 노출시켜 본 결과 많은 기와들이 불에 타서 적갈색을 띠고 있었고 소토가 층을 이루며 벽체가 서쪽으로 무너져 있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건물지는 화재로 인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기초



벽체 및 기초

건물지의 아랫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불확실하지만 청회색과 황갈색 암반풍화토 위에 암갈색니질점토, 명갈색사질점토, 황갈색점토를 각각 5~15cm 두께로 겹겹이 쌓아 최소 두께 30cm 이상 되게 하였다. 이 흙들 사이에는 한 변의 길이가 20~30cm 되는 산돌과 할석들이 많이 섞여 있다. 특히 벽체 아래에는 암갈색니질점토가 많이 분포한다.

• 벽체

발굴지역의 동쪽부분에 남북방향으로 길게 남아 있다. 현재 길이는 약 40m 정도이고 남북 양단부는 조사지역 바깥으로 연장되고 있다. 벽체는 흙으로 만든 벽과 그 바깥쪽을 마무리한 마감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물지의 기초 위에 5~10cm 정도되는 산자갈을 1~2벌 깔고 그 위에 길이 5cm 안팎의 목탄을 두께 5cm 안팎으로 깔았다. 산자갈과 목탄의 범

위는 동서 방향으로 너비 130~150cm로 일정하다. 목탄층 위에는 적갈색 점토를 3~5cm 두께로 한 벌 깔고 그 위에는 명갈색사질점토, 갈색점토, 황갈색점토를 비슷한 두께로 겹겹이 쌓아 올렸다. 이 벽의 동서 양단부는 무너지거나 훼손되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잔존 토층으로 보아 수직에 가깝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장 잘 남아 있는 벽은 높이가 약 7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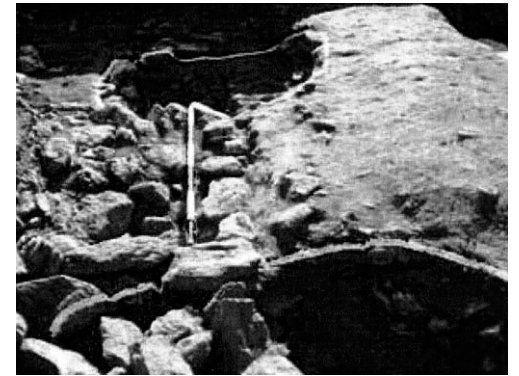
벽체 하 목탄 및 자갈

토벽의 서쪽에는 기단석이 있고 그 위에는 토벽의 외부를 마무리한 마감재와 뒷채움토가 있다. 기단석은 최소한 4면 이상을 가공한 석재들과 자연석을 대충 다듬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단석 위에 자연석이나 할석, 평기와편을 쌓고 뒤편에는 흙을 채워 토벽의 서편을 마무리하였다. 이 마감은 부분적으로 기단석 상면 기준으로 높이 약 50cm까지 남아 있다. 벽체의 서쪽부분에 다량 노출된 할석들은 이 마감재들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벽체의 동쪽부분은 이 부분을 굴착하여 만든 후대의 수혈들과 하궐마당 석축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벽체의 동쪽 경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잔존 토벽의 동단 아랫부분을 따라 드문드문 한 변의 길이가 30cm 정도인 할석이나 산돌이 가로 내지는 세로 방향으로 1~3단 정도 놓여 있거나 쌓여 있다. 가장 잘 남아 있는 부분은 길이가 약 140cm이다. 그리고 토벽의 가장 아래에 깔린 산자갈과 목탄의 범위가 이 돌들의 서쪽 면에서 끝이 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토벽의 동단부에 이러한 돌들을 놓고 토벽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벽의 동단부를 이렇게 보았을 경우 벽체의 전체 두께는 약 180cm이다.

• 초석

벽체의 서쪽 기단 석렬의 중간중간에 약 360cm 거리를 두고 놓여 있는 초석과 여기에서 서쪽으로 약 180cm 떨어진 곳에 놓여 있는 외진주 초석들이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다. 기단 석렬상의 초석이 외진주 초석보다 약 15cm 정도 높다. 전자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보통 길이 80cm, 너비 60cm 정도이며 후자는 평면형태가 부정형이고 한



벽체 동단부 및 채움석



벽체 서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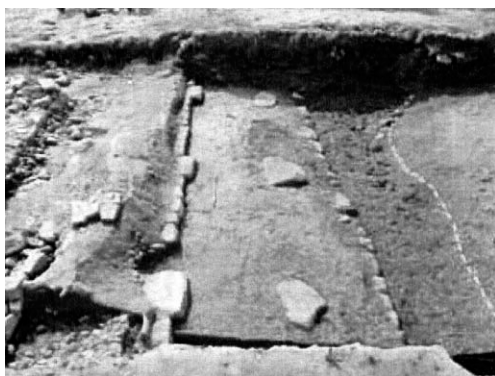


무너진 토벽

변의 길이가 100cm 정도이다.

이 초석들은 현재 남쪽 2개 그리드에서 각각 6개씩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북쪽 2개 그리드에서는 아직 제거하지 않은 2층 사이사이에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발굴지역에는 각 12개씩의 초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건물지는 최소한 정면 11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 배수로



배수로 초석 및 기단석

외진주 초석에서 서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너비 100cm, 깊이 20cm 내외의 배수로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나 있다.

배수로의 양쪽은 한 변의 길이가 30~40cm 가량의 자연석으로 만든 석축으로 되어 있다. 남쪽으로 갈수록 배수로의 폭이 점진적으로 넓어져 조사지역 바깥으로 연장되는 부분에서는 너비가 약 260cm 정도이다.

• 기타

벽체의 동쪽부분은 이 부분을 굴착하여 만든 수혈들과 행궁 석축 조성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간혹 전기한 벽체의 동단 석재에 접해 동쪽으로 한 변의 길이가 10~30cm 정도 되는 돌들이 1~3단 정도 쌓여 있다. 이 부분들은 교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벽체의 동쪽으로는 이러한 돌들로 일정 높이까지 채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잔존하는 벽체의 윗부분에는 석군이 4개소가 있다. 주변 흙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벽체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아궁이

발굴지역의 북동모서리부분에 위치한다. 건물지 벽체의 동단부에 평면 말각 제형에 가까운 구덩이를 파서 아궁이를 만들었다. 연소실의 전벽은 판석을 서너겹 쌓아서 만들고 좌우측벽은 장대석과 할석으로 만들었다. 내부는 불맞은 잡석과 소토 등으로 차있었으며 바닥에는 목탄과 재가 한 벌 정도 깔려 있었다. 전실로 보이는 아궁이의 남동편에는 소토와 목탄이 깔려 있다.

- 수혈

토벽의 동단부와 하궐마당 석축 뒷채움토 아래에서 평면 원형, 부정형의 수혈들이 남북방향으로 17개소 노출되었다. 수혈들의 굴광선은 벽체의 동단 상부와 하궐 석축 조성시 파낸 바닥면에서 파악된다. 이점으로 보아 수혈들은 벽체 축조 이후, 하궐석축 조성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수혈

수혈들의 크기는 너비 100cm, 높이 20~70cm 정도이다. 간격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110cm 정도이다. 내부에 하궐 석축의 뒷채움토와 한변의 길이가 10~30cm 되는 할석, 산돌들로 차 있었을 뿐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수혈 내부가 교란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내부에 큰 돌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비슷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적십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혈들은 건물지의 초석과 배치상태가 일치하지 않지만 건물지 벽체의 존재를 알고 굴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에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들이 섞여 있었다.

시굴조사

하궐지일대에 대한 시굴 구역을 4개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역명	유구·유물	시대	조사단 의견	비고
동 쪽	발굴지역 건물지 기초, 벽체하 산자갈 및 목탄, 기단석렬 및 초석, 기와	통일신라	발굴	펜스바깥 도로 발굴 필요
서 쪽	발굴지역 유물포함층 연장, 관련 유구 잔존 가능성 있음	통일신라	발굴	
남 쪽	발굴지역 건물지 벽체가 시굴지역 바깥으로 연장	통일신라	발굴	4차 조사지역 시굴조사 여부
북 쪽	발굴지역 건물지 벽체 및 유물포함층 북단부, 석축, 기와	통일신라	발굴	

바) 조사 성과

서쪽 일부만 확인된 건물지는 최소한 정면 11칸 이상 되고 동쪽, 남쪽, 북쪽부분이 발굴지역 바깥으로 연장되고 있는 대형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산자갈과 목탄을 깔고 그 위를 점토로 층층이 쌓아 토벽을 만들고 그 외부를 할석이나 기와편을 쌓아 마감한 벽체는 독특하다. 그리고 건물지가 대형이고 초석과 기단석이 잘 다듬어져 있으며 다량의 기와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벽체가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중요한 기능을 한 건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건물지의 서편에 소토와 목탄이 다량 분포하고 그 사이사이에 불탄 기와가 많이 겹쳐져 있는 점으로 보아 건물은 화재로 인해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지 서편 퇴적층에서 5개의 기와포함층을 확인하였다. 이중 1층은 하궤지와 건물지 사이의 구상 공간을 메운 것이고, 2층은 건물지가 소실된 흔적이며 3, 4, 5층은 하궤건물지 쪽에서 흘러내리거나 밀어 넣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중 3, 4층은 그 부분에 있는 석축의 뒤를 채우면서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퇴적층들은 하궤지와 건물지 사이의 공간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와포함층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는 ‘村主’, ‘林山高子’, ‘天主’ 등 여러 종류의 명문 기와도 많이 섞여 있어 향후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4, 5층에는 일반 기와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기와들이 다량 섞여 있었는데 발굴에서 이러한 기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출토되기는 처음이고 더구나 남북 40m 이상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하궤 건물지 일대에 이러한 기와를 사용한 대형 구조물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토된 기와들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일대에 이러한 기와를 사용한 대형 건물지가 남아 있고 주변에도 이러한 건물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당시 이 일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굴을 통해 발굴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건물지의 개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항공문지 아래에 노출되어 있는 기단 석렬과 초석이 발굴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것과 방향, 석재, 높낮이 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동일 건물의 잔존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경우 건물지의 측면은 기단석렬 기준으로 13.5m, 외진주 초석 기준으로 17.4m 정도이다. 그리고 건물지의 정면은 벽체의 토층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발굴지역 북단에서 최고 6~8m 정도, 남쪽으로는 길이 7m 정도인 시굴지역 바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최소한 50m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9) 평택 소사동유적¹⁾

가) 위 치 : 평택시 소사동 122-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2004년 10월~ 2006년 상반기

다) 시 대 :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라) 조사기관 : 고려문화재연구원

마) 조사내용

소사동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22-1번지 일대로 사업면적 95,381㎡(28,853평) 중 총 5개 지점에 대한 조사가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다. 2003년 10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지표조사²⁾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10월부터 (재)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시·발굴조사³⁾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가·다·라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고려시대 이후의 분묘 및 수혈유구 등 총 406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 가·다지점은 아파트 예정부지로서 이 일대는 38번 국도개설 및 합정·비전동의 택지개발로 인해 조사 당시는 38번 국도 남편의 잔구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능선 정상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남쪽과 동쪽 사면부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7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이후의 분묘 114기, 성격불명의 수혈 75기 등 총 228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조사가 완료되었다.

- 가·다地點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37기(가지점-28기, 다지점-9기)가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과 남사면, 그리고 동사면부의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굴토하여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배치양상은 ‘ㄱ’자 형태(가지점)와 ‘ㄷ’자 형태(다지점)를 띠고 있다. 주거지의 장축은 동-서,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 직교(다-4·8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가지점에서는 말각방형 및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 4기가 포함되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 장

1) 이 글은 2005년도 서울경기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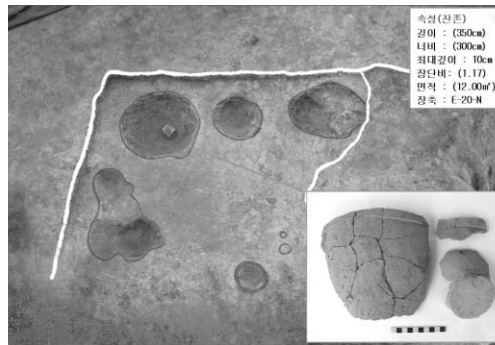
2) YM건설주식회사·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2003. 10,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 (財)高麗文化財研究院·YM建設株式會社, 2004. 12, 『平澤 素沙洞 都市開發事業敷地 文化財 試掘調査 指導委員會議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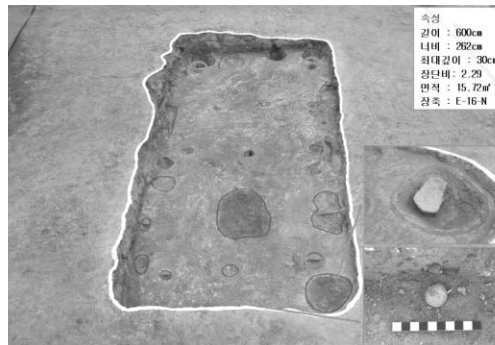
(財)高麗文化財研究院·YM建設株式會社, 2005. 6, 『平澤 素沙 都市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가·다地點) 2次 指導委員會議資料』.

(財)高麗文化財研究院·YM建設株式會社, 2005. 9, 『平澤 素沙洞 遺蹟-平澤 素沙 都市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제3次 指導委員會議資料(가·다地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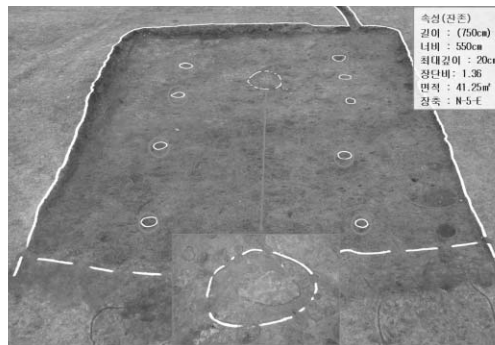
방형⁴⁾, (세)장방형계, 말각방형, 원형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⁵⁾. 이 중 사면 하단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방형계 장방형 3기, (세)장방형계 19기, 말각방형 4기, 원형 2기로 (세)장방형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주거지 조영순서는 중북관계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방형계 장방형 → (세)장방형계 → 말각방형 → 원형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송국리형의 말각방형과 원형 주거지의 선후관계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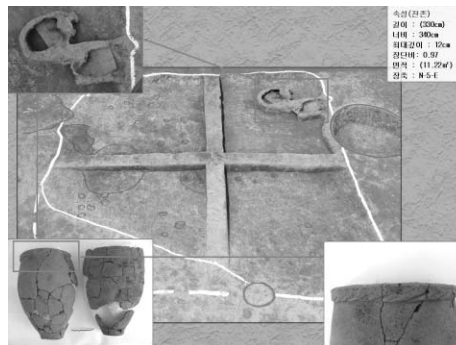
가-2호 주거지



가-6호 주거지



다-7호 주거지



다-6호 주거지

방형계 장방형 주거지(가-2·22호, 다-6·7호)는 구릉 정상부에서 사면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데, 가-2호 주거지의 경우 한쪽 모서리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한 평면형태의 추정이 어렵지만 잔존하는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방형계 장방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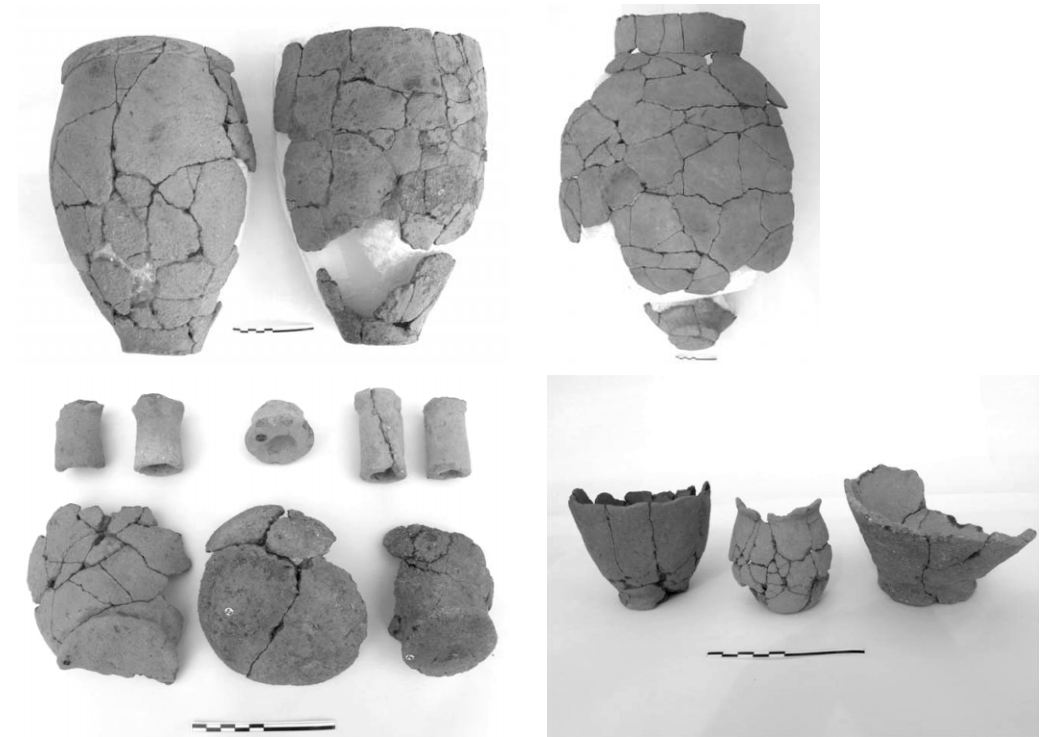
주거지의 전체 구조는 한쪽 벽에 치우쳐 평지형 내지 토광형노지 1기가 위치하며, 그 반대편 모서

4) 여기서 구분해 놓은 방형계 장방형 주거지는 말각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세)장방형계 주거지의 너비가 250~350cm인 반면에 450cm 이상으로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지를 지칭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출토유물 및 내부 시설면에서도 (세)장방형 주거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명칭은 가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5)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5 미만인 것은 방형, 1.5~3.0인 것은 장방형, 그리고 3.0 초과인 것을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리에 저장공 3~4기가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이들 저장공은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으로 1차 굴광 후 점토를 발라 처리하였으며 내부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었다(가-2호). 또한 화재로 폐기된 다-6호 주거지는 수혈벽면 안쪽으로 약 1.0m 거리를 두고 양쪽에 주주혈 8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혈 벽면에 면하여 붉은 소토덩어리와 초본류의 목탄이 간취되고 있어 벽체시설의 일부로 추정된다. 이 주거지의 특징으로는 바닥면에서 지름 10cm, 깊이 5cm 내외의 소주공 약 150여기가 불규칙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거지 중앙부와 노지주변에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주거지 조성시의 굴착과 관련된 결과이거나 침상시설 등과 같은 주거지 내부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 외 (세)장방형계 주거지에서 보이는 외부 돌출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가-2호 주거지 저장공 내부와 다-7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토기와 이중구연 단사선문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22호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공렬+X자문이 복합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주거지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는 바닥면에 점토다짐을 한 반면 후자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일부 단절된 벽구시설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또한 전자의 주거지에서는 석기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가·다지점 주거지 출토 토기류

(세)장방형계 주거지는 완전한 형태의 것만 19기로 일부 유실된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다지점)와 사면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가지점)에 입지하고 있는데, 길이가 6.0m에서 16.9m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장방형 및 장방형 주거지의 구분은 길이 10m를 경계로 나누어지며, 입지상 장방형 주거지가 구릉의 하단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 부속시설은 외부돌출구, 노지, 저장공, 주혈, 벽구, 벽체시설, 바닥시설 등이 확인되었는데, 구조상 노지의 수 및 저장공의 위치를 제외하고 세장방형 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의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는다. 외부돌출구는 벽구와 연결되어 경사면 하단부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그 부속 위치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벽과 장벽 모서리에서 연결되는 것(가-17·19·20·24호), 둘째는 장벽에서 연결되는 것(가-23호, 다-5호), 셋째는 단벽에서 연결되는 것(가-10호, 다-4호)으로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⁶⁾는 경기도 일대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는 그 형태 및 구조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4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와 돌출구 연결부에서 목탄이 확인되어 그 상부구조를 파악하는데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⁷⁾.

노지는 토광형 내지 평지형노지⁸⁾가 주거지 장축의 중앙을 따라 열을 지어 확인된다. 이들 노지의 수는 대체로 주거지 장축의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가-23호 주거지의 경우 최대 7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배치상태의 노지구조는 보령 관산리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복수의 노지로 구성된 개별가족의 공동체가옥용인지, 아니면 화천 용암리유적 및 춘천 천전리유적의 보고처럼 세대구성의 증가에 따른 확대가족 거주용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노지의 구조적인 차이 및 조밀한 간격배치(노지중심간 거리 1.5~2.0m)는 취사 및 조리, 조명, 난방, 제습 등을 위한 기능상의 차이 및爐의 사용 지속기간을 반영하는 자료일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자 한다. 평면형태는 원형 내지 장타원형으로 길이 60~80cm, 너비 40~60cm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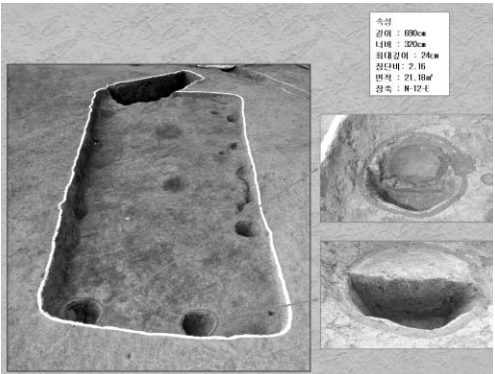
저장공은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2~12기까지 확인되는데, 배치양상을 보면 주거지의 사벽체 안쪽을 따라 단벽과 장벽 중앙에 면하여 3~4기씩 군집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벽에 위치하는 경우는 노지

6) 주거지 내부의 벽구시설과 연결되고 있어 기능상 배수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부돌출구가 설치된 주거지는 주로 읍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읍산형주거지’라 칭해지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띤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조사예가 없으나 속초 조양동 4호 주거지의 제습흡과, 조사지역 인근의 아산 명암리 유적 11지점 7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財) 忠淸文化財研究院, 2003, 『牙山 鳴岩里 遺蹟』(11·3地點).
7) 외부돌출구는 연결점 벽면에 설치된 시설에 따라 Ⅰ형 : 無施設式(상부시설 없이 구처럼 진행되는 것), Ⅱ형 : 터널식(상부가 흙으로 덮여 있는 것), Ⅲ형 : 圍石式(양 측면에 川石, 割石 등을 구의 진행방향으로 놓아 보강한 것), Ⅳ형 : 暗渠式(Ⅱ형과 Ⅲ형의 상부에 蓋石을 얹은 경우)으로 세분가능하다. Ⅰ형은 처음부터 상부시설이 없었을 경우, 周堤 등의 상부시설이 붕괴되었을 경우, 판재 등으로 덮였으나 썩어 없어진 경우, 터널식으로 뚫었기 때문에 조사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관통시킨 경우 등의 요인으로 확인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裒德煥,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문화』, 영남고고학회.
8) 대부분의 조사 보고자들은 특별한 시설이 없는 것을 무시설식노지로 지칭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수혈을 하지 않은 평지형노지와 수혈을 한 토광형노지로 세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평지형노지는 全面이 약하게 소결되어 있는 반면, 토광형노지는 주변부에 비해 중앙부가 집중적으로 소결되어 매우 단단하게 소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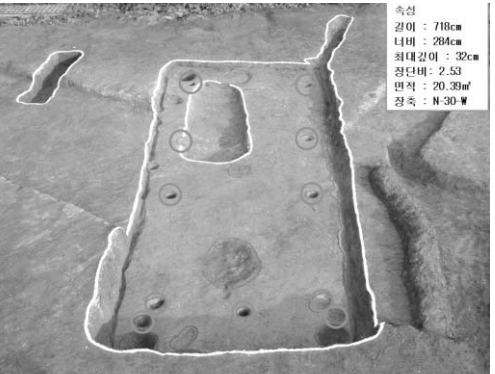
의 반대편에 해당하는데, 노지편의 단벽에도 1기씩 추가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가-6·7·12·14·16·20·21호, 다-5호). 그리고 장벽 중앙에 위치하는 주거지는 주로 세장방형 형태의 주거지이다(가-5·10·17·19·23·24·25호, 다-4호). 평면형태는 지름과 깊이가 30~50cm인 원형이 대부분이며, 단면은 ‘V’자와 ‘U’자형의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저장공에는 토기가 안치되어 있는 주거지(가-16호)와 구덩이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16호 주거지의 저장공 바닥에는 마사토를 약 3cm의 두께로 다진 경우와 저장공의 굴광면에 의도적으로 목탄을 섞은 다짐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양자의 경우는 모두 제습이나 해충류의 침투를 막기 위한 보강시설로 추정된다.

주혈은 배치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축벽체의 안쪽을 따라 한 쪽에서만 확인되는 주거지가 있다(가-9호). 그러나 가-6·12·14·20호, 다-4·5호 주거지는 장축 중앙선과 수혈선 안쪽을 따라 8~10기의 주혈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혈의 지름은 대개 10~15cm 내외이다.

벽구는 경사면 상단부 장벽에 설치된 것(가-18·19호), 경사면 상단부 장벽과 한쪽 단벽을 일주하여 외부돌출구와 연결되는 것(가-20·23호, 다-4·5호), 그리고 사벽에서 단절된 상태로 확인되는 것(가-10·12·16·24호) 등이 있다. 벽구와 외부돌출구, 저장공, 주혈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들 벽구는 벽체를 올리기 위한 기능과 배수 및 제습의 역할을 위한 시설로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가-17호 주거지는 경사면 상단부 장벽과 장축 중앙을 따라 溝 시설이 확인되는데, 사용하던 노지를 파괴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주거기능에서 다른 용도로 변화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16호 주거지



가-20호 주거지

벽체시설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없으나 가-7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에서 벽체로 추정되는 갈대 등의 초본류와 소결토가 일부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닥처리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주거지, 점토다짐 주거지, 점토다짐 후 불처리한 주거

지로 구분된다. 이들 주거지의 상면은 생토면의 굴광시 생긴凹凸면을 약 2~3cm 정도 점토다짐 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주거지 출입시설이나 선반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심발형, 옹형, 호형의 무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 외 굽다리토기(가-10·19·23호)⁹⁾ 출토되고 있다. 굽다리토기의 대각편은 대각의 1/2과 1/3정도 투공된 것들이며, 손톱으로 살짝 누른 토기도 관찰된다. 심발형토기 중 구연부의 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문(가-11·18·19호), 공렬+단사선문(가-12호), 구순각목+공렬(가-17호), 구순각목+공렬+단사선문(가-10호) 등 매우 다양하게 출토된다. 공렬의 투공수법은 한강유역에서 주로 보이는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는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호형토기의 구순부에는 각목이 시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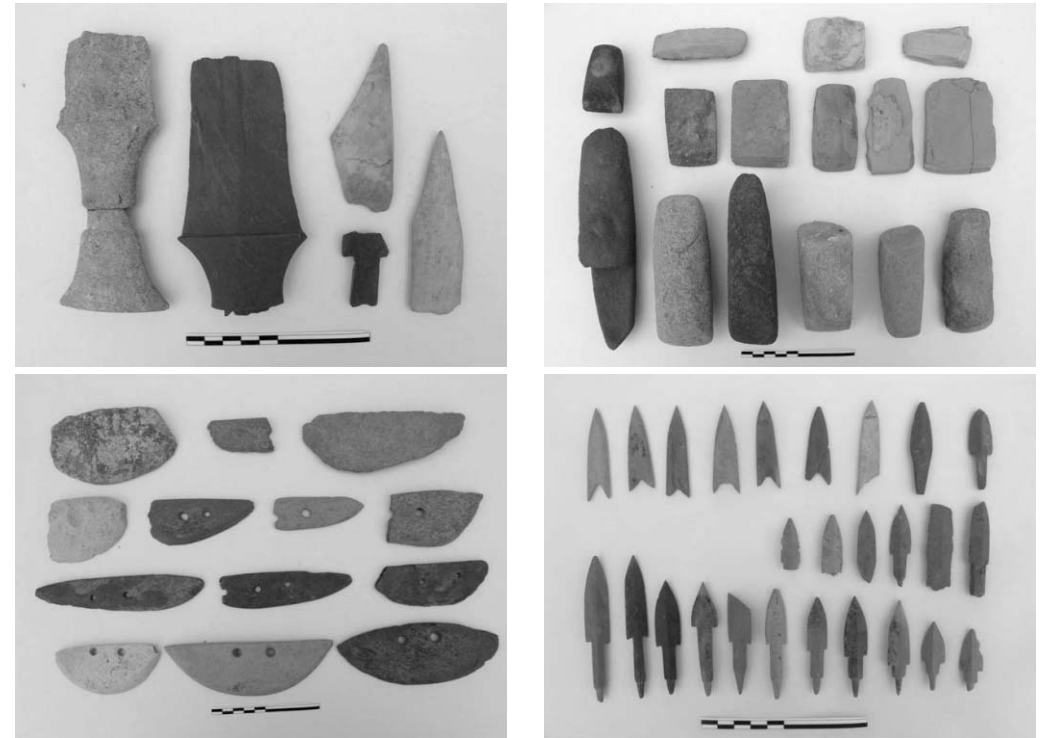
석기류는 마제석검, 석부, 석촉, 반월형석도, 연석, 지석, 찰절석기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석검은 유혈구이단병식(가-24호)과 무혈구이단병식(가-23호)이 있으며, 석부는 주상편인석부, 합인석부, 편평편인석부가 출토되었다. 석촉은 모두 삼각만입 및 2단경식 마제석촉이다. 특히 10호 주거지에서는 삼각만입촉과 2단경식 석촉 9점이 서로 포개어져서 일괄로 출토되었으며, 노지 주변에서 탄화곡물이 다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반월형석도는 단주형, 장주형, 어형이 대부분이다. 그 외 토제 및 석제의 방추차와 토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말각방형 주거지는 유구의 입지 및 평면구조상 두 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하다. 첫 번째는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며 길이 550cm, 너비 450cm 내외의 주거지로 중북관계상 (세)장방형계 주거지보다 후축하는 주거지이다(가-13·15호). 두 번째는 경사면 하단부에 입지하며 길이 250~300cm, 너비 200~270cm로 전자보다 다소 소형인 주거지이다(가-28호, 다-2호). 전자는 송국리유형 주거지로 중앙에 求心構造의 2주식과 4주식의 기둥배치를 보이며, 13호 주거지 주혈 바닥면에서는 천석을 이용한 받침돌이 확인되었다. 주혈 사이의 중앙부에서는 타원형 수혈과 벽쪽으로 향하는 곡선의 흙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수혈과 흙시설은 바닥면을 불처리한 점, 내부에서 다량의 파쇄석과 회색의 석분, 그리고 토층상에서 담수의 흔적이 관찰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석기제작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후자는 면적 10㎡ 이하의 소형으로 주거지 내부 중앙에 토광형노지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28호)¹⁰⁾와 1기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는 것(다-2호)이 있다. 이들 유구는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주거지로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수혈 바닥면 및 벽면 全面에 불처리가 되어 있고 화재로 인한 상부구

9) 이러한 형태의 굽다리토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속초 조양동, 하남 미사리, 충주 조동리, 안성 공도, 평택 토진리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대각은 圓柱形이며, 身部는 대부분 밑이 넓고 둥글며 頸部가 좁고 길게 올라가는 형태로 요즈음의 와인잔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아산 명암리 11지점 1호 수혈의 경우는 가-28호 주거지와 규모 및 구조가 동일한데, 보고자는 출토유물 등을 고려하여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에서 송국리유형 문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유구로 보고 있다. (財) 忠淸文化財研究院, 2003, 『牙山 鳴岩里 遺蹟』(11·3地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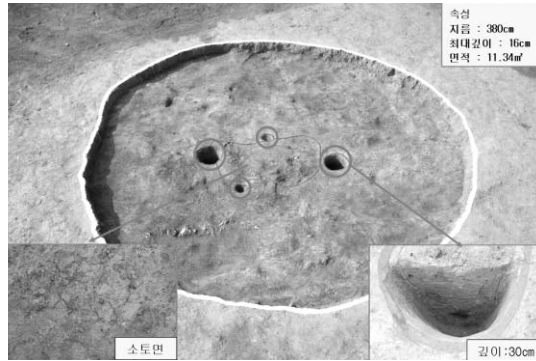


가·다지점 주거지 출토 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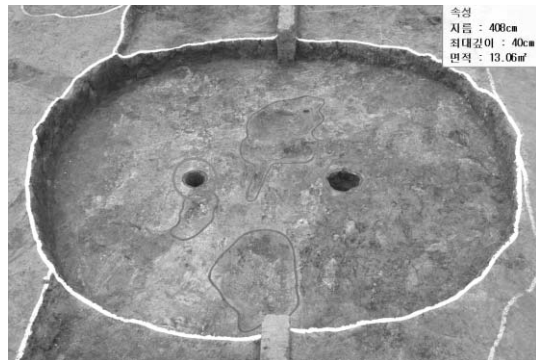
조의 일면이 관찰되는 점, 그리고 석기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수혈이 아닌 지붕구조를 갖춘 독립 취사공간 등으로도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형 주거지(가-4·26호)는 중앙에 타원형 수혈 및 소토면이 확인되는 2주식의 송국리형 주거지로 가지점의 구릉 정상부에서만 확인되었다. 타원형 수혈이 확인된 주거지는 세장방형의 가-10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노출되었는데 중북관계상 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타원형 수혈에는 말각방형 주거지에서 보이는 흙시설이 부가되어 있으나 퇴화되어 그 흔적만 약하게 관찰되며, 구덩이도 중앙에서 벽가로 치우쳐서 확인된다. 구덩이 내부 양상은 말각방형의 타원형 구덩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석기제작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가-4호 주거지는 중앙에 소토면과 보조주혈이 확인되었다. 이 소토면은 비교적 약하게 불을 맞았으며, 주주혈과 직교하게 위치한 보조주혈은 그 위치 및 구조상 이 소토면과 관계된 시설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공렬토기, 호형토기, 유공저부, 반월형석도, 일단경식석촉, 일체형석촉, 지석, 석기반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최근 주거지 구조나 출토유물상에 있어서 전형적이지 못한 이러한 양상의 송국리형 주거지들은 공간적으로 그 분포범위가 확대¹¹⁾되고 있다.



가-4호 주거지



가-26호 주거지



송국리형 주거지 출토유물 각종

- 라地點

라지점은 정상부가 해발 약 45.00m로 남북으로 향하는 독립구릉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구릉 정상부의 북편은 가구단지 부지조성으로 이미 말단부가 절토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구릉 정상부에서 동사면부로 경사지면서 내려오다가 자연곡부를 경계로 북동편은 해발 25.00~28.00m의 둔덕부와 연결되어 가지점 및 다지점의 구릉부와 연속되는 지형을 보인다.

발굴면적은 19,056㎡(5,764평)로 능선 정상부에서는 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동쪽 사면부 및 북동쪽 구릉부에서는 고려시대 이후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8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주거지 1기, 고려시대 이후의 분묘 116기, 성격미상의 수혈 31기, 구상유구 2기 등 총 178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층위는 매우 단순하여 표토층(30~50cm, 흑갈색부식토층) 아래에서 풍화암반층이 바로 노출되는데, 유구는 모두 풍화암반층을 굴토하여 조성하였다. 단 동사면부의 곡간부에는 최대두께 1.0m 이상의 재퇴적층(암갈색부식토층)이 확인되며, 재퇴적층 내에서

무문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28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조사지역 경계지점에 맞물려 주거지 일부만 확인된 3기(라-26·27·28호)를 제외하고 25기가 조사중에 있다. 배치양상은 정상부를 공지로 남겨 둔 채 구릉 남·북 말단부를 포함한 동사면과 서사면의 8~9부 능선상에서 주거지 장축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입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마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치양상은 마을 조성시 계획된 의도하에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으나 사면부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출토유물이 대부분 내부충전층 상부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부의 삭평으로 인해 유구가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 장방형, (세)장방형계, 말각방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 중 사면 하단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방형계 장방형 1기, (세)장방형 15기, 말각방형 1기로 세장방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주거지의 조영순서는 가·다지점과 마찬가지로 방형계 장방형 → (세)장방형계 → 말각방형 순으로 판단된다.

방형계 장방형 주거지(라-13·21호) 중 라-13호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삭평이 매우 심하여 수혈벽체는 모두 유실되고, 바닥면만 잔존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 주거지는 폭이 440cm로 매우 넓은 점, 동일한 형태의 무시설식노지이지만 일렬로 배치된 노지가 장벽쪽에 치우쳐 있는 점¹²⁾ 등에서 여타 (세)장방형계 주거지와는 차이가 있다.

출토유물은 도톰한 형태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라-13호)와 이중구연단사선공렬 및 순수공렬토기(라-21호)가 출토되었다.

(세)장방형계 주거지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모두 주거지의 정상부를 감싸듯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주거지는 길이가 최대 21.7m까지 확인되는데, 경사면에 입지하는 관계로 단면 'ㄱ'자형을 띠고 있다.

주거지의 부속시설은 노지, 저장공, 주혈, 벽구, 벽체 및 바닥시설 등이 확인되었는데 길이 10m를 경계로 노지의 배치 및 수, 그리고 저장공의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단, 가·다지점의 (세)장방형계 주거지에서 확인된 외부돌출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지는 토광형과 평지형노지로 주거지 장축을 따라 중앙선상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평면 원형 및 타원형이다. 규모는 길이 70~100cm, 너비 50~70cm로 일정하며, 내부에는 목탄이 혼입된 점질토층이 충전되어 있다. 이들 노지는 주거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대체로 10m 이하의 주거지에서는 1~3기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길이가 18m에 가까운 라-5·10호는 주거지 장축을 따라 8기까지 배치되어 있다. 이 중 라-5

11) 안성천 이북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평택 토진리와 화성 천전리가 있으며, 화성 동탄지구내 18지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가 조사·보고된 예가 있다. 또한 강원도 고성 송현리·사천리유적에서 양주공과 중심부에 타원형 작업공 및 노지가 배치되어 있는 방형의 송국리형태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 및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어 송국리형주거지로 보고 있다. 이 외에 의왕 ICD 진입로 개설구간(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도 송국리형주거지가 조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7,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2, 『平澤 玄谷地方産業團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2次 現場説明會 資料集』,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9, 『盤松里Ⅱ遺蹟-화성 동탄지구내 18지점-발굴조사 약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2004. 12, 『동해북부선(저진-군사분계선) 철도연결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12)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 내지 세장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장축의 중앙선상에 노지가 일렬로 배치되는데 주거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지의 수도 증가하며, 주로 한쪽 단벽에 치우쳐 확인되고 있다.

호 주거지는 주거지 중앙부에 6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북단벽쪽에 2기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저장공 및 주혈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 중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라-10호 주거지는 북단벽쪽 약 4.0m를 제외한 주거지 중앙부에 일렬로 8기의 평지형노지가 배치되어 있다.

주혈은 배치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라-1호 주거지의 경우 6주식으로 수혈벽에서 약 20cm의 간격을 두고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노지와 저장공 사이의 중앙에 1기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¹³⁾. 이러한 배치형태는 규모가 큰 라-5·10호 주거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노지와 노지 사이에도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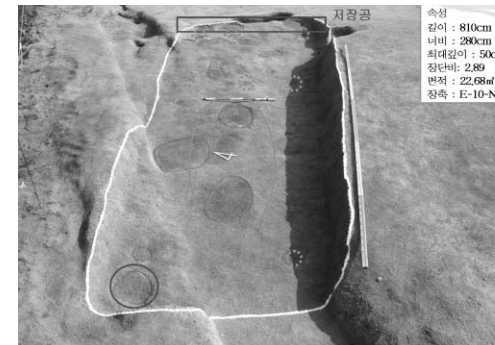
저장공은 모두 지름 40cm 내외의 평면 원형으로 주거지 장축 길이 10m를 경계로 그 배치상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길이 10m 미만의 주거지는 노지가 위치하는 단벽의 반대편에 3~4기의 저장공이 수혈벽면을 따라 배치되며, 노지쪽 단벽 모서리에 1기씩의 저장공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라-1·11호). 반면 10m 이상의 주거지에서는 그 배치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라-4호 주거지는 경사면 상단부쪽 장축 수혈벽 안쪽을 따라 5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중앙에 위치한 3기와 남단벽 모서리에서 조사된 저장공에서는 대형의 저장용 호형토기가 정치되어 출토되었다. 저장공의 지름과 깊이는 비례하고 있다. 라-5호 주거지는 단축벽 양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라-10호 주거지는 노지가 설치되어 있는 반대편 단벽쪽에 7기가 확인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노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닥면에서 약 15cm 정도 단이 지게 하여 저장공을 마련하였으며, 저장공과 노지 사이에는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벽구가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사면부에 입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단절된 상태로 경사면 상단 수혈벽에 면하여 조사되었다(라-4·9·11호). 단 라-10호 주거지는 저장공이 위치한 북단벽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노지가 위치한 남단벽쪽에서만 일주하면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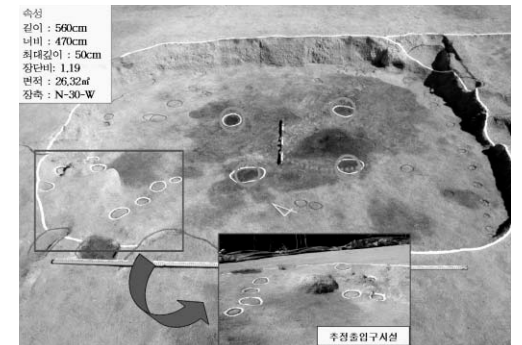
그 외 22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장벽의 한쪽면에서 길이 180cm, 폭 60cm, 높이 10cm의 단시설과 단 상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주혈이 확인되고 있어 봉상시설 내지 출입구시설로 추정된다.

주거지 상면 및 수혈벽면 처리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주거지(라-5·11호)와 불다짐한 주거지로 구분된다. 라-4호 주거지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데, 저장공이 위치하고 토기류가 집중 출토된 주거지 중앙부와 남단벽쪽에 특히 불다짐이 집중되어 있다. 수혈벽면은 상면에서 약 20~30cm 정도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경사 처리되어 있는데 4호와 10호 주거지는 수직면에서 소토면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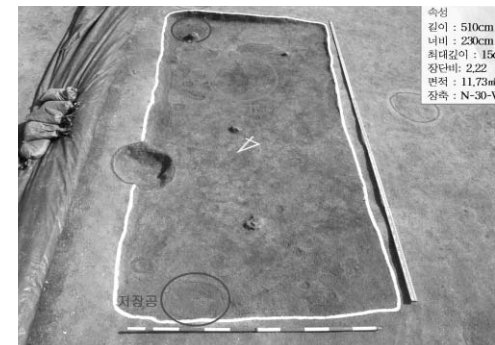
13) 이러한 양상은 소사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장방형계 주거지의 전형적인 주혈 배치형태이다.
俞炳隣·姜秉學, 2005, 11,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平澤 素沙洞 遺蹟』,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유적조사발표』, 韓國考古學會.
(財)高麗文化財研究院·YM建設株式會社, 2005, 9, 『平澤 素沙 都市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가·다地點) 3次 指導委員會議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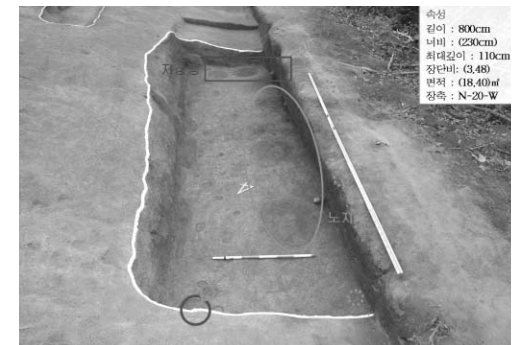
라-1호 주거지



라-7호 주거지



라-9호 주거지



라-11호 주거지



라-10호 주거지

(財)



라-7호 주거지 출토 토기류 각종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심발형, 옹형, 호형 등 매우 다양한 기종의 무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 외 굽다리토기(라-4·5·14·15·20호)와 유공저부(라-5·11·16호), 그리고 홍도(라-14호)는 주로 세장방향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굽다리토기의 저부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굽의 지름과 길이에 따라 투공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의 저장용 호형토기는 라-4호 주거지의 저장공에서 출토되었으며, 기고 20cm

내외의 심발형토기는 라-2호 주거지의 경사면 상단 수혈벽면 중앙에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특히 라-10호 주거지에서는 짧게 외반하는 구연부 아래부터 횡침선+저치문이 연속 시문된 토기¹⁴⁾



10호 주거지



13호 주거지



라지점 출토 토기류



14)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진천 사양리유적(기형 추정 불가, 3조 이상의 횡침선문을 돌리고 그 사이에 1조 내지 2조의 거지문대를 시문), 청원 송대리유적(구연부가 살짝 외반하는 발형의 기형 경부에 시문, 2조의 횡침선문 사이에 網狀文 시문), 음성 하당유적(홍도기형의 경부에 시문, 3조의 횡침선을 시문한 후 2, 3번째 횡침선 사이에 삼각집선문 시문) 등 중부내륙지방의 가락동유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예가 보고되어 있다. 中央文化財研究院 · 大田地方國土管理廳, 2004, 『陰城~笙極間 道路 擴·鋪裝工事區間內 - 陰城 下 唐里遺蹟』, 發掘調査報告書 第35冊.

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구연부의 문양은 이중구연+단사선+공렬(라-21호), 퇴화이중구연단사선(라-4·12호), 구순각목+공렬(라-11·14·15·19호), 공렬(라-2·4·5·10·14·15호), 구순각목(라-2·4호) 등 매우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으나 순수 공렬 및 구순각목토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렬의 투공수법은 기형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는데 반투공(라-14호)과 안→밖으로 투공(라-2·10·11·15호)하는 토기들은 모두 직립이나 내만하는 구연부의 심발형토기들이며, 밖→안으로 투공(라-11호)한 토기들은 모두 구연부를 살짝 외반¹⁵⁾시켰으며 동최대경이 동상부에 위치하는 옹형의 토기들에서 관찰된다.

석기류는 마제석검, 석부, 석작, 석촉, 반월형석도, 지석, 찰절석기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석검은 이단병식마제석검(라-4호)과 유혈구식석검편(라-23호)¹⁶⁾이 있으며, 석부는 환상석부(라-2호), 다두석부(라-4호)¹⁷⁾, 주상편인석부, 합인석부가 출토되었다. 석촉은 삼각만입형(라-5·10·19) · 이단경(라-3·4·5·10·15·16호) · 일단경(라-5·10호) · 일체형(15호)석촉이 출토되었다. 반월형석도는 단주형, 장주형, 어형이 대부분이다.

그 외 천하석제 옥으로 만든 장신구(라-5·10호)와 단면 육각형의 수정(라-10호)이 출토되었으며, 토제 및 석제의 방추차, 그리고 토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말각방향 주거지는 1기(라-7호)가 조사되었는데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복관계상 (세)장방향 주거지보다 후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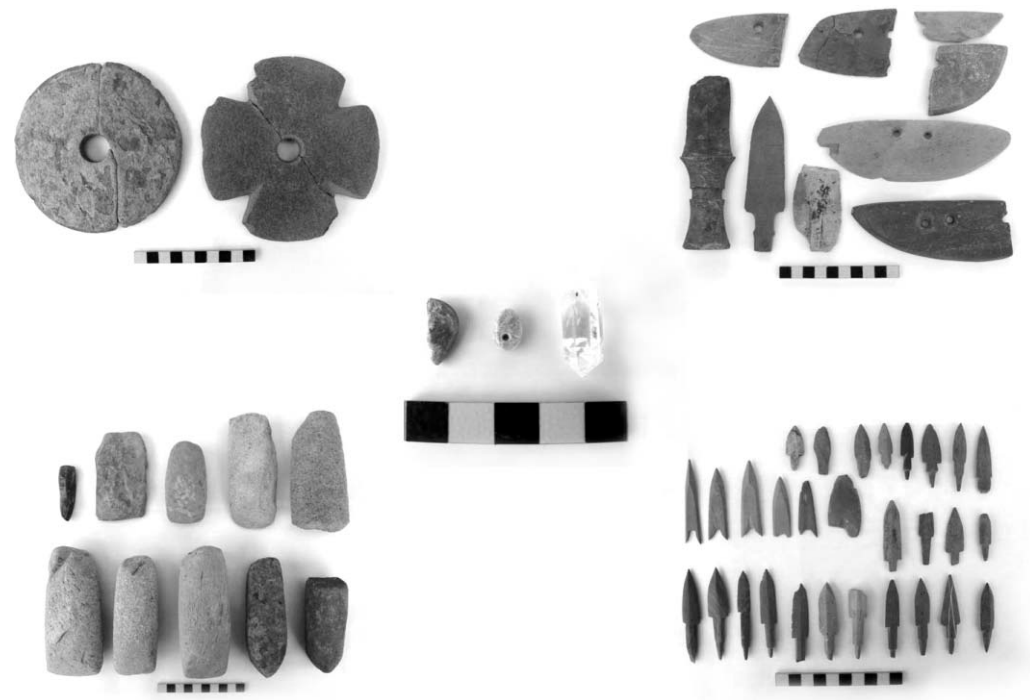
이 주거지의 노지는 토광형노지로 길이 120cm, 너비 80cm이며, 주거지의 중앙에서 약간 단벽쪽으로 편재하여 있다. 이 노지 주변에는 지름 30cm 내외의 4주식 주혈이 배치되어 있는데 노지와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단벽에는 지름 10cm의 소주혈이 등간격으로 수혈벽 안쪽에 열을 지어 확인되고 있으며, 저장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구조는 송국리형 주거지와 유사한데 경사면 하단부인 북서벽 모서리에서 출입시설로 판단되는 단 시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추정 출입시설의 단은 90×60cm이며 양편에는 지름 20cm 내외의 주혈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상면 및 수혈 벽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편 소량과 삼각만입촉이 있다.

15)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최근 발굴조사가 실시된 의왕시 고천동 유적에서 비슷한 형태의 것이 확인된 바 있는데 구순부를 살짝 바깥으로 말아서 처리한 형태의 것이다. 이 토기의 공렬은 안→밖으로 투공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의왕시, 2005, 『의왕 ICD 진입로개설공사구간 연장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16) 이 석검은 비록 검신부의 일부편만 잔존하고 있으나 혈구의 형태로 보아 연천 삼거리 유적 8호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박물관, 2002, 『漣川 三巨里遺蹟』,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9冊.

17) 이 환상석부 및 다두석부는 보통 달도끼, 톱니날도끼 등으로도 불리는데 무기류로 판단되며, 우두머리의 지휘봉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두석부는 주로 한반도 북부지역의 팽이형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강계 공귀리, 송림 석탄리, 파주 옥석리 등의 출토 예가 있다. 환상석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역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다.



라지점 출토 옥 · 수정 · 석기류

바) 조사성과

평택 소사동 유적은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한 시·발굴조사로서 총 5개지점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가·다·라지점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5기, 고려시대 이후의 분묘 230기, 수혈유구 106기 등을 비롯하여 총 406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라지점은 유적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확장발굴조사 예정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해발 23.0 ~ 45.0m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평면 방형계 장방형, (세)장방형, 말각방형, 원형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입지는 구릉 정상부 및 하단부에서는 방형계 장방형, 말각방형, 원형 주거지가 그리고 정상부에서 구릉 하단부로 떨어지는 8~9부 능선상에서는 (세)장방형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다. 조영순서는 중복관계 및 주거지 구조, 출토유물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방형계 장방형 → (세)장방형 → 말각방형 → 원형의 순으로 판단되나 송국리유형의 말각방형과 원형 주거지의 선후관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C-14연대와 고고지자기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다 명확한 조영순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형계 장방형 주거지는 폭이 450cm 이상으로 넓게 조영되었으며, 노지 1~2기가 단축 및 장축에

치우쳐 있고, 저장공은 노지 반대편 모서리에 3~4기가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주혈은 정연하지 않으나 다-6호주거지의 경우 8주식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의 주거지는 역삼동유형의 주거지 내부구조에 가락동유형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세)장방형계 주거지는 장축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노지 1~8기가 위치하며, 길이가 길어질수록 노지의 수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저장공은 노지 반대편 단벽과 장벽에 3~4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역시 주거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장벽쪽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공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확인되지만 일부 6주식과 8주식이 확인되며, 벽구는 경사면 상부쪽에 위치한다. 특히 주거지 경사면 하단부에附加된 외부돌출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주거지는 역삼동유형을 기반으로 가락동유형의 토기양상이 복합되는 소위 ‘혼암리유형’의 양상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변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택 지제동·현화리·토진리, 안성 공도·반제리, 천안 백석동·불당동·청당동, 아산 와우리·신범리·명암리·갈산리 등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전·후반의 문화유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말각방형 및 원형 주거지는 완전한 형태의 송국리형주거지는 아니지만 求心構造의 2주 및 4주식의 주공배치를 보이며 중앙에 소토면과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되었다. 말각방형의 경우 벽쪽으로 향하는 흙시설이 타원형수혈과 연결된다. 출토유물은 공렬토기, 호형토기, 유공저부, 반월형석도, 삼각만입촉, 일단경촉, 일체형석촉 등이 있다. 주거지 구조나 출토유물상에 있어서 전형적이지 못한 이러한 양상은 최근 주변지역 중 아산 명암리, 평택 토진리, 화성 천천리·반송리 Ⅱ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일련의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송국리유형의 형성 및 변천, 가락동 및 역삼동유형과의 관계, 그리고 서울·경기지방의 청동기시대 중기설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조사성과를 통해 볼 때 소사동 유적은 한반도 중부지방의 선사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까지의 주거지와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비교연구에 지표가 될 유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라지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지점별 주거양상 및 입지에 따른 생활패턴 등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의 취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각종 소식

1) 한국고고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Ⅱ 개최

- (1) 주제 : 유적 조사제도 개선과 학술성 제고
- (2) 일시 : 2005년 2월 16일(수) 오후 1시30분~오후 9시30분
- (3) 장소 : 충남대학교 박물관
- (4) 일정
 - 발제1 : 제도개선과 학술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남규(한신대학교)
 - 발제2 : 구제조사와 고고학자의 역할-박순발(충남대학교)
 - 발제3 : 발굴조사 시스템의 개선 문제-신경철(부산대학교)

2) 제81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 (1) 주제 :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 (2) 일시 : 2005년 2월 17일(목) ~ 18일(금)
- (3) 등록 : 2005년 2월 17일(목)
- (4)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1회의실
- (5) 일정
 - 〈2월 17일〉
 -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 개회사 :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이문기(경북대학교)
 - 기조강연 :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의 특성 / 서영대(인하대학교)
 - 제2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사회 :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 제1주제: 부여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제의
 - 발표자 : 윤성룡(국립중앙박물관)
 - 토론자 : 조법종(우석대학교)
 - 제2주제 : 백제의 건국신화와 제의
 - 발표자 : 박현숙(고려대학교)

토론자 : 강중훈(대구가톨릭대학교)

제3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제3주제 : 신라의 건국신화와 제의
 - 발표자 : 나희라(울산대학교)
 - 토론자 : 김창석(강원대학교)
- 제4주제 : 가야의 건국신화와 제의
 - 발표자 : 남재우(창원대학교)
 - 토론자 : 백승옥(함안박물관)

- 〈2월 18일〉

제4부 종합토론

- 사 회 : 최광식(고려대학교)
- 참여자 : 발표자, 토론자 전원

3) 고구려연구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제3차 국내학술회의

- (1) 주제 : 동아시아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 비교-
- (2) 일시 : 2005년 3월 4일(금)
- (3)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4) 주최 : 高句麗研究財團
- (5) 일정
 - 제1부 사회 : 장세운(고구려연구재단)
 - 한·중·일 3국의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공유방안
 - 발표 : 김한중(교원대학교)
 - 토론 : 박정현(한신대학교)
 - 삼국의 근대화운동과 상호인식
 - 발표 : 왕현중(연세대학교)
 - 토론 : 윤휘탁(고구려연구재단)
 - 고고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의 ‘일상생활’ 기록 분석
 - 발표 :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동경대학교)
 - 토론 : 김도형(연세대학교)

- 제2부 사회 : 김성보(충북대학교학교)

- 3국의 식민지 인식-수탈인가 개발인가?

발표 : 신주백(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배성준(고구려연구재단)

- 중국 항일전쟁사 연구의 이론과 통계수치에 관하여

발표 : 榮維木(중국사회과학원)

토론 : 김지훈(성균관대학교)

- 일본의 右傾化 정세와 右翼 교과서 문제

발표 : 하중문(한신대학교)

토론 : 김광열(광운대학교)

- 종합토론 /사회 : 서중석(성균관대학교)

4) 한국기와학회 논문발표회

(1) 일시 및 장소 : 2005년 3월 30일 오후 3시, 경기문화재단 6층 강의실

(2) 발표 및 토론

-여주 원향사지출토 막새의 연구 / 발표 : 김태근(기전문화재연구원)

토론 : 윤용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남양주 와요지출토 조선시대 평기와 연구 / 발표 : 이동준(기전문화재연구원)

토론 : 서봉수(기전문화재연구원)

5) 제35차 고구려연구회 학술발표회

(1) 주 제 : 고구려 문화의 원류와 한강유역

(2) 일 시 : 2005년 4월 29일(금)

(3)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4) 일 정

제1부/주제 : 환인 · 집안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

-오녀산성 축성법 연구

발표 : 서길수(서경대학교)/토론 : 서영일(단국대학교)

-오녀산성, 환도산성, 국내성 궁전터 발굴의 의의

발표 : 김왕직(명지대학교)/토론 : 양윤식(명지대학교)

-환도산성과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철기의 금상학적 비교연구

발표 : 박장식(홍익대학교)/토론 : 노태천(충남대학교)

제2부/주제 : 한강유역의 고구려문화

-고구려 남방한계선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발표 : 김락기(시흥시 향토사료실)/토론 : 서봉수(기전문화재연구원)

-중국 동북지역과 한강유역 출토무기 비교연구

발표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토론 : 김영민(울산대학교 박물관)

-한강유역에서 발굴된 고구려 자(尺)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발표 : 유태용(경기대학교 박물관)/토론 : 박찬홍(고려대학교)

제3부/종합토론/ 사회 : 한규철(경성대학교)

6)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춘계 학술회의

(1) 주 제 :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최근 연구 성과

(2) 일 시 : 2005년 5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3)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

(4) 후 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5) 일 정

개회사 : 이용조 (한국고대학회 회장)

사 회 : 정운용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제1주제 : 마성자문화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발표 : 복기대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토론 : 박경철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제2주제 : 송화강 유역의 초기철기문화 연구-서황산둔 고분군을 중심으로-

발표 : 이종수 (충남역사문화원 문화재센터)

토론 : 정석배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제3주제 : 日本 先史考古學의 時代區分과 年代 問題-紀元前 1千年紀를 中心으로-

발표 : 庄田愼矢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토론 : 우재병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제4주제 : 연해주 청동기시대~중세 유적 지표조사 보고

발표 :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토론 : 양시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종합토론 / 사회 : 하문식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7) 2005년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1) 공동주제 : 을사조약과 20세기 초의 한반도

(2)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 28일(토) 양일간

(3)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 북악관

(4) 주 최 : 역사학회

(5) 후 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6) 일정

〈대회 1일째 : 공동주제 발표〉

〈대회 2일째 : 분과별 발표〉

고고학부

오전발표 / 사회 : 심광주(토지박물관)

-개성공업지구(1단계 지역)내 유적 / 발표 : 최형균(토지박물관)

-마산 진동 유적 / 발표 :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안성 반제리 주거유적 / 발표 : 이상엽(중원문화재연구원)

-하삼정고분군 3 / 발표 : 박강민(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오후발표 / 사회 : 박천수(경북대학교)

-담양 태목리 유적 / 발표 : 김미연(호남문화재연구원)

-서산 부장리 유적 / 발표 : 이재욱(충청남도역사문화원)

-울주 구영리 4, 5지구 유적 / 발표 : 손정배(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8) 2005년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1)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2) 장 소 : 서울대학교 박물관

(3) 주 최 : 서울경기고고학회

(4) 주 관 : 서울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5) 후 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6) 주 제 :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 동검과 묘제를 중심으로 -
기조강연

한국 청동기시대연구의 새 흐름 / 최몽룡(서울대학교)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 연구를 마무리하며 : 김정택(한국전통문화학교)

-길림지역 청동기시대 묘제 : 이종수(충남역사문화원)

-중국 동북지방 고인돌에 대하여 : 하문식(세종대학교)

-묘제출토 두개골로 본 청동기시대 주민의 특징에 대하여 : 신동훈(서울대학교)

-요서지방 비파형동검문화 : 복기대(단국대학교)

-하가점상층문화의 형성과 유라시아의 초원문화 : 강인욱(서울대학교)

-남한지역 청동기문화의 전환과정 : 조진선(전남대학교)

토 론 : 이청규(영남대학교)

정석배 (한국전통문화학교), 유태용(경기대박물관), 미야자토 오사무(宮里修, 서울대학교), 정상석(기전문화연구원), 박양진(충남대학교), 박순영(서울대학교)

9) 고구려연구회 2005년 하계학술회의

(1) 주제 : 고려와 백제

(2) 일시 : 2005년 6월 3일(금) ~ 4일(토)

(3) 장소 : 국립공주대학교 본관 대강당

(4) 제1일 / 등록 및 개회 / 사회 : 延敏洙(부산대학교)

-高句麗와 百濟의 出系 認識 / 발표 :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토론 : 서영대(인하대학교)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와 百濟의 中國古典 理解 / 발표 : 박찬규(단국대학교)

토론 : 강중원(충남역사문화원)

-6~7世紀 高句麗와 百濟의 對外關係 變化 / 발표 :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토론 : 김현숙(고구려연구재단)

-제1부 종합토론 / 사회 : 양기석(충남대학교)

(5) 제2일 / 사회 : 김희찬(경희대학교)

-高句麗와 百濟의 建築文化 / 발표 : 서정호(공주대학교)

토론 : 이진하(한서대학교)

-高句麗와 百濟의 古墳文化 / 발표 : 이남석(공주대학교)

토론 : 서오선(국립대구박물관)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 발표 : 심광주(토지박물관)

토론 : 최종택 (고려대학교)

-제2부 종합토론 / 사회 : 심정보(한밭대학교)

-공주지역 역사유적 답사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학술발표회

(1) 주제 :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2) 일시 : 2005년 6월 20일(월)

(3)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2층 세미나실

(4) 주최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5) 주관 : 신라사학회

(6) 일정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사회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 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 촌과 촌주 / 발표 : 조범환 (서강대학교 박물관)

토론 : 김희만 (성화대학교)

-울진 봉평비와 신라의 동해안 진출 / 발표 : 김덕원 (명지대학교)

토론 : 양정석 (수원대학교)

-신라 중대 아도화상비의 건립 / 발표 : 곽승훈 (목원대학교)

토론 :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진감선사탑비와 혜소의 선종사상 / 발표 : 김두진 (국민대학교)

토론 : 허홍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최근 발견 ‘사천 선진리 신라비’ 시론 / 발표 :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박남수 (국사편찬위원회)

-신라 금석문의 말세의식과 미륵신앙 / 발표 : 장일규 (국민대학교)

토론 : 이재범 (경기대학교)

-종합토론 및 폐회

11) 고구려연구재단 개원1주년 기념 제4차 국내학술회의

(1) 주제 :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복원 문제

(2) 일시 : 2005년 6월 24일(금)

(3)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1번 출구)

(4) 주최 : 고구려연구재단

(5) 일 정

제1부 사회 : 김일권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의 전망 / 발표 : 한준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국)

토론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전통재료와 기법을 이용한 고구려 고분벽화 현상모사 방안 연구 /

발표 : 김 식(홍익대학교)

토론 : 이종송(건국대학교)

제2부 사회 : 고광의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 고분벽화 복원, 모사를 위한 기초자료 검토 / 발표 :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 김진순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 발표 : 한경순 (건국대학교)

토론 : 서 용 (동덕여자대학교)

-옛사진자료를 통해본 고구려 고분벽화의 손상과 원인 연구 / 발표 : 안병찬(경주대학교)

토론 : 김순관 (국립고궁박물관)

제3부 종합토론 / 사회 : 지병목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2) 한국고고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Ⅲ

- (1) 한국고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 (2) 일자 : 2005년 8월 19일(금) 오전10시
- (3) 장소 : 충남대학교 박물관
- (4) 일정
 - 개 회
 - 고고학 교육의 현황
 - 고고학과 및 유사 단위 이준정(서울대학교)
 - 사학계열 이남규(한신대학교)
 - 고고학의 사회적 수요와 과제 심광주(토지박물관)
 - 종합토론 최성락(목포대학교)

13) 제37차 고구려연구회 학술발표회

- (1) 주제 : 고구려 축성법 및 와당연구
- (2) 일시 : 2005년 8월 27일
- (3) 장소 : 단국대학교 서관 11층 국제회의장
- (4) 내용
 -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형식과 편년 -구획선 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 고구려 축성법 연구 -성문(Ⅱ)-

14) 韓日聚落研究會 제1회 공동연구회

- (1) 주제 : 韓日 聚落研究의 現況과 課題(Ⅰ)
- (2) 일시 : 2005년 9월 10일(토)
- (3) 장소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조치원) 고고환경연구소 1층 회의실
- (4) 일정
 - 사 회 : 權五榮(한신대학교)
 - 개회사 : 李健茂(한국측 대표, 국립중앙박물관장)

답 사 : 武末純一(일본측 대표, 福岡大學 교수)

환영사 : 李弘鍾(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장)

-嶺南地方 靑銅器時代-三韓時代 聚落研究 現況과 課題 / 金 賢(경남고고학연구소)

통역 : 平郡達哉(부산대학교)

- 甌生時代 集落研究史 - 研究の現況と課題 / 〃 亘田佳男(日本 文化廳 記念物課)

통역 : 庄田愼矢(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嶺南地方 靑銅器時代・三韓時代の 編年 / 安在皓(동국대학교)

통역 : 平郡達哉(부산대학교)

- 甌生土器・土師器・須惠器の編年/ 武末純一(日本 福岡大學)

통역 : 庄田愼矢(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취락유적조사 사례발표

-光州 東林洞遺蹟 / 李暎澈(湖南文化財研究院)

-佐賀縣 吉野ヶ里遺蹟 / 七田忠昭(佐賀縣教育廳 文化課)

-福岡縣 西新町遺蹟 / 重藤輝行(福岡縣教育廳 文化財保護課)

-春川 泉田里遺蹟 / 池賢柄(강원문화재연구원)

1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2회 매산기념 강좌

- (1) 주제 : 한국의 청동기 제작과 용범
- (2) 일시 : 2005년 10월 13일(목)
- (3)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소예배실
- (4) 일정

사 회 : 최병현(숭실대학교)

개회사 : 박은구(숭실대학교 박물관장)

기조강연 : 이진무(국립중앙박물관장)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기 제작과 용범 / 오강원(고구려연구재단)

-한반도 출토 청동기시대 용범 / 조진선(전남대학교박물관)

-숭실대 소장 국보 제231호 용범 일괄유물을 중심으로-

-질의토론/사회 : 이청규(영남대학교)

질의토론자 : 강인욱(서울대학교)・이양수(국립김해박물관) 외

16)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추계 학술회의

- (1) 주 제 : 고구려 미술문화의 재조명
- (2) 일 시 : 2005년 10월 29일 (토요일) 13시 30분~18시
- (3) 장 소 :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205호
- (4) 후 원 : 고구려연구재단,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 (5) 일 정
 - 사 회 : 최성은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 개회사 : 이용조 (한국고대학회 회장)
 - 고구려 팔각형 건물터에 대한 연구 /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과)
 - 토론 : 한동수 (한양대 건축학과)
 - 景4年신묘명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중국 불상과의 관계 /
 - 발표 : 양은경 (부산대 고고학과)
 - 토론 : 임남수 (영남대 미술학부)
 - 환문충 벽화에 그려진 동심원문의 도상과 그 의의 / 발표 : 정병모 (경주대학교)
 - 토론 : 한정희 (홍익대 예술학과)
 - 고구려 집안지역 묘주도 의자의 계보와 전개 / 발표 : 이송란 (인천시 문화재감정관)
 - 토론 : 최응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
 - 종합토론 / 사회 :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부)

17) 제6회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 (1) 일 시 : 2005년 11월 4일(금) 09:00~15:00
- (2) 장 소 : 서울 연세대학교 박물관
- (3) 주 최 : 한국구석기학회
- (4) 일 정
 - 개회사 : 한국구석기학회 회장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사회 : 장용준(국립대구박물관)
 - 화순 사창 구석기유적의 성격 / 최미노(호남문화재연구원)
 - 남양주 호평동유적의 흑요석제 석기와 사용 /

- 홍미영(기전문화재연구원) · 리나코노넨 코(러시아 과학원)
- 홍천 백이 구석기유적의 성격 / 김선주(강원문화재연구소)
- 순천 월평유적 제3차 발굴의 성과 / 이기길(조선대학교)
-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시밀라의 주먹도끼 연구 / 배기동(한양대학교)
- 오후 사회 : 최승엽(강원문화재연구소)
- 전주 송천동 구석기유적의 성격 / 안효성(전북문화재연구원)
- 오송생명과학단지 구석기유적 정밀시굴조사 개보 / 노선호(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종합토론

18) 한국선사고고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1) 주제 : 한국 고고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 (2) 일시 :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3) 장소 :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
- (4) 주관 : 한국선사고고학회
- (5) 후원 :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 (6) 일정 / 사회 : 이선복(서울대학교)
- 개회사 : 임효재(한국선사고고학회장)
- 환영사 : 박낙규(서울대 박물관장)
- 축 사 : 이견무(국립중앙박물관장) / Schultz(하와이대학교)

기조강연

- 한국 고고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 임효재(서울대학교)
- 한국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진전 및 과제 /
- Hartmut Tschauer(하버드대 :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제1부 / 사회 : 최복규(강원대학교)

- 중국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최무장(연천 선사박물관)
- 시베리아 고고학 연구성과와 과제 / 강인욱(서울대학교)
- 일본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미야사토(宮里修, 와세다대학교)

제2부 주제발표 / 사회 : 이상균(본회 부회장)

- 구석기시대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배기동(한양대학교)

-신석기시대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임상택(서울대학교 박물관)

-청동기시대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김권구(본회 부회장)

제3부 주제발표 / 사회 : 최정필(세종대학교 박물관)

-마한·백제의 최근 연구성과와 과제 ... 임영진(전남대학교)

-고구려고고학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최종택(고려대학교)

-신라고고학의 최근 발굴성과와 과제 ... 윤형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과학적 연대측정법의 진전과 과제 ... 성형미(동양대학교)

충평 / 사회 : 지진길(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선사 분야 / 이용조(한국선사문화원장)

-역사 분야 / 최병현(숭실대학교)

19) 고고환경연구소 학술회의

(1) 주제 : 景觀의 考古學

(2) 기간 : 2005年 11月 10日(木)~11日(金)

(3) 장소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고고환경연구소 회의실

(4) 일정

제1일

土器燒成實驗(서창캠퍼스내) / 小林正史(北陸短期大)·北野博司(東北藝術工科大)·庄田

愼矢·孫峻鎬·崔仁建·李映周(고려대학교)

前夜祭

제2일

개회사 / 李弘鍾(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장)

축 사 / 李光賢(고려대학교 부총장)

발 표 / 司會 : 이홍중(고려대학교)·박양진(충남대학교)

-景觀考古學의 理論의 特徵과 適用可能性 / 김종일(KAIST)

-한국 중서부지역 靑銅器時代 中期 社會組織의 이해 / 김범철(고려대학교)

-日照地區區域系統調查與龍山時代社會組織形態 / 方輝(山東대학교)

-粟類作物及中國北方旱作農業起源研究的新資料和新思考 / 趙志軍(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繩文時代の生態系と景觀をめぐる課題と展望 / 誠一郎(東京대학교)

-彌生時代およびそれ以降の微地形環境變化と土地利用 / 高橋學(立命館대학교)

質疑 및 應答

20) 경기도박물관·한신대학교 학술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1) 주제 :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토기와 철기를 중심으로-

(2) 일시 : 2005. 11. 18(금) 오전 9:30~오후 6:00

(3) 장소 : 경기도박물관 대강당

(4) 주최 : 경기도박물관, 한신대학교 학술원

(5) 주관 : 한신대학교 박물관

(6) 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사업

(7) 일정

사 회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개회사 : 박설호(한신대학교 학술원장)

축 사 : 이종선(경기도박물관장), 윤응진(한신대학교 총장)

발표 및 토론

-백제의 생산기술과 유통체계 이해를 위하여 / 총론 : 권오영(한신대학교)

-백제 한성양식 토기의 생산기술 / 발표 : 조대연(영국 셰필드대학)

토론 : 김성남(서울대학교)

-백제 한성양식 토기의 유통망 분석 / 발표 : 김장석(전남대학교), 조대연, 권오영

토론 : 김무중(서울역사박물관)

-진천 석장리유적 제철 자료의 분석적 고찰 / 발표 : 오사와 마사미(大澤正己, 九州 테크노리서치)

통역 : 아마모토 다카후미(山本孝文, 고려대학교)

-백제 철기 제조공법의 특성 /

발표 : 신경환(株新세기), 장경숙(울산발전연구원), 이남규

토론 : 성정용(충북대학교)

-백제 철기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 발표 : 이남규(한신대학교)

토론 : 최종택(고려대학교)

종합토론 / 사회 : 박순발(충남대학교)

발표자, 토론자 전원

21) 제11회 고구려연구회 학술회의

(1) 주제 :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 世界

(2) 일시 : 2005년 11월 3일~11월 5일

(3) 장소 :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관 11층 국제회의실

(4) 일정

제1일 : 廣開土太王碑의 제문제 / 사회 : 정진현(고구려연구회)

- 동아시아사에서 광개토태왕비 연구의 역사적 의미

發表 : 박성봉(경북대학교) / 討論 : 이재석(고려대학교)

- 유럽학계의 광개토태왕비 조사와 연구

發表 : 서길수(서경대학교) / 討論 : 지병목(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中國好太王碑研究現狀與趨勢/發表 : 耿鐵華 (中國 通化師範大)

討論 : 조법중(전주 우석대학교)

- 東京大學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小拓紙からみた制作年代の考察

發表 : 早乙女雅博(日本 東京大) / 討論 : 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

- 傅斯年圖書館藏好太王碑原石拓本乙本完整的發現

發表 : 高明士(臺灣大學校) / 討論 : 이우태(서울시립대학교)

- 高句麗の異種族統治 -4~5世紀を中心に-

발표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 토론 : 김영민(울산대학교 박물관)

- 高句麗の編史事業と百濟・新羅・倭

發表 : 高寛敏(日本 朝鮮大) / 討論 : 노태돈(서울대학교)

綜合討論 / 司會 : 신형식(상명대학교)

제2일 : 廣開土太王과 東아시아의 國際秩序 / 사회 : 이병건(동원대학)

- 高句麗의 세력권 遼東에 대한 地政學的 考察

發表 : 이기동(동국대학교) / 討論 : 박정철(강남대학교)

-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遼東진출과 對後燕政策

發表 :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 討論 : 이인철(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의 초원진출과 유목민족 정책

發表 : 서영교(목원대학교) / 論 : 강신(숙명여자대학교)

- 고구려의 부여진출과 교류의 실상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發表 : 이종수(충남역사문화연구원) / 討論 : 정운용(고려대학교)

- 高句麗와 百濟의 對立과 東아시아 世界

發表 :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 討論 : 금경숙(고구려연구재단)

- 광개토태왕의 신라구원과 가야와 왜의 무기체계 변화

發表 : 송계현(부산시립박물관) / 討論 : 김태식(홍익대학교)

- 「廣開土王碑文」と『帶方界』

發表 : 鈴木英夫(日本 國學院大) / 討論 : 윤명철(동국대학교)

綜合討論 / 사회 : 김위현(단국대학교)

제3일 : 高句麗와 東아시아 世界

- 關於高句麗好太王碑初期拓本的研究 —早期墨本の製作和流傳(1880~1888年)—

發表 : 徐建 新(中國 社會科學院) / 討論 : 임세권(안동대학교)

- 광개토태왕비 초기탁본의 쟁점 —북경도서관 원석정탁본과 국제한국연구원 석회탁본을 중심으로—

發表 : 서영수(단국대학교) / 討論 : 노중국(계명대학교)

- 고구려 국호고 —高句麗와 句麗 관계를 중심으로—

發表 : 박진석(中國 延邊大學校) / 討論 : 정구복(한국학 중앙연구원)

- 4세기 후반 5세기초 고구려 왕권과 그 정당성—광개토대왕을 중심으로—

發表 : P.N. MOHAN(호주 시드니대) / 討論 : 공석구(국립 한밭대학교)

- 4~5세기 고구려의 동아시아 인식—광개토왕비를 중심으로—

發表 : 이용현(국립중앙박물관) / 討論 : 송완범(고려대학교)

- 알타이지역 투르크문화의 형성과 고구려 —마구류를 중심으로—

發表 : 강인욱(고려대학교) / 討論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아시아 문화

發表 : 전호태(울산대학교) / 討論 : 박아림(숙명여자대학교)

綜合討論 / 사회 : 양기석(충북대학교)

22) 제29회 한국고고학회 전국대회

(1) 주제 :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토기와 철기를 중심으로-

(2) 일시 : 2005년 11월 5일(토) ~ 11월 6일(일)

(3)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4) 일정

제1일

개회사 / 이백규(한국고고학회 회장)

축 사 / 이진무(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공동주제 발표 / 오전 사회 : 권상열(국립중앙박물관)

오후 사회 : 김용성(신라문화유산조사단)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의 토기 / 김무중(서울역사박물관)

-금강유역 원삼국시대의 토기양상에 대해 / 성경용(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영산강유역의 원삼국시대 토기상 / 이영철(호남문화재연구원)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토기 / 이성주(강릉대학교 사학과)

-한반도 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철기문화 -지역성과 전개양상의 특성-

/ 이남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원삼국시대의 철기-영남지역- / 손명조(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제 토론 / 토론사회 : 최성락(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종합토론 / 박순발(충남대학교), 이재현(울산발전연구원), 송계현(부산박물관)

제2일 : 11월 6일(일요일)

유적조사 발표 / 오전사회 : 김승옥(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오후사회 : 박천수(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제주 성읍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 방문배(제주문화예술훈재단문화재연구소)

-평택 소사동유적 / 강병학(고려문화재연구원)

-고성 송현리 · 사천리 유적 발굴조사 개요 / 이창현(강원문화재연구소)

-서천 옥북리유적 발굴조사 성과 / 전일용(충청문화재연구원)

-함양 화산리유적 / 박상언(경남발전연구원)

-고창 남산리유적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강릉 초당동 고분군 / 이진충(강원문화재연구소)

-금산 수당리유적 / 최봉균(충남역사문화원)

-오산 가수동유적 / 김한식(기전문화재연구원)

-화성 장안리유적 / 양정석(수원대 박물관)

-청원 쌍청리 다중환호 유적 / 도문선(중앙문화재연구원)

4. 발간 조사 보고서

기 관	서 명
강원대학교 유적조사단	抱川 禾垆里 쉼터 “ 石器遺蹟
경기대학교박물관	通津鄉校
	水原 古索洞 遺物散布址
	河南市 漢沙洞 발 遺蹟
경기도박물관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龍仁 할미산성
	고양 먹절산유적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성시 문화유적분포지도
	포천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세종대학교 박물관	오산시 역사와 문화유적
	하남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여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중앙문화재연구원	平澤 七槐洞 · 土津里遺蹟
	龍仁 倉里 · 工稅里 · 文村里遺蹟
	平澤 斗陵里遺蹟
	平澤 金谷里 · 三溪里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	평택 신왕~도일간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용인~포곡간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용인~포곡간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조사 마성리 · 영문리 유적
	안성 중리동 동광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부지 지표조사 보고서
	용인 동백~죽전간 도로구간내 시 · 발굴조사 보고서
	성남 판교지구 광역도로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龍仁 東栢里 · 中里遺蹟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수원 첨단 R&D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창림30주년기념 특별전 도록 ‘생명의 땅, 역사의 땅’
	문화재 조사 요람
한신대학교 박물관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 · 북 공동조사 보고서
	풍납토성Ⅵ
	남양만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부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부천 고강동 유적 제7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파주 교하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남한산성 행궁권역내 건축물 이축지 시 · 발굴조사 보고서
	김포시 문화유적분포지도

Ⅲ. 연구노트

1. 城廓遺蹟을 통해 본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 / 박 종 익
2.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 김성태 · 허미형
3. 한강유역 신라 石室墓의 受容과 展開 / 홍 보 식
4. 신라토기의 한강유역 정착과정에 대한 試論 / 홍 보 식
5. 경기지역의 新羅系 평기와 小考 / 허 미 형

城廓遺蹟을 통해 본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

박 종 익 *

- 1. 머리말
- 2. 신라산성의 특징
- 3. 基壇補築을 가진 주요 山城
-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은 나라여서 일찍부터 山城을 위주로 하여 城郭이 발달하여 왔으나 수많은 전란을 겪는 동안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산성은 특성상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명분이 다했을 지라도 뒤이어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어 수축, 개축 등으로 인하여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산성은 그 축성 주체자가 뚜렷이 명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용된 시대에 맞추어 그 당시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발굴조사 그 순간마다, 조사부분의 결과에 따라 축성자가 달리 대변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新羅가 三國統一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강유역으로 진출해가는 과정에서 신라는 정복한 지역에 築城이라는 役事を 통해 그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의 틀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신라의 성곽으로 뚜렷이 부각될 수 있는 특징적인 축성기법인 基壇補築¹⁾이 新羅古都를 중심으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1) 박종익, 1994.12, 「古代山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제15호.

한 지역과 그 주변의 여러 산성에서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강 주변의 기단보축이 있는 산성유적을 살펴 신라와 관련있는 유적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신라산성의 특징

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성곽이 속한 지역적인 성격과, 때에 따라서는 유적 규모으로 인해 문헌에서 밝힐 수 없는 일부분까지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산성의 형태 및 축조방법, 기능, 유물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러하기에 단일유적과는 달리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성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유적으로서 고대사 복원에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최근에는 순수한 학술적 조사의 성격 외에도 복원정비 차원에서 산성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築城의 일차적인 목표는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곽의 축조는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통제력 체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토성에 비하여 석성축조는 工役이 많이 들고 축성재료인 석재의 운반과 가공 등이 어려운 반면 한번 축조되면 방어력도 우수하고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석성의 축조에서는 그 견고성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축조기법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에 의하면 성벽의 기저부를 보강하고 있는 기단보축기법이 여러 산성에서 발견되었다.

기단보축이 나타난 고대산성들을 살펴보면, 삼년산성은 470년에 축성, 486년에 개축을 한 기록이 있고, 명활성은 473년 葺明活城, 554년 修築明活城, 593년 改築明活城 등의 문헌기록과 55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활산성작성비’가 있다. 단양적성은 1978년에 ‘단양신라적성비’가 발견됨으로써 545~551년이라는 절대년대를 가진 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대모산성 역시 건물지에서 출토된 開元通寶(A.D.621)가 있다. 창녕 목마산성은 56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녕 진흥왕 척경비가 있고, 함안 성산산성의 경우는 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토 목간에서 그 시기가 간쥴된다.

이러한 기단보축이 나타난 고대 산성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대개 신라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축조된 산성들로 신라와 관련있는 성곽유적임을 알 수 있다.

3. 基壇補築을 가진 주요 山城

경주 명활산성, 보은 삼년산성, 함안 성산산성, 양주 대모산성 및 기타산성에서 나타나는 석성하부의 보강 축조기법인 기단보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산성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보자.

1) 慶州 明活山城²⁾

(1) 역사적 배경

新羅의 都邑인 慶州에 자리잡고 있어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없지만 慈悲麻立于 16년(A.D.473)에 명활성을 수리한 실질적 기록이 나타나고, 동왕 18년 (A.D.475)에는 月城에서 명활성으로 거처를 옮겨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474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남하정책을 계속하여 백제의 蓋鹵王을 살해하고, 한성을 비롯한 漢江流域을 차지한 후 신라지역인 鷄立峴, 竹嶺을 넘어 낙동강 상류와 동해안으로 공격하는 위급한 시기였다. 이에 백제와 합세하여 고구려의 남하 세력을 완전히 저지한 뒤 炤知王 9년(A.D.487)에 월성을 修葺하여 익년 정월에 다시 월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마도 명활산성의 실체는 475년 이후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都城, 혹은 行在城으로서의 역할을 13년간에 걸쳐 맡아 왔으며, 551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明活山城 作城碑」가 확인되었고, 또한 『三國史記』권39 잡지 제8 직관 조의 明活典이란 부서는 이 명활성을 관리하던 전담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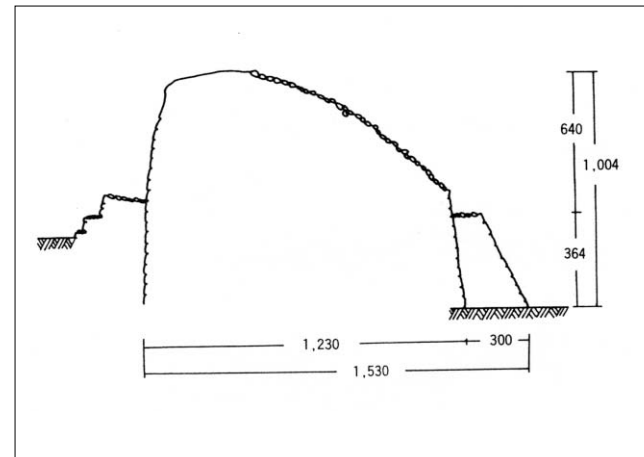
이처럼 명활산성은 都城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주 주변에 위치하여 南山城, 西兄山城, 北兄山城, 富山城, 關門城 등과 함께 羅城으로서의 소임까지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라의 주요 산성이었다.

(2) 기단보축

명활산성은 경주시 동쪽 보문저수지 남쪽에 위치한 명활산의 북쪽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둘레 약 4.7km의 포곡식 석성과 남쪽의 토성이 있다.

기단보축은 체성외벽과 집수시설 부근에서 관찰되는데 외벽의 경우 흑색의 점토와 15cm 정도 크기의 자갈을 섞어 단단하게 다진 층위에 성벽과 기단보축을 축조하고 있다. 즉 체성외벽의 바깥 부분에 성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에 덧대어서 밑뿌리에서부터 경사를 이루게 쌓은 기단보축 석벽

2)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明活城』-간급발굴조사보고서.



명활산성 기반보축 도면

폭 1.9m, 높이 2.78m, 경사도 73°, 제2보축은 하부폭 1.7m, 경사도 63°이다.

2) 報恩 三年山城³⁾, 大田 鷄足山城⁴⁾

(1) 역사적 배경

① 보은 삼년산성은 百濟가 한성 부근에서 일어나 신라를 병합하고자 남하를 감행함에 신라가 이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북진정책을 감행하고자 삼년산성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백제의 웅진, 사비 시대에도 역시 신라는 삼년산성을 근거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고 있다. 즉, 脫解尼師今 7년(A.D.63)부터 백제와의 공방전은 娘子谷城(청주)과 蛙山城(보은 ?)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어 와산성을 삼년산성의 前身으로 여기는 자도 있고, 또 백제가 항상 西鄙에서 공격하여 왔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羅·濟 양국의 요충지로 알려진 보은지방이 접경지대가 되었음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373년 이전에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있었음⁵⁾을 알 수 있고 433년 나제 양국은 동맹⁶⁾을 맺고, 455년에는 고구려의 남침⁷⁾을 막기까지 하는 등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되었지만 15년 후 신라는 보

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경사를 주며 층층히 쌓아 올라 가다가 수직에 가깝게 쌓은 체성외벽의 중간 부분에서는 단을 이루며 접속되고 외벽과의 사이에는 역시 할석과 점토를 채워 넣어 외면에 점토를 발라 잘 마무리 하였다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규모는 하부 폭 3m, 높이 3.64m로 기울기는 64°이다. 집수구 동편 체성의 폭은 11.2m이고, 제1기단 보축은 하부

은에 삼년산성을 축조하였다. 475년에 백제 개로왕의 참사로 文周王이 公州로 천도하게 되자, 486년에 삼년산성을 개축하는 등 백제에 대비하게 되었다. 사비천도 이후 554년 백제 성왕은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해 加良으로 더불어 대군을 이끌고 管山城으로 쳐들어가지만 삼년산군의 비장인 高干都刀가 백제군을 기습하여 狗川(옥천)에서 성왕을 죽이고 큰 승리를 이끌었다.

이처럼 보은 삼년산성은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곳으로 산성이 축조되는 470년 이전에는 蛙山城으로서 치열한 자리다툼을 하던 주요 거점으로 평가되는 지역에 위치한 산성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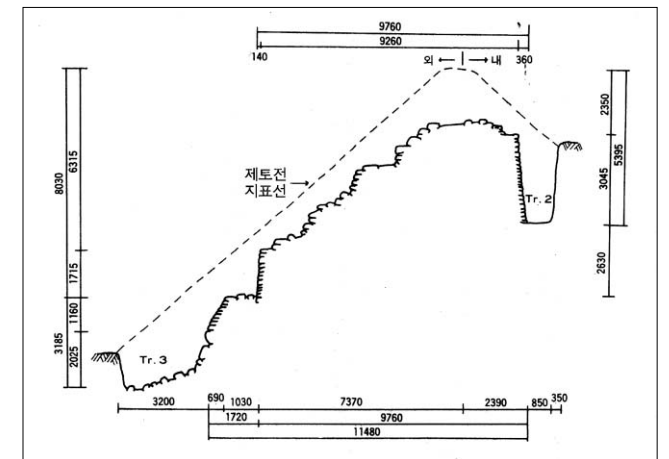
② 계족산성은 백제부흥군의 요충지인 甕山城에 비유되고 있는데, 백제의 雨述郡에 속했던 대전지방이 관방의 요충지로 부각된 것은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 이후부터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면서 부터이고, 그 후 대전은 백제와 신라의 통로상에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한 곳이라 여겨진다.

(2) 기반보축

① 삼년산성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오정산에 축조되어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 약 1,680m이며,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기단보축이 관찰되는 곳은 西北雉, 西南雉 주변 성벽과, 서북치·서남치 외부이다. 우선 성벽에서는 외벽의 하단부에서 돌출된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데 면석들은 높이 15~18cm 정도로 성벽 면석에 비해 대체로 큰 정방형에 가까

운 부정형 석재를 많이 사용하여 성벽에 비해 조잡하게 쌓여있다. 보축의 높이는 120cm, 상부폭은 80~100cm 정도이나, 雉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점차 좁아져 30cm밖에 안되는 곳도 있다. 보축의 경사도는 서북치 부근이 65°, 서남치 부근은 45° 정도이다. 한편 서북치의 보축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 보축은 최대높이 1.7m, 경사도는 73°로 성벽보다는 완만하나 성벽 보축보다는 급경사이며 이것이 체성의 보축과 만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체성의 보축을 먼저 쌓고 난 후 치의 보축을 쌓았는데 치의 보축이 2단 가량 높게 되어 체성의 보축을 덮고 있다. 하단 보축은 많이 붕괴된 상태이지만 경사도는 75° 정도이며, 하단 보축의 면석은 치나 상단보축의 면석들에 비하여 비교적 넓적한 것들로 되어 있다.



삼년산성 기반보축 도면

3) 보은군, 1979, 『보은 삼년산성 기초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三年山城』-추정 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 보은군, 1987, 『三年山城』-성벽구조 및 서북치 조사개보.

4) 대전공업대학 향토문화연구소, 1992, 『鷄足山城』,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99, 『鷄足山城 2次 發掘調査 略報告書』.

5)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 제3 奈勿尼師今 18년조에「百濟獨山城主率引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甚乖和親之義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6)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 제3 訥祗麻立干 17년조에「秋七月 百濟遣使請和 從之」.

7)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 訥祗麻立干 39년조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② 계족산성은 대전시 동구 회덕동의 계족산에 위치한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모습이며, 성의 둘레는 약 1,037m 정도이다. 기단보축은 북벽 및 서문지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북벽에서는 현존 9.4m 정도로 높게 쌓은 성 외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하단부에 보축시설을 하였는데, 그 규모는 기저부 폭 약 3m, 상부너비 약 0.85m, 높이 3m 가량이다. 서문지 부근의 체성 외벽에서 확인된 것은 높이 약 2.5m 인데, 그 하단부는 1.1m 정도 이격하여 시작되었고, 상단부는 약 30cm 가량 떨어져 있다.

3) 咸安 城山山城⁸⁾

(1) 역사적 배경

阿羅伽耶의 멸망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三國史記』지리지에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 阿那伽耶)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에서의 법흥왕대 멸망과 인근지역인 昌寧 眞興王拓境碑 설치 연대를 561년으로 보는 점에서 아라가야의 멸망시기를 6세기 전반 내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王 15년 조에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充實之」이라 하여 514년에 신라 최초의 小京인 아시촌소경을 함안에 설치하여 6부 및 남쪽 지방인들을 옮겨 살게 했다고 한다.

지증왕대는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때로 투항해 오는 소국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곳을 小京이라 하고 속국처럼 대우하면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州에 편입시켜 직접 통치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라는 이곳에 소경을 설치함으로써 군사적인 개입의 구실을 얻어 가야연맹체를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⁹⁾. 또한 『三國史記』지리지에 의하면 「咸安郡 … 領縣二 玄武縣 本召三縣 景德王改名 今召三部曲」이라하여, 신라 十停 중의 하나인 召參停 이 설치된 곳이 함안군으로 여겨진다. 『三國史記』직관조에 「十停或云三千幢¹⁰⁾ … 五日召三停 … 竝眞興王五年置」라 하여 544년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보다 일찍 함안은 신라의 속국이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또한 『東國通鑑』法興王 26년조에 「新羅滅阿尸良國以其地爲郡」이라 하여 539년에 멸망되었다고 한다. 또한 백승옥은 그의 논문¹¹⁾에서 김해의 금관가야는 527년 이전에 이미 신라에 복속되었고, 비사벌 가야는 530~541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신라에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자치권을

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咸安 城山山城』.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咸安 城山山城 II』.

9) 임병태, 1967, 「신라 소경고」, 『역사학보』제35,36합집.

10) 이명식, 주17)의 논문, 76쪽.

— 삼천당은 지방의 각주에 배치한 기병부대로서 6停의 보조집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9서당을 운용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築城과 護城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1) 백승옥, 1991, 「4~6세기 비사벌 가야의 성격과 그 추이」,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55년까지는 유지한 것으로 생각되며, 555년 신라가 비사벌에 下州를 설치하고 중앙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함안의 아라가야 역시 비록 洛東江을 사이에 두고 창녕과는 많이 이격되어 있다 할지라도 召參停이 설치되었던 544년 이전에 이미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시촌 소경의 설치연대(A.D.514)까지도 소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44년에 설치된 10정의 하나인 召參停의 위치를 함안군 竹南面에 비정하고 있는데¹²⁾ 이 지역은 방어산(해발 530m), 삼봉산(해발 280m), 백제산(해발 368m)의 큰 산으로 둘러싸인 남강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여기에는 많은 가야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다.

성산산성은 지증왕 15년(A.D.514)에 阿尸村小京이 설치되고 진흥왕 5년(A.D.544)에 召參停이 설치되는 등 일찍 신라에 복속되어 남강을 경계로 한 對百濟地域의 전초기지로 십분 활용된 지역에 위치한 주요산성으로 여겨진다. 한편 성산산성의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저수지내에서 출토된 목간과 『日本書紀』권 제19 欽明天皇 22년(A.D.561)조에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以備日本」의 기사를 참조한다면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기단보축

함안 성산산성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1675번지 및 함안면 괴산리 784번지 일대의 鳥南山에 위치하는데, 현 가야읍 소재지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 咸安 道項里, 末山里 古墳群(史蹟 제84·85호)을 내려다보고 있다. 城山山城에서의 外壁補强構造物은 남



성산산성 남문지 외벽 기단보축

서벽(1991년), 동벽(1992년), 북벽(1993년), 남서벽(2000년), 서벽(2001년)에서 확인되었는데 三角形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일부 粘質土가 감싸고 있는데, 外壁이 먼저 축조된 후 그 下段(基底)部 外面에 덧대어 설치된 것이다. 남벽의 경우 외벽을 보강하고 있는 기단보축은 현 성벽상면 약 380cm 아래에서 보이는데 보축석의 제일 하단은 약간 큰 돌로 축조되었으나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약 30×15cm 크기의 돌로써 평탄면을 외부로 향하여 경사지게 축조하였고, 이 기단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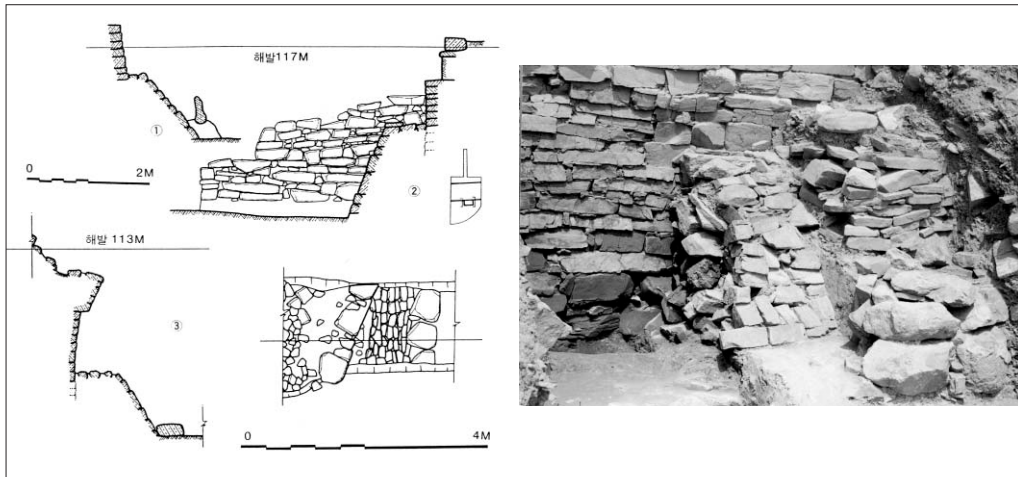
12) 이병도, 1980,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640쪽.



성산산성 서벽 기단보축

의 상단 부분은 체성외벽에 닿아 3각형의 축조모습을 보이는데 높이 140cm, 너비 150cm, 경사도 60°이다. 남문지 좌우벽의 경우는 문지 외부에 용도미상의 장방형 석축 구조물(동서길이 480~600cm, 남북길이 370cm, 높이 110~220cm의 규모)이 맞붙어 있는데 축조상태는 서편은 체성보축석의 윗면에 덧대어 축조한 반면, 동편에서는 이 구조물이 먼저 체성에 접하여 축조된 후 보축석이 감싸고 있어 동시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단보축은 외벽을 점판암으로 비교적 정연히 수직되게 쌓은 후, 외벽에 덧대어 경사지게 쌓아 보축을 하고 있는데 서편의 경우에는 기단보축면을 다시 점질토가 덮고 있다. 규모는 서편의 경우 높이 150cm, 너비 110cm, 기울기 50°, 동편은 현존높이 160cm, 너비 120cm, 기울기 약 70°이다. 동벽, 서벽의 경우 외벽축조는 남벽의 축조기법과 동일하나, 외벽기저부 확인을 위한 기단보축을 해체한 결과 외벽의 기저부는 커다란 막돌로 약 1m 높이까지 축조되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높이까지 소형의 보축 구조물이 삼각형으로 축조되어 있고, 다시 규모가 큰 기단보축이 삼각형으로 그 위를 감싸고 있으며, 또 이 윗면에 개축시의 보축구조물이 장방형으로 축조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한편 동문지 외벽에서 基壇補築 始作點이 확인되었는데 자연 경사가 급히 이루어지는 부분에 길게東西로 먼저 석축하고, 그 석축과 외벽에 덧대어 기단보축이 남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산산성 남벽 보축도면

4) 昌寧 牧馬山城¹³⁾

(1) 역사적 배경

가야권이었던 창녕이 언제 신라에 편입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三國史記』卷 제4 新羅本紀, 제4 眞興王條에 의하면 「16年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라 하였고, 『三國史記』卷 제34 雜誌 제3 地理1 新羅 火王郡條에 의하면 「火王郡本比火郡 一云比斯伐 眞興王16年 置州名下州 二十六年州弊 景德王改名 今昌寧郡」이라 하여 555년에 이미 신라권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 창녕읍에는 眞興王拓境碑(국보 제33호)가 있는데 이는 신라가 비화가야를 병합하고 진흥왕이 창녕지방을 순시한 56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기단보축

목마산성은 창녕읍 송현동에 위치하는데, 목마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둘레 약 2km의 山腹式山城으로 후편의 화왕산성과 연결되고 있으며, 산기슭에는 가야시대의 교동고분군, 송현동고분군이 있다. 기단보축은 남벽의 외벽에서 확인되었는데, 외벽에서 약 85cm 바깥 지점에 기저석을 놓고 암반층 바로 위에 쌓고 있다. 외벽보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조금 작은 평탄한 돌을 사용하여 쌓은 벽이 현재 10단 정도로 남아있는데 그 높이는 약 90cm 정도이다. 즉, 외벽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외벽의 바깥에 삼각형태의 석축구조물을 축조하여 외벽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남지의 구진산성¹⁴⁾과 거창 거열산성¹⁵⁾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5) 溫達山城¹⁶⁾, 丹陽赤城¹⁷⁾, 忠州山城¹⁸⁾, 姑母山城¹⁹⁾

(1) 역사적 배경

① 온달산성, 단양적성은 법흥왕 12년(A.D.525) 대야찬 伊登으로 沙伐州(상주)의 군주로 삼아²⁰⁾ 일찍부터 管山(옥천), 西原(청주), 母山(진천)지방으로 진출한 이후 진흥왕 12년(A.D.551) 백제와 고구려

13) 경상남도 창녕군, 1996, 『창녕 목마산성』-지표조사보고서.

14) 경상남도 창녕군, 1998, 『창녕 구진산성』-지표조사보고서.

15) 우리문화재연구원, 2005.2, 「거창거열산성 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16)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89, 『溫達山城』-지표조사보고서.

17) 충북대학교박물관, 1991, 『丹陽 赤城』-지표조사보고서.

18)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4, 『충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충주산성 및 직동고묘군』.

1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開慶 姑母山城』-지표조사보고서.

20)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法興王 12년「春二月 以大阿 伊登 爲沙伐州軍主」.

의 道薩城(천안), 金峴城(전의)을 빼앗았고²¹⁾, 이듬해는 娘城(청주)에 巡幸²²⁾하기도 했으며, 또, 거칠부와 8장군 등에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여 「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을 공취한 사실²³⁾에서 그 당시에 이들 성 역시 신라의 세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단양적성의 경우 성 내부에서 1978년에 「丹陽新羅赤城碑」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신라 진흥왕대인 545~551년이란 절대연대를 가진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② 충주산성은 『三國史記』잡지 제4 지리(2)조에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 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라 하여 원래 고구려의 국원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말미암아 충주지방에까지 영향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廣開土王碑」의 古牟婁城과 1979년에 발견된 「中原高句麗碑²⁴⁾」에도 나타나고 있어 충주지방의 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즉 고구려는 충주지역을 장악, 그 지리적 요충(한강유역의 중심이기도하며, 소백산맥의 중간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남진정책의 발판으로 삼아 장차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비하여 신라와의 동맹관계로 인하여 聖王(A.D.523~554)은 한때 충주지방을 탈환하여 獨山城이라 하기도 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 陽原王(A.D.545~558)대의 백제 독산성 공격에 대한 구원에서 승리함²⁵⁾으로 말미암아 한강유역 공략의 전초진으로 삼고 진흥왕 12년에 「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의 10군을 취하게 되었다. 553년 신라는 백제가 회복한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아 편입시키고 新州를 설치하게 되자 고구려,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에 대항하게 되지만 역부족이었고, 557년에 國原에 小京을 설치²⁶⁾하고 정치, 문화, 군사적인 중요성을 생각하여 본격적으로 개척하기에 이르러, 이듬해에 중앙귀족의 자제와 6부의 호민들을 옮겨 살게 하는²⁷⁾ 등 한반도 통일의 발판으로 삼았던 주요 지역에 위치하는 산성으로 여겨진다.

③ 문경지역은 신라가 5세기 중반 이후 영남지방의 거점도시에 대한 축성과 교통로를 정비하는 등 지방체제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신라는 삼년산성과 일모성을 축성하고 금강 중상류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소지왕대부터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수축하여 교두보로 삼고, 점차 한강유역으

21)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1년「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陷百濟金現城 王乘兩國兵疲 命 伊 異斯夫出擊之 取二城增築」.

22)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2년「春正月 開元開國 三月 王巡守 次, 城」.

23) 『三國史記』권 44 列傳 제4 居柒夫「十二年 王命居柒夫等八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24) 단국대학교사학회, 1979, 「중원고구려비 특집호」, 『사학지』13.

－ 중원 고구려비는 長壽王69년인 48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9년「春正月 高句麗與濊人攻百濟獨山城 百濟請救王遣將軍朱玲勁卒三千擊之殺獲甚衆」.

26)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8년「以國原爲小京」.

27)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9년「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로를 모색하였다.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백산맥의 서쪽(상주-보은-청주), 또는 동쪽(예천-영주-단양)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지방으로 갈 경우 반드시 점촌-문경을 사이의 고모산성을 거쳐야 한다. 신라는 소백산맥의 주요 교통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거점성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고모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고모산성은 군사적으로 계립령로를 통해 소백산맥을 넘어 문경-상주 일대로 남하하는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충주일대 남한강유역 진출에 있어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여겨진다. 고모산성의 남동사면에는 5~6세기 경에 조성된 대규모의 신현리고분군이 위치한다.

(2) 기단보축

① 온달산성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성산에 축조된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약 682m이고, 평면형태는 부정의 장방형이다. 북벽의 수구부위에서 기단보축을 쌓아 기초를 만든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즉 기단보축은 외측에서 경사가 완만한 8~9단의 할석석축부분이 있는데 체성의 벽을 쌓는 방법과는 달리 경사를 완만히 하면서 물려쌓거나 빗쌓기를 하였는데 45~50°의 경사에 1.2m 높이로 쌓았고, 기단보축의 상면은 1m내외의 폭을 두고 평평하게 축조되어 있다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단양군 영춘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串赤嶺]의 입구에 위치하는 경북 영주시 순흥의 비봉산성²⁸⁾(5세기 후반~6세기 전반기 축조)은 소백산맥에서 뻗어 내려온 잔구성 산지에 축조되어 있는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약 1,350m이며, 남쪽 성벽의 외면하단에서 기단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비봉산성 아래에는 고구려의 영향이 강한 순흥 읍내리벽화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다.

② 단양적성은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의 성재에 위치하는데, 마안형의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 약 922m이다. 기준점에서 231~238m 구간인 남서부분 성벽에서 기단보축이 관찰된다. 즉 3단의 석축 위에 체성이 축조되어 있지만 아래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석축은 체성의 바깥아래에 쌓여진 보축으로 여겨지므로 2단의 기단보축을 마련하고 그 안쪽에 체성을 축조한 것이다. 기단보축은 1.3~1.4m 높이로 2단이며, 각기 7~9단을 쌓았는데 석축된 외면의 기울기는 약 75° 정도이다.

③ 충주산성은 충북 충주시 직동의 남산에 위치하는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 1,120m 정도이다. 기단보축은 동쪽 계곡부분의 성벽에서 관찰되는데 높이가 6.53m이고 기울기가 73°인 체성의 외측하단에서 바깥으로 1.4m 떨어진 지점에서 기단보축의 상단이 시작되어 체성과 기울기가 비슷하게 아래로

28)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順興 飛鳳山城』.



고모산성 기단보축

3.8m까지 확인된다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④ 고모산성은 경북 문경시 일원의 고모산에 위치하는데, 산성은 사모봉 형태의 포곡식 산성이며, 둘레는 약 1,300m이다. 보축은 남쪽 성벽에서 확인되었는데 현재 단면 사다리꼴 형태로 남아있으나, 상단부가 유실된 점을 감안한다면 단면 삼각형태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보축성벽은 높이 75cm, 너비는 아래 90cm, 상면 61cm이다. 체성과 보축성벽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

이고, 풍화암반층 위에 성벽을 축조한 후 기저부에 삼각형태의 보축성벽을 쌓아 기저부 보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축성벽은 들어쌓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석재의 외면을 사선으로 다듬어 위로 올라가면서 본 성벽과 연결되게 하였다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6) 龍仁 할미산성²⁹⁾, 利川 雪城山城³⁰⁾, 驪州 婆娑山城³¹⁾, 安城 竹州山城³²⁾

(1) 역사적 배경

① 할미산성이 있는 백현고개는 예로부터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사용되어져 교통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이다. 용인지역은 백제, 고구려를 거쳐 신라 진흥왕대 한강유역을 확보하면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북으로 남한산성이 자리한 청량산과 이어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탄천과 경안천, 신갈천의 상류에 해당하여 북으로 산을 등지고 남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지대를 포용하는 지형이다.

용인 보정리고분군(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석곽묘 등 총 100 여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음)에서 신라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설성산성은 이천시 장호원을 설성산에 있는데,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낮은 구릉이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이천, 여주평야 일대는 물론 죽산, 음성, 충주 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남한강 수로 및 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육상교통로가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주변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사이를 청미천과 지류들이 흘러들고 있다. 또한 군데군데 낮은 구릉이 형성되어 논농

사뿐만 아니라 밭농사에 유리한 지역이다. 교통의 요충지와 비옥한 평야 때문에 4세기 후반~7세기 중반 경에 삼국 사이에 치열한 항쟁이 벌어진 곳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당시에 바로 한강유역을 완점하는 바탕이 된 지역이다.

③ 파사산성은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주변에 산이 없는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시계가 좋은 지점이다. 충주와 조령으로 이어지는 남북교통로상에 위치하여 수로와 육로를 동시에 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된 곳이다.

(2) 기단보축

① 할미산성은 용인시 구성읍의 栢岷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된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둘레 약 660m이다. 계곡부를 가로질러 축조된 동벽의 외벽에서 너비 1.5m, 높이 30~40cm 정도로 1~2단 가량의 석재를 넓게 붙인 형태의 기단보축이 확인되었다. 내벽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체성벽에 덧붙여 외벽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미산성 기단보축

② 설성산성은 이천시 장호원을 설성산에 위치하는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 1,112m 정도이다. 서벽의 외벽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는 보축성벽의 기단부는 외벽에서 1~1.3m 돌출되어 있고, 높이는 1m 정도였다. 성벽의 단면형태는 직각삼각형이다. 보축성벽의 외벽은 삼각형 혹은 사다리꼴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단지 석재의 기울기면을 이용하여 바깥면을 조성하였다. 서문지 주변에서도 확



설성산성 기단보축



죽주산성 기단보축

29) 경기도박물관, 2005, 『용인 할미산성』-시굴조사 약보고서.

30)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보고서』.

3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개요』, 『畿甸考古』-창간호.

3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집』.

인된 바가 있다.

③ 파사산성은 한강 중류변에 위치한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935m 정도이며, 서벽의 일부 기단 부에서 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7) 서울 峨嵋山城³³⁾

(1) 역사적 배경

① 아차산성은 阿且城, 阿旦城, 峨嵋城, 長漢城이라고도 불리었는데, 『三國史記』百濟本紀의 蓋鹵王 2년(A.D.475) 조의 아단성, 『廣開土大王碑』396년의 아차성 등으로 인해 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신라에 의해 초축된 성으로 성벽의 높이는 7m 이상이고, 성벽 기저부의 폭은 9m에 가까운 대규모 석축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이후인 6세기 중반 이후이며, 출토유물로는 7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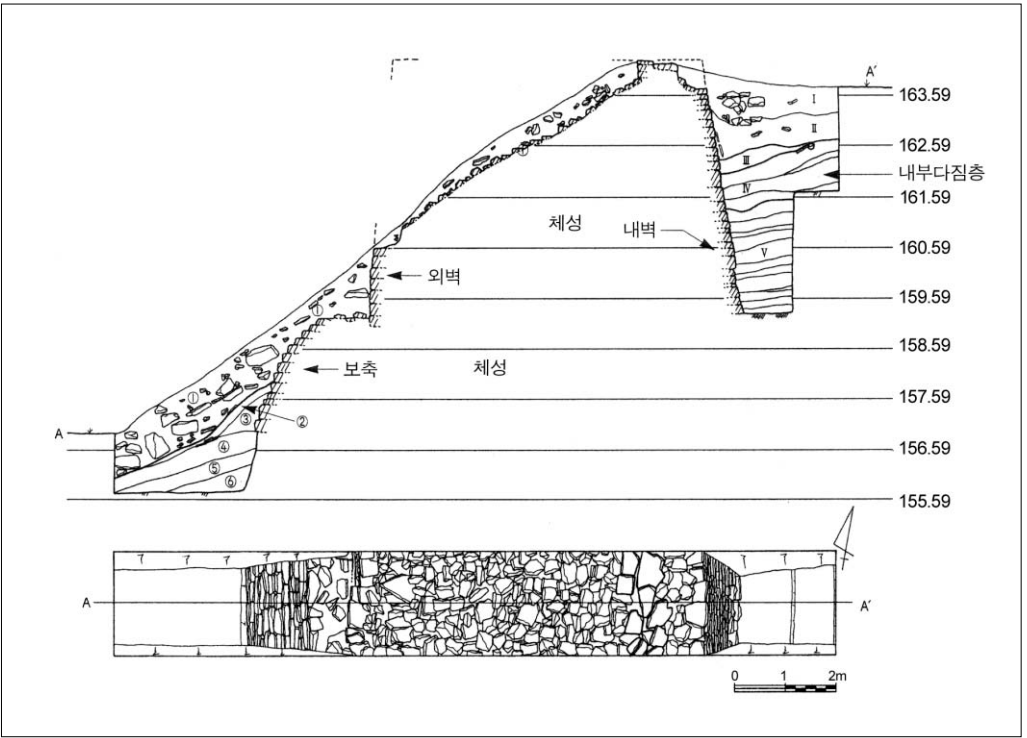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553년(신라 진흥왕 14년) 나제동맹을 파기하고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공취함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한강진입을 제압하고, 558년의 황초령, 마운령 순수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진출하였고,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비약적인 영역확장을 진행하였다. 신라의 한강유역 지배과정은 초기 영역확보의 과정에서 생기는 小峯의 변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라는 553년(진흥왕 14)에 南川州(오늘의 이천)를 설치한 후 558년에 北漢山州로 移置하였다가 568년(진흥왕 29)에 다시 남천주로 후퇴한다. 그 후 604년(진평왕 26)에 다시 북한산주로 還置하여 강화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낸다. 이러한 실상에서 아차산성은 북한산주(또는 북한산정)가 주둔한 북한산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내에서 수습되는 명문기와에서 확인되고 있다.

(2) 기단보축

아차산성은 아차산 줄기의 가장 남쪽부분에 위치하는데, 남쪽으로 한강변에 닿아있다. 평면은 부정 6각형이며, 둘레는 약 1,038m의 포곡식 산성이다. 남동쪽으로 한강의 북안으로 이어져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북쪽의 구릉성 산지에는 고구려 보루들이 포진하고 있다.

2구간의 성외벽은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보축으로 받혀있던 부분만이 잔존해 있다. 보축성벽 또한 상부의 석열이 유실된 상태이다. 성벽 기저부의 폭은 7.3m에 보축기저부의 폭은 약 2.1m이고, 현존

33) 서울대학교박물관 등, 2000, 『아차산성』-시굴조사 보고서.



아차산성 보축도면

하는 외벽 상부까지의 높이는 보축기저부를 기준으로 3.7m이며, 보축위쪽으로 7단의 석축이 남아있다. 보축은 현존석축이 13단, 높이 2.24m이다. 보축으로 굽도리 쌓기를 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한단에 7cm 내외 정도씩 들어 쌓았으며, 상부의 4~5단은 10cm 정도씩 들어쌓아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보축의 단면형태는 부채꼴이다. 동문지 부근에서도 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8) 楊州 大母山城³⁴⁾, 坡州 七重城³⁵⁾, 抱川 半月山城³⁶⁾

(1) 역사적 배경

① 대모산성은 현재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도중 서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주위에는 칠중성, 감악산성, 북한산성, 아차산성, 풍납리토성, 몽촌토성, 이성산성, 남한산성 등 많은 산성이 겹겹이 남아 있다. 한편, 4세기 후반 경에 백제의 영토는 漢山에 서울을 두고 평양성 바로 남쪽인 水谷城(신계)

34) 한림대학교박물관 등, 1990, 『楊州 大母山城』.

35)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파주 칠중성』-지표조사 보고서.

36)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주변지역까지 그 북쪽 경계선으로 삼고 고구려 영토인 평양성까지, 5세기 어느 시기부터는 고구려 세력에 밀려 예성강과 고목성, 牛山城(춘천)주변을 잇는 경계선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라는 진흥왕대의 활발한 북진정책, 즉 4~5세기 중반까지는 백제세력과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하슬라(강릉)와 실직(삼척) 주변을 북변으로 삼았다가 진흥왕대(6세기 초 이후)에 들어와 백제의 우산성(춘천)을 공격하였다. 계속 고구려의 남쪽과 남동쪽, 백제의 동북경계를 잠식하여, 6세기 중엽 신라의 서북 경계는 서쪽의 당항성(남양)에서 모산성(진천, 대야성(합천)을 잇는 대영역을 차지하고, 북단으로 청목령(장단), 칠중성 주변, 고목성(회양), 비열홀주(안변)를 포함하고 북쪽으로는 황초령, 마운령까지 포함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신라 진흥왕 12년(A.D.551)에 居柒夫 등에게 고구려를 침략케 하여 10군을 취하고³⁷⁾, 동왕 14년(A.D.553)에 백제 동북지방을 취하여 新州(광주)를 설치하고³⁸⁾, 동왕 16년(A.D.555) 10월에는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하고³⁹⁾ 557년에는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한 점⁴⁰⁾으로 보아 대모산성 주변은 늦어도 6세기 중엽에는 이미 신라영토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양주 대모산성은 백제영역으로 포함되었을 당시에는 고구려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지역이었고,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거의 신라영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중요 거점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칠중성은 임진강 중류의 남쪽 강안에 위치한 7세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격전지로 기록된 칠중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③ 포천지역은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한성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지이며, 군사적 요충지로 한강유역을 영유하는 백제의 최종 방어선이었던 곳이다. 6세기 후반부터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신라의 압박이 시작되고, 629년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는 승리를 함으로써 한강이북지역을 영역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기단보축

① 대모산성은 경기도 양주군의 산성산에 위치하는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약 1.4km이다. 기단보축은 북문지와 그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성벽은 외관상 상단만 보이는데, 윗부분은 수직단면이고, 중간부 이하는 경사가 있다고 하며, 경사는 단면 부채꼴로서 이러한 扇形斷面은 城基에서 단마다 조금씩 기울기를 둔 성벽면을 이룬 점에서

주목되었고, 체성 외측하단에는 45°의 기단보축이 있다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즉, 북문지의 외벽은 현재의 체성 바깥으로 체성의 아랫부분을 덧대어 쌓은 석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덧대어 쌓은 기단보축의 하부는 당초부터 점질토 내에 있었으나 상단일부는 체성처럼 외견상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기단보축과 체성과의 사이에는 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보축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외면으로 계단처럼 낮아지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기단보축 아래를 평탄하게 정지한 후 그 위에 성석을 놓고 올라갈수록 단마다 내측으로 7~12cm씩 들어놓아 쌓으므로써 보축의 외관이 층계를 이루는 특이한 축성법이라 하고 있다.

② 반월산성은 경기도 포천시 구읍리에 위치하는 둘레 약 1,080m의 테피식 산성이다. 남벽에서 확인된다. 보축성벽은 초축 성벽의 기단부에 덧대어 단면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쌓아 올라갔다. 약 7~8단 정도 잔존하며, 그 높이는 약 1.3m 정도이다. 보축성벽은 초축성벽의 하단부에서부터 1/3~1/4 정도를 덮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성의 기단석으로부터 약 1.2m 정도 떨어져 기단석이 놓여있다. 그 위로는 잘 다듬어진 장방형 화강암 석재를 면석으로 삼아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매단 약 5~10cm 정도 들어쌓기를 하여 단면형태는 부채꼴을 이루고 있고, 상면의 형태는 약간의 공간을 두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칠중성은 경기도 파주시 중성산에 위치하는 마안형의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약 603m이다. 동벽과 남벽에서 보축이 확인되었다. 전면을 치석한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정연하게 축조하였는데, 최소한 체성의 1/3 지점까지는 덮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된 석재는 체성보다는 약간 작거나 거의 비슷한 크기이며, 매단 들어쌓기를 하였고 뒤심을 기울여 전체적인 형태는 부채꼴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월산성 보축

4. 맺음말

이상 살펴본 각 산성들 중 경주 명활산성, 창녕 목마산성, 함안 성산산성을 제외하고는 대개 한강 유역에 위치함으로써 일찍부터 백제, 고구려 등 삼국의 주요거점 확보를 위한 쟁탈전 속에 있다가 마

37)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2년「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38)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4년 秋 7월「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 瑟力爲將軍」.

39)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6년 冬 10월「王巡幸北漢山拓定封疆」.

40)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18년「廢新州 置北漢山州」.

침내 신라의 한반도 통일 정책 입안 하에 법흥왕, 진흥왕대의 활발한 정복사업으로 인해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 점유당하게 되었던 곳이다.

신라에서 확보한 이들 지역에는 물론 이전시기에 어떤 형태의 산성(방어, 도피시설)이라도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거점(전초기지)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재지민을 동원하여 신라간부들의 지휘하에 신축, 개축, 증축 등의 보강작업을 하였다고 보인다. 산성을 축조하면서 더 견고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기단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산성에서 사용된 기단보축 기법은 신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이들 산성 역시 신라의 주요 거점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성의 기저부를 보강하는 방식에 있어 이미 2개의 기법이 있음을 살펴본 바가 있다. 체성의 성벽을 쌓은 후 그 기저부를 보강하는 외벽기단보축과 체성의 기저부를 쌓기 위해 미리 지반을 다진 후 그 위에 체성을 쌓는 외면기단보축 방식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한강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에는 단면 부채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체성기단의 굽도리 보축방식으로 약간씩 뒤물림하면서 기단을 형성한 후 그 위에 수직의 체성을 쌓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미 고구려에 의해 산성이 축조된 후 다시 신라에 의해 성곽이 개축된 지역에서 그러한 방법들이 확인되고 있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주에서부터 점점 한강변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백제, 고구려와 많은 충돌을 하고 있음은 이미 『三國史記』 등 문헌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된 산성유적은 가야지역에서 창녕 목마산성, 함안 성산산성 등이 있고, 보은의 삼년산성, 대전의 계족산성 등이 있다.

그리고 충주지역과 단양지역에서의 온달산성, 단양적성, 충주산성 등이 확인되었고, 문경지방의 고모산성, 영주의 비봉산성에서도 기단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용인의 할미산성, 이천의 설성산성, 여주의 파사산성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기단보축은 대개 삼각형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변에는 역시 당시의 매장유적인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삼각형의 모습을 가진 기단보축은 현재 신라와 관련있는 지역의 곳곳에서 확인되는 실정이나, 아직 그 정형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산성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유적전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곳이 제대로 없어 그 표준성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표조사로 그친 유적이 많기 때문에 발굴조사에서 나타나는 실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유적에서는 거의 기단보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와의 관련성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한강 이북 지역에서 확인되는 기단보축은 외벽기단보축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대개 단면 부채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한강 이남지역에서 확인되는 기단보축과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단면 부채꼴 모습에서 기단보축은 고구려 산성의 한 특징인 굽도리 축조모습을 연상케하고 있으며, 이들 유적 또한 고구려의 한강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 고구려와도 그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강유역으로 진출해가는 신라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만의 거점지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축성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인 지역 접수보다는 북속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의 표출과 함께 그들 재지민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한가지 작업으로 묶어두기 위해, 고도의 응집력과 노동력을 담보로 하여 축성이라는 작업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것처럼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문경, 단양, 충주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보은과 대전지방을 경유하면서 이천, 여주, 용인으로 나아가 한강유역을 점령하여 그 거점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신라가 거친 지역에서는 그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성이라는 사업으로 정복민을 통제하고, 영역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축성작업에서는 그들만의 특징인 기단보축을 통하여 그들의 힘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김 성 태* · 허 미 형**

1. 머리말
2. 임진강 유역의 신라유적
3. 한탄강 유역의 신라유적
4. 분석과 고찰 -신라의 점령지역 지배방식- 一見-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역사고고학의 목적과 연구방법론에 따라 임진강 유역의 신라유적을 분석·연구한 논문이다. 최근 발간된 『韓國考古學事典』에는 歷史考古學이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연구방법은 먼저 고고학적 자료에 의거한 시간과 공간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와 연결되는 문헌 자료나 민족지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당시의 문화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대사 연구와 관련하여 문헌적인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여 당시 문화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고고학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였다.

이 글 역시 이런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을 점령한 553년부터 삼국통일까지로 삼았으며, 공간적 범위는 임진강·한탄강 수계의 경기북부 지역과 강원도 영서내륙지방의 철원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은 신라후기토기의 전형인 단각고배와 신라기와로 분류되는 태선문기와가 출토되어 신라유적으로 보고된 산성, 고분, 주거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신라유적

유적으로 삼았다. 대상유적의 절대다수는 관방유적이다. 고분은 파주 성동리고분군 1곳뿐이며, 주거 유적 역시 포천 성동리 생활유적이 유일하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신라의 점령지역 지배방식을 고고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별유적에 대한 분석을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석을 고고학과 고대사의 연구성과를 동원하여 시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유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라지방통치의 행정단위인 郡·城(村)의 治所의 立地와 그 위치 比定, 行政網으로서 水上交通路의 비중, 지방의 軍事制度, 그리고 徙民政策 등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필자는 고고유물은 인간활동의 산물인 사실에 입각하여, 考古資料는 歷史像를 통하여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歷史像은 考古資料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실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에서 고고자료는 문헌기록과 끊임없이 접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한국고대사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상기한 역사고고학적 연구방법에 따른 실험적

인 연구이다. 물론 고고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소홀하고 한국고대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부족한 점은 自認한다. 그러나 고고학의 목적이 과거생활상의 복원에 있다는 전통적인 정의를 따른다고 할 때, 삼국시대 관련 고고학의 연구성과들이 끊임없이 한국 고대사의 복원에 접목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방법들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2. 임진강 유역의 신라유적

1) 성동리고분군¹⁾

오두산성과 바로 인접한 지역의 구릉에 형성된 신라고분군이다.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991년부터 1992년까지 경희대박물관, 고려대박물관, 전북대박물관이 구역을 나누어 발굴하였다. 조사결과 신라고분으로는 석실분 5기, 석곽묘 14기 등 총 19기가 확인되었다. 무덤의 입지와 배치는 비교적 완만한 산사면을 따라 횡으로 늘어서 있는 모양이며, 석실(곽)의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히 하며 장축방향은 남북을 기본으로 한다. 석실(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벽면은 수직에 가깝고 입구시설은 수혈계횡구식석실분인 2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는 횡구식이고, 횡혈식은 전무하다. 바닥시설은 할석을 가지런히 깔아서 처리하였는데, 시상대를 따로 두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며 봉분 가장자리에는 외호석을 돌렸다. 유물공간은 별도로 둔 예도 확인되며 경희대 2호 석실분에서는 두침도 확인된다.

유물은 장신구와 토기류가 주로 부장되었는데, 무기류와 마구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토기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단각고배, 완이 주종을 이룬다. 장신구는 금동 과대끝장식(경희대 1호 석실분:도면 1), 금동관 2개체 분(전북대 석실분:도면 4/사진 1·2), 과대금구(전북대 석실분:도면 1), 은제이식(경희대 2호 석실분:도면 3) 등이다. 한편, 이 고분군과 함께 인접한 법흥리에서도 신라고분이 확인되는데, 이 고분군은 통일신라시기에 축조되었다.

이 고분의 축조시기는 신라후기토기의 표지적인 형식인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가 주종을 이루는 것에 반하여, 통일신라시기의 전형적인 토기인 인화문토기가 한 점도 출토되어 않는 점으로 미루어 대략 6세기 후반 이후부터 7세기 전반까지로 편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고분군의 축조시기와 축조집단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 이와 관련하여 2

1) 황용훈 외,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보고서』, 경희대 고고·미술사연구소.

호분이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이 2호분은 남북 장축의 수혈계횡구식석실분으로²⁾,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고, 바닥은 자그마한 할석을 3~4차례 깔아서 만들되 관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벽면은 수직에 가깝고 덮개돌은 6개 정도의 판석으로 덮였다(도면 2). 유물은 은제이식 1쌍을 비롯하여 뚜껑이 있는 평저호, 2단식 유개단각고배 9점, 부가구연장경호 2점, 토기단지 2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

이 2호분을 초축 고분으로 보는 이유는 상기한 바와 같이 나머지 고분들이 횡구식인데 비하여 이 2호분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형태인 수혈계횡구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기양식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다른 고분 출토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앞서는데, 토기뚜껑에서 드림턱이 크게 돌출되지 않았고 꼭지경이 구경의 1/2.5 이상이며, 고배에서 투창이 아직은 종장방형에 가까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토기 조합상은 황룡사지 창건기 토기조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³⁾, 양식적으로는 흥보식의 신라후기양식토기 제Ⅲ 양식 E·F 형식과⁴⁾ 대략 일치한다. 따라서 그 절대연대는 대략 6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런 신라토기가 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6세기 중엽 후반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다음은 축조집단의 문제이다. 이 고분군은 신라 중고기 신라지역에서는 최북단에서 확인된 고분군이며, 한강이북 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신라고분군이다. 또한 바로 오두산성과 인접해 있어, 그 역사적 성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이 고분군의 피장자의 성격을 살피는 일은 신라의 한강유역진출과, 그에 따른 지방통치의 방식 등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하여 은제이식, 금동교구 등의 신분상징적인 威身財가 확인되어 지배세력의 무덤으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면 그 출자가 문제인데, 크게 왕경인, 재지세력, 사민세력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우선, 왕경인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6세기 후반 경주지역의 전형적인 묘제는 횡혈식의 석실분인데 비하여 이 성동리고분군의 묘제는 세장방형의 횡구식으로 경주 주변지역의 묘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頭向이 東向을 고수하는 경주고분과는 달리 이 성동리고분군에서는 남북축으로 북향을 기본으로 하였던 점과 주고분에서 관대를 설치하는 데에 비하여 이 고분군에서는 그냥 바닥면에 할석을 깔아 시상대로 이용한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문헌상으로도, 신라의 왕경인은 경위를 지방인은 외위를 부여받는데, 왕경인의 경우 법흥왕 25년의 교시된 ‘外官携家’를 허용한 사실을⁵⁾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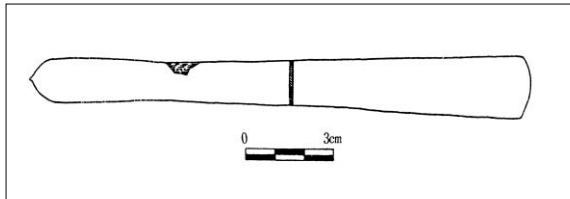
2) 보고서에서는 수혈식석곽묘로 분류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수혈계 횡구식석실분일 가능성이 크다.

3) 崔秉鉉, 1992, 『新羅土器研究』, 一志社, 626~660쪽.

4) 홍보식, 2002,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51~110쪽.

5)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25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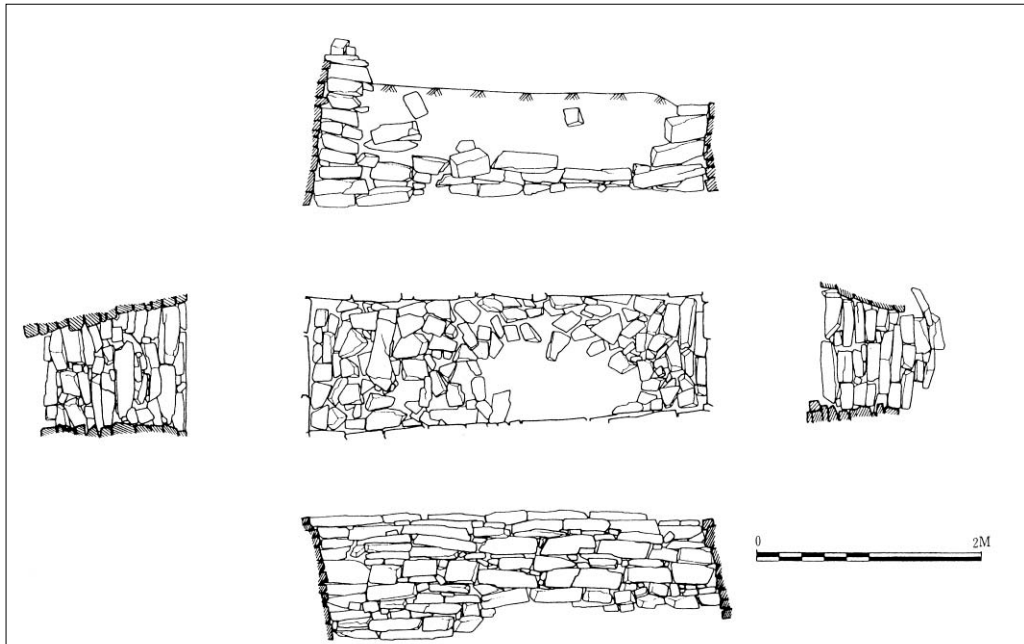
‘二十五年 春正月 敎許外官携家之任’



도면 1) 경희대 조사 석실 1호분 출토 금동과대 장식

방증이 된다⁶⁾. 이 기록은 그가 비록 지방인이지만, 앞에서 말한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관과 마찬가지로 근무지에 영주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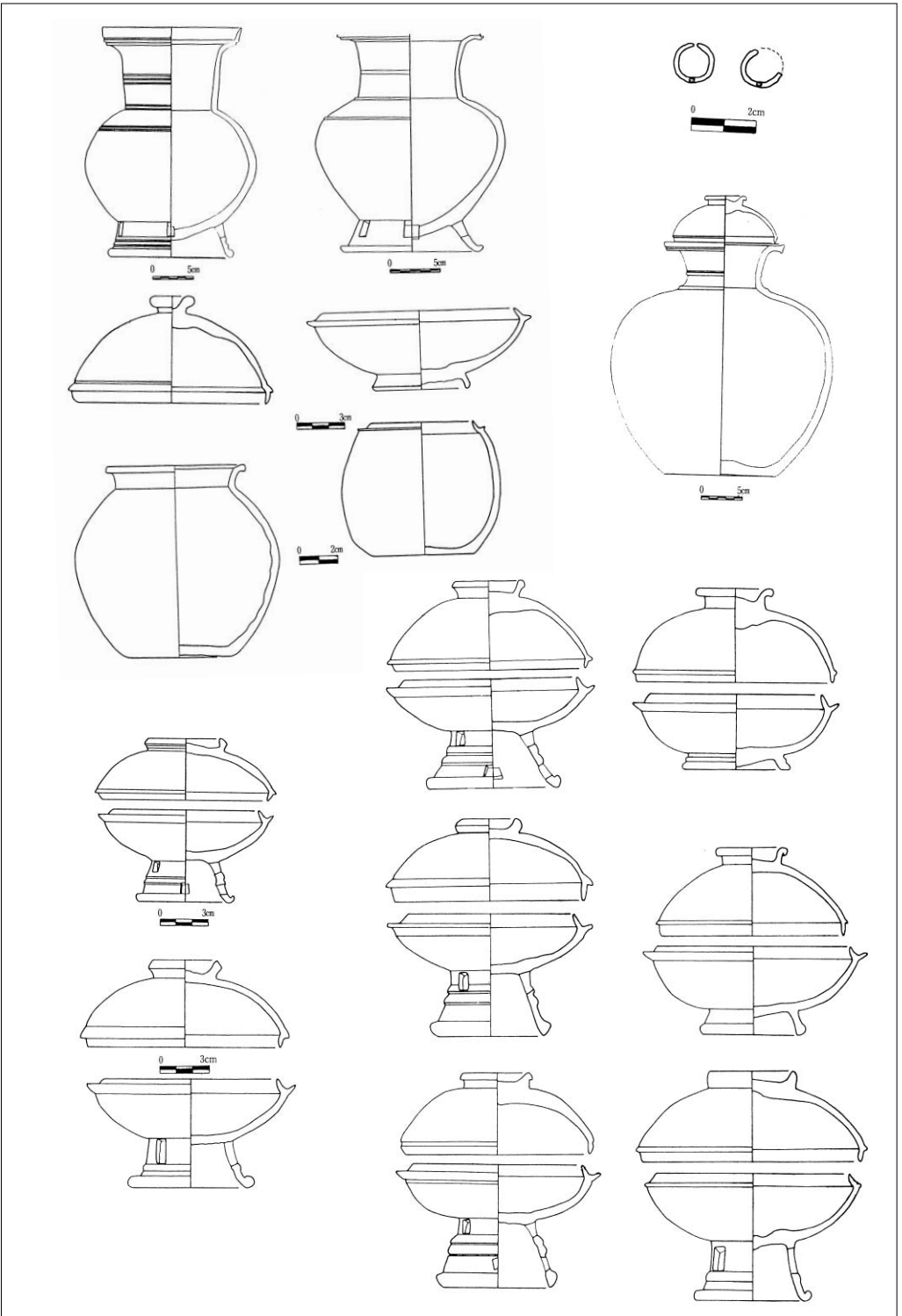
다음으로, 재지세력일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묘제와 토기조합상에서 백제적 요소가 전혀 간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재지세력이었다면, 백제의 주요제인 황혈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성동리고분군에서는 황구식 일색으로 신라계 묘제를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주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성동리고분군이 신라고분으로는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백제계 在地 勢力들이 신라계고분을 채택하였다고 한다면, 신라의 고분군이 비교적 널리 분포해야 할 것이다. 토기조합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보면 전형적인 신라토기 일색으



도면 2) 경희대 조사 2호 석실분

6) 『三國史記』 권47 열전 7 素那傳.
‘素那妻 加林郡良家女子 初素那以阿達城隣敵國 獨行 留其妻而在家’

하여 지방관은 근무지에 永住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파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전의 素那傳에서, 그가 북쪽 변방지역인 阿達城(지금 강원도 안협?)을 수어할 때, 적군과 인접한 까닭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기록도 또 다른



도면 3) 경희대 조사 2호 석실분 출토 유물

로, 타날 기법·평저의 호·주기종으로서 옹의 존재·삼족토기 등 백제토기의 속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徙民勢力일 가능성이다. 중고기 신라중앙은 영토확장 과정에서 점령지의 안정적 통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민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小京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피정복지역의 지배층을 연고지로부터 유리시켜 공동체적 유대를 단절 시킴으로써 재기를 방지하고 그 지배층을 화유감독하기 위하여 소경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 국원소경에 가야문화가 이식되었다는 것이다⁶⁾.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민의 대상은 주로 가야인이며,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가야인을 연고지로부터 유리시켜 재기를 방지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신라인과 점령지내 구백제인 사이의 갈등을 약화시키거나 갈등의 다원화를 유도하여 지방통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⁷⁾. 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신라중앙은 새로운 점령지에 신라의 정치·문화·사회를 옮겨 놓기 위해 소경을 설치하고, 새로운 점령지에 지방통치의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소경에는 왕경인과 지방인을 사민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민의 대상은 기록을 통하여 徙貴戚子弟, 六部豪民, 州郡民戶임을 알 수 있다⁸⁾. 이를 통해 신라의 사민정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徙民의 대상 역시 왕경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라에 편입된 가야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徙民層도 왕경의 귀족자제와 豪民, 그리고 신라의 정복활동에 의해 새롭게 신라인이 된 新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행정의 중심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후방에 속하는 소경과는 달리, 정복활동에 의해 새롭게 攻取하게 된 점령지역의 군사거점 지역에 대한 사민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전쟁기에 신라가 동해안의 최전방지역인 卑列城(안변)을 고구려부터 30여년 만에 공취하고 그곳에 백성을 옮기고 관리들을 두어 수비케 하였다는 기록이⁹⁾ 참고가 된다. 이 기록뿐만 아니라 다음의 기록들은 築城에 따른 사민정책에 대한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사료 1.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제6 광개토왕 18년조)

사료 2.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13년조)

6) 林炳泰, 1967, 「신라소경고」, 『역사학보』35·36합.

7) 李仁哲,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84~191쪽.

8)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제4 智證麻立干條.
‘十五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充實之’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제4 眞興王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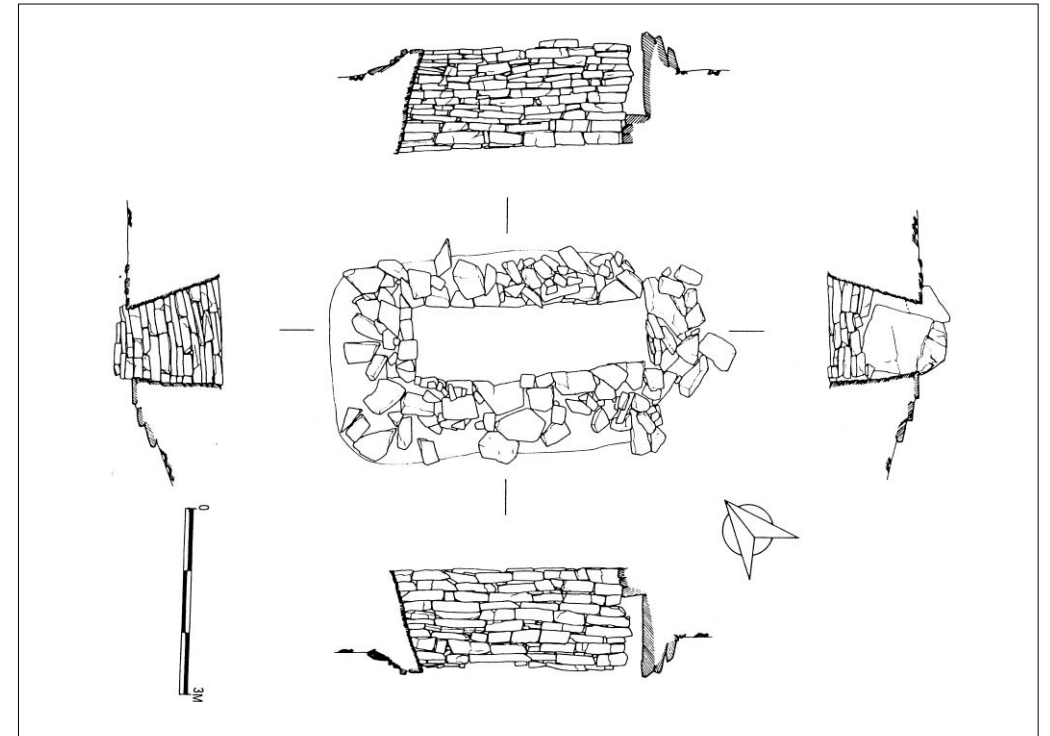
‘十九年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 제8 神文王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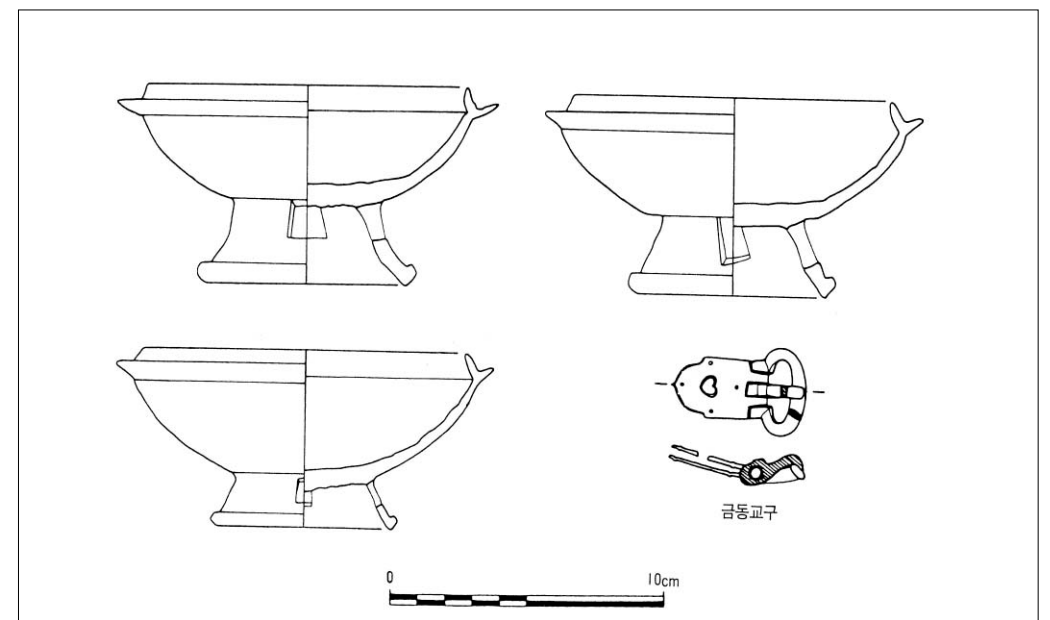
‘五年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

9) 『三國史記』 권7 신라본기 제7 文武王條 下.

‘又卑列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 又取此城 還與高麗’



도면 4) 전북대 조사 석실분



도면 5) 전북대 조사 석실분 출토유물

사료 3. 築赤峴 沙道二城 移東部民戶(『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제1 초고왕 45년조)

사료 4.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문주 2년조)

이 기록에서 새롭게 축성을 한 이후에 民戶를 移住시키는 정책이 비교적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료 3과 사료 4를 통하여 왕경인뿐만 아니라 이주의 대상으로는 지방민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축성에 따른 이주정책의 경우, 그 대상은 민호로 한정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결국 이들 기록을 통하여 행정거점인 小京에는 귀족자제와 호민이 사민대상이 되지만, 군사전략상 접경지역에 위치상 據點城의 경우에는 民戶만이 사민대상이 됨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삼고 다시 성동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을 추적할 때, 그들은 오두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롭게 임진강 유역으로 옮겨 온 이주집단일 가능성이 크며, 그들은 왕경인의 貴戚子弟나 豪民이 아닌, 지방의 一般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은 낙동강 동안 하류지역의 구 금관가야지역에서 온 徙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술한 성동리고분군의 묘제가 대가야 지역과는 대비되는 창녕과 부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洪潛植의 창녕 교동 3호분 유형 I 류와 상통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신라중앙이 설치한 신주의 군주가 金武力이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그는 금관국왕 仇亥의 셋째아들로 신라가 553년 백제를 쳐서 동북변경을 빼앗고 신주를 설치하자, 그곳의 軍主를 지낸 인물이다. 그리고 진흥대왕순수비에 나오는 隨駕重臣으로 마운령비에 沙喙部 力智 千이 바로 그로서, 단양적성비에는 沙喙部武力智라고 나온다¹⁰⁾. 그는 신라중앙의 양대세력 중의 하나인 沙喙部の 대표적인 武將으로, 소백산맥 이북의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에서 활동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금관가야 후손의 대표적 인물인 金武力의 활동영역이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신주라고 할 때, 신주로의 사민역시 가야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제시한다.

다시 論題를 성동리고분군으로 되돌려 성동리고분군을 대표하는 표지적인 유물인 금동관 2점에 대한 검토해 보겠다. 이 금동관에 관한 검토는 전술한 축조집단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 금동관은 전북대가 발굴한 석실분의 동북코너에서 수습되었다. 출토 당시 이미 파편들만 확인되어 그 원형 복원이 불가능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이 금동관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보존처리 및 분석이 완료되어 俞在恩에 의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¹¹⁾. 이 논문에서 금동관 A는 입식부의 형태가 ‘山’ 자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뚫은 형식인 점과 입식부에는 가장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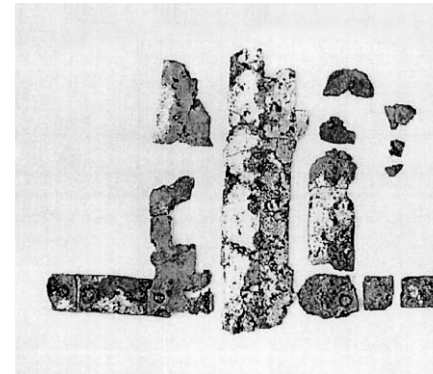


사진 1) 전북대 조사 석실분 출토 금동관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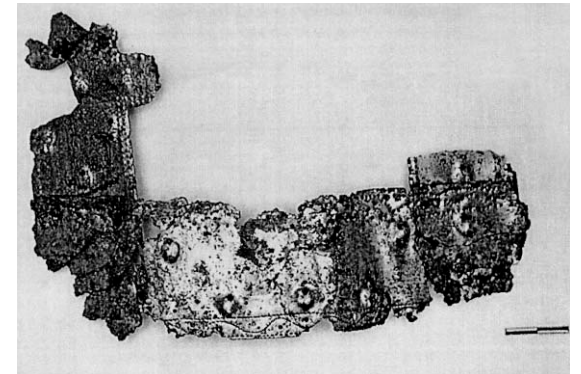


사진 2) 전북대 조사 석실분 출토 금동관B

에 점문을 돌리고 가운데에는 영락을 돌린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입하담 수물지구에서 출토된 금동관을¹²⁾ 지목하였다. 그리고 금동관 B는 ‘山’ 자형으로 추정될 정확한 형태파악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대륜부의 문양은 위아래로 두줄의 점문 사이로 파상문을 돌렸고 영락을 매달았는데 돌출부분이 두 줄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고 입식부는 마름모형으로 놓여져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석조사결과, 도금막이 상당히 얇은 점, 도금층위가 세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성분 중에서 수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이 금동관이 新羅 樹枝形帶冠의 退化形式임¹³⁾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퇴화 형식으로는 安東 枝洞 2호분 金銅冠¹⁴⁾, 丹陽 下里 銅冠¹⁵⁾, 東海 湫岩洞 B지구 가-21호 銅冠¹⁶⁾, 鬱陵島 채집 銅冠¹⁷⁾, 여주 매룡리 5호분 金銅冠¹⁸⁾ 등이 있다. 이들 퇴화형식의 특징은 기본형에서 이형장식의 추가와 부위별 간략과 생략에 따른 의장의 변형으로 인해 표준형식의 정형성 와해로 정리된다¹⁹⁾.

이렇듯 성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포함한 이들 퇴화형식의 수지형대관은 양식과 그 제작 재료에 있어서 정형성을 띠고 있지 않다. 또한 왕경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고, 또 小京이나 州治가 있었던 행정거점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해, 단양, 파주, 울릉도 등 신라의 변경지대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추출된다. 한편, 성동리고분군과 여주 매룡리 5호분에서는 방추차와 함께

12) 경북대학교 박물관, 1989, 『臨河담 水沒地域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Ⅱ)』, 142~146쪽.

13) 함순섭, 2000, 「新羅 樹枝形帶冠의 退化型式 設定」, 『제3회 국립박물관 동원학술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4) 경북대학교 박물관, 1989, 앞의 보고서.

15) 金弘柱, 1992, 「丹陽 下里出土 一括遺物에 대한 考察」, 『考古雜誌』4, 國立中央博物館.

16) 辛虎雄·李相洙, 1994, 「湫岩洞 B지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東海北坪工團造成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關東대학교박물관.

17) 崔夢龍, 1998, 『鬱陵島—考古學的 調査研究』, 서울대학교박물관.

18)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 「驪州 梅龍里 山4-25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 함순섭, 2000, 앞의 글, 55쪽.

10) 文晳鉉, 1981, 「三國統一과 新金氏 家門 * 止의 憂國精神」, 『軍史』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51~54쪽.

11) 俞在恩, 1999, 「경기도 파주군 성동리 고분 출토 금동관 조사- 보존처리 및 분석조사-」, 『문화사학』11·12·13호, 한국문화사학회.

공반 출토되어 여성도 그 착장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상의 사실로, 성동리고분군 금동관은 재지세력의 상징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며, 또한 그 피장자가 신라중앙으로부터 外官을 받은 재지세력일 가능성은 더욱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그 피장자는 지증왕 5년(502)의 喪服制의²¹⁾ 제정을 통한 통제²²⁾, 법흥왕 연간의 불교공인과 율령반포 등을 통한 박장을 기본으로 하는 新墓制의²³⁾ 강제, 공복제의 제정을 통한²⁴⁾ 舊習 타파에 대한 변혁 요구와 간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공간적·사회적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신라중앙으로부터의 철저한 간섭과 규제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존재로 파악될 수 있다.

요컨대, 성동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은 낙동강동안 하류지역에서 온 이주집단이며, 그들이 정착한 시점은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신라중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하여, 신라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배경에는 오두산성의 攻取와 점령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신라정부의 徙民政策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鳥頭山城

오두산성은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합류하는 지점인 해발 119m의 오두산 정상에 축조된 퇴피식 산성이다. 성벽의 총길이는 약 1200m로 추정되며 사면이 가파르고 서쪽은 임진강, 남쪽은 한강과 면하고, 북쪽은 산록과 연결되고 있으며, 동쪽은 원래 바닷물이 들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농경지로 변하였다. 이 오두산성을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 백제의 關彌城으로 본²⁵⁾ 이래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百濟 北邊의 關彌城으로 보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통설화되고 있다²⁶⁾. 이런 주장과 함께 군사전략적인 입지로 볼 때, 이 오두산성은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던 접경지역이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이후에는

20) 이는 퇴화형식에 한정되는 특징이 아니고 수지형대관 소 형식에 내포된 특징으로, 금관 및 금동관의 착용은 남성전 용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朴普鉉, 2000, 「梁山地方 金銅冠의 編年的 位置」,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21)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5年條.
‘五年 夏四月 制喪服法頒行 秋九月 徵役夫築波里-彌實-珍德-骨火等十二城’

22) 지증왕 5년에 제정된 喪服制은 바로 동년에 시행된 축성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지방통제에 대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朱甫墩, 1998, 『新羅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81쪽.

23) 최병현, 1992, 앞의 글, 505~507쪽.

24)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제4 법흥왕 7년조.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袂’

25) 『大東地志』권3, 京畿道 13邑 交河 城池條.
‘鳥頭城 臨津漢水會合處 本百濟關彌城 周二千七十二尺 四面絕 唯東連山麓 三面環以海 水路 郡西北四十里’

고구려와 신라가 공방전을 펼쳤던 지역임은 틀림이 없다.

이 유적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는 1991년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 연구소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는데²⁷⁾, 동벽과 북문지 역이 일부 발굴되었으나,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축 시기와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두산성이 신라산성임은 밝힐 수 있었다. 그 이유는

① 문지 외벽을 따라 부채꼴 평면을 띠는 굽도리 補築의 존재, ② 길이 40~50cm, 두께 25cm 내외, 돌뿌리 길이 40~ 50cm 정도로 석재를 다듬어 바른층쌓기로 축조하고 성돌 사이의 틈새는 주먹 크기의 켜기돌로 채우는 성벽축조방식, ③ 볼륨이 강한 선조문 및 격자문 수기와의 출토, ④ 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철축형태인 錐形 철축의 출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출토유물 중에는 「泉」, 「泉井」, 「元泉」銘이 새겨진 기와편이 다수 있는데, 이들 명문이 線條文기와에 左書로 양각되었으며 方廓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특징들은 아차산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新羅기와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명문기와의 출토는 오두산성이 경덕왕 대에 交河郡으로 개명되기 이전에는 고구려식 지명인 泉井口縣, 혹은 泉井口城 등으로 불려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泉井口縣이 한편으로는 於乙買串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에 착안하여 고대에 ‘우물곶’으로 불렸을 것이라는 연구가²⁸⁾ 있어 흥미롭다.

오두산성은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는 김포일대가 조망되며, 서북쪽으로는 개풍군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산성은 임진강을 도하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축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해안에서 한강을 따라 내륙으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볼 수 있다²⁹⁾. 그러나 이 성의 기능과 관련하여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고 서해와 통하는 관문, 바로 수상교통로의 結節地에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오두산



도면 6) 오두산성 출토 「泉」銘 와편

26) 오두산성을 관미성으로 본 견해는 尹日寧이 주장한 이래, 서영일과 오두산성보고서 등에서 동조하고 있다.

尹日寧, 1986, 「關彌城 位置考」,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오두산성 1』, 47~51쪽.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268쪽.

27)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 연구소, 1992, 위의 책.

28) 兪昌均, 1980,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1』, 계명대학교출판부, 301쪽.

29)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999,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75~276쪽.

성이 군사거점일 뿐만 아니라 행정거점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 준다. 즉,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계, 서해 수로를 통하여 경기북부내륙 및 서해안에 산재해 있던 신라의 기초지방통치 단위인 城·村을 國原小京과 漢山州와 연결하는 중간 행정거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이는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이 성동리 일대의 泉井口縣을 交河郡으로 승격하고 그 屬縣으로 봉성현과 고봉현을 두는 사실을³⁰⁾ 통해서도 방증된다. 또한 축성이 군사거점뿐만 아니라 행정거점 마련을 통한 지방제도를 마련하는 바탕이기도 하다는 지적과³¹⁾ 신라 중고기를 포함한 삼국의 행정라인은 육상교통로보다는 수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언급도³²⁾ 오두산성이 행정거점일 가능성을 놓여 준다.

이처럼 오두산성이 군사 및 행정의 거점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두산성에 주둔한 부대는 『三國史記』 武官條에 기록된 부대 중에서 어떤 부대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에 대해 이 글에서는 外餘甲幢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外餘甲幢은 신라 중고초기에 창설된 幢主系의 법당군단으로 地方軍이다. 군관조직은 幢主-監-火尺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숫자는 幢主 52, 監 68, 火尺 102이다³³⁾. 여기서 당주 52인의 숫자와 『梁書』 신라전의 國有六啄評 五十二邑勒과 음륙 52의 숫자가 동일한 데에 착안하여, 外餘甲幢이 52邑勒, 즉 52개의 郡에 설치된 부대로 파악하는 견해가³⁴⁾ 있다. 이를 통하여 外餘甲幢은 王京과 小京을 제외한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外餘甲幢은 모든 郡에 균등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에 차별적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근거로는 우선 ‘외여갑당’에서 ‘甲’의 말뜻에 대한 분석에 있다. 여기서 갑은 甲士(甲卒, 甲兵)로 풀이될 수 있다. 문헌에서 甲士(甲卒, 甲兵)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5 :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飡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 增築 留甲士一千戌之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1년조)

사료 6 : 二十六年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 朱珍領甲卒三千發之 (『三國史記』 권26 백제본기 제4 성왕 26년조)

30) 『三國史記』卷35 雜志 第4 地理2 漢山條, ‘交河郡 本高句麗泉井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峯城縣 本高句麗述乙忽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高峰縣 本高句麗達乙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31) 주보돈, 1998, 앞의 글, 80쪽.
32) 위의 글.
33) 『三國史記』卷40 雜志 9 職官(下) 武官條.
34) 井上秀雄, 1957·1958, 『新羅兵制』, 『朝鮮學報』11·12.

사료 7 : 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帥衆拒戰 解 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追至大澤 伏兵發急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제5 무왕 3년조)

사료 8 : 果百濟將軍于召欲襲獨山城 率甲士五百人 來伏其處 關川掩擊盡殺之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 제5 선덕왕 5년조)

사료 9 : 令甲兵之德 (『北漢山眞興王巡狩碑』)

위 사료를 통하여 甲士는 정예부대임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에서 ‘甲’이 갑옷으로 무장한 士卒을 지칭한다고 볼 때, 甲士란 갑옷으로 무장한 전사집단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사료 9의 甲兵을 중무장한 기병과 보병으로 본 연구와도³⁵⁾ 상통한다. 따라서 이런 甲士集團을 왕정인으로 구성된 정예병으로 보는³⁶⁾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상으로 외여갑당의 ‘甲’이 내포하는 뜻이 갑주로 무장한 왕정인 전사로 볼 때, 외여갑당은 지방에 주둔하는 정예의 군사집단으로 일단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정예부대는 어떤 곳에 주둔하였던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료 5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진흥왕 11년의 사실을 전하는 사료 5의 기록은 신라가 새롭게 확보한 전략적 요충지를 鎭戍케 하기 위하여 정예부대를 파견·주둔시켰던 사실을³⁷⁾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신라가 정복활동을 펼치면서 새로운 변경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에 甲士로 구성된 정예부대를 주둔케 하였던 것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료 9의 북한산진흥왕순수비에 甲兵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추측된다.

이상에서 外餘甲幢이 지방군이고, 甲幢의 의미가 정예병이며, 그 주둔지가 변경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볼 때, 오두산성에 주둔한 부대는 문헌기록 속의 外餘甲幢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두산성에는 王京인이 주축을 이룬 정예부대가 주둔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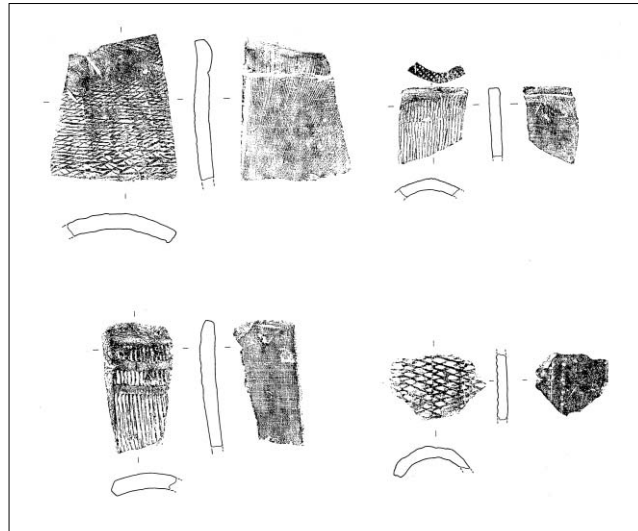
3) 鳳棲山城과 高峰山城

鳳棲山城은 과주시 과주읍 봉서리 과주구읍에 위치한 해발 215m의 봉서산에 쌓은 퇴피식의 석축성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補遺編』, 『大同地志』, 『輿圖備考』 등의 기록과 출토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 특히 신라에 의해 축성된 이후 조선중기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선조 25년(1592)에 한 때 증수되어 임진왜란 때에 중요하게 이용되었고, 그 이

35) 金昌鎬, 1994, 『六世紀 新羅 金石文의 釋讀과 그 分析』,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8~51쪽.
36)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志社, 222쪽.
37) 李文基, 1997, 위의 책, 265쪽.

후에는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산성은 출토유물에서 선조문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공반하여 유 개고배류가 확인되어³⁸⁾ 신라에 의해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봉서산성은 坡州舊邑의 진산에 위치했던 산성으로, 그 主機能은 평상시에는 읍치에 설치되어 군량저장을 하고 유사시의 피난하여 수성하는 입보성이었으며, 副機能은 임진강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 汶山川路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차단성의 역할과³⁹⁾ 據點城인 烏頭山城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背後城의 역할이었다고 판단된다.



도면 7) 봉서산성 수습 와편

경 중에는 삼각집선문과 원문이 그려진 것도 수습되었다. 기와류는 신라계로 분류되는 선조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간혹 격자문과 승문도 있다. 특히 기와편 중에는 「高」자명의 수키와가 한 점 발견되어 高峰縣의 치지였던 산성일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유물출토상은 이 고봉산성이 신라에 의해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봉산성은 高峰縣 鎮山에 위치했던 산성으로, 그 主機能은 평상시에는 읍치에 설치되어 군량저장을 하고 유사시에 피난하여 수성하는 入堡城이었으며, 副機能은 전술한 봉서산성과 마찬가지로 曲陵川路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차단성의 역할과⁴⁰⁾ 據點城인 烏頭山城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背後城의 역할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高峰山城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중동의 해발 208m인 고봉산에 퇴피식의 석축성이다⁴⁰⁾. 『世宗實錄』의 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大同地志』, 『輿圖備考』 등의 문헌기록을 통하여 高峰縣과의 治所에 축성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토기편은 굵이 낮고 1단의 투창이 있는 단각고배와 무개완, 유개완, 호 등 신라계의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배 뚜

그러면, 이들 산성에 배치된 부대가 궁금중으로 남는데, 결론적으로 신라의 법당군단 중의 하나인 外法幢이 가장 주목된다. 外法幢은 창설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頭上系의 법당군단으로 지방에 설치된 地方軍이다. 군관조직은 頭上- 主로 편성되었으며, 그 숫자는 頭上 102인, 主 306인이다⁴²⁾. 여기서 頭上 102인이라는 숫자는 外餘甲幢의 法幢主 52인의 숫자의 거의 2배인 사실은 신라 통일기 각주에 속한 군현의 숫자에서 군 : 현의 비율이 1 : 2 정도인 점과 대응한다.

즉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한산주 관할의 郡은 27개이고 縣은 46개인데, 이는 한 개의 郡은 일반적으로 2개의 屬縣을 관할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외여갑당이 군사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면, 外法幢은 行政城(村)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부대로 생각된다. 이는 外法幢의 頭上을 독립되어 어느 정도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村主로 파악하고, 비상사태에 촌락민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연구에⁴³⁾ 의해 뒷받침된다.

이상에서 外法幢이 행정촌에 편성된 법당군단이며, 그 구성원은 지방민이 중심이고, 그 군관인 法幢頭上은 촌주중임을 확인했다⁴⁴⁾. 이런 사실에 바탕할 때, 高峰山城은 高峰縣에 편성된 外法幢이 자리했던 곳이고, 鳳棲山城은 峯城縣에 편성된 외법당이 자리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산성은 外餘甲幢이 주둔한 烏頭山城의 관할 아래에 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七重城⁴⁵⁾

칠중성은 임진강 중류의 남쪽 강안에 위치하여 황해도 지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초기 북변 군사요충지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7세기 전반에는 신라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항쟁하던 곳이다. 또한 7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고구려 통합전쟁시 교두부로 이용되었으며, 나당전쟁시 당군의 침입로가 되기도 하였다.

칠중성이 위치한 적성지역을 처음 영유한 백제는 이곳은 難隱別이라 하였고, 고구려가 점거하면서 七重城縣으로 불렀다. 뒤이어 이 지역을 차지한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重城이라 고치고 來蘇

42) 『三國史記』卷40 雜志 9 職官(下) 武官條.

43) 李宇泰, 1991, 『新羅 中古期の 地方勢力 研究』, 152~157쪽.

44) 촌주중은 중고기에는 지방의 재지세력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지방통치체제가 확립되어가면서 점차로 왕경인인 지방관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칠중성 전투에서 칠중성에 속한 某縣의 縣令인 필부가 사량부 출신인 사실을 통해 추측 가능하다.

『三國史記』卷47 列傳 第7 匹夫條.

‘匹夫梁人也 父尊臺阿 \$ 太宗大王以 百濟高句麗靺鞨轉相親比爲唇齒 同謀侵奪 求忠勇材 堪綏禦者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高句麗疾我 以冬十月 發兵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45) 박경식 외, 2001, 『과주 칠중성 지표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8)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999, 앞의 책, 295~298쪽.

39) 경기도박물관, 2001, 『임진강』(Vol.2 문화유적(2)), 340쪽.

40) 고봉산성에 관한 정리를 다음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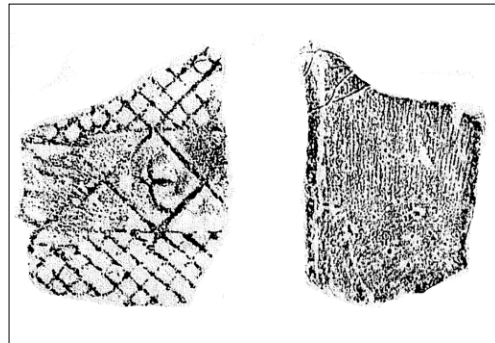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54~459쪽.

41)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3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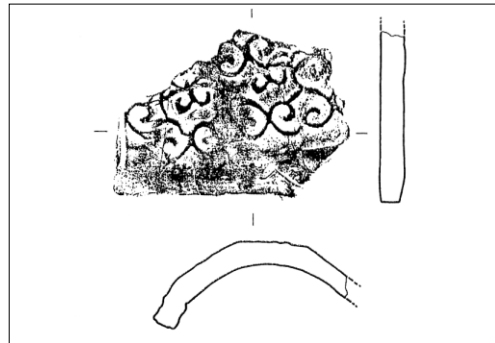
郡의 소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기에 이르러 赤城으로 고쳐 현재에 이른다.

최근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 결과, 칠중성은 중성산(해발 149m)의 8~9부 능선을 따라 축조된 테피식 석축성으로 성의 둘레는 600m 정도이며, 新羅의 初期補築城壁이 확인되고 신라계의 단각고배와 선조문기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신라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었던 성곽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七」자명이 새겨진 평기와가 수습되어, 이 칠중성이 『삼국사기』에 빈번하게 나오는 칠중성이 분명함을 밝힐 수 있었다.

칠중성 남쪽으로는 雪馬川路를 통제하기 위한 차단성인 감악산 보루와 무건리 보루가 3km 지점에 있고, 동쪽으로는 아미성과 북서쪽으로는 이잔미성이 있다. 이렇게 칠중성 주변으로 소규모의 성곽과 보루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은, 칠중성이 고구려의 주 침공로인 임진강 중류지역을 방어하는 군사거점으로 주변 보조성을 거느린 사실을 보여준다⁴⁶⁾. 이처럼 칠중성이 대고구려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군사요충지인 사실과 주변에 보조성을 거느린 거점성인 사실로 미루어, 이 칠중성에도 오두산성과 마찬가지로 왕경인을 주축으로 구성된 外餘甲幢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면 8) 칠중성 출토 「七」銘 와편



도면 9) 아미성 수습 와편

5) 阿末城

아미성은 해발 약 260m의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조된 석축성으로 둘레는 302m이다. 고구려기와와 함께 태선문계의 신라기와가 다량으로 수습되어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수축했을 가능성이 높은 산성이다. 이 산성의 기능은 칠중성을 주성으로 하여 보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임진강 유역에서 한탄강유역으로 이어지는 주요로의 하나인 감악산의 동쪽 통로 즉, 간파천로로 진입하는 적을 서쪽의 수철성과 함께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⁴⁷⁾ 볼 수 있다.

46)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277쪽.

47)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252쪽.

6) 양주 대모산성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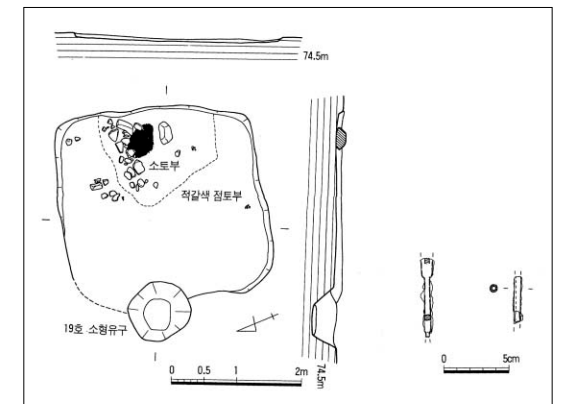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와 백석면 방성리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북벽을 정상부의 능선에 연결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아 북쪽 방향을 대항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지로는 동문지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내 방면과 연결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산성의 정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벽 하단에는 부채살 형태의 보축기단이 시설된 것으로 보아 6세기 후반 이후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백제계통의 토기가 보이고 있으므로 백제가 축조한 토성을 고구려나 신라가 개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⁴⁹⁾.

한편, 대모산성이 있는 유양리 일대는 고구려의 賈城郡이었던 곳으로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來蘇郡으로 개명하고, 영현으로 重城縣과 坡平縣을 두었다. 여기서 이 일대가 줄곧 郡으로서의 위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현재의 파주군 적성 일대와 파주 파형 일대를 통제하는 행정거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대 교통로를 통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볼 때⁵⁰⁾, 임진강안의 오두산성과 칠중성, 아미성, 수철성 등을 통제하는 背後據點城일 가능성이 있다.

3. 한탄강 유역의 신라유적

1) 城東里 주거유적⁵¹⁾

한성백제시대 주거유적과 함께 신라시대의 주거유적이 확인되었다.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로는 주거지 2기와 소형유구 21기로, 주거지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출토토기의 기종은 완, 외반구연옹, 고배, 뚜껑, 호, 동이, 장동옹, 대부완, 시루, 기대



도면 10) 성동리 주거유적 3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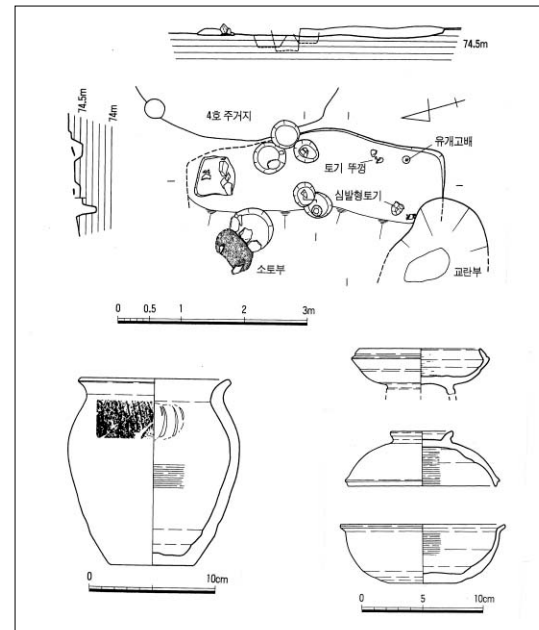
48)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 大母山城 發掘調査報告書』.

49) 요약은 다음의 글에서 전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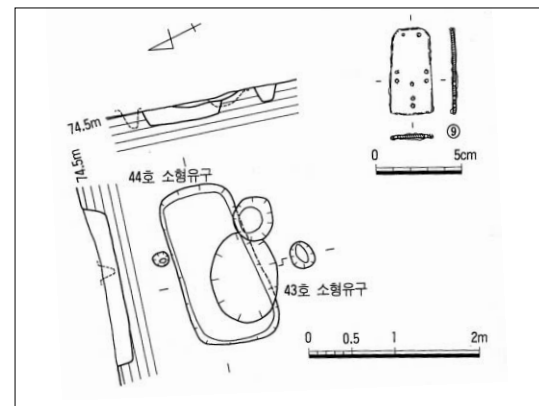
서영일, 1999, 앞의 책, 258~259쪽.

50) 위의 책, 지도 16 참조.

51) 白種伍 外, 1999, 『抱川 城東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抱川 城東里 마을 遺蹟』, 京畿道博物館.



도면 11) 성동리 주거유적 5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도면 12) 성동리 주거유적 44호 소형유구와 출토 찰갑편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이 유적은 영평천이 크게 곡류하며 형성한 비옥한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적의 북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마을유적과 관련된 방어 성으로 추정되는 성동리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당시 취락구성의 전형적인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적은 신라의 한강유역진출과 함께 조성된 취락으로 판단되는데, 신라의 영토 전쟁 과정에서 사민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있는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된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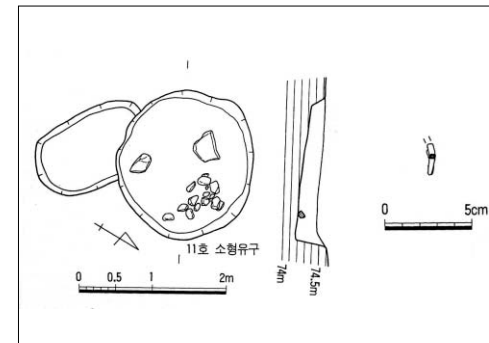
한편, 이 신라 주거지의 규모가 소형인 점, 그리고 화재주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부에 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구적인 마을유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⁵³⁾.

이상과 같은 보고자의 언급과 함께, 이 신라 주거지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44호 소형유구에는 찰갑편이 출토되고, 11·18·20호 소형유구에서 철촉이 출토되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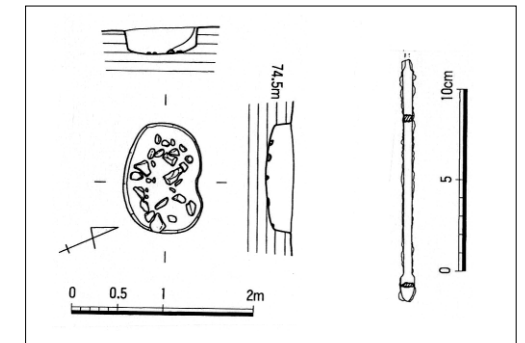
이런 武器 및 兵器類의 존재는 이 주거지와 성동리산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고고학적 정보라 할 수 있다. 일단, 屯田制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볼만한 과제라 생각된다.

52) 白種伍 外, 1999, 앞의 책, 166쪽.

53) 白種伍 外, 1999, 앞의 책, 166~167쪽.



도면 13) 성동리 주거유적 11호 소형유구와 출토 철촉



도면 14) 성동리 주거유적 18호 소형유구와 출토 철촉

2) 성동리산성

성동리산성은 영종면 양문리 근처 38 휴게소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해발 180m의 잔구에 위치하는 테피식 산성으로, 전체둘레 401m 정도의 석축성이다. 포천-철원, 연천-이동 간 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한다.

1999년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축성방식은 화강암 석재를 면과 모를 맞추어 고르게 쌓아올리고 틈새에는 켜기돌을 박는 방식이 확인되며, 출토유물은 대부분 반월산성의 그것과 유사한 양식을 띠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반월산성과 마찬가지로 신라의 이 지역 진출과 함께 초축 혹은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시대에도 줄곧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산성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자는 규모가 작고 주변의 평야지대와 격리되어 있어 장기간의 농성에는 불리하지만 좁은 교통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통로의 길목을 차단하는 前方位城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 성동리산성을 통제하는 주성은 반월산성과 대전리산성으로 보았다⁵⁴⁾.

이 성동리산성은 고구려의 梁骨縣에 속했고, 경덕왕 16년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洞陰縣으로 개명되어 堅城郡의 속현이 되었던 곳이다⁵⁵⁾. 동음현의 전신인 양골현의 치소를 성동리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⁵⁶⁾ 이 산성이 前方位城이고 그 둘레도 400m에 불과한 소형인 사실로 미루어 縣治所에 속하는 입보성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梁骨이 와전되어 獨訖이라고 불렸다는 조선시대의 梁

54) 이상은 다음의 조사보고서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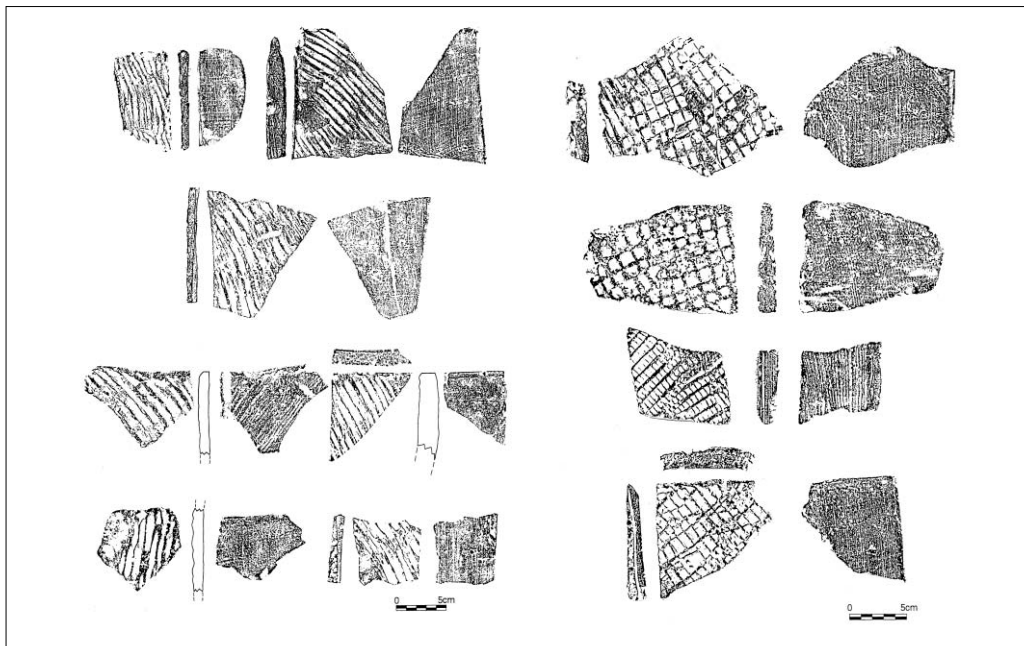
白種伍 外, 1999, 앞의 책.

55) 『삼국사기』 권35 잡지 제4 지리 2 신라조.

‘堅城郡 本高句麗馬忽郡 景德王改名 今抱州 領縣二 沙川縣 本高句麗內乙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洞陰縣 本高句麗梁骨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56) 서영일, 1999, 앞의 책, 295쪽.

文驛⁵⁷⁾ 근처나 영평천의 중심지역이었던 永中縣의 치소 부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5) 성동리산성 수습 와편

3) 大田里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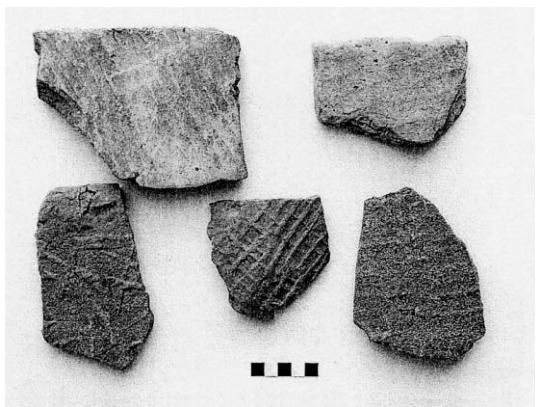


사진 3) 대성리산성 수습 와편

대전리산성은 한탄강에 면해 있는 해발 137m의 성재산 정상에 축조된 퇴피식 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약 700m이다. 이 산성의 군사적 기능은 일차적으로 연천 방면에서 한탄강을 도하하여 오는 적을 방어하는 데에 있다. 특히 산성 밑에 있는 장군나루와 한여울을 통제하는 한편, 전곡·연천 일대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축성한 것으로 추론된다. 유물에서 토기류는 소량이지만 인화문토기편을 비롯한 경부과상

5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永平縣 驛院條.
‘梁文驛 在縣東九里俗號獨訖疑梁骨之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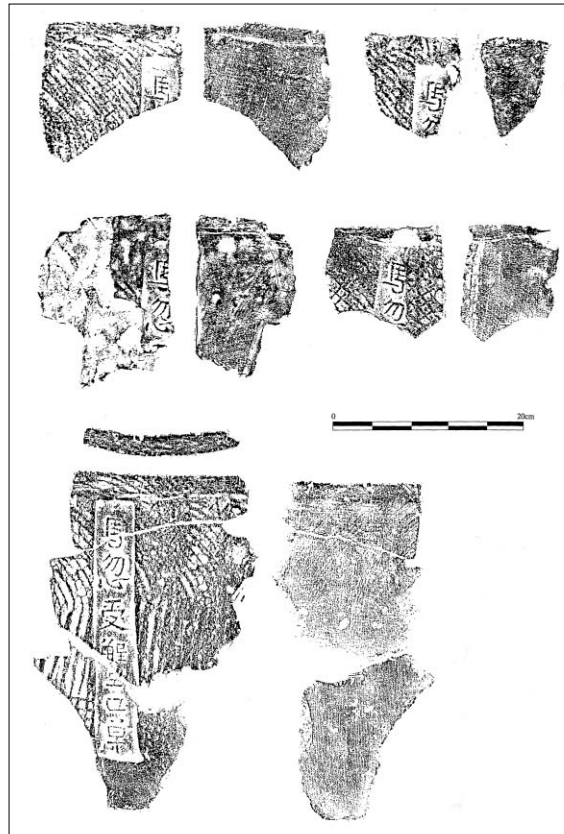
문대용, 기형을 알기 어려운 회청색 경질토기 편 등 대체로 통일기를 전후한 시기로 비정되는 신라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와류도 주로 태선선조문과 격자문이 다량으로 수습되어 마찬가지로 신라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지정학적으로 이 산성은 백제의 방어시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존하는 석축성은 신라가 이곳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이 대전리산성은 신라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벌여서 당 세력을 축출한 買肖城으로 비정되기도 한다⁵⁹⁾.

그리고 이 산성은 堅城郡의 속현이었던 沙川縣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대전리 산성을 治所로 보는 견해도 있다⁶⁰⁾.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沙川廢縣이 주 북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⁶¹⁾, 『靑邱圖』에 지금의 소요산 남쪽에 해당되는 곳을 古沙川縣이라⁶²⁾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沙川縣의 치소는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지금의 동두천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판단은 신라후기의 읍치가 대부분 하천의 중상류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입지와는 일치하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⁶³⁾. 이처럼 사천현의 치소를 지금의 동두천 일대로 볼 경우, 대전리산성은 행정거점이 아닌 순수한 군사거점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오두산성이나 칠중성과 마찬가지로 外餘甲幢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4) 반월산성⁶⁴⁾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 734의 해발 286m의 청성산 7부에서 9부 능선상에 테피식으로 쌓은 석축성으로 전체 둘레는 1,080m이다. 이 산성은 동서 양쪽의 산맥 사이에 형성된 포천 평원지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시대 서울에서 함흥으로 가는 대로상에 축조되어, 포천지역의 행정치소의 중심이었을 뿐만아니라 군사전략상의 거점성의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철원 지역의 동주산성이나 성산성, 양주지역의 대모산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입보성의 기능을 갖추었으나 추가

58) 이상은 다음의 지표조사보고서를 요약하여 전재하였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84~386쪽.
59) 이에 대한 연구성과에 정리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72~82쪽.
60) 서영일, 1999, 앞의 책, 293~294쪽.
6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楊州牧 古跡條.
‘沙川廢縣 在州址三十里本高句麗內乙買縣一云內’ 米新羅改沙川縣堅城郡領縣’
62) 『靑邱圖』 15層 13版 .
63) 이에 대해서는 분석과 고찰부분에서 상론코자 한다.
64) 단국대학교 사학과, 1996,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_____, 1997,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포천 반월산성 3차 발굴조사보고서』.
_____, 1999, 『포천 반월산성 4차 발굴조사보고서』.



도면 16) 반월산성 출토 명문와

을 것으로 보인다⁶⁵⁾. 이런 군사행정적위치를 이 산성에도 양주 대모산성과 마찬가지로 외여갑당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다.

5) 君子山城

연천현의 진산인 군자산에 쌓은 테뫼식 산성이다. 성의 전체둘레는 약 600m 정도이고, 군부대에 서 도로 및 진지를 개설하면서 심하게 파손되어 현재 완형으로 남아 있는 성벽은 찾아볼 수 없다. 수습되는 유물은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와편·자기·토기 등이 있으나, 신라계통의 선조문이 타날된 와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군자산성은 출토 유물과 축조형태로 보아 6세기경

령구조곡을 따라 포천천으로 남하하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거점성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반월산성이 있는 구읍리 일대는 고구려의 馬忽郡이었던 곳으로 경덕왕 16년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堅城郡으로 개명하고 영현으로 沙川縣과 洞陰縣을 두었다⁶⁵⁾. 여기서 이 일대가 줄곧 郡으로서의 위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현재의 포천군의 영평천 유역과 동두천·연천의 新川일대를 통제하는 행정거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사전략적으로는 성동리산성과 대전리산성을 통제하는 背後據點城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산성은 성동리산성을 비롯한 포천지역의 방어체제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小城들에 대한 병력 지원과 보급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

임진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신라에 의해 3번 국도와 중면의 임진강을 따라 남하하는 북쪽세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조선시대에는 더 이상 관방시설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이 군자산은 고구려 이후 연천지방의 읍치였던 현 연천읍의 鎭山이다⁶⁸⁾. 그런 까닭에 이 산성은 차탄천을 따라 남하하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차단성의 성격과 함께, 그 주된 기능은 유사시를 대비한 入堡城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산성에 주둔한 부대는 고봉산성, 봉서산성 등과 마찬가지로 外法幢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지금의 철원군인 鐵城郡의 속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⁶⁹⁾, 철성군에 주둔했을 외여갑당의 지휘하에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방어하는 배후성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6) 東州山城과 城山城

동주산성은 구 철원의 邑治所와 바로 인접한 360m 고지의 9부 능선을 따라 타원형으로 쌓았다. 성의 둘레는 약 800m 정도이며 석축성이다. 현재 성은 교통로의 개설 등으로 심하게 파괴되어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물은 신라후기양식인 무투창식 단각고배를 비롯하여 토기뚜껑, 토기완 등이 수습되었으며, 기와류는 역시 신라후기양식인 태선선문기와와 사격자문기와가 출토되었다⁷⁰⁾. 따라서 이 산성은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초축 혹은 수축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다. 이 동주산성이 자리한 곳은 고구려의 鐵圓郡이 있었고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鐵城郡으로 개명하고, 영현으로 지금의 연천지역인 功成縣을 두었던 과거 철원지역의 郡治所였다⁷¹⁾. 이상에서 이 산성은 기본적으로는 입보성의 기능을 갖추었으나 철령을 넘어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남하하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거점성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城山城은 철원을 김화읍 읍내리의 진산인 해발 471m의 성재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성은 석축성으로서 산 정상과 중턱을 포함하는 산복식 산성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약 880m 정도로 추정된

67) 이상은 다음의 지표조사보고서를 정리하여 전재하였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12~213쪽.

68) 육관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앞의 책, 54~55쪽.

69) 『삼국사기』 권35 잡지 제4 지리 2 신라조.

‘鐵城郡 本高句麗鐵圓郡 景德王改名 今東州 領縣二 梁縣 本高句麗僧梁縣 景德王改名 今僧嶺縣 功成縣 本高句麗功木達縣 景德王改名 今獐州’

70)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6,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江原大學校 博物館, 1995, 『鐵原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단국대학교 사학과, 1996,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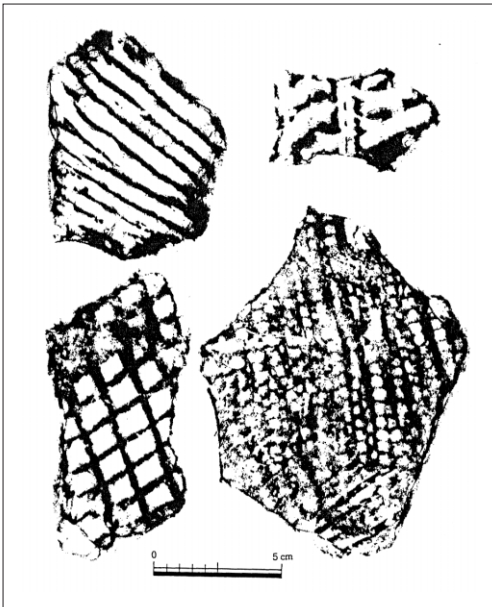
71) 『삼국사기』 권35 지 제4 지리 2 신라조.

‘鐵城郡 本高句麗鐵圓郡 景德王改名 今東州 領縣二 梁縣 本高句麗僧梁縣 景德王 改名 今僧嶺縣 功成縣 本高句麗功木達縣 景德王 改名 今獐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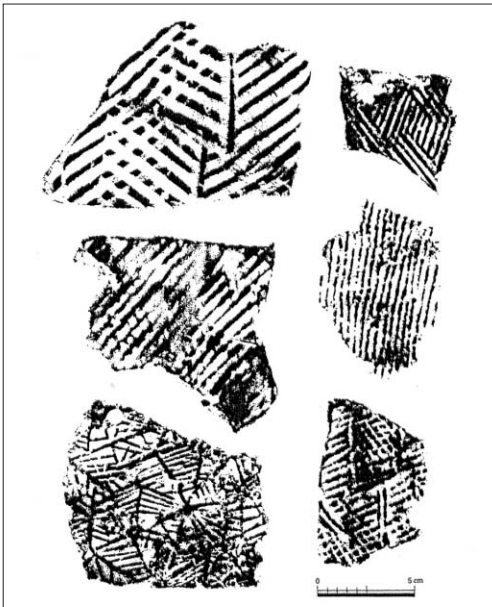
65) 『삼국사기』 권35 잡지 제4 지리 2 신라조.

‘堅城郡 本高句麗馬忽郡 景德王 改名 今 抱州 領縣二 沙川縣 本高句麗內乙買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洞陰縣 本高句麗梁骨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66) 서영일, 1999, 앞의 책, 292쪽.



도면 17) 동주산성 채집 와편



도면 18) 성산성 채집 와편

다. 출토유물은 신라후기양식의 단각고배의 배신과 대각부, 토기뚜껑, 토기완 등이 수습되었다⁷²⁾. 따라서 이 성 역시 신라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성이 입지한 곳은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개성지역으로 오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철원을 넘어 함경도로 가는 길목임과 동시에, 역으로 북쪽에서 화천, 춘천을 거쳐 강원도 영서 내륙을 통하여 남한강유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관문에 있다. 그런 까닭에 고려말의 왜구와의 전투, 임진왜란 시의 일본군과의 전투, 병자호란 시에 청병과의 전투 등이 이 김화지역에서 펼쳐졌다. 한편, 이 성산성이 자리한 곳은 고구려의 夫如郡이 있었고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富平郡으로 개명되고, 영현으로 廣平縣을 두었던 김화지역의 郡 治所였다⁷³⁾. 이상에서 이 산성도 동주산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입보성의 기능을 갖추었으나 철령을 넘어 남하하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거점성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철원지역의 이 두 산성이 郡 治所와 바로 인접해 있고, 군사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곳에는 외여갑당이 주둔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7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6, 앞의 책.

73) 『삼국사기』권35 지 제4 지리 2 신라조.

‘富平郡 本高句麗夫如郡 景德王改名 今金化縣 領縣一 廣平縣 本高句麗斧壤縣 景德王改名 今平康縣.’

4. 분석과 고찰 -신라의 점령지역 지배방식 一見-

이제까지 개별유적에 대한 검토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를 중심으로 郡城(村)의 治所, 徙民政策, 交通路, 군사제도 등에 대해서 분석과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된 시공간적 범위를 먼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라후기의 군현치소와 이후의 명칭변화

신라 군현명	고구려 지명	고려 지명	신라유적	수 계	명문와	치소 관계	추정 법당군단	비 고
交河郡	泉井口縣 屈火縣	交河郡	성동리 고분군	임진강· 한강 하류		구읍		사민정책에 의해 금관 가야계의 이주민이 축조
			오두산성	임진강· 한강 하류	‘泉’	구읍	외여갑당	수로의 결절지, 군사· 행정중심 배후거점성
峯城縣	述 忽縣	峯城縣	봉서산성	문산천 지류		구읍	외법당	읍치의 진산, 입보성
高峰縣	達乙省縣	高峰縣	고봉산성	곡릉천 지류	‘高’	구읍	외법당	읍치의 진산, 입보성
來蘇郡	貫省縣	見州	대모산성	중량천 상류		구읍	외여갑당	읍치의 진산, 군사· 행정중심 배후거점성
重城縣	七重縣	積城縣	칠중성	임진강 중류 강안	‘七’	구읍	외여갑당	전방거점성, 읍치의 진산
			아미성	간파천 관문			?	칠중성의 보조성, 차단성
堅城郡	馬忽郡	抱州	반월산성	포천천 지류	‘馬忽’	구읍	외여갑당	읍치의 진산, 군사·행정 중심 배후거점성
沙川縣	內乙貫縣	沙川縣	대전리산성	한탄강 강안			외여갑당	전방거점성
洞陰縣	梁骨縣	梁骨縣	성동리산성	영평천 상류			?	반월산성 전방위성, 차단성
			성동리 주거유적	영평천 상류				성동리산성과 관련된 둔전일 기능성
鐵城郡	鐵圓郡	東州	동주산성	대교천 상류		구읍	외여갑당	읍치의 진산, 군사· 행정중심 배후거점성
功成縣	功木達縣	獐州	군자산성	차탄천 중류		구읍	외법당	읍치의 진산, 입보성
富平郡	夫如郡	金化縣	성산성	김화 남대천 중류		구읍	외여갑당	읍치의 진산, 군사· 행정중심 배후거점성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신라가 임진강유역을 장악한 시기는 진평왕대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성동리고분군의 초축시기에 근거할 때, 신라의 임진강 유역 점령은 6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北界는 임진강·한탄강 유역을 축으로 하는 추가령구

조곡이 기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행정명으로는 강화-김포-파주-적성-전곡-연천-철원-평강-세포-고산-안변-원산을 잇는 한반도를 북동-남서로 비스듬히 지르는 軸線이다. 7세기 전후에 고구려의 일시적인 반격으로 이 축선이 남하하기도 했지만, 6세기 후반부터 삼국통일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렇듯 6세기 후반 임진강·한탄강 유역을 확보한 신라는 점령지역에 대한 효율적 통치와 군사방어를 위하여 水系網을 중심으로 행정치소를 설치하였으며, 군사거점과 전방위성에는 산성을 수축하여 왕경인을 주축으로 하는 外餘甲幢을 파견하고, 행정거점인 邑治에는 입보성을 쌓아 지방민으로 구성된 外法幢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徙民政策을 실시하여 점령지의 안정를 도모하고, 변경지역에는 屯田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앞선 개별유적의 검토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된 지방통치관련 검토의 골자이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정리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邑治

우선, 邑治의 문제이다. 여기서 邑治란 지방행정의 단위인 郡, 城, 村이 자리했던 行政治所를 말한다. 읍치의 입지는 하천의 지류나 상류에 자리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즉 대하천이 아닌 그 대하천으로 합류하는 중하천에 자리하며, 중하천에서도 그 하류의 강안이 아닌, 중류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자리하는 일반성이 확인된다. 그리고 배후 鎭山에 입보를 위한 산성을 두고 있는 점 역시 일반적이다. 이런 입지를 갖춘 읍치에는 봉성현, 고봉현, 래소군, 견성군, 철성군, 공성현, 부평군 등이 해당된다. 이런 읍치의 입지는 고려·조선의 邑治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표1>에서 확인되듯이 신라후기의 군현치소와 조선시대 읍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6세기 후반부터 신라가 점령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직접지배를 실시하였으며, 이런 신라의 지방지배방식은 결국 중세 지방제도와 읍치구조의 바탕이 되었음을 시사한다⁷⁴⁾. 그럼 읍치에서 행정치소가 자리하는 곳, 즉 行政治所의 위치문제가 검토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곽연구자들은 행정치소가 山城 내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나 모든 읍치소가 산성 내에 자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소경·주치 등과 같은 행정거점이나 상업요충지 등은 산성 아래의 평지나 산언저리에 토성·토루 등과 같은 방호시설을 갖추어 입지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근거로 첫째, 국원소경의 치소가 장미산성에 있었다는 종전의 견해와는 달리 루암리고분군이 자리한 탑평리 일대로 추정하고 수도 경

74) 이런 결론은 한국사의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중세의 시작을 6세기 후반으로 보고자 하는 주장과 상응한다.

75) 이도학은 신주의 치소로 이성산성을 지목하고 있으며, 차용길 등은 서원경의 치소로 우암산 토성, 증원경의 치소로 장미산성을 들고 있다.

이도학, 1990, 「한성후기의 백제왕권과 지배체제의 정비」, 『백제논총』2.

주와 마찬가지로 국원소경의 방어를 사방에 산성을 구축하여 방어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⁷⁶⁾. 둘째, 서원경의 치소 역시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상당성을 부정하고 평지토성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⁷⁷⁾. 셋째, 대가야의 王京地였던 高靈 延詔里 일대의 유적분포에서도 궁성지로서 延詔里傳宮城址와 입보성으로서 主山城이 상호 분리되어 있고⁷⁸⁾ 특히 연조리 전궁성지에서 출토된 와당이 신라의 와당으로 평가되어⁷⁹⁾, 7세기대 신라 高靈郡의 치소가 주산성이 아닌 평지인 궁성지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넷째, 삼국시대 고분군은 치소와 지근거리에 있다는 고고학적 사실에 기초할 때, 여주 매룡리고분군의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북성산성과는 무려 6km나 이격하여 骨內斤(혹은 黃驍驃)의 治所가 산성이 아닌 상리·매룡리 일대의 평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산성을 군사거점뿐만 아니라 행정치소로 보는 견해는 신라 중고기의 지방통치방식을 행정을 책임지는 民政官과 군사를 책임지는 軍政官을 일원적으로 해석하는 문헌사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 이 둘을 분리하여 보는 이원적인 견해가 통설이 되고 있는 사실을⁸⁰⁾ 들 수 있다. 즉 신라후기의 지방제도를 軍管區의 성격으로 파악할 때 행정거점이 산성 내에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나, 군정관과 민정관이 엄연히 달리 파견될 때, 민정관이 머무는 공간 역시 군정관이 머무는 산성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후기에 축조된 산성들에서 점령지역과 군사요충지에 축성한 산성을 제외하고 행정거점이나 후방에 축성한 산성들은 入堡城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용도는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과 무기의 저장⁸¹⁾, 外法幢 등 지방군의 주둔이 主였을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단위마다 이런 입보성을 축조한 것은 신라가 점령지역을 영역지배한 지방통치방식의 적극적인 표상이라 판단된다. 이는 거점지배를 통한 간접지배방식을 중심으로 하였던 이전단계의 백제의 그것과는 비교되는 바, 신라산성이 백제산성에 비하여 절대 다수인 이유가 된다. 즉, 군사거점지역에만 산성을 축조하였던 백제와는 달리 신라는 점령지역의 중간행정단위인 郡이나 城(村)까지도 入堡 用途의 산성을 축조하였다고 이해되며, 그런 사실에 미루어 신라는 지방제도에서는 본격적인 직접 지배를 하였고, 군사적략상으로는 5km 내외의 여러 성이 角之勢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⁸²⁾. 한편으로 입보성의 존재를 이해할 때, 신라 중고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축성기사가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된다. 또한 전술한 바

76) 이도학, 1990, 앞의 글.

77) 나경준, 2000, 「서원경 치지 연구」, 『사학지』33.

박태우, 1987,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1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8) 서영일, 1999, 앞의 글, 71~73쪽 및 93~95쪽.

79) 高正龍, 「慶北高靈出土 瓦當에 대한 一考察」, 『伽倻通信』18, 1~19쪽.

80) 李銖勳,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1) 이런 창고의 존재는 『三國遺事』竹旨郎傳에서 得鳥가 富山城의 倉直으로 징발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三國遺事』卷2 紀異2 孝昭王代 竹旨郎條).

82)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389~397쪽.

와 같이 邑治의 鎭山에 거의 대부분 산성이 자리하고 그 산성 내에서 신라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이유도 잘 이해된다.

添言으로 명문와를 통한 신라후기 지명에 관한 언급이다. 표를 통해서 볼 때, 칠중성에서는 「七」자명, 고봉산성에서는 「高」자명, 반월산성에서는 「馬忽」명, 오두산성에서는 「泉」자명, 그리고 아차산성에서는 「北漢」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들 명문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고구려의 명칭과 일치하는 사실은 한강유역의 지명은 경덕왕대의 개명작업 이전에는 고구려의 지명을 그대로 불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신라후기에 칠중성을 중성현이 아닌 칠중성으로 지칭했듯이 오두산성은 泉井口城, 반월산성은 馬忽城, 아차산성은 北漢山城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2) 徙民政策

앞선 성동리고분군에 대한 논의에서 신라의 사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가 점령지역에 실시한 사민정책에 대한 개략을 살펴 보겠다. 그런데 사료 1~4와 주 83의 사민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小京 등 행정거점에 사심을 할 경우에는 ‘徙六部及南地人戶’,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처럼 옮긴다는 의미로 ‘徙’를 사용하고 있는데 축성관련 사민의 경우에는 초기기록인 사료 2를 제외하고는 王京外 지역의 民戶를 ‘移’한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록상의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의미나 어감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통해 사민정책에도 그 성격 차이에 따라 徙舊民, 移新民, 移奴人으로 대별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徙舊民이란 왕경 인이나 신라영토에 있었던 민호를 옮기는 것이고, 移新民이란 신라의 정복활동의 결과 새롭게 신라인으로 편입받은 민호를 옮기는 것이며, 移奴人이란 신라의 정복활동에 항거하여 아직 신라인으로 편입받지 못한 피정복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徙舊民은 왕경의 축소판을 옮겨 심는다는 ‘徙植’의 개념이 강하고, 移新民은 새로운 정복지의 안정과 내실을 도모하게 위한 ‘移民’의 성격이 강하며, 移奴人이란 반항세력을 옮겨 감속한다는 ‘移監’의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 고고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자. 결론적으로 徙舊民의 전형은 중원 루암리고분군과 여주 매룡리고분군이다. 이들 고분군의 묘제와 유물이 경주와 낙동강 동안 내륙의 그것과 상통하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移新民은 이 글에서 다룬 성동리고분군이 대표적이다. 6세기대 신라의 정복활동에 순응·동화된 금관가야지역의 중심세력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移奴人은 삼국사기 기록에

8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3年條.
二十三年 秋七月 百濟侵掠邊戶 王出師拒之 殺獲一千餘人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斯多含領五千騎 先馳入 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加耶叛’으로 표현되었듯이⁸³⁾ 끝까지 신라에 항거하여 피정복인 취급을 받은 대가야 중심세력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를 잘 입증하는 유적이 바로 東海 湫岩洞古墳群의 대가야계유물이라⁸⁴⁾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도식적이며 추정적이지만, 신라 정복지역의 묘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3) 교통로

위에서 필자는 신라의 지방통치제도에서 군사와 행정을 이원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이원적 시스템은 교통로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듯이 고대사회의 지방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은 力役徵發과 租稅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교통망은 조세수취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동맥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강·임진강유역(이하 新州地域)의 교통망 역시 한강·임진강 수계와 그 지류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행정의 중심인 국원소경을 충주와 그 관할인 漢山州의 치소인 강남지역에 두고, 한강과 임진강의 분류와 지류에 郡과 城(村)의 행정치소를 둔 유적 분포를 통하여 짐작이 간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규모 고분군이 한강·임진강 분류 및 그 지류의 중하천에만 분포하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따라서 신라의 교통망은 수로교통로를 중심으로 행정망을 구축하고, 육상교통로는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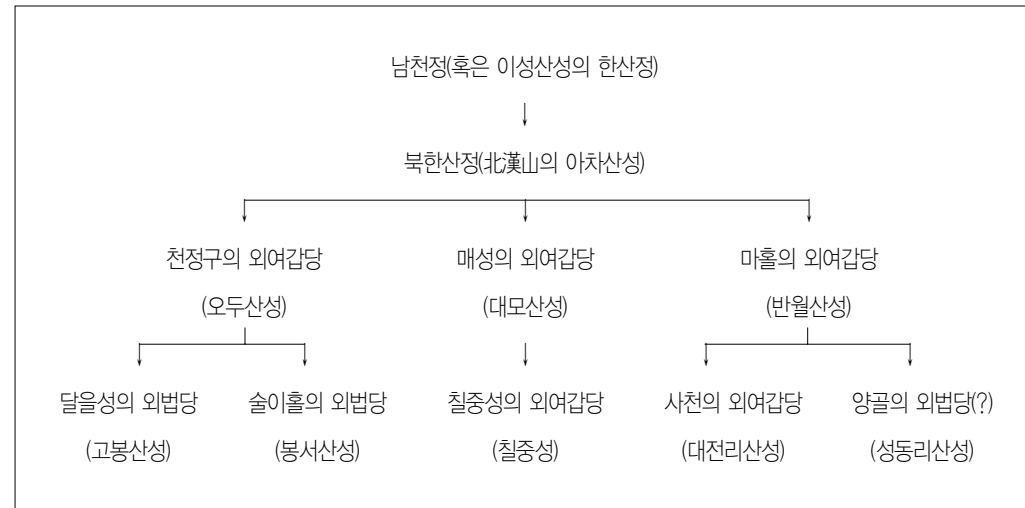
4) 군사조직

앞에서 개별유적을 검토하면서 주요산성에 파견된 부대를 법당군단으로 보고, 점령지대와 요충지의 군사거점에는 외여감당이 주둔하고, 후방의 행정거점의 입보성에는 외법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런 추측은 다소 무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라후기의 지방군단이 六停과 법정군단이 중심이었다고 볼 때, 충분한 개연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군사전략적 입지에 따라 그곳에 주둔하는 부대의 군관 및 병졸구성도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든 郡·城(村)을 군관구적 단위로 편성할 수 없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추정한 각 유적별 軍號는 <표 2>와 같다.

84) 李炯基, 2002, 「滅亡 以後 大加耶 遺民의 向方」, 『韓國上古史學報』 제38호, 韓國上古史學會, 97~117쪽.

〈표 2〉 각 산성별 군호



그러면 이들 임진강유역의 외여갑당과 외법당과 같은 법당군단은 어떤 군단에 편성되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北漢山停으로 보고자 한다. 우선 北漢山停은 최근 아차산성에서 「北漢」명의 명문 기와가 출토되어 아차산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신라후기토기의 전양식이 확인되고 있어, 그 존속기간이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이후 부단히 지속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北漢山城에 州治의 존재는 거듭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산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곳에 주둔하는 지방군단인 北漢山停 역시 존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은 『三國史記』직관지 무관조에 漢山停에 배속된 장군이 3인인 점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이처럼 장군이 3인으로 배정된 것은 신주지역에 州治所가 南川州, 漢山州, 北漢山州가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州治所에는 南川停, 漢山停, 北漢山停이 주둔하였고, 그 주둔지가 이천 설봉산성,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에 비정된다. 한편, 문헌기록 속의 州·停의 설치와 폐지는, 기존의 문헌연구의 성과대로 中心되는 州治所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론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北漢山停은 지금으로 보면 漢山停이라는 軍團에 소속된 師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관할지역은 임진강·한탄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 영서내륙지역이 해당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부대지휘계통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5. 맺음말

이 글은 임진강 유역의 신라유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라의 점령지역의 지배방식의 일면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신라가 임진강 유역을 점령한 시기는 일부 학자들의 언급과는 달리 성동리고분군의 초축시기를 통하여 6세기 후반로 보았으며, 그 北界는 임진강·한탄강 유역을 축으로 하는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신라는 점령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공고한 군사방어를 위하여 점령지역의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산성을 축조하고 그 산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단위인 郡이나 城(村)을 두었는데, 이런 치소의 입지와 구조는 중세 읍치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간취되었다. 또한 신라 중고기에 설치한 郡·城(村)의 중심치소가 고려·조선시대의 읍치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신라 중고기에 그 바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신라의 지방통치방식은 군관구적 성격이 강한 일원적 체제가 아니라 군사와 행정이 분리된 이원적 체제였음도 나름대로 밝혔다. 행정치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소경이나 주치와 같은 행정거점 등에 한해서는 평지입지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신라의 지방관제의 이원론이 통설화되어 가는 문헌사의 연구성과와도 일치되며, 신라산성의 분포에서 入堡城과 據點城으로 구분되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지방관제를 군관구적 성격으로 파악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행정치소가 모두 산성 내에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사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라의 사민정책이 크게 왕경인을 포함한 원신라인을 사민대상으로 삼는 徙舊民, 새로운 정복지역의 백성으로 새롭게 신라인인 된 新民을 대상으로 한 徙新民, 신라의 정복에 끝까지 대항한 奴人을 대상으로 한 徙奴人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임진강유역의 사민정책은 위의 徙新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군사·행정이 거점지역의 안정과 충실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밝혔다. 이런 결론은 성동리고분군의 묘제가 낙동강 동안 하류지역의 그것과 상통함에 근거했다. 또한 신주의 설치와 함께 그 군주가 금관가야후손의 대표적인 인물인 金武力이라는 사실을 참조하였다.

군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당군당인 外餘甲幢과 外法幢을 주목하였다. 외여갑당은 왕경인으로 구성된 정예군으로 군사거점과 요충지에 주둔한 부대이며, 外法幢은 지방민으로 구성된 부대로 외여갑당이 배치되지 않은 행정중심의 郡·城(村)에 편성된 부대로 보았다. 그리고 임진강유역의 법당군단은 아차산성에 주둔한 北漢山停의 지휘하에 있었을 개연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군사·

행정망은 한강 및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육상교통로는 수상교통로를 보완하는 기능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개별 유적의 분석에서는 성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착장자를 外官을 받은 지방관이기보다는 신라의 사민정책에 의해 옮겨온 금관가야의 지배세력으로 파악하고, 그들은 신라중앙의 지배와 간섭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존재로 파악했다. 또 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통하여 경덕왕대에 중국식으로 지명을 바꾸기 이전에는 고구려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七重城은 重城縣이 아닌 칠중성, 오두산성은 泉井口城, 반월산성은 馬忽城, 아차산성은 北漢山城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강유역 신라 石室墓의 受容과 展開

홍 보 식 *

- 1. 서언
- 2. 구조분석과 형식 설정
 - 1) 구조분석
 - 2) 형식설정
- 3. 편년과 특징
 - 1) 상대서열
 - 2) 편년
 - 3) 한강유역 횡구식석실묘의 특징
- 4. 맺음말

1. 서언

삼국시대의 한강유역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한성기 백제의 도읍지로서 한성기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된 백제문화의 토대를 이룬 지역이었다. 475년 고구려의 침략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고 일시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한강 북안의 산 정상부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요새는 이 상황을 보여준다.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552~553년 羅濟聯合軍에 의한 반격과 553년 신라의 한강점령으로 끝나고 이후 한강유역은 신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대중국 교섭의 전초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강유역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이 지역의 상층문화는 물론 기층문화가 급속하게 신라문화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신라 유물과 무덤, 그리고 성곽 등이 있다.

한강유역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1차 자료가 이곳에서 출토되는 신라토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관

기이다.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는 신라후기양식토기 제Ⅲ양식 E형식인데, 6세기 3/4분기에 해당되는 신라토기가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것은 553년 신라의 지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신라의 물품이 들어갔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신라의 정복 이후 신라는 이곳에 대한 지배를 신속하고 철저히 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였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물질자료가 한강유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정복지역으로의 보급과 기술의 이식이었다⁹⁾. 물품의 보급과 기술의 이식에 이어 보수성이 강한 묘제와 매장습속의 이식과 수용도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한강유역 일대에 분포하는 횡구식석실과 신라토기 부장이다.

횡구식석실은 5세기 4/4분기에 낙동강 동안지역 일대의 재지 수장집단에 의해서 축조된 이후 6세기 전반에 들어와 신라의 대외팽창에 수반해서 신라토기의 확산과 더불어 신라의 영토확장 및 지배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라의 물질자료였다.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횡구식석실도 이 지역에 대한 신라 문화의 확산을 나타내는 물질자료의 하나로서 이 지역에서 신라문화가 정착되고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본고는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 축조되기 시작한 신라 횡구식석실묘의 구조와 편년을 통하여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신라묘제 변화과정의 검토를 통하여 이 지역 신라문화의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구조분석과 형식 설정

필자는 한강유역의 석실묘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⁹⁾, 당시에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신라의 횡구식석실의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강유역 신라 석실의 내용과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신라의 횡혈계 석실로는 횡혈식석실과 횡구식석실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혈식석실은 수 기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시기적인 변천과정의 파악은 불가능하다⁹⁾. 이

1) 홍보식, 2006, 「신라토기의 한강유역 정착과정에 대한 시론—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품을 중심으로—」『畿甸考古』5, 기전문화재연구원.
2) 홍보식, 1993, 「백제 横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對外傳播에 관한 研究」『博物館研究論集』2,釜山市立博物館.
3)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신라 횡혈식석실로는 매룡리 2·8호, 중곡리 乙號, 군포 산본지구 1호, 파주 법흥리 1호 등이 알려져 있다. 서울의 가락동·방이동의 횡혈식석실을 신라 횡혈식석실로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방이동·가락동의 횡혈식석실의 규모와 구조 등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횡혈식석실과는 많이 다르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방이동·가락동의 횡혈식석실을 백제 횡혈식석실로 이해하며, 전고(1993)에서 한성기의 석실로 이해한 것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송산리형 1식 석실의 범주에 넣어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중이다.

에 비해 횡구식석실은 여주 중곡리분묘군⁴⁾, 매룡리분묘군⁵⁾, 매룡리 방미기골분묘군⁶⁾, 용강골분묘군⁷⁾,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하남 덕풍동 수리골분묘군⁸⁾, 군포 산본분묘군⁹⁾, 파주 법흥리분묘군¹⁰⁾, 파주 성동리분묘군¹¹⁾, 파주 교하 택지개발지구내 분묘¹²⁾, 화성 화산분묘군¹³⁾ 등 여러 곳에 분포하고, 또 그 숫자가 많아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그 변천상의 파악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로 검토할 횡혈계 묘제는 횡구식석실이 된다.

1) 구조분석

한강유역에서 발견된 신라 분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횡구식석실은 현재 백여기 이상으로 그 수가 많다. 특히 여주 매룡리 일대에는 백여기 이상의 신라분묘가 밀집해 있어 한강유역 일대에서 가장 많은 신라분묘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매룡리분묘군의 분묘 수를 보면,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분묘가 33기이고,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99기가 확인되어 모두 130여기에 이르는 데, 1929년 野守 健이 작성한 고분 분포도에 196기가 확인되었다는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매룡리 일대에는 수백여기의 신라고분이 밀집한 대규모 분묘군임이 있음은 분명하다¹⁴⁾. 매룡리분묘군은 한강유역의 여타 신라분묘군과는 달리 많은 수의 분묘가 밀집하는 특색을 보인다. 이외의 분묘군 예를 들어,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파주 성동리분묘군, 법흥리분묘군, 군포 산본분묘군, 화산분묘군 등은 분묘군의 수가 많아야 20기 이하로서 모두 소규모 고분군이다.

이들 분묘군에서 조사된 횡구식석실의 특징을 검토하고, 그 변화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강유역 신라 횡구식석실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너비의 비율, 석실의 평면형태, 석실의 공간배치(시상대 배치), 시신 안치시설(시상대와 관대), 횡구부 구조, 매장인 수 등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각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4) 今西 龍, 1916,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0, 「驪州 梅龍里 山4-25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6) 신용철·강봉원, 1999,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한국체육진흥(주)·경희대학교박물관.

7) 崔永禧·金正基·宋基豪, 1988, 「驪州 梅龍里 甕岡골古墳群 發掘調査報告」,翰林大學校 博物館.

崔永禧·金正基·宋基豪, 1989, 「驪州 梅龍里 甕岡골古墳群 發掘調査報告Ⅱ」,翰林大學校 博物館.

8)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河南省, 2005, 『河南 德風洞 수리골遺蹟』.

9) 金基雄外, 1990, 『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明知大學校博物館·湖巖美術館·京畿道.

10) 배기동의, 1993, 『자유로 2단계 개설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호암미술관.

11) 황용훈외,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보고서』,경희대부설 고고·미술사연구소·경기도.

12) 裴基同·李和鍾, 2005, 『파주 교하 택지개발지구 시·발굴조사보고서(2003년도)』,韓國土地公社·漢陽大學校博物館.

13) 權五榮·權度希, 2002, 『花山古墳群』,한신大學校博物館.

1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0, 「驪州 梅龍里 山4-25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 평면비율

먼저 석실 길이:너비의 비율이다. 비율이 2.6 이상인 것(a), 2.0~2.5 미만인 것(b), 1.5~2.0 미만인 것(c), 1.5 미만인 것(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형태로서,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등으로 구분된다. 세장방형은 석실 길이:너비의 비율이 2.5 이상, 장방형은 2.0~2.5 미만의 장방형 1과 1.5~2.0 미만의 장방형 2, 1.5 미만의 방형으로 각각 설정한다. 2.6 이상인 a식 석실로는 보정리 소실 2-1·3·8·10·11·14·19·1호, 매룡리 1호(기전) 등이 해당된다. 2.0~2.5 내외인 b식에는 보정리 소실 4·6·12·15·17호, 매룡리 방미기골 16·22·23·28·29·32호, 여주 매룡리 4·5·6·8호, 용강골 A-6·D-2·E-2호 등이 해당된다. c식에는 매룡리 방미기골 10·18·30·31호, 매룡리 2호, 중곡리 甲號 등이 해당된다. d식에는 매룡리 방미기골 3·5·8·15·12·14·1·2·4·11호 등이 해당된다.

(2) 석실의 공간배치

석실 내부의 공간배치로서 시상대와 보행 또는 유물부장 공간의 구획으로서 시상대의 배치가 주요한 요소이다.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횡구식석실은 매장할 때마다 별도의 시상대 또는 관대를 설치하였는데, 대부분의 석실에는 2회 이상의 매장이 이루어졌다. 매장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시상대 또는 관대이다. 석실 내의 시상대 또는 관대배치는 도면 1과 같이 8식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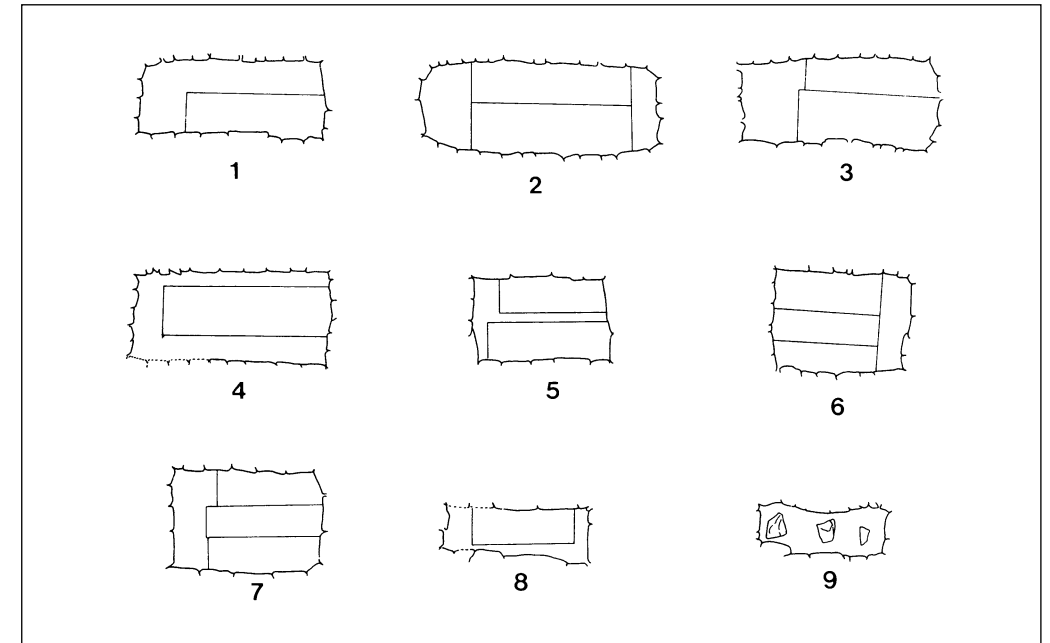
1식은 전벽에서 보았을 때, 최초의 시상대는 우벽에 접해서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였는데, 입구가 있는 전벽에서 시상대까지는 일정 규모의 공간을 두었다. 이 공간은 주검의 안치와 부장품의 부장 등을 하기 위한 작업공간이다. 시상대의 너비가 80~90cm로 석실 너비의 3/5에 해당된다. 1식에 해당되는 석실은 대부분 매장이 1회만 이루어졌다. 1식에 해당되는 분묘로는 용인 보정리 소실 2-1·3·8·10·14호, 여주 매룡리 방미기골 28호 등이 해당된다.

2식은 석실의 정벽과 전벽에 각각 일정한 빈 공간을 두고 중앙부에 길이방향으로 시상대를 배치하였는데, 첫 매장 시의 시상대는 석실의 너비 1/2로 하고, 추가 매장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1/2의 공간에 새로운 시상대를 설치하였다. 첫 시상대는 입구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 배치하고, 2차 시상대는 좌측에 배치한다. 방미기골 16·28·29호, 보정리 소실 11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3식은 석실의 전벽 가까이에만 일정 공간을 두고, 그 이외의 공간에 시상대를 배치하였는데, 1차 매장시의 시상대는 우벽, 2차 시상대는 좌벽에 접해서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보정리 소실 1·19·12·6·4·15호, 매룡리 1·4·6·8·2호, 매룡리 용강골 D-2·A-6·A-1·E-2·D-1·E-1호 등이 해당되는데, 이 유형의 석실공간 배치가 한강유역의 횡구식석실에서 가장 많다.

4식은 좌·우벽과 전벽 가까이에 공간을 두고, 정벽에 접해서 길이방향으로 시상대를 설치하였

다. 추가 매장 시에는 1차 시상대 위에 동일한 길이와 너비로 시상대를 설치하였다. 보정리 소실 15·17호 등 현재 2기만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석실의 공간 배치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 석실 공간배치(1/100, 시상대 배치는 필자가 도식화 하였음)

5식은 3식과 비슷한 공간배치를 나타내는데, 3식과 다른 점은 1차 시상대와 추가로 설치된 시상대 사이에 좁은 공간을 둔 점이다. 시상대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평면형태가 마치 ‘⊥’ 형이다. 방미기골 18·30호가 이에 해당된다.

6식은 1차 시상대를 정벽에 접해서 너비방향으로 설치하고, 2·3차 시상대를 좌측 또는 우측 장벽에 접해서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였는데, 2·3차 시상대 사이의 중앙부와 전벽과 2·3차 시상대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시상대의 배치가 ‘π’ 형이다. 중곡리 갑호, 방미기골 15·3·8·5·4·11호묘, 용인 동백 I 구역 석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7식은 1차 시상대를 우측 장벽과 정벽에 접해서 길이방향으로 설치하고, 2차 시상대는 1차 시상대의 좌측에 1차 시상대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3차 시상대는 2차 시상대와 좌측 장벽 사이의 공간에 설치하고, 전벽과 시상대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시상대의 배치가 ‘≡’ 형이다. 방미기골 12·14·2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8식은 우벽과 전벽측에 공간을 두고 좌벽에 접해서 길이방향으로 1개의 시상대만 설치하였다. 하남 덕풍동 수리골 1·4호, 화산 3·4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9식은 석실 가운데 바닥에 할석을 일렬로 한단씩 놓고, 그 이외의 부분은 빈공간으로 두었다. 바닥에 깔린 할석은 시상대가 아니고 관을 받치기 위한 관대이다. 파주 법흥리 2·4·5호, 교하 4-2지구 1호가 해당된다.

10식은 석실 바닥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두었는데, 관 못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관을 사용하였다. 화성 기안리 화산 1호가 해당된다.

(3) 평면형태

석실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면서 정벽과 전벽¹⁵⁾의 너비가 같고, 100cm 이상으로 직사각형인 것(a), 중앙이 넓고 정벽과 전벽으로 가면서 너비가 줄어들고, 곡물을 이루는 것(b), 정벽의 너비가 넓고 전벽으로 오면서 점차 너비가 줄어들어 사다리꼴인 것(c), 정벽의 너비가 좁고 전벽으로 오면서 점차 너비가 넓어져 사다리꼴이지만 c식과는 반대인 것(d), 길이와 너비가 거의 같고, 정벽과 전벽의 너비가 같은 방형인 것(e), 너비가 100cm 이하로 좁은 세장방형인 것(f)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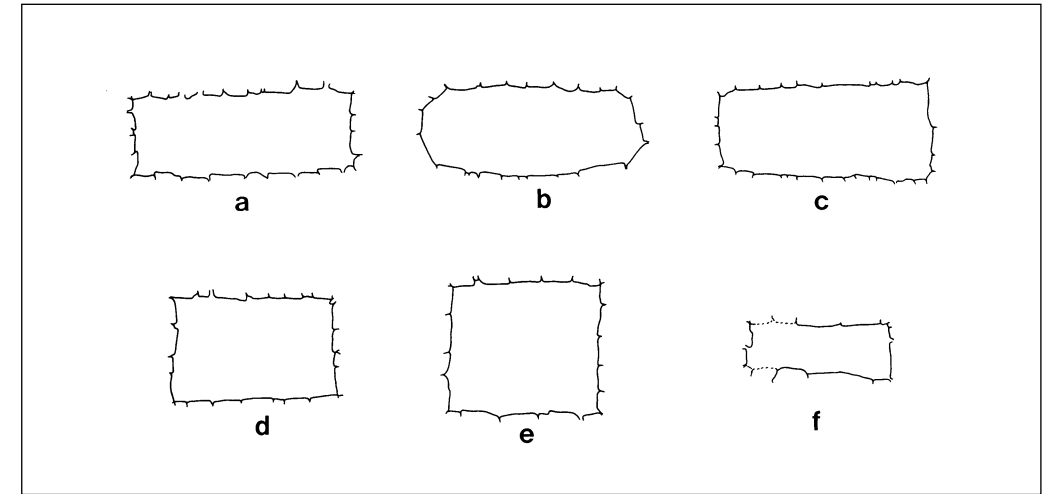
a식의 예로는 보정리 소실 2-1·11·8·10·4·14·17·12·15호, 매릉리 1호, 용강골 E-3호 등이 있다. 이 a식의 평면형태를 나타내는 석실의 공간배치는 1식이 대부분으로 석실공간 배치 1식과 상관관계가 높은 석실의 평면형태이다.

b식의 예로는 방미기골 23·29·28·16호, 보정리 소실 1호 등이 있다. 평면형태 b식의 석실에는 석실 공간배치 2식과 3식이 나타내는데, 2식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c식의 예로는 보정리 소실 6·19호, 매릉리 E-2·D-1호, 매릉리 4·5호, 방미기골 31호 등이 해당된다. 평면형태 c식의 석실은 석실 공간배치 3식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d식의 예로는 용강골 D-2·B-2·E-1·A-1호, 매릉리 6·8·2호, 방미기골 8·18·30·15·3·12·14·11호, 중국리 갑호, 용인 동백 I 구역 석실 등이 해당된다. 평면형태 d식의 석실은 석실 공간배치 3·5·6·7식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경우에 한하면, 3식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나 5·6·7식에 해당되는 분묘 수가 3식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배제할 수 없다.

e식에는 방미기골 2호 1기가 해당되는데, 파괴가 심한 방미기골 1호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평면형태가 e식인 석실은 현재 확인된 자료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석실 평면형태(1/200)

(4) 시상대와 관대

신라 황혈계 묘제의 석실 내부에서 행해지는 주검의 처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주검을 목관에 안치하여 석실에 매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목관이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지만, 목관을 만드는데 사용된 쇠못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신 안치에 목관이 사용된 경우, 석실 바닥에 자갈을 얇게 깔거나 또는 할석을 얇게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강유역의 신라고분에서 쇠못이 출토된 분묘로는 파주 법흥리 2·4·5호묘가 있다.

둘째는 주검을 관 없이 석실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이 때는 주검을 안치하는 돌로 만든 시설이 설치되는데, 이 시설을 시상대로 한다. 일반적으로 시상대는 주검을 안치할 수 있는 적당한 필요 규모에 냇돌 또는 할석으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주검을 안치하는데, 석실 너비가 100cm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석실 바닥 전면을 시상대로 사용하는 예는 드물고, 너비가 60~80cm인 예가 많다. 신라 석실묘의 시상대는 높이가 10cm 이하인 저시상대와 30cm 이상인 고시상대로 구분이 된다¹⁶⁾. 저시상대와 고시상대는 석실의 규모 차이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석실의 계통 차이에 규정되는 경향도 있다.

황구식석실묘에 설치된 저시상대는 창녕 교동 3호묘 유형과 상주 신흥리유형 I~Ⅲ형식의 석실에서 나타나고, 또 석실 규모가 200×100cm 이하의 작은 규모의 석실에서 일반적으로 보인다.

15) 본고에서는 황구식석실의 4벽면을 황구가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좌·우 장벽을 左壁과 右壁, 황구가 마려된 벽을 前壁, 그 반대벽을 正壁으로 지칭한다.

16) 저시상과 고시상의 기준은 높이에 있고, 여기서의 기준이 되는 시상은 최초로 설치된 시상대를 지칭한다. 왜냐하면, 황구식석실은 추가매장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차이가 난 후 추가매장이 이루어질 때 계통이 다른 석실의 시신안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기존의 시상대 위에 할석 또는 천석을 한겹 깔아 시상대를 설치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매장시설도 시기에 따라 유행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시상대는 5세기 말~6세기 초부터 창녕 교동 1호묘 유형과 안동 조탑동 유형의 시신안치 시설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6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라 대부분 지역의 일반적인 석실묘 시신 안치시설로서 설치되고 7세기말(또는 8세기 전반까지)까지 유행한다. 신라 왕경인 경주지역에 분포하는 황혈식 석실인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유형과 서악리 석침총 유형의 석실에는 고시상대가 9세기대까지 지속된다¹⁷⁾.

한강유역의 신라 석실묘에는 저시상대와 고시상대 모두가 나타난다. 시상대 높이가 10cm 이하의 저시상대가 설치된 분묘로는 하남 덕풍리 1·4호, 화산 3·4호 등이 있다. 고시상대는 높이가 매우 다양한데, 크게 보아 20~30, 30~40cm대, 50cm 이상 등 다양하다. 20~30cm 높이의 분묘로는 여주 매룡리 방미기골 14·16·18·29·28·30·31호, 매룡리 2호, 용인 보정리 소실 1·2-1·3·4·6·8·10·11·14·15·19·28호 등이 있다. 높이가 30~40cm대의 분묘로는 보정리 소실 12·14호, 매룡리 2·7·8호, 용강골 A-6·E-2호, 방미기골 22·30·15·3·8·5·12·1호 등이 있다. 높이가 50cm 이상의 시상대가 설치된 분묘로는 매룡리 1·4·6호, 용강골 D-2·A-1·D-1·E-1호 등이 해당되는데, 매룡리 1·4호는 시상대의 높이가 70cm 이상으로 매우 높다.

(5) 입구 구조

주검 및 주검을 안치하는 시설물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바깥에서 석실로 출입하는 공간인 황구의 형태는 5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석실의 황구 형태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평면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세장방형인 경우, 단벽 전체를 입구로 사용하고, 장방형은 단벽의 윗부분 또는 단벽의 일부만 사용하고, 방형은 단벽의 일부만 사용한다¹⁸⁾.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황구식석실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황구식석실의 황구형태는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식은 한쪽 단벽 전체를 입구로 이용하였는데, 석실을 ‘ㄷ’ 또는 ‘ㄱ’ 형으로 만든 후, 주검을 매장하고 돌을 채워 막은 구조이다. 한강유역에서 1식의 황구를 보이는 예는 용강골 A-6호 1기뿐으로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에서 1식의 황구구조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지역의 황구식석실의 등장기에는 이 1식의 황구가 규모가 큰 석실에도 활용되지만, 황구식석실이 보편화 되는 6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석실 너비가 100cm 이하의 소형묘에만 활용되는 황구이다.

2식은 한쪽 단벽의 벽면을 바닥에서 3~4단 쌓고, 그 위쪽부터 황구로 활용한 구조이다. 황구가 2

식인 예로는 보정리 소실 1·8·11·19·17·6호, 매룡리 방미기골 28·22·31호, 매룡리 1·4·6·8·2호, 파주 법흥리 2·4·5호 등이 있다. 석실 바닥에서 입구 바닥까지의 높이는 25~60cm로서 높이가 다양한데, 석실의 규모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2식의 황구는 다양한 형태의 석실 평면형태에 나타나는데, 주로 1·2·3·8식의 평면형태에 많이 나타난다.

3식은 전벽의 아래와 좌·우측에 벽이 형성되고 중앙부를 통하여 주검과 부장품을 들여보내는 황구로 사용한 구조이다. 3식의 예로는 보정리 소실 1·2-1호, 매룡리 용강골 E-1호, 매룡리 방미기골 18·30·15·3·8·5·12·14·2·11호, 중곡리 갑호, 용인 동백 I 구역 석실 등이 해당된다. 3식은 평면비율이 2.0 미만의 석실, 그리고 석실 평면형태 d·e식의 석실, 석실 공간배치 5·6·7식 석실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3식은 높이가 30cm 이상인 고시상대가 대부분인 석실의 황구형태이다. 3식의 황구 형태는 한강유역 이외 신라지역의 황구식석실에도 보이는데, 한강유역 황구식석실의 시상대 구조는 다소 특이하다.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3식의 황구구조는 보통 전벽에 사용된 석재의 장변을 황구벽으로 하기 때문에 황구의 길이가 50cm 이하로 매우 짧다. 그러나 한강유역, 특히 황구식석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여주 매룡리 일대의 황구식석실은 황구 가까이의 묘도에 석축을 쌓아 마치 황구의 길이가 긴 것으로 보아 일부 보고서에는 황혈식석실의 연도로 파악한 예도 있다.

4식은 3식과 같은 구조인데, 황구가 전벽의 좌측에 마련된 석실로서, 방미기골 29호 1기만 알려져 있다. 한강유역에서 4식의 황구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5식은 4식의 반대인 전벽의 우측에 황구가 마련된 것으로서 매룡리 용강골 A-1·E-2·D-1호묘 등이 있다. 5식의 입구는 입구바닥의 높이가 석실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한다. 5식은 석실의 평면비율이 2.0 내외이고, 석실의 공간배치 3식, 시상대높이가 40cm 이상인 고시상대가 설치된 석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6) 매장인 수

1인 영구밀폐의 수혈계 묘와는 달리 황혈계 묘제의 하나인 황구식석실은 석실 1기에 시기를 달리 하면서 여러 명의 매장이 가능한 구조이다. 여러 명의 매장이 가능하더라도 매장된 인수는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매장습속에 의해 규정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2인 매장이 이루어졌고, 신라와 일본열도는 2인 이상이 매장되었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부부매장이 되었고, 신라와 일본열도는 가족매장이 행해진 차이가 있다. 한강유역은 475년 백제의 웅진천도와 고구려의 지배, 뒤이은 백제의 지배, 최종적으로 신라의 지배가 이루어져 다양한 매장습속이 교차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황구식석실은 거의 모두가 신라의 정복 이후에 조성되어 신라의 매장습속이 관철되었

17) 洪潛植,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18) 洪潛植, 2003, 앞의 책.

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하여 왔다. 그런데 2인 매장이 이루어진 석실이 현재 23기로서 조사된 전체 황구식석실의 51%로서 절반에 이른다. 3인 이상 매장된 분묘는 9기로서 전체의 20%에 불과하여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에는 3인 이상이 매장된 다인장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인 이상의 다인장이 된 석실은 석실의 비율이 2.0 미만이고, 시상대 높이가 30cm 이상의 고시상대가 설치되고, 석실의 공간배치가 6·7식이며, 황구가 3식인 석실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이외의 석실에는 대부분 2인장이 많고, 1인장이 된 석실도 8기에 이른다. 따라서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의 매장 인수는 2인이고, 2인 매장은 부부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 형식설정

앞 절에서 분석한 각 구성 요소들을 종합하여 한강유역의 신라 황구식석실의 형식설정을 통하여 황구식석실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기준자료를 제시한다. 앞 절에서 분석한 각 요소들은 각각 석실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동일 요소가 표현된 석실의 그룹은 다음의 9개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그룹을 하나의 형식으로 설정한다.

(1) A형식

석실 비율이 2.50 이상으로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의 1식이고, 석실 공간배치가 1식인 석실이 해당된다. 시상대 높이는 15~20cm로서 높이가 낮은 저시상대이다. 황구는 2·3식이 있는데, 2식이 우세하다. 석실에 매장된 인수는 1·2·3·4인 등 다양하고, 석침은 출토되지 않는다. 보정리 소실 2-1·14·10·8·11호, 매룡리 용강골 E-3호 등이 해당된다.

(2) B형식

석실 비율이 2.0~2.5 사이이고, 석실의 양 가장자리 너비가 좁고, 중앙이 넓은 2식이고, 공간배치는 2식이다. 시상대의 높이는 10~20cm로 낮은 저시상대와 50cm 이상의 고시상대가 설치된 석실이 있는데, 고시상대가 설치된 석실은 1~2기이다. 대부분은 2인이 매장되었고, 석침은 출토되지 않았다. 황구는 2·3·4식 등 다양하다. 방미기골 16·23·28·29호와 보정리 소실 1호가 해당된다.

(3) C형식

석실의 비율이 2.0~2.5 사이이고, 평면형태는 입구 쪽 너비가 좁으며 정벽 쪽 너비가 넓어 사다리꼴인 3식이다. 석실의 공간배치는 3·4식이고 황구는 2식이다. 시상대의 높이가 20~30cm 내외이

고, 매장된 人數는 2인과 3인이 있다. 석침이 사용된다. 보정리 소실 3·6·4·12·15·17·18·19호, 매룡리 용강골 A-6호 등이 해당된다.

(4) D형식

석실 평면형태가 4식이고, 공간배치는 3식이다. 시상대 높이는 30~70cm로 높이가 높은 고시상대이다. 석실에 매장된 人數는 2인이 대부분이고, 석침이 출토된 분묘 수가 많다. 황구는 2·3·5식이 있는데, 5식이 수적으로 많다.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2.20~2.5 미만인 D1식과 1.6~2.0 내외의 D2식으로 세분된다. D1식에는 매룡리 1·4·6·7·8호, 용강골 D-2호 등이 해당되는데, 1차 시상대는 A·B·C형식처럼 우측에 배치하였다. D2식에는 용강골 E-2·A-1·D-1·E-1·B-1호, 매룡리 2호, 방미기골 22·10·31호 등이 해당되는데, 1차 시상대를 좌측 또는 우측에 배치하였다.

(5) E형식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1.6~1.7 내외이고, 공간배치가 5식이다. 시상대 높이는 20~40cm 내외이고, 황구는 3식이다. 현재 방미기골 18·30호 2기만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양상은 앞으로의 발굴조사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

(6) F형식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1.2~1.5 내외이고, 공간배치가 6식이다. 시상대의 높이는 30~40cm로 높이가 높은 고시상대이다. 석침이 출토된 분묘가 많고, 매장된 인수는 2~4인으로 수가 많다. 황구는 3식이다. 중곡리 갑호, 방미기골 3·5·8·15호, 용인 동백 I 구역 석실 등이 해당된다.

(7) G형식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1.0~1.5 미만이고, 공간배치가 7식이다. 시상대의 높이는 20~70cm로 다양하고, 석침이 출토된 분묘가 많다. 석실에 매장된 인수는 대부분 3인이다. 방미기골 12·14·1·4·2·11호 등이 해당된다.

(8) H형식

현재 이 형식에 해당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차 조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상으로 설정해 둔다. 한강유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형식에 해당되는 자료가 알려져 있다. 충북 보은 무수리 1호묘가 이 형식을 나타내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석실 길이:너비의 비율은 1:1이고, 평면형태

가 방형이다. 석실공간의 배치를 보면, 좌·우 장벽에 연해서 길이방향으로 시상대를 배치하고, 중앙부를 빈 공간으로 두어 매장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두었다. 시상대는 높이가 20cm 내외로 높이가 높은 것은 아니다.

(9) I형식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2.0~2.5 사이이고, 석실의 공간배치는 8식이다. 시상대의 높이는 10cm 내외로 높이가 낮은 저시상대이고, 매장된 인수는 1인이다. 횡구는 1식이다. 묘제는 횡구식석실로서 추가매장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추가장은 하지 않았다. 하남 덕풍리 1·4호, 화성 기안리 화산 3·4호 등이 해당된다.

(10) J형식

석실 너비가 100cm 이하로 좁고, 공간배치가 9식이다. 바닥에 설치된 시설은 관을 받치기 위한 관대이다. 석실 규모가 작아 추가매장은 불가능하여 모두 1인 매장이 되었다. 횡구는 1식 또는 2식이다. 파주 법흥리 2·4·5호, 교하 4-2지구 1호가 해당된다.

(11) K형식

석실 규모 및 평면형태는 J형식과 유사하고, 석실 공간 배치가 10식으로서 관대가 설치되지 않는 점만 다르다. 화성 기안리 화산 1호가 해당된다.

3. 편년과 특징

앞 절에서 검토한 각 요소들 중 시간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석실의 공간배치(시상대(관대)의 배치)와 석실 길이:너비의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석실의 평면형태를 들 수 있고, 석실 공간배치 및 비율보다는 시간성을 덜 반영하지만, 시상대의 높이, 입구형식, 매장인 수 등도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앞장에서 설정한 각 형식의 상대서열을 설정하고, 각 형식에 대한 曆年代의 검토를 통해 한강유역 횡구식석실의 변화양상을 구명한다.

1) 상대서열

한강유역의 횡구식석실은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은 2.5 이상의 장방형 1식, 2.0~2.5 이하의 장방형 2식, 1.5~2.0 미만의 장방형 3식, 1.5 미만의 방형으로 구분이 되었다.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낮아져 1:1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6~7세기대 신라지역 횡구식석실의 변화에 대한 기왕의 연구성과¹⁹⁾를 고려하면, A형식 → B·C·D → E → F → G → H형식으로 시간서열이 설정된다. 그리고 I·J·K형식은 비율로서만 다른 형식과의 대비는 어렵고, 석실공간 배치, 매장인 수, 출토 유물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석실 평면형태의 다양성은 한강유역의 횡구식석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석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석실의 비율 변화와 연계시키면, a식은 비율이 2.5 이상이고, b식은 2.0~2.5 이하, c식은 2.0~2.5 이하, d식은 2.0~2.5 이하와 2.0 미만, e식은 1.5 미만의 석실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앞의 비율에 따른 석실의 변화를 고려하면, 석실의 주 사용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석실의 평면형태를 기준하였을 때, A형식 → B·C → D·E·F → G → H형식으로 시간서열이 결정된다.

다음은 석실의 공간배치에서 나타나는 석실의 활용도이다. a식은 좌측 장벽의 공간 일부와 전벽 앞쪽의 석실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주검을 안치하고, 이외의 공간은 유물 부장을 하거나 또는 매장과 관련된 작업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였다. b식은 양쪽 단벽의 앞부분을 제외한 공간에 주검을 안치하였고, c식은 전벽 가까이에만 빈 공간을 두고 이외의 부분에는 시상대를 배치하여 a식보다 많은 면적을 시상대에 할애하고 있다. e식은 c식의 석실보다 너비가 넓어져 시상대와 시상대 사이에 공간을 두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식은 1차 시상대를 너비방향으로 설치하여 석실의 너비가 넓어지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여러 명의 매장을 예상한 석실의 공간배치로 볼 수 있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길이:너비의 비율이 2.5 이상의 세장방형, 2.0~2.5 사이의 장방형, 1.5~2.0 미만의 장방형, 1.5 미만의 방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신라 횡구식석실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서 장방형, 그리고 방형으로 변천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한강유역 횡구식석실의 평면형태도 이에 연동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한강유역 횡구식석실은 A → B·C → D → E·F → G형식으로 상대서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A~G형식과 I·J·K형식과의 상대서열 및 I·J·K형식의 상대서열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 어려우나 曆年代의 비교는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曆年代 설정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9) 洪潛植, 2003, 앞의 책.

2) 편년

II 장 2절에서 모두 11개의 형식을 설정하였고, 11개 형식의 전체적인 상대서열을 앞 절에서 설정하였다. 시간적인 상대서열은 알파벳순과 일치하는데, A형식이 가장 빠르고, 알파벳순으로 시간순서가 늦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위에서 설정된 각 형식의 曆年代는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 중에서 曆年代를 제시하는 자료가 출토되지 않아 자체에서 曆年代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각 형식의 曆年代를 추정하기로 한다. 曆年代 추정의 1차 자료는 분묘에서 출토된 토기이다.

필자는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에는 11·12·16·18·20호묘 출토품이 해당되고, 2단계에는 1·2-1·2-2·3·4·5·6·8·13·17호묘, 3단계는 14호묘, 4단계는 화장묘의 장골기로 사용된 유개함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시기를 6세기 4/4분기, 7세기 1/4분기, 2/4분기, 9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보정리 소실분묘군의 편년결과를 고려하면, 토기 편년의 1단계에 석실의 A형식과 C형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현상은 석실 A형식과 C형식이 병존하였을 가능성, 그리고 A 형식의 일부와 C형식의 일부가 병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A·C형식이 시기 차이 없이 동시에 존재한 계통이 다른 석실일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A형식이 쇠퇴하고 C형식이 등장한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병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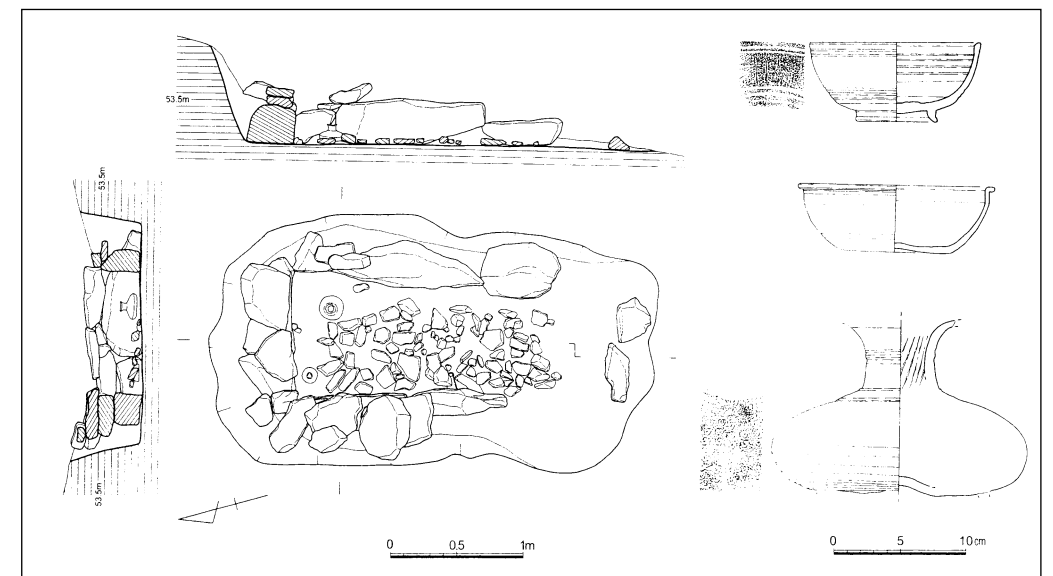
B형식과 C형식의 일부는 2단계에 해당되는데, 소실분묘군에서 B형식은 1기뿐으로 그 수가 적고, 대부분 C형식인데, B형식과 C형식은 병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은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A형식의 중심시기는 보정리 소실분묘군의 1단계로서 필자의 신라후기양식토기 3양식 F형식에 해당되고, 초현은 3양식 E형식기, 퇴화는 3양식 G형식기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설정한다. B형식과 C형식 석실의 중심 시기는 3양식 G형식에 해당된다²⁰⁾.

그리고 D~G형식의 석실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변화가 풍부하지 않은 연질웅과 병이 대부분이어서 토기를 통한 연대 추정은 어려우므로 석실의 평면형태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신라 황구식석실묘의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세장방형→장방형→방형으로 변화였고, 시상대는 저시상에서 고시상으로 바뀌어 갔다²²⁾.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도 신라 황구식석실의 큰 변화 흐름에 따르고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

다. 신라 제형식 황구식석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바뀌는 시기는 7세기 중엽,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하는 7세기 3/4분기이다. 평면형태가 방형인 H형식의 시기는 7세기 3/4분기로 설정해 둔다. D형식과 F형식은 7세기 1/4분기에서 2/4분기에 해당되는데, D형식이 F형식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앞서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형식은 D형식과 F형식이 절충된 중간형식이다.

I형식의 曆年代는 하남 덕풍리 4호묘에서 출토된 병과 대부완의 특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병은 구연과 굽이 결실되었으나 동체형태가 삼각형에 가깝다. 동체가 삼각형인 병은 7세기대에는 발견되지 않고 8세기대 이후에 나타난다. 그리고 동체 외면에는 4치구 1조로 된 연속마제형문이 상하 2단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마제형문은 반원형이다. 연속마제형문은 수적형문과 더불어 통일양식토기 1양식인 7세기 3/4분기에 뚜껑·완·병 등의 문양으로 시문되고, 8세기 전반에 통일신라토기의 주요한 문양이 되지만, 9세기 이후가 되면 사라진다. 특히 연속마제형문을 2단으로 시문하는 문양구성은 8세기 전반의 특징이다. 따라서 덕풍리 4호묘에서 출토된 병의 시기를 8세기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반된 완은 표면에 선으로 된 八형과 점으로 된 八자형이 교대로 시문되어 있다. 점으로 된 八자형문이 시문된 예는 경남 산청 석남사지의 암자에서 출토된 永太二年(766) 銘蠟石製舍利壺와 공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단정호이다. 이 단정호의 견부에 소형의 국화문이 시문되고 그 아래에 점선으로 된 八자형문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호선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점선으로 된 八자형문의 폭이 좁은 점이 같은 것으로 볼 때, 덕풍리 4호묘 출토 완의 시기는 8세기 중엽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마제형문과 八자의 점열문이 병존하는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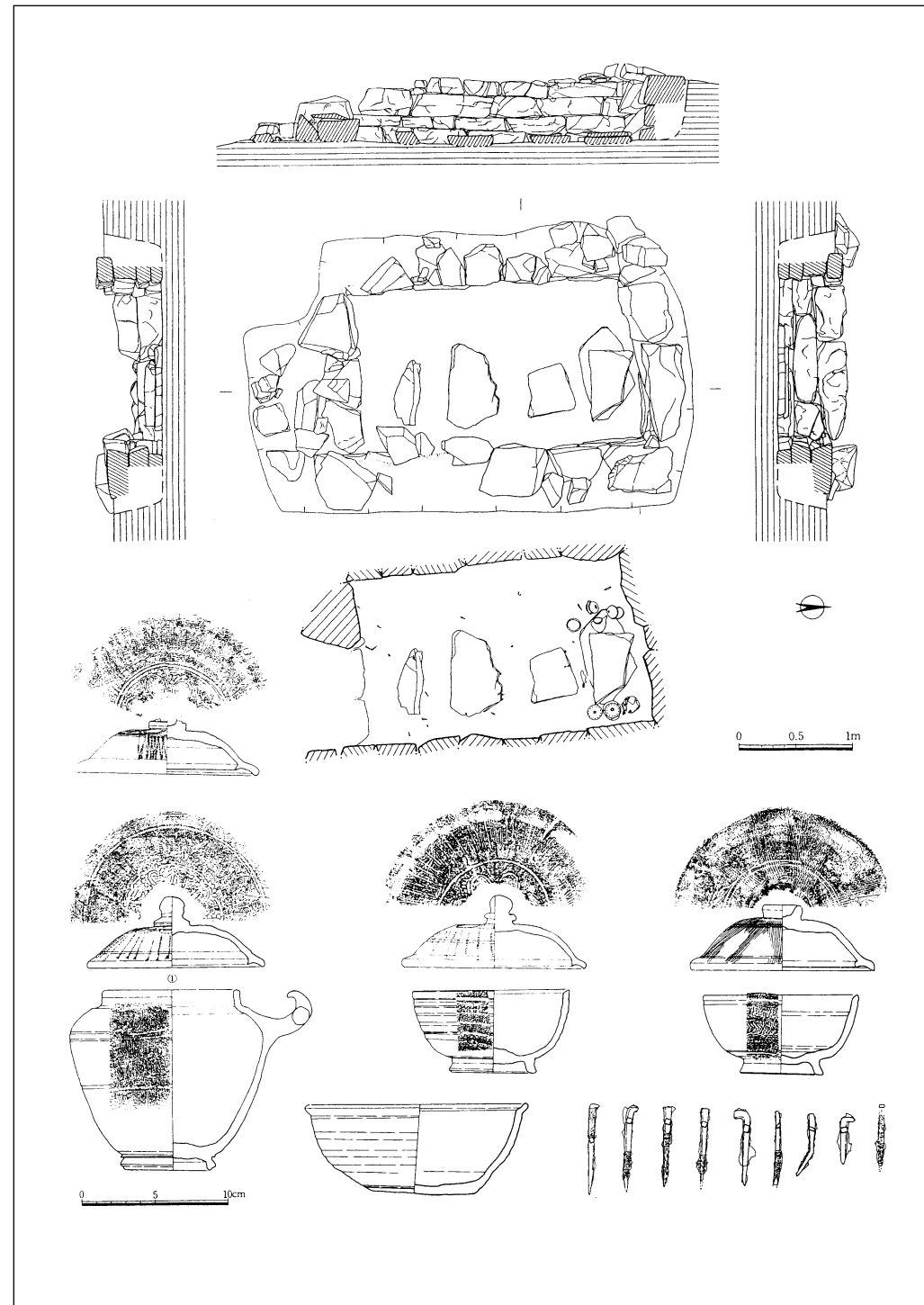


도면 3) 하남 덕풍리 4호묘(1/50)와 출토 유물(1/5)

20) 洪潛植, 2003, 앞의 책.

21) 선·후의 각 형식은 시기에 따라 O형식에서 O형식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구형식의 병존기가 있고, 또 양 형식의 요소가 하나의 석실에 표현된 예도 있다.

22) 洪潛植, 2003, 앞의 책.



도면 4) 파주 범흥리 1호묘와 출토 유물

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I형식의 시기는 8세기 중엽으로 설정된다.

J형식에 해당되는 횡구식석실에서 출토된 토기는 없으나 구조가 횡혈식석실로서 다르지만 바닥에 할석을 일렬로 깔아 관대로 이용한 점 등이 동일한 범흥리 1호묘 출토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기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범흥리 1호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유개합·유개파수부옹·뚜껑·완 등이 있다. 4점의 뚜껑은 내구연이 있고, 표면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상방에는 實線의 二重半圓과 외측에 점선의 반원 또는 이중실선의 풍선모양과 외측에 점선이 돌아가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1조 직선의 점열문 또는 지그재그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나머지 1점의 뚜껑 표면에는 多齒具로 된 밀집중집선문이 시문되었는데, 그 특징이 신라후기양식토기 1양식 A형의 밀집중집선문과 유사하며, 점열문을 시문한 동일 시문구로 위에서 아래로 그었을 가능성이 있다. 2점의 완 중 1점의 표면에는 지그재그점열문이 시문되었고, 나머지 1점에는 二重菱形文과 繩簾文이 시문되었다.

파수부옹에는 縱으로 긴 이중원문이 시문되었다²³⁾.

1호묘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 중 점열문이 주된 문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토기에 점열문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지만, 적어도 8세기 중엽에는 토기의 문양으로 시문된 것은 분명하다. 8세기 중엽 점열문 형태는 일조직선 또는 人자형으로 추정되고, 8세기 말에 이르면 일조직선 또는 지그재그식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에 들어오면 지그재그점열문이 통일신라토기의 주요한 문양으로서 대부분의 토기에 시문되고, 9세기 후반까지 유행한다. 지그재그점열문이 시문된 점을 중시하면, 범흥리 1호묘 출토품의 상한 시기는 8세기 말로 볼 수 있는데, 뚜껑과 합 의 형태 등으로 볼 때 그 시기는 9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J형식의 시기를 9세기 전반으로 잠정 설정해 둔다.

3) 한강유역 횡구식석실묘의 특징

최근 필자는 신라의 횡구식석실을 창녕 교동 3호묘 유형, 교동 1호묘 유형, 조탑동 유형, 신흥리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형식분류 및 편년 작업을 하면서 여주 매룡리분묘군에서 조사된 일부의 횡구식석실을 신흥리 유형으로 파악한 바 있다²⁴⁾. 매룡리 일대의 횡구식석실을 신흥리 유형으로 파악한 것은 2회 이상의 추가매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2인 매장인 점, 평면형태 등의 동일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강유역의 횡구식석실이 대부분 2인 매장이란 점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

23) 보고서에는 연속마제형문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연속마제형문은 1조를 이루는 치구 수가 1치 또는 2치로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연속마제형문으로 볼 수 없다.

24) 洪濬植, 2003, 앞의 책.

만, 그 이외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강유역 황구식석실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장방형·방형이 있고,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하고 있음은 다른 유형의 황구식석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석실의 공간배치, 시상대의 높이 등은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창녕 교동 1호묘 I 유형은 일관되게 시상대의 높이가 낮은 저시상대를 유지하였고, 교동 1호묘 II 유형과 조탑동유형은 성립 당초부터 시종 시상대의 높이가 높은 고시상대를 유지하였다. 신흥리 유형은 I·II 형식은 바닥 전면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높이가 낮은 시상대를 설치하였지만, III·IV 형식은 시상대의 높이가 높은 고시상대가 설치되고, V 형식부터는 바닥에 자갈을 깔지 않고 고시상대가 설치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신흥리 유형에서와 같은 시상대의 높이가 낮은 저시상대에서 높이가 높은 고시상대로의 변화는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에서도 같은 양상이다.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 시상대가 저시상에서 고시상으로 바뀌는 것은 C형식이고, 그 시기는 6세기 4/4분기부터로 신흥리 유형보다 늦게 나타난다. C형식부터 시상대의 높이가 20cm 이상으로 높아지고, D형식부터는 시상대의 높이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그런데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은 등장 당초부터 바닥에 자갈이 깔리지 않고, 시상대가 설치되며, 추가장이 되지 않은 1인 매장이 된 석실도 있지만, 1회의 추가장이 된 2회 매장이 많다.

황구식석실의 수용 당초에는 시상대의 높이가 낮은 계통의 황구식석실을 수용하였는데, 그 계통은 신흥리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흥리 유형에서와 같이 바닥 전면에 자갈을 깔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산 장대리 황구식석실묘와 유사한 양상으로서 지역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후기양식인 III 형식 이후가 되면, 신흥리 유형을 제외한 여타 유형의 황구식석실에는 추가장이 활발하게 되지만,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은 대부분 1회의 추가장이 되었다. 1회의 추가장이 된 것은 부부를 매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석실에 부부를 매장하는 습속은 고구려와 백제의 횡혈식석실에서도 보편적이다. 한강유역은 553년 신라가 지배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각축을 벌이던 곳이었지만, 고구려의 군사기지인 보루가 한강 북안에 형성된 양상을 고려할 때, 한강 남안지역은 백제의 지배 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지배 하에서 부부를 매장하는 백제의 매장문화가 정착되고, 553년 신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신라의 매장구조가 수용된 이후에도 부부를 매장하는 습속이 지속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강유역 황구식석실의 공간배치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한강 수계만의 특징인데, 석실의 평면형태, 특히 길이가 짧아지고 너비가 증가하는 평면형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석실에서 석침이 사용되는 점이다. 한강유역의 석실에서 사용된 석침은 몇몇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석을 적당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고 가공하지 않은 형태이다. 신라분묘에 석침이 사용된 예는 왕

경과 그 주변의 횡혈식석실이다. 왕경의 서악리 석침총·서악리 석실분·쌍상총·마총·장산 토우총 등과 충효동, 용강동분묘군에서 출토된 석침은 정교하게 가공되었고, 일부 석실에는 석제의 足座까지 사용되었다. 횡혈식석실인 매룡리 2호묘에는 왕경의 횡혈식석실에서 출토되는 頭部 또는 頭部와 胸部가 놓이도록 가공한 석침이 출토되었는데, 왕경세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에 석침이 사용되는 시기는 7세기 1/4분기인 D형식부터인데, 왕경에서 석침을 사용하는 매장습속을 모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강유역의 일부 횡혈식석실에서 두침을 사용하고, 그것을 황구식석실에서도 모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7세기 1/4분기~삼국통일 전후의 시기에 한강유역의 분묘에 석침 사용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한강유역 신라 황구식석실의 특징과 변천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한강유역의 황구식석실은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정복 이후인 6세기 3/4분기에 조영되기 시작하였고, 7세기 전반에 유행을 하고, 9세기 전반까지 지속되면서 평면형태, 석실의 공간 배치, 시상대와 관대, 매장 인수 등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후반에는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2.0 이상인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높이가 20cm 이하로 낮은 저시상대를 석실의 중앙부에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고, 1인 또는 2인을 매장하였다. 7세기 전반이 되면, 석실의 길이:너비의 비율이 2.5 이하인 장방형으로 되고, 정벽보다 전벽의 너비가 넓은 제형의 모형에, 전벽쪽에만 공간을 두고 이외의 공간에는 높이가 30cm 이상인 고시상대를 설치하였다. 매장된 인수도 2~3인이 되고, 석침이 사용되었다. 7세기 후반에는 비율이 1.5 미만으로 길이가 줄어들고 너비가 넓어져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되고, 매장된 인수도 대부분 3인이다. 황구는 전벽 중앙에 마련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8세기대 이후의 자료는 그 수가 적어 보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석실 너비가 줄어들고 길이가 길어지면서 평면형태가 세장하고, 시상대 높이가 10cm 이하로 낮아지고, 1인 매장이 되는 등의 큰 변화가 일어남을 보이며, 9세기대가 되면, 목관이 사용되어 시상대는 관대로 바뀌고, 1인만 매장하여 사실상 황구식석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 전반의 이러한 특징들은 구조만 황구식석실이고, 실제 이루어지는 매장 행위는 수혈식석곽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통일신라묘에서 고려묘로의 전환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향후 이 분야의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유역 황구식석실 제원

분 묘 명	석 실 (cm)				시 상(cm)			입 구(cm)		석침	매장 수	형식
	길이	너비	깊이	비율	높이	1차시상 방향	시상배치	높이	구조			
소실 2-1호	363	135	(43)	2.68	20	우측	1식		3식		2	A
소실 14호	385	130		2.96	44	우측	1식		파괴		1	
소실 10호	275	101		2.72	25	우측	1식					
소실 8호	300	95	(115)	3.16	20	우측	1식		2식		1	
소실 3호	260	100	(40)	2.60	15	우측	1식				1	
소실 11호	300	105		2.86	15	우측	2식		2식		4	
방미기골 16호	315	130	(58)	2.42	18 · 16	우측	2식	43	3식		2	B
소실 1호	325	125	(131)	2.61	15	우측	3식		2식		2	
방미기골 29호	361	141	(128)	2.56	13 · 14	우측	2식	52	4식		2	
방미기골 28호	372	163	(92)	2.28	10	우측	1식	60	2식		1	
방미기골 23호	377	155	(98)	2.43	18	우측	2식	59	2식		2	C
소실 17호	320	153		2.09	28	중앙	4식		2식		2	
소실 19호	326	124		2.63	20	우측	3식		2식		3	
소실 12호	292	125		2.34	30	우측	3식		?		2	
소실 6호	350	150		2.33	22	우측	3식		2식		3	
소실 4호	323	135	(80)	2.39	25	우측	3식		파괴	유	2	
소실 15호	318	132		2.41	25	중앙	4식		파괴		1	D1
용강골 E-3호	255	105	(95)	2.42	35	전면	3식		2식		1	
용강골 A-6호	260	125	140	2.08	30	우측	3식		1식		1	
매룡리 1호	308	114	(125)	2.71	76	좌측	3식		2식	1	2	
용강골 D-2호	310	120	(110)	2.58	60	우측	3식	85	5식	유	2	
매룡리 4호	246	118	(116)	2.50	74	우측	3식	60	2식	2	2	
매룡리 6호	310	134	(59)	2.30	56	우측	3식		2식	1	2	D2
매룡리 8호	356	146	(70)	2.40	40	우측	3식		2식	1	2	
매룡리 7호	270	120	(43)	2.20	36	?					1	
용강골 E-2호	290	140	(105)	2.07	40	좌측	3식	70	5식	유	2	
매룡리 5호	277	132	(78)	2.09	49	좌측	3식	42	5식		2	
매룡리 2호	218	103	(95)	2.11	41	우측	3식		2식		2	
용강골 A-1호	310	150	(155)	2.06	65	좌측	3식	80	5식		2	

분 묘 명	석 실 (cm)				시 상(cm)			입 구(cm)		석침	매장 수	형식
	길이	너비	깊이	비율	높이	1차시상 방향	시상배치	높이	구조			
용강골 D-1호	270	135	(130)	2.00	50	좌측	3식	65	5식		2	D2
용강골 E-1호	290	145	(110)	2.00	50	우측	3식	60	3식		2	
용강골 B-1호	220	140	120	1.57	45	좌측	3식	55	3식	1	2	
방미기골 22호	218	103	(95)	2.11	41	우측	3식	27	2식		2	
방미기골 10호	243	137	120	1.77	25		3식	52				
방미기골 31호	220	135	120	1.83	24	좌측	1식	42	2식		2	
매룡리 2호	264	157	(56)	1.70	20	우측	3식				2	E
방미기골 18호	214	130	(140)	1.65	25	우측	5식	49	3식		2	
방미기골 30호	245	142	150	1.73	47	좌측	5식	60	3식		1	F
중곡리 갑호						정벽	6식		3식		3	
방미기골 15호	261	172	165	1.51	40	정벽	6식	51	3식	2	3	
방미기골 3호	249	202	130	1.23	47	정벽	6식	75	3식	2	2	
방미기골 8호	266	164	184	1.62	47	정벽	6식	65	3식	무	4	
방미기골 5호	220	155	150	1.41	30	정벽	6식	35	3식	1		
용인동백 I 구역	350	198	(190)	1.76	30	정벽	6식	90	2식		3	G
방미기골 12호	250	162	(115)	1.54	45	우측	7식	60	3식	1	3	
방미기골 14호	242	168	(115)	1.44	28	우측	7식	23	3식		3	
방미기골 1호	165	142	(98)	1.16								
방미기골 4호	299	198	(110)	1.51	70	정벽	6식	63	3식	1	3	
방미기골 2호	255	220	(90)	1.15	25	우측	7식	50	3식		3	
방미기골 11호	237	179	(97)	1.32	30	정벽	6식?	52	4식		3	I
하남 덕풍리4호	200	90	(50)	2.22	10	좌측	8식		1식		1	
화성 화산리3호	180	110	55	1.63	10	전면	8식		1식		1	
화성 화산리4호	257	110	(26)	2.33	10	전면	8식		1식		1	
파주 법흥리2호	234	91	(44)	2.57	10	관대	9식		1식		1	J
파주 법흥리4호	220	93	(86)	2.36	10	관대	9식		1식		1	
파주 법흥리5호	206	93	(98)	2.21	10	관대	9식		1식		1	K
화성 화산리1호	200	95	33	2.10			10식				1	
화성 화산리2호	130	68	43	1.91			10식				1	

※ 수치가 명기되지 않은 석실의 수치는 필자가 도면을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신라토기의 한강유역 정착과정에 대한 試論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품을 중심으로—

홍 보 식 *

1. 서언
2. 편년
 - 1) 소실분묘군 출토품의 분석
 - 2) 절대연대
3. 신라토기의 정착과정
 - 1) 토기군의 구분
 - 2) 부장양상 변화로 본 신라토기의 정착
4. 맺음말

1. 서언

삼국시대의 한강유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한성기 백제의 도읍지로서 한성기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백제문화의 토대를 이룬 지역이었다. 475년 고구려의 침략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고 일시 고구려의 지배 하에 들어갔으며, 한강 북안의 산 정상부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요새는 이 상황을 보여준다.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552~553년 羅齊聯合軍에 의한 반격 및 553년 신라의 한강점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553년 신라는 한강 점령으로 인해 중국과의 직접 통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 선진문화의 수용은 물론 중국 왕조와의 외교교섭을 추진하여 이후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는 인문지리적인 배경을 이

루었을 만큼 신라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은 『三國史記』의 기록과 더불어 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신라의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특히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분묘와 출토된 신라유물은 이 지역이 확실하게 신라의 지배로 편입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료 중에서도 묘제와 토기는 이런 역사상황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특히 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는 그 상한이 553년 신라의 한강 점령 이후라고 하는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신라토기가 이 지역으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복 이전에 반입되었다면, 신라토기가 집 중적이지 않고, 양식을 달리하는 토기군에 소량 공반할 것이지만, 현재 그것을 보여주는 예는 확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강유역 일대-남한강 상류지역은 제외-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상한연대는 553년 이후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한강유역 일대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신라토기의 절대연대가 553년 직후는 아니며, 553년 이후라는 것이다. 현재 신라토기의 절대연대에 대한 연구자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유역 일대는 당시 신라의 왕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¹⁾으로서 이곳에서 출토되는 신라의 물질자료를 통하여 신라문화의 파급과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연구가치도 지니고 있다. 즉 한강유역 일대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양상에 대한 검토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신라문화의 파급과 수용에 대한 평가와 신라토기의 유통문제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왕경에서 유행하는 신라토기의 제작기술 및 유행을 이 지역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 해명은 왕경과 한강일대의 관계 해명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중앙의 기술이 지방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실을 구명하는 자료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분묘유적과 관방유적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분묘유적이다. 한강 일대에서 조사된 신라의 분묘유적으로는 여주 매릉리 용강골 분묘군, 하거리 방미기골분묘군,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파주 성동리분묘군 등이 있다. 이들 분묘 유적 중 여주 매릉리 일대는 신라의 분묘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분묘의 유구와 유물에 대한 보고내용의 부실로 인하여 그 자료적 가치가 현저하게 반 감되어 왔으며, 자료 이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공표된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이하 소실분묘군이라 한다)에서 출토된 자료를 분석하여 신라토기가 한강유역에 어떻게 정착되는 가를 밝히고자 한다.

1) 한강유역은 왕경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변방이지만, 신라의 외교와 군사적 교두보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았다. 6세기 중엽 이후 신라는 대외 정복지역을 지방제도의 틀 속에 편제하여 왔는데, 新州(北漢山州, 漢山州)의 설치도 그러한 지방제도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외교와 군사의 전초기지라는 중요성도 신주 설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관

2. 편년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에 대한 편년연구는 주로 유적조사보고서의 고찰부분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보고서의 고찰에서는 신라토기를 백제토기로 잘못 인식한 오류를 범한 예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충실한 자료보고에 의해 이 지역의 신라토기 양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유적이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이다. 소실분묘군 보고서의 고찰에 의하면, 소실분묘군에서 주 기종을 이루는 뚜껑·고배·대부완의 속성분석을 통하여 3단계로 구분하고, I 단계를 6C 4/4분기, II 단계를 7C 1/4분기, III 단계를 8C대로 각각 절대연대를 부여하였다²⁾.

조사보고서의 고찰에서 설정한 편년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소실분묘군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편년적 위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1) 소실분묘군 출토품의 분석

분묘에서 출토된 기종으로는 개·고배·대부완·완·파수부옹·부가구연장경호·병·단경호·유개합 등이다. 이들 중 개·고배가 주종을 이루고, 대부완·병형토기·유개합이 수점이며, 그 이외는 1~2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출토품 중 표면에 문양이 시문된 예는 3점에 불과하고 문양도 삼각집선문·반원점문·파상문 등 아주 단순하여 출토품의 선후관계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의 속성은 되지 못한다. 보고서의 고찰에서도 주요 속성으로 언급한 꼭지형태·구연·각단 등의 형태가 유효한 속성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속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체 편년과 절대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는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1·12호 1차·16호 1차·18·20호묘 출토품이 해당된다. 1단계에 해당되는 토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뚜껑은 꼭지경이 작고, 꼭지단부가 반전하며, 개신이 반구형이고, 구연이 수직으로 뻗는다. 고배는 각단이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반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토기로는 가락동 3호분과 방이동 4~6호분 출토품이 있다.

2단계는 1·2-1호 1차·2-2·3·4·5·6호 1차·8·13·17호묘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2단계에 해당되는 토기의 수량이 가장 많고 기종조성도 다른 단계보다 다양하다. 그리고 뚜껑과 고배에

2) 진수정, 2004, 「IV. 고찰 2) 유물」『龍仁 寶亨里 小失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있어 형식을 달리하는 2그룹이 있다. 첫째 그룹에 해당하는 뚜껑과 고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뚜껑은 꼭지경이 5~6cm이고, 꼭지 끝이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이 안쪽으로 내경하여 뻗는다. 고배는 각단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대부완과 대부장경호의 각단도 두툼하여 고배의 각단과 동일하다. 둘째 그룹에 해당하는 뚜껑과 고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뚜껑은 꼭지 끝이 뾰족하고, 구연은 내경하거나 사방향으로 뻗는다. 고배는 각단의 다양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반전하고 두툼하다.

3단계는 2-1호 2차·6호 2차·12호 2차·14·16호 2차 출토품이 해당된다. 3단계는 1·2단계에 존재하던 첫째 그룹의 토기는 보이지 않고, 둘째 그룹의 뚜껑과 고배가 존재한다. 뚜껑은 기고가 높아지고, 구연이 내구연화 된다. 고배는 대각이 사방향으로 뻗고, 각단이 뭉텅하거나 뾰족하다.

4단계는 6·8·17호묘에서 출토된 표면색상이 회황색인 합과 뚜껑이 해당된다. 이들 토기는 모두 석실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합은 대형과 소형이 있는데, 완신에서 구연으로 향하면서 밖으로 벌어진다. 구연이 밖으로 꺾이는 것도 있다. 굽은 길이가 짧다. 뚜껑은 2점 출토되었는데, 내구연이 사라지거나 또는 흔적만 남아 있다.

2) 절대연대

이들 각 단계 유물의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는데, 일단 상한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553년 이후임은 분명하다. 신라후기양식토기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소실분묘군 1단계의 토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직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이지 않고, 한 단계 늦은 특징을 나타내는데, 필자의 신라후기양식 토기 제3양식 F형식의 특징을 보인다³⁾. 그래서 소실분묘군 출토 신라토기 1단계의 시기를 6세기 후반의 늦은 시기로 설정한다. 2단계는 1단계에 바로 이어지므로 그 시기는 7세기 초로 필자의 G형식기에 해당된다. 이 2단계가 G형식기에 해당되는 근거는 뚜껑 꼭지단부와 고배의 각단부의 형태가 도톰한 점, 그리고 4호묘에서 출토된 유개대부직구호의 뚜껑과 직구호에 시문된 삼각집선문이 필자 분류의 g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단계는 신라후기양식토기이지만, 용인지역에서 생산된 지방제품으로서 표준형식의 틀을 벗어나 있어 편년의 기준에서 이탈되어 있다. 그러나 3단계에 해당되는 유물의 대부분이 매납 시기에서 1·2단계보다 늦게 된 2차 시상 출토품이므로 2단계보다 늦은 것은 분명하므로 그 시기를 7세기 2/4분기, 즉 필자의 신라후기양식 토기 제4양식기에 해당된다. 3단계의 토기에 문양이 전혀 없고, 또 통일신라토기의 요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 이후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3) 洪潛植,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4단계의 토기는 1~3단계의 토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서 4단계의 바로 다음 시기에 들 수는 없다. 보고서의 고찰에 의하면, 이 4단계의 시기를 8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지만, 그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4단계의 유물 중 6호묘와 8호묘에서 출토된 완 2점의 각단 내측이 들려있고,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각단의 형태는 9세기 중엽에 유행한다⁴⁾. 그리고 구연이 도톰하고 완신에서 꺾여 외반하는 특징도 9세기 중엽 이후의 특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단계는 그 시기를 9세기 중엽으로 설정한다.

4단계의 유물은 1~3단계와의 시기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모두 시상대가 아닌 석실 내부토로부터 출토되었으므로 석실 또는 석곽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추가장 할 때 부장품으로 부장된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매장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완이 독립적인 매장 유구라고 하면, 화장을 한 후 뼈를 담은 장골기일 가능성이 높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 사이에 지방의 곳곳에서 장골기가 조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주 정지산유적⁵⁾, 김해 대청유적⁶⁾, 진주 무촌리유적⁷⁾, 고성 송학동 1A호분 주구내의 장골기군⁸⁾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장골기로 사용된 기종은 대부분 굽이 있는 유개합이다. 통일신라기 왕경의 장골기와는 달리 지방의 장골기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뼈를 담은 유개합으로 된 장골기를 묻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소실분묘군 보고서에는 장골기를 묻은 수혈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 발굴조사 시, 석실 내부에 있는 흙을 유구 내부에 퇴적된 흙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신라토기의 정착과정

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는 신라후기양식토기로서 3양식과 4양식, 그리고 9세기 전반대의 통일양식토기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신라후기양식토기에는 소성도·표면색상·자연유의 부착유무, 이기재의 유무, 소성 시 개체간의 중첩관계, 토기의 중량 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2개의 군으로 구분된다. 이 2개 군으로의 구분은 태토는 물론 성형 및 소성에 이르는 토기제작의 기술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산지가 달랐음을 나타내는 요소들로서 이것은

4) 홍보식, 2005, 『통일신라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韓國上古史學報』50.

5) 국립공주박물관, 1999, 『艇止山』.

6) 李在賢, 2002, 『金海 大浦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7) 姜炘希, 1994, 『晉陽 武村里 加耶墓』, 國立晉州博物館.

8) 沈奉謹,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第1號墳 發掘調査報告書—』, 東亞大學校博物館.

곧 소실분묘군에 부장된 토기의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토기의 시각적 속성의 관찰⁹⁾을 토대로 하여 소실분묘군 출토품의 토기 공급관계의 검토를 통해 신라토기의 정착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1) 토기군의 구분

(1) 형태요소

여기서의 형태요소란 고배의 경우, 구연·뚜껑받이턱·각연과 각단 등의 표현을 말하고, 뚜껑의 경우는 꼭지·드림턱과 구연 등을 나타낸다. 2-1호묘에서 출토된 뚜껑에는 2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는 蓋身形態가 횡으로 긴 반구형이면서 기벽 두께가 균일하다가 꼭지가 접합되는 부분에서 두터워진다. 구경과 꼭지경의 비율이 2.0~2.5:1이고, 구연이 안쪽으로 내경하고, 길이가 5mm 이상이며, 뚜껑받이턱이 명확하게 돌출되어 있다. 둘째는 반구형이지만, 기벽의 두께가 구연에서 상방으로 향하면서 점차 두터워지고, 구경과 꼭지경의 비율이 3:1 내외로 전체에서 꼭지의 크기가 왜소하고, 구연이 사방향으로 짧게 뻗었으며, 드림턱이 희미하게 돌출되어 있다.

고배도 2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기벽 두께가 균일하고, 뚜껑받이턱이 길게 돌출되어 있고, 대각의 두께가 얇고 각단이 둥글다. 둘째는 기벽의 두께가 구연에서 배신 바닥으로 향하면서 두터워지고, 뚜껑받이턱이 짧게 돌출되었으며, 대각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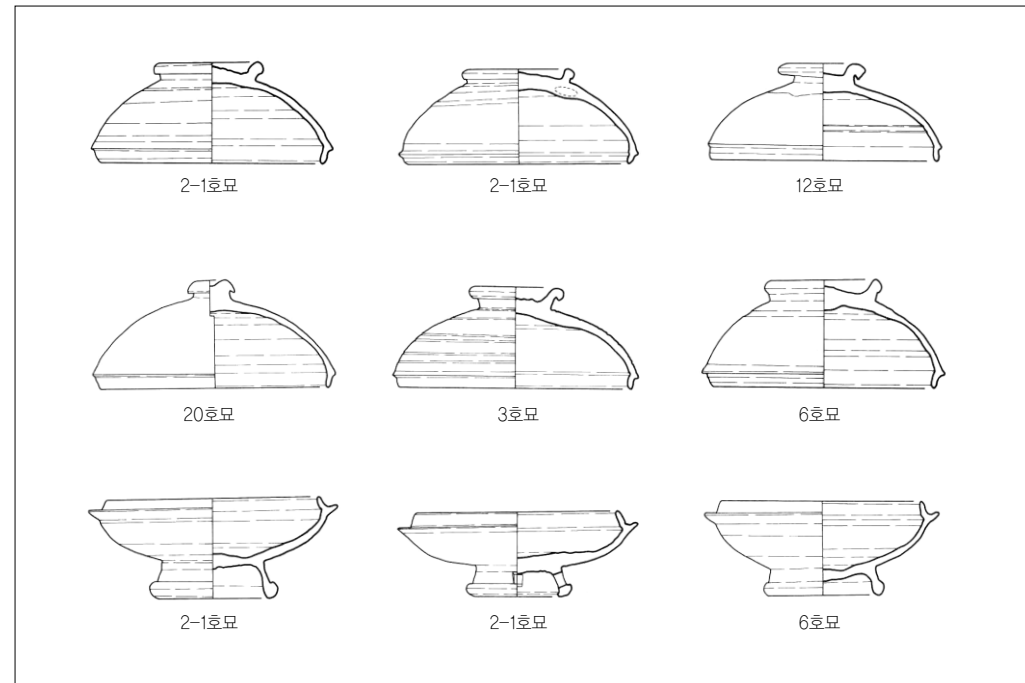
뚜껑과 고배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형식은 서로 세트관계를 보이는데, 뚜껑의 첫째 형식과 고배의 첫째 형식이, 뚜껑의 둘째 형식과 고배의 둘째 형식이 세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트관계는 이들 각각의 뚜껑과 고배들을 부장할 때에 세트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 당초부터 세트관계가 성립되었고, 무덤에 부장될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일부의 유개고배에는 전자의 뚜껑과 후자의 고배간에 세트관계가 성립된 예도 보이는데, 이는 부장하면서 성립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2) 成形과 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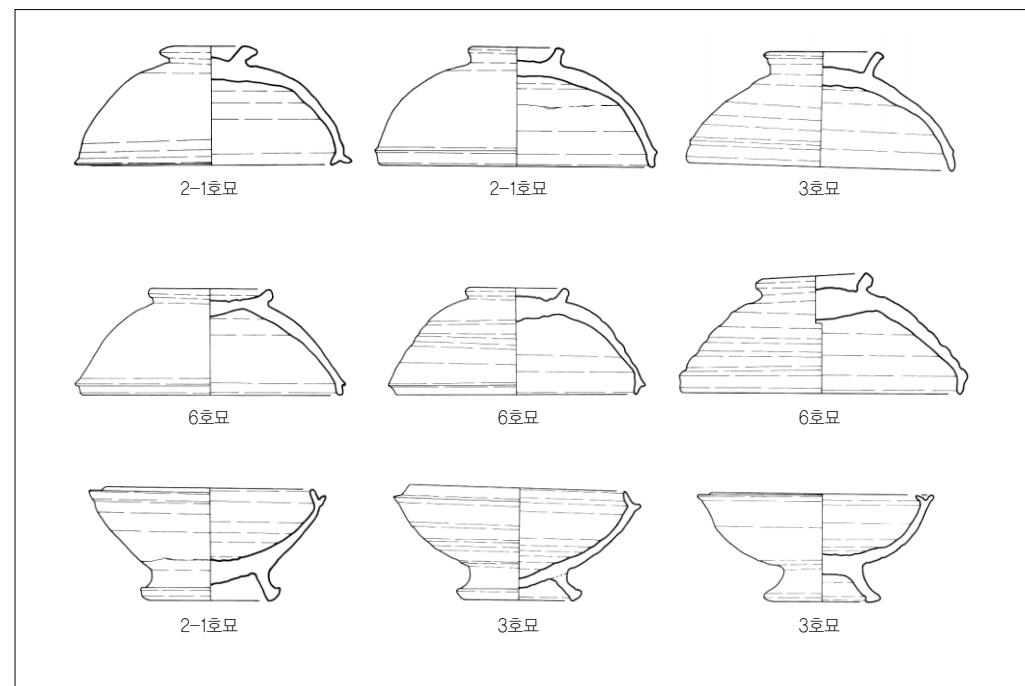
① 성형

신라 후기양식토기 3양식기와 4양식기에는 회전대 성형과 녹로성형의 기술이 혼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회전대 성형이란 호·옹 등의 경우, 바닥판과 몸통을 만듬에 있어 별개의 점토판을 사용

9) 본고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필자가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토기를 직접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며,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소실분묘군 출토품의 관찰을 도와준 기전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도면 1) 1그룹의 뚜껑과 고배



도면 2) 2그룹의 뚜껑과 고배

하여 성형한다. 즉 회전판 위에 바닥을 만들고, 바닥 가장자리에 점토띠를 올린 후 회전판을 돌려 몸통 및 목과 아가리를 만든다. 소형의 것은 몸통과 목·아가리를 한꺼번에 만드는 예가 많지만, 규모가 큰 것은 몸통 하방·상방·구경 등을 만드는데 별개의 점토 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회전대 성형은 토기를 성형함에 있어 각각의 부위를 만드는데,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 일정의 타이밍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녹로성형은 바닥에서 아가리까지 연속해서 점토 덩어리로부터 뽑아 올리기 때문에 각 부위를 성형함에 있어 점토 띠가 다르지 않고, 타이밍도 연속적이다.

그런데 고배의 배신과 뚜껑의 개신 등은 회전대 성형과 녹로성형이 구별되지 않는데, 이것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회전대 성형에 의해서도 한꺼번에 회전력을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웅과 호 등은 내면에 바닥과 몸통 경계부위에 점토 띠를 붙인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바닥과 몸통의 경계에 점토 띠를 붙인 흔적이 없이 바닥부터 시작되는 회전흔적이 몸통으로 연결되는 예가 있다. 전자는 내면에 점토 띠를 붙인 흔적이 있거나 또는 점토 띠를 붙인 부분에 물손질 흔적이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바닥을 만든 후 점토 띠를 올려 몸통을 만든 것으로서 회전판의 기술시스템에서 제작한 것이다. 후자는 녹로의 기술시스템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성형기술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호는 11점이고, 웅은 모두 3점이다. 11점의 호 가운데서 2점은 바닥이 결실되어 회전대 성형인지 녹로성형인지 확인할 수 없다. 9점 중 2-2호 석곽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만 1회 성형이고(사진 1-1), 나머지 8점은 모두 바닥과 몸통 경계에 점토 접합흔적 또는 지두흔이 관찰된다(사진 1-2). 대부장경호는 바닥 내면에서부터 몸통으로 회전 흔적이 남아있어 녹로에 의해 성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몸통 하부와 바닥이 결실되어 1회 성형인지 분할 성형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호묘에서 출토된 직구호도 녹로에 의한 1회 성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직구호는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과 세트를 이루는 유개대부직구호인데, 신라후기양식토기 E양식부터 나타나는 기종으로서, 제작 당초부터 녹로에 의한 1회 성형의 제작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따라서 4호묘에서 출토된 직구호는 녹로에 의한 1회 성형일 가능성이 높다. 1호묘의 2차 시상대에서 출토된 단경호는 회전흔적이 바닥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나 바닥과 몸통의 경계 부위면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닥 위에 점토띠를 얹어 몸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과 몸통의 점토띠가 중첩되어 두터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단경호는 바닥 위에 몸통의 일부를 성형한 후 회전을 하여 바닥과 몸통의 접합 부분을 견고하게 한 결과 회전흔적이 접합 부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녹로에 의한 1회 성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옹은 4점 출토되었는데, 1점은 연질이고 3점은 도질이다. 4점 중 1호묘에서 출토된 연질옹 1점과 17호묘에서 출토된 도질옹 1점은 바닥 내면에서 몸통 내면에 걸쳐 회전흔적이 명료하게 있어 1회 성형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점은 바닥과 몸통의 경계부위에 접합흔적이 있어 분할성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점 모두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성형기술이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로 상이한 성형기술 조건하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회 성형과 분할성형은 토기제작 기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녹로에 의한 1회 성형이 진보된 생산기술임은 물론이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호의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호의 성형기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2개의 그룹이 존재하는 것은 성형기술이 다른 2개의 시스템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② 정면

신라후기양식 토기의 정면기법은 대부분 회전물손질이고, 호와 옹 등의 몸통에는 평행타날이 된 예가 있다. 그리고 호와 옹의 저연 외면에는 예새에 의한 깎기 또는 회전깎기가 된 예가 있다. 회전물손질은 대부분 토기의 성형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면기법이어서 기술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신라후기양식 토기에 행해진 타날은 대부분 평행타날이나 타날도구에 새겨진凹凸의 크기는 다양한데, 타날 후 회전물손질에 의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관찰되는 타날의 방향 또는 타날도구에 새겨진 요철의 차이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지역적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본고에서도 타날에 의한 지역적 차이의 식별은 불가능하다.

단경호와 옹의 저연 외면에 깎기 정면이 된 예는 1호묘 출토 단경호, 8호묘 출토 단경호, 12호묘 출토 단경호, 17호묘 출토 옹 등 3점에 불과하다. 깎기 정면이 된 3점의 단경호는 예새로 점토를 깎아 낸 것이 아니라 예새를 횡으로 긁은 것과 같은 정면수법을 나타내고 있고(사진 1-4), 17호묘 출토 옹은 점토를 깎아 낸 단위가 명확하여 양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사진 1-3). 17호묘 출토 옹의 깎기 정면은 영남지역의 同型의 옹 저연부에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예새깎기의 정면과 동일한 내용을 보인다. 앞서 검토한 성형기법에서 17호묘 출토 옹은 녹로에 의한 1회 성형이 되었고, 구연과 몸통 상부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는 특징도 있다. 이에 비해 8·12·17호묘에서 출토된 단경호의 저연부 정면은 예새깎기의 정면기법을 모방하였으나 흉내만 낸 정도이다. 이외의 호와 옹은 회전물손질 정면이 되었다. 정면기법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형적인 예새깎기가 된 17호묘 출토 옹과 이외의 호와 옹간에는 기술계보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3) 燒成

① 중첩 소성과 단독 소성

토기의 소성은 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즉 기종에 따라 토기를 놓는 위치선정, 소성 시 열에 의해 가마바닥과 토기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상재의 설치, 토기의 재임과 재임에 의해 아래위의 토기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기재의 사용, 불 지피기와 그에 의한 토기 가마 내부의 온도 등이 관계하며, 이런 일련의 행위의 차이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용인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경우, 소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차이가 관찰되는데, 그 요소로서는 중첩소성의 유무 및 중첩 방식, 중첩소성 시 아래위의 토기가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기재의 사용 유무, 자연유의 부착 유무 등이 있다.

신라후기양식토기에서 중첩소성이 나타나는 기종은 뚜껑·유개고배·대부완 등이다. 뚜껑의 중첩소성은 비슷한 형태와 크기의 뚜껑 2점 이상을 포개어 놓고 소성을 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놓인 뚜껑은 위에 놓은 뚜껑의 구연이 닿은 면을 경계로 해서 윗면과 아래 면의 색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색상 구분이 되는 부위는 대개 드림턱으로부터 약간 위쪽 부분이다. 위에 놓인 뚜껑에 의해서 열이 차단되어 소성된 면은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고, 색상이 회색 또는 회백색에 가깝고 소성상태가 좋지 않으며, 열이 차단되지 않는 부위의 면은 자연유가 부착되거나 또는 색상이 회청색을 띠게 된다. 중첩소성의 방식은 2가지인데, 뚜껑을 倒置시킨 것과 正置시킨 것으로 구분된다. 도치상태에서 소성하면, 가장 위에 놓인 뚜껑은 내면에 자연유가 부착되고, 색상이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고, 그 아래의 뚜껑은 내면 중앙에 짙흔이 있고, 구연 내면 및 개신 내면의 하방에 자연유가 부착된다. 그러나 정치상태에서 소성하면, 외면에 자연유가 부착되고, 색상이 거의 균일하지만, 그 아래에 놓인 뚜껑은 개신 외면 하방에서 표면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개신 외면 하방과 구연 외면에 자연유가 부착되는 예가 많다.

뚜껑을 도치시켜 중첩 소성한 예는 사진 1-5·6의 12호묘에서 출토된 뚜껑 1점(보고서의 도면 35-3)이다. 외면은 드림턱으로부터 1cm 위쪽을 경계로 그 윗면의 색상은 옅은 회색이고, 아래 면은 짙은 회색이다. 내면은 천정면에 직경 4.6cm의 범위에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고, 색상이 회색이며, 그 이외의 면은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따라서 이 뚜껑은 도치된 상태에서 중첩시켜 소성하였음이 분명한데, 표면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중간에 놓여있었고,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는 부분의 직경과 꼭지의 직경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형태의 꼭지가 부착된 뚜껑을 여러 점 중첩시켜 소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치상태에서 중첩 소성한 예는 2-1호묘 출토품, 3호묘 출토품, 20호묘 출토품 2점(사진 2-1) 등 모두 4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꼭지부터 구연까지 동일한 색상을 띠

는 뚜껑은 소성 시 중첩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2-2)¹⁰⁾. 토기 표면 색상이 동일하여 중첩 소성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뚜껑으로는 2-1호묘 출토품(4점), 3호묘 출토품(1점), 5호묘 출토품(1점), 6호묘 출토품(3점), 12호묘 출토품(2점), 16호묘 출토품(2점) 등 모두 13점이다. 중첩 소성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의 비율은 5:13으로 중첩 소성하지 않은 개체 수가 2배 이상이다.

중첩 소성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뚜껑은 대부분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또는 자연유가 부착되었더라도 기벽이 매우 두텁고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나, 중첩 소성한 토기는 대체로 기벽이 얇고 두께가 비교적 균일한 등의 차이도 나타난다. 기벽이 얇고 균일하기 때문에 중첩하더라도 소성이 가능하다는 것과 기벽이 두텁고 균일하지 않아 중첩하여 소성할 경우, 제품의 완성도가 낮아지는 기술의 한계가 소성방식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첩 소성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간에 토기제작의 기술 수준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것은 곧 양자간에 토기제작 및 소성 집단과 장소가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꼭지 또는 뚜껑 외면에 자연유가 부착된 뚜껑(사진 2-3·4)은 18호묘 출토품(2점), 6호묘 출토품(2점), 5호묘 출토품(1점), 4호묘 출토품(1점), 3호묘 출토품(2점), 2-1호묘 출토품(4점) 등 모두 12점이다. 12점 중 다른 기종, 예를 들면 대부완·직구호 등과 세트상태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뚜껑은 3점이다. 이 3점을 제외한 9점은 중첩 소성 시 가장 위에 놓였거나 또는 고배와 세트상태에서 소성되었을 것이다.

고배 위에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소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도 있다. ①고배의 뚜껑받이턱 내면에 다른 토기의 구연부 편이 부착되었거나(사진 2-5), ②구연에서 뚜껑받이턱 내면의 안쪽에 이르는 부위에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고, 뚜껑받이턱 내면의 바깥쪽 면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는 것(사진 2-6), ③구연과 뚜껑받이턱 내면에 짚흔이 부착되어 있는 예(사진 3-2~4)가 있는데, 이런 증거들은 고배 위에 뚜껑을 덮은 상태로 소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의 예로는 2-1호묘 출토품(도면 1), ②의 예에는 2-1호묘 출토품(도면 2)과 18호묘 출토품 2점, ③의 예로는 3·6호묘 출토품(도면 2) 등이 있다.

대부완과 직구호에서도 고배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2-1·6호묘에서 출토 대부완은 구연과 드림턱 내면 사이의 홈에 짚흔이 부착되고, 몸통의 외면 상부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으나 내면은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았다. 이것은 뚜껑을 덮은 상태로 소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부완과 세트를 이룬 뚜껑은 외면 전면에 자연유가 부착되었고, 구연단부에 짚흔이 부착되어 있어 다른 토기 위에 놓인 상태에서 소성되었음을 나타낸다(사진 3-1). 소성 시부터 세트관계인 대부완과 뚜껑이 분

10) 소성온도가 낮아 중첩되어도 중첩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표면에 색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소성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뚜껑에도 대부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에 매납될 때에도 세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호묘에서 출토된 유개직구호는 뚜껑의 내구연과 외구연 사이에 짚흔이 부착되어 있고, 직구호의 구연단과 구연 내면에 짚흔이 부착되어 있다. 뚜껑과 직구호의 짚흔 부착 위치를 볼 때, 직구호에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소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세트관계가 분묘에 부장될 때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호묘에서 출토된 대부완은 바닥의 내면 중앙으로부터 반경 2.3cm 범위에 짚흔이 부착되었고, 그 윗면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대각의 각단면에도 짚흔이 부착되어 있다. 대부완의 대각 직경이 5cm 내외로서 완신 바닥에 부착된 짚흔의 범위와 대략 일치한다(사진 3-5·6).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대부완은 다른 대부완의 바닥에 올리고,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동일한 크기의 대부완을 중첩 소성하였기 때문이며, 13호묘 출토 대부완은 중간에 적재되었다. 대부완을 중첩 소성한 예는 경주의 손곡동 물천리의 토기가마 및 회구부 등에서 출토된 예가 많이 있는 등 주로 왕경과 그 주변부의 분묘와 토기가마유적에서 출토된다.

고배의 경우, 외면과 내면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중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고배에는 고배 위에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소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가 있다. 2-1호묘 출토 고배, 5호묘 출토 고배 등이 해당되는데, 수량이 많지 않다. 이들 고배는 각단면에 이기재 또는 이상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마 바닥에 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離器材

토기를 중첩소성할 때 토기끼리의 용착을 막기 위해 중첩할 때 닿는 토기 면 사이에 다양한 물질을 놓게 되는데, 신라토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이기재는 초본류이다. 초본류는 이기재로서 뿐만 아니라 가마 바닥과 토기가 용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離床材로서도 사용되었다. 초본류는 소성과정에서 완전히 연소되어 흔적조차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뚜렷하게 기면에 남게되며, 이기재로 사용된 초본류의 대부분은 벼짚으로 추정된다¹¹⁾.

앞서 중첩소성의 사례들을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듯이 소실분묘군의 토기에는 이기재로서의 짚흔이 부착된 예와 부착되지 않은 예가 있다. 짚흔이 부착된 예(사진 4-1~4)로는 2-1호묘 출토 고배·유개대부완, 3호묘 출토 뚜껑과 고배¹²⁾, 4호묘 출토 유개직구호, 5호묘 출토 유개고배, 6호

11) 홍진근, 2003, 「三國時代 陶質土器의 燒成痕 分析」 『三韓·三國時代의 土器生産技術』, 제7회 복천박물관 국제학술대회.

12) 보고서에 의하면, 짚흔이 부착된 뚜껑과 고배는 각각 다른 고배와 뚜껑이 세트관계로 설정하였는데, 유구내부가 교란되어 정확한 세트관계의 파악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짚흔이 부착된 뚜껑과 고배가 세트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 출토 유개고배와 유개대부완, 13호묘 출토 대부완 등 모두 9건 14점이다. 14점 중 2-1호묘에서 출토된 고배와 13호묘에서 출토된 대부완 2점을 제외하면, 모두 세트관계를 이루고 있다. 뚜껑만 중첩하여 소성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배 위에 뚜껑을 덮어 소성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것은 소성 당시에 뚜껑과 고배가 세트를 이룬 것이 분묘에 부장될 때까지 세트관계가 그대로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실분묘군의 분묘에 부장된 대부분의 토기는 실제 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분묘에 부장하는 부장품으로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의 토기에는 짙흔이 부착되지 않았는데, 짙흔이 부착되지 않은 토기는 표면색상이 회색 또는 청회색이다.

표면 색상이 회색인 뚜껑과 고배의 경우, 예를 들면 2-1호묘에서 출토된 뚜껑 2점(보고서의 도면 13-1·3), 12호묘 출토 뚜껑(보고서의 도면 35-3), 20호묘 출토 뚜껑 2점(보고서의 도면 47-2·3) 등은 중첩 소성한 흔적이 있고,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았다. 토기를 중첩하여 소성하면 서로 용착하여 붙기 때문에 불량품이 될 우려가 높아 이기재가 필요하므로, 이들 토기의 경우도 소성시 이기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기재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은 소성 당시 토기에 전달되는 온도에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대부분의 짙흔 위에는 자연유의 얇은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유의 형성에 의해서 짙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막이 되어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첩 소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재로 사용된 짙흔이 부착되지 않은 것은 자연유가 형성되지 않은 온도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토기소성 시의 온도와 토기 표면 색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¹³⁾, 950℃~1050℃ 사이에서 토기가 소성되면 표면 색상이 회백색을 띤다고 하는데, 이 연구성과를 중시하면, 이들 토기는 이 온도 정도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토기들은 뚜껑과 뚜껑 또는 뚜껑과 고배가 중첩 소성된 예가 대부분이다.

한편 중첩 소성된 흔적이 없고, 또 짙흔이 부착되지 않는 토기는 내외면의 색상이 청흑색으로서 일부 토기 표면에는 얇은 피막이 형성되어 있다. 토기소성의 연구에 의하면, 1100℃~1150℃에 이르면 표면 색상이 담청흑색으로 되지만, 표면에 자연유의 피막이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주체를 이루는 중첩 소성된 흔적이 없고 짙흔이 부착되지 않는 토기는 1100℃~1150℃에서 소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성 온도가 이 정도라면, 중첩 소성하여도 중첩된 토기끼리 용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기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기재가 이미 연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3) 이하 佐佐木幹雄의 연구(2003, 「還元焰土器の焼成技術」『三韓・三國時代の土器生産技術』, 제7회 복천박물관 국제 학술대회)라 한다.

이 문제는 향후 토기의 소성 실험을 통하여 밝혀지길 기대하지만,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표면 색상이 담흑청색인 토기는 이기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③ 표면 색상

본고에서 언급하는 표면색상은 필자가 토기를 관찰한 결과에 나타난 필자의 색상인식에 근거한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신라후기양식토기 중 도질토기의 표면색상, 특히 외면의 색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표면 색상이 옅은 회색이 있는데(사진 4-5·6), 2호묘 출토 유개고배, 3호묘 출토 뚜껑, 12호묘 출토 뚜껑, 20호묘 출토 뚜껑 2점 등 대부분 뚜껑이 해당된다. 佐佐木幹雄의 연구에 의하면, 950℃~1050℃ 사이의 온도에서 토기가 소성되면 표면 색상이 회백색을 띤다고 한다. 표면 색상이 회색을 띠는 토기는 모두 중첩 소성되었다.

둘째는 표면 색상이 어두운 청회색을 띠는 토기인데(사진 5-1·2), 1호묘 출토 파수부호, 2호묘 출토 뚜껑과 고배(보고서의 도면 4·9·15·16), 3호묘 출토 뚜껑과 고배(보고서의 도면 16-2·3·6~9), 5호묘 출토 뚜껑·고배·부가구연장경호(보고서의 도면 20-1·2·5), 6호묘 출토 뚜껑·고배·옹(보고서의 도면 23-1~6·11·14), 8호묘 출토 단경호, 11호묘 출토 고배, 12호묘 출토 뚜껑·고배·대부완·호·병형토기(보고서의 도면 1·2·5~12·14·15), 14호묘 출토 대부완, 16호묘 출토 유개고배와 유개대부완, 20호묘 출토 고배 등이다. 佐佐木幹雄의 연구에 의하면, 1050℃~1100℃ 사이의 온도에서 토기가 소성되면 표면 색상이 청회색을 띤다는 것과 관련시켜 이해하면, 이들 토기들은 소성 온도가 1050~1100℃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토기의 외면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는데, 두텁지 않으며, 대부분의 토기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았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뚜껑·고배·대부완·완·호·병형토기·옹 등 기종이 다양하다.

셋째는 표면 색상이 회청색을 띠는 토기인데(사진 5-3·4), 2-1호묘 출토 뚜껑·고배·유개대부완(보고서의 도면 13-3~6·10~12), 2-2호묘 출토 대부장경호, 3호묘 출토 고배, 4호묘 출토 고배와 유개직구호, 5호묘 출토 유개고배, 6호묘 출토 유개고배와 유개대부완, 12호묘 출토 고배, 13호묘 출토 대부완, 17호묘 출토 옹, 18호묘 출토 유개고배 2점 등이 해당된다. 이들 토기들은 모두 표면에 자연유가 부착되었고, 중첩 소성과 이기재로서 짙흔이 부착되었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가장 소성온도가 높은 제품인데, 적어도 온도가 11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표면 색상 차이에 의한 3그룹의 토기들은 각각 환경이 다른 조건 하에서 소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 색상이 회색을 띠는 첫 번째 그룹의 토기들은 중첩 소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서, 당시의 왕경과 그 주변 토기가마와 분묘에서 출토되는 신라후기양식토기의 한 특징이고, 표면 색상

이 회청색이며 자연유가 부착된 토기도 신라후기양식토기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표면색상이 어두운 청회색을 띠는 두 번째 그룹의 토기들은 주로 왕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의 토기가마 또는 분묘에서 출토되는 예가 있다. 예를 들면, 합천 창리고분군의 황구식석실에서 출토된 대가야 멸망 이후 시기의 신라후기양식토기들은 표면 색상이 흑청색 또는 어두운 청회색을 띠고, 자연유가 부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김해 구산동 토기가마와 화정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후기양식토기들 중에서도 표면 색상이 어두운 흑청색을 띠는 토기군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표면 색상의 차이는 중앙과 지방의 제도술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앞으로의 과학적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2) 부장양상의 변화로 본 신라토기의 정착

이상으로 형태·성형·소성(중첩관계, 이기재의 사용 유무, 자연유의 부착 유무) 등의 요소를 검토한 결과 소실 출토 신라토기류는 2개의 그룹(이하 1·2그룹으로 명명한다)으로 구분된다.

1그룹의 토기군은 태토에 세사립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벽의 두께가 비교적 균일하며, 정제된 제품이다. 단경호와 옹은 녹로에 의해 1회 성형되었고, 옹의 저연 외면에는 예새깎기 정면이 되었다. 뚜껑은 중첩 소성한 예가 많고, 고배도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소성하였다. 구연단·뚜껑받이턱 내면, 바닥 내면 등에 짚흔이 부착되어 있어 소성 할 때, 아래위의 토기가 서로 붙지 않도록 이기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토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토기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2그룹의 토기보다 소성온도가 높았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신라토기는 서울 가락동 3호분 출토 유개고배 2점, 뚜껑 1점, 병형토기 1점, 방이동 4~6호분에서 출토된 고배·뚜껑·대부완·병형토기¹⁴⁾와 파주 성동리고분군 출토 고배·뚜껑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2그룹의 토기군은 세사립의 함유가 거의 없지만, 토기의 기벽이 두텁고, 무거우며, 중첩소성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짚흔이 부착되지 않고, 색상이 짙은 청흑색 또는 흑회색을 띠며, 대부분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단경호와 옹은 회전판에 의해 바닥과 몸통을 분할 성형하였으며, 드림턱과 구연, 대각 등 전체적으로 보아 조잡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짚흔이 부착되지 않은 것은 소성시 이기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고배는 뚜껑을 덮지 않고 소성하였다.

보고서의 고찰에서도 정면방법이나 소성기술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14) 서울의 가락동·방이동의 황혈식석실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에 대한 관찰 및 실측은 1990년대 초에 필자가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후의로 실시할 수 있었다. 그 때의 관찰 및 실측한 도면에 근거한 것이다. 늦었지만, 당시 유물을 실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최종택선생 및 동행하여 실측을 도와준 김현정(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선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 그룹은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후기양식토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정면기법이나 소성이 상당히 불량하다. 저부에 점토 보강을 한 후 깎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거칠게 물손질 하였거나 회전 물레흔적이 요철면을 이루며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6호묘에서 출토된 개와 고배에는 토기를 회전시키면서 생긴 물레흔이 개신과 배신 전면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정황은 보정리에서 출토된 유물이 경주산이 아니라 재지장인에 의한 제품일 가능성을 추론케 하며, 기술의 차이가 나는 장인집단에 의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¹⁵⁾.

이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나 소성온도가 낮다고 해서 재지생산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소성온도에 의해 구별되는 것은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뚜껑과 고배는 정제품으로서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기술의 차이가 나는 장인집단이란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기술차이가 나는 장인집단이란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공방에서 제작하되 기술의 차이가 나는 두 시스템이 병존하였다는 해석과 제작 장소가 각각 다르면서 제도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아마 후자의 의미로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실분묘군 출토 토기의 이입품과 재지품의 비교

호 수	재지품	이입품	비 고	호 수	재지품	이입품	비 고
1	3	1	옹 1점,	11	2		
2-1	9	8	뚜껑 4점, 고배 3점, 대부완 1점	12	14	1	뚜껑
2-2		1	대부장경호	13	1	1	대부완
3	8	2	뚜껑 1점, 고배 1점	14	1		
4		3	고배 1점, 뚜껑 1점, 직구호 1점	16	6		
5	3	2	뚜껑 1점, 고배 1점	17		1	옹
6	8	4	뚜껑 2점, 고배 1점, 대부완 1점	18	4		
8	2			20	1	2	뚜껑 2점
계	이입품		26	재지품		62	

앞에서 제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차이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검토결과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차이가 있는 두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구별되는 두개 그룹의 토기중한 그룹의 토기들은 유적 인근에 존재한 공방으로부터 공급되었고, 나머지 한 그룹의 토기들은 원거리에 있으면서 제도술이 다른 공인집단이 생산한 제품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실분묘군에 부장된 토기에는 재지공인에 의해서 생산된 토기와 이미 신라토기의 제도술에 익숙한 공인

15) 진수정, 2004, 「Ⅳ. 고찰 2) 유물」『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집단에 의해서 만든 제작 장소와 집단이 다른 두개 그룹의 토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두개 그룹 간에 있어 상기와 같은 차이는 토기제작의 기술체계와 공인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이한 토기제작 기술체계와 공인 집단이 용인 또는 그 주위에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원거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실분묘군의 분묘에서 출토된 토기류에는 재지의 토기제작 기술 시스템 하에 있는 가마에서 제작된 제품과 신라후기양식토기 제3·4양식기의 표준 양식¹⁶⁾을 보여 주는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왕경 또는 왕경의 토기제작기술을 구현하는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실분묘군 조영집단으로 이입된 토기들이다.

다음은 이들 이입품의 이입양상이다. 소실분묘군의 1단계인 6세기 4/4분기에는 이입품과 재지생산품의 비율이 1:1에 가깝다. 이입된 기종은 뚜껑·고배·단경호 등으로서 기종조성이 단순하며, 수량도 많지 않다. 2단계인 7세기 1/4분기에 소실분묘군의 조영된 분묘가 많아지고 동시에 유물의 부장양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토기 중에서 이입품의 양과 재지품의 양은 재지품이 약간 수적 우세를 보이면서도, 1단계의 이입품이 뚜껑과 고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단계에는 고배와 뚜껑 이외에도 옹·대부완·유개대부완·유개대부직구호·대부장경호 등 기종이 보다 다양하다. 이 2단계의 부장토기 중 이입품의 기종이 앞 단계보다 다양한 것은 분묘의 조영이 1단계보다 많아진 것에 기인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입품의 기종이 다양해진 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3단계는 소실분묘군에서 분묘 조영행위가 종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장품 중에 이입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입품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공인집단이 생산한 토기의 이입 행위가 중단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입의 증지는 1·2단계에 이루어진 토기 공급관계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소실분묘군 축조집단과 이입품을 공급하는 관계의 단절, 그리고 재지생산품으로의 대체를 고려할 수 있지만, 분묘 조영이 3단계 이후에 종결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논의는 사실 어렵다. 그런데 3단계에 이입품이 부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이입된 제품이 모두 소비되고, 재지품으로 대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입품이 부장되지 않는 점은 신라후기양식토기의 제도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필요치 않았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주 매릉리분묘군에서 출토된 IV양식 이후에 해당되는 토기들이 여타 지역의 신라토기와 형태적 특징과 소성도 등에서 동질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한강유역에서 신라토기의 제도술을 충분히 구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곳으로 옮겨온 사민 1~2세대들이 사라지고, 한강유역에서 태어난 사민 3세대에 들어오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급관계가

16) 여기서 표준양식이란 당시의 왕경에서 이루어지는 토기제작 기술(얇은 기벽, 녹로 성형, 중점소성, 정지소성, 소성 시기 기재 사용 등) 및 표현(꼭지 끝과 대각단이 둥글거나 반전하는 형태)을 충실하게 반영한 토기를 지칭한다.

붕괴된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단계에 해당되는 유물이 많지 않는데, 이것은 소실분묘군 축조집단으로 이입된 토기의 양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이 단계에서 소실분묘군의 축조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이 단계에 유입된 토기 모두가 분묘에 부장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1단계와 2단계의 시기는 30~40년 정도로 1.5세대 정도로서 그렇게 큰 시차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유입시기는 같더라도 분묘에 매장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군 그룹의 토기가 소실분묘 축조집단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앞장에서 행한 단계에 의하면, 이입품은 1·2단계에 집중되고 3단계에는 이입품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미 3단계가 되면 재지생산에 의한 토기의 공급이 달성되고, 1·2단계와 같은 외부에서 생산된 토기의 반입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재지에서 생산된 토기와 외부로부터 이입된 토기의 비율은 기종마다 다른데, 뚜껑은 11점, 고배는 6점, 대부완 3점, 옹 2점, 직구호 1점 등이다. 가장 많은 수를 보이는 고배의 경우 재지에서 생산된 토기의 수가 약간 많다. 그리고 대부완·유개대부완·대부장경호·대부직구호·도질옹 등의 기종은 이입품이 많고, 이들을 모방한 예들도 일부 있다. 재지 생산품과 이입품의 전체적인 비율은 2.4:1로 재지 생산품의 비율이 꽤 높다.

소실분묘군 조영집단으로 반입된 후기양식토기의 기종은 뚜껑·고배·대부완·호·옹 등으로서 기종조성이 단순하다. 그리고 유개합·파수부대부완·부가구연장경호·병형토기 등 후기양식토기의 특징적인 기종이 포함되지 않는 점, 그리고 삼각집선문과 반원점문 또는 원점문이 시문된 뚜껑이 1점에 불과할 만큼 무문양의 토기가 대부분인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기종구성과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 반입토기의 생산지가 왕경의 제도술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했거나 또는 소실분묘군에서 출토되지 않는 기종을 생산하지 않거나 문양을 시문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공방에서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소실분묘군에 이입된 토기의 생산지 및 소실분묘군 조영집단으로 이입된 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왕경 또는 그 주위의 토기제작기술로서 만든 토기가 소실분묘군에 부장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반입된 토기의 기종 및 문양의 시문이 거의 없는 특징 등은 신라의 서북부지역의 토기와와의 관련성이 높는데, 이는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황구식석실의 특징 일부가 신흥리유형¹⁷⁾에 해당되는 것과도 관계된다. 소실분묘군에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토기가 반입된 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17) 洪漣植, 2003, 앞의 책.

신라가 가야와 백제, 고구려 영역으로 팽창을 하는 6세기 중·후엽에는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곳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민과 더불어 신라문화를 이식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민과 신라문화의 이식 정책을 나타내는 자료가 이들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 중에 이입된 토기의 존재이다. 소실분묘군의 한 예로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입된 토기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집중하고, 7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이입품이 사라지며, 재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은 새로운 정복지역에의 신라문화 수용 및 정착과정을 나타낸다.

새로 정복한 지역에 대해 신라의 지배를 최대한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었을 것인데, 신라가 정복지역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중 신라의 문화요소를 이식시키는 것도 하나였을 것이다. 정복지역에 대한 신라토기의 보급은 정복이전의 토기 생산시스템, 그리고 기종과 기형, 양식이 다른 토기를 사용하던 문화요소를 가장 빨리 종식시키고, 신라문화를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복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과정을 반영하는 물질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¹⁸⁾.

4. 맺음말

이상으로 용인 소실분묘군의 신라분묘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연대 및 시각적 관찰에 바탕하여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에 이입품과 재지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입품은 신라후기양식토기 3양식기인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인 1·2단계에만 보이고, 3단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실분묘군으로 이입된 토기는 그 특징으로 볼 때, 신라의 서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소실분묘군으로 이입된 토기는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신주를 설치하는 등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에 수반된 것으로서, 이입품과 재지품의 동향을 통하여 신라의 한강유역에 대한 신라의 지방지배가 관철되어 가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용인 보정리의 소실분묘군에 부장된 토기가 어디에서 생산되어 공급되었는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군사정복에 의해 확장된 영토에 대한 신라문화 이식의 실체와 왕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의 토기 공급문제 해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약 10년 후에 대가야를 정복하였을 때도, 정복된 대가야지역의 토기양상이 일변하는 현상이 뚜렷하였는데, 이 때에도 신라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이 지역으로 이입된 현상이 뚜렷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복지역에 대한 신라토기의 보급과정이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4



5



6

사진 1) 신라토기의 성형·정면·소성(1 : 김해 화정분묘군, 2~6 : 보정리 소실분묘군)



1



2



3



4



5



6

사진 2)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 신라토기의 소성 1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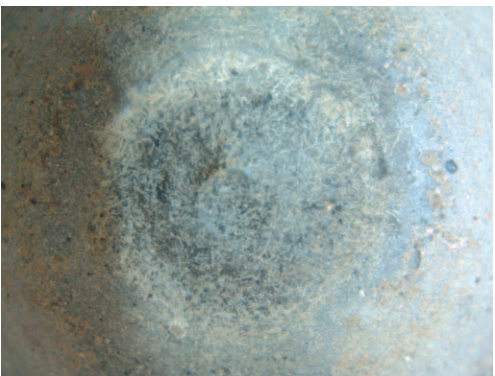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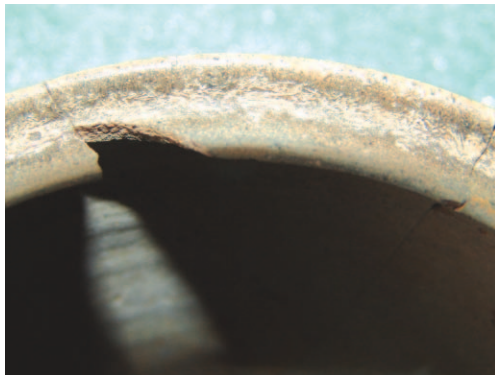


5



6

사진 3)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 신라토기의 소성 2



1



2



3



4



5



6

사진 4)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 신라토기의 소성과 표면 색상 1



1



2



3



4

사진 5)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 신라토기의 소성과 표면 색상 2

경기지역의 新羅系 평기와 小考

허 미 형 *

- 1. 머리말
- 2. 신라계 평기와의 검토
- 3. 고찰
- 4. 맺음말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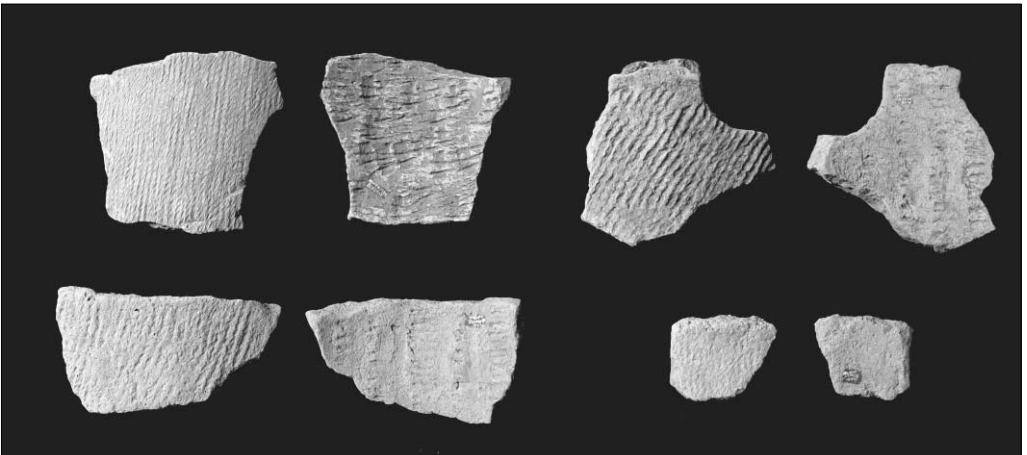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송풍관 (성형하여 분할하기 전의 수키와를 송풍관이나 배수구용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경기지역에서 실시되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물은 평기와류이다. 이 지역 출토 기와류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한성백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 龜田修一은 서울 石村洞 4호분 및 주변 출토 기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성기에 기와 제작이 시작되었으며 한성백제기 기와류가 외관상 낙랑 기와와 관련성이 있

*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 기안리 제철유적에서 다량의 낙랑계 토기와 함께 送風管이 수습되었는데, 제작방식이 와통 없이 제작된 낙랑계통으로 보아 3세기 초중반으로 잡은 바 있다(金武重, 2004, 『華城 旌安里製鐵遺蹟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 40, 충남대 백제연구소). 정인성, 2005, 『樂浪土器와 平기와의 제작법』(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요지문).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送風管片

음을 지적하고 있다²⁾. 최근 들어 서울경기지역에서 한성백제 관련 유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지 유적에서 상당량의 기와는 물론 와당까지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한성백제시기 일부 지배층의 거주지에는 기와를 올렸음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華城 花山유적, 포천 자작리, 몽촌토성, 풍납토성, 그리고 화성의 기안리와 발안리 등 원삼국기와 한성백제에 걸치는 시기로 보이는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류가 서울경기 지역 출토 기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편년과 제작방법 고찰 등 이와 관련한 논문이 여러 건 소개되었다³⁾. 이제 백제 기와는 와당뿐 아니라 평기와도 한성기와 웅진·부여기의 시기적 특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

1990년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조사가 시작되면서⁵⁾ 국내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에 대한 연구가 자료 축적을 기다리는 중에도 늘어나고 있다. 당시 호로고루와 무등리1보루가 고구려 기와를 반출하는 유적으로 소개되었고, 육사박물관에서 연천군의 군사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구려 기와를 반출하는 임진강유역의 관방유적이 알려졌다⁶⁾ 이후 잇다른 조사에서 한강유역의 보루유적에서도 고구려 기와가 확인되었다⁶⁾. 일련의 자료를 종합하여 고구려 평기와의 속성 및 제작

2) 龜田修一, 1984, 『百濟漢城時代の瓦に關する覺書』, 『尹武炳先生回甲紀念論叢』.

3) 權五榮, 2003, 『漢城期 百濟 기와의 製作傳統과 發展의 劃期』, 『百濟研究』38 충남대 백제연구소.

_____, 2004, 『漢城期 百濟 기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와학회』.

백종오·한준영, 2000, 『과천 문원동유적 출토 백제토기·기와류에 대하여』, 『경기도박물관연보』4.

4) 와당의 경우는 이미 한성기, 웅진기, 사비기의 형식분류가 이루어져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2,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특별전 전시도록)

5) 김성범, 1992,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경기도 연천군편), 『문화재』제25호.

6)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4,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연천문화원, 1995, 『郷土史料集』.

광진구·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8, 『아차산성- '96 보수구간내 실측 및 수습발굴 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연천 호로고루 정밀 지표조사보고서』.

기법 등을 다룬 논문이 이미 여러 건 소개된 바 있고⁷⁾ 집안이나 평양 출토의 고구려 기와들과 비교연구가 진행중이다.

백제나 고구려계 기와보다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출토량에서 보면 신라~통일신라시대 계통의 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 신라 혹은 통일신라기의 기와류는 주로 산성의 건물지나 당시의 행정기관으로 사용되었을 건물지 등에서 보이고 있다. 신라가 6세기 중엽 한강유역을 점유한 이후 곳곳에 방어용 성을 쌓고, 행정 관청을 설치하면서 세운 건물지 유적에서 다량의 평기와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유역의 경기지역에서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성 중에서 고려시대 이전의 기와가 출토되는 산성은 대부분 신라계 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이다⁸⁾.

한강유역 진출 후 신라는 하남 이성산성, 관악산 호암산성, 강남 대모산성 등 한강유역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영토 확장을 계속하여 북으로는 함경도를,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기에 이른다. 7세기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는 철중성과 낭비성, 북한산성 등 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차산성과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고양 고봉산성, 파주 오두산성 등이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

본 고에서는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한강점유와 함께 경기지역에 수축된 산성과 건물지를 대상으로 살피되 평기와류를 반출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한강유역 주변의 유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할미산성 등 통일신라기에 걸치더라도 기와가 반출되지 않는 유적은 제외하였다.

토기류와는 달리 평기와류는 고신라계와 통일신라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근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¹⁰⁾. 최근 오산 가수동유적이나 용인 삼막골~연수원간 도로부지 유적 조사에서 고신라토기류와 함께 출토된 와편이 소수 확인되었으나 고신라계와 통일신라계의 평기와류의 구분은 아직 자료축적이 필요하다¹¹⁾. 따라서 이 글에서 신라의 한강점유기 이후의 평기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통일기, 늦게는 나말여초에 해당한다. 필자가 실견한 유물의 경우는 제작기법을 여러 가지로 고찰할 수 있었으나 간접적으로 살펴본 유물의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만을 기술하였다.

7) 백종오, 2001, 「경기북부지역 성곽출토 고구려 평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5, 「고구려 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맹식, 2001, 「高句麗 기와의 特性」, 『고구려유적 발전과 유물』(고구려연구 12집), 고구려연구회.

_____, 2003, 「三國時代 평기와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광주, 2004, 「漢江流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研究」,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발표문집).

8) 심광주, 2003, 「IV. 신라 성곽」, 『京畿道の 城郭』, 170~177쪽.

9) 위의 책, 1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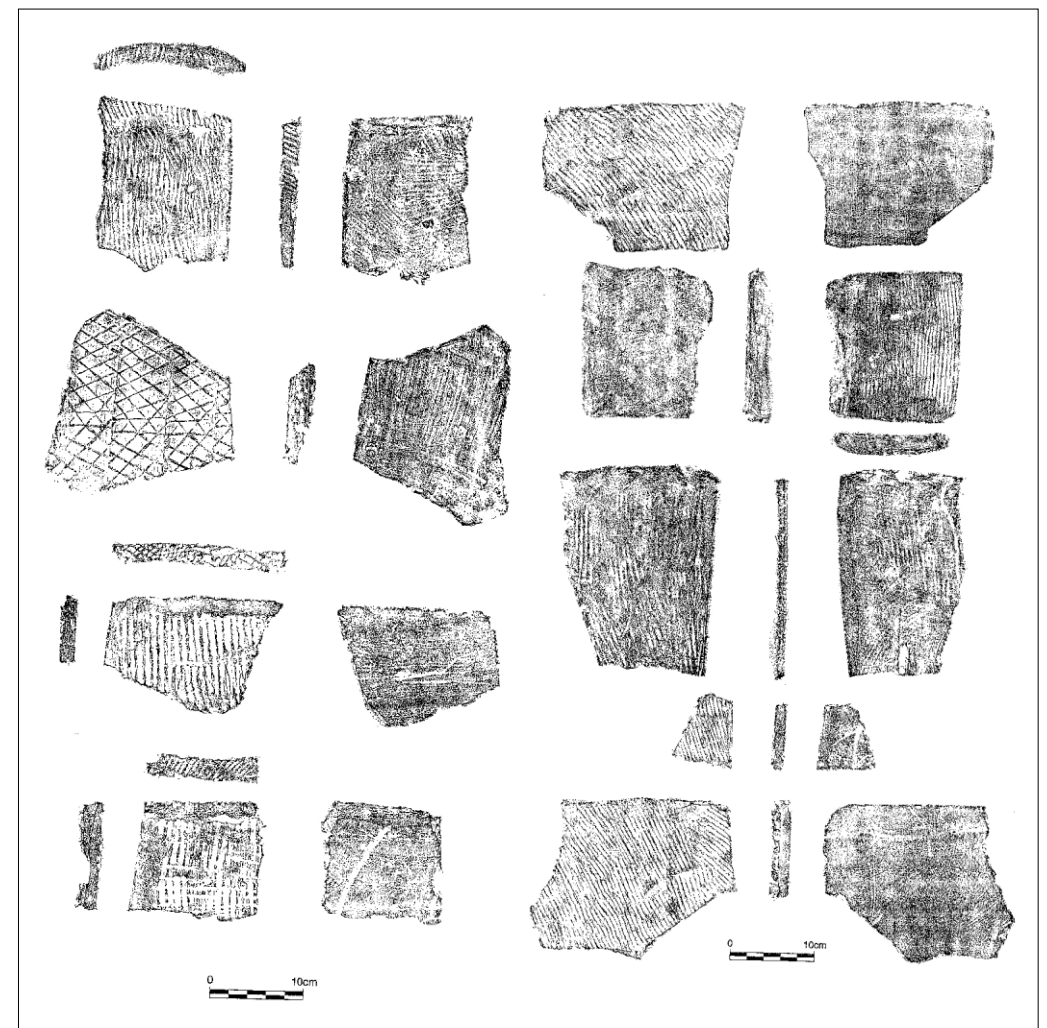
10) 서봉수는 역사적 정황과 공반 유물을 근거로 포천 반월산성 평기와류가 555~615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하여 고신라 평기와로 분류하였으나, 유적에서 신라토기류가 나온다고 해서 기와류 역시 같은 고신라계로 분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서봉수, 1998, 「포천 반월산성 기와의 속성분석과 제작시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인숙은 연호명 평기와와 관련 평기와를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를 삼국시대~679년, 679~828년, 828~806년, 806~965년의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전국에 걸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용인 성북리 유적 평기와의 제작연대를 4번째 단계로 분류하였다(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한국고고학보』54).

2. 신라계 평기와의 검토

1) 화성 당성

당성은 1998년과 2000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연차조사가 진행되어 성벽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축성시기를 달리하는 2종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성으로 알려진 성벽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석축성벽으로서 테피식이며 출토유물로 미루어 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성을 절단하여 동쪽 능선 사면을 따라 포곡식 성이 축조되었는데, 이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화성 당성 출토 기와류

양상으로 보아 9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는 이 성벽을 당성의 본성으로 알아 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성은 복합식 산성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포곡식 산성 내부의 유물 양상으로 보아 발굴자는 이 산성이 『唐項城』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¹²⁾.

기와가 걸리는 시점은 통일신라기 이후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로 보인다. 이른 시기 평와들은 통일신라기로 보이며 주로 테뫼식 성벽에서 출토되었는데 선문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격자문와도 다수 보인다. 시문 방식은 이른 시기 기와의 경우 한변이 5~7cm 내외인 單板을 이용해 시문하였다. 조밀한 포흔이 관찰되고 측면처리하는 대부분의 기와들이 와도를 그어 비교적 정연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측면이나 단부에 선문이나 격자문을 시문한 예도 보인다.

한편 건물지와 포곡식 성의 성벽 일부에서 보이는 와류는 羅末麗初期로 보인다. 선문과 어골문의 비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복합문이 보인다. 선문기와의 소수는 고식 기와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점이 보이기도 하나 대부분의 와류가 내면에서 굽은 포문과 사도흔¹³⁾이 보인다. 또한 세장방형의 장판 시문구를 사용했으며, 안에서 와도를 살짝 굽고 부러뜨린 거친 분할 수법 등을 보이고 있어 제작 기법상 테뫼식 성벽에서 출토된 이른 시기 와류와 차이를 보인다.

2)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은 한성백제의 도읍지로 추정되어 1986년부터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0여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당초에 3차례의 조사를 거치면서 이성산성은 신라성으로 추정되었으나¹⁴⁾ 이후 백제성 혹은 고구려성이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출토유물의 대부분이 신라 유물이고 건물지 유구나 축성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6세기 중엽에 축성되어 9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신라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산성 출토와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우선, 원형 와통과 판형 소지를 이용해 제작되었고 와도에 의한 분할흔은 內 → 外방향이 주류이다. 소수는 가래떡형 소지(점토피 소지)¹⁵⁾에 의한 제작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는 기와가 비교적 두꺼워져서 4cm가 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태토는 몽촌토성이나 석촌동 출토의 백제 기와처럼 굵지 않고 모래와 가는 잡석이 많이 섞인 상태이다. 문양은 격자문, 선문, 승석문, 당초문 등이 보이며 혼합문과 어골문이 소수 관찰되었다. 등면 전체를 단일한 문양으로

12) 한양대학교박물관, 1998, 『당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01, 『당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13) 김성구는 이를 점토피의 재단흔적이라 부르고 있고, 심광주는 사절흔이라 부른다.

14) 심광주, 1988, 『二聖山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가래떡 소지』와 『판형 소지』는 최맹식이 제안한 용어이다(최맹식, 2003, 앞의 글).



이성산성 출토 기와류

채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건물지를 중심으로 격자문의 비율이 높지만 6차와 7차에서 조사된 남문지 및 성벽에서는 선조문이 우세하게 출토되었다. 격자문은 다양한 크기와 굽기, 정격과 사격 등 20가지 이상으로 분류되며 선조문 역시 굽기와 방향이 다양하다¹⁶⁾.

성내 다른 출토 유물의 연대는 주로 6~8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와류의 주 연대는 통일기에서 나말려초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례의 축성과 관련하여 심광주는 7세기 중엽 漢山州의 邑治로서 기능이 강화되면서 瓦家를 구축하고 다량의 평와를 쓴 것으로 보았다¹⁷⁾.

3차와 6차 발굴조사에서는 A지구 1차 저수지 내부에서 연화문 와당이 각각 1점씩 수습되었다. 원형의 자방을 중앙에 놓고 8엽의 연엽이 배치되었으며 수기와와의 접합흔도 관찰되었다. 서울 경기지역 통일신라기 건물지에서 瓦當의 출토에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 자료의 축적을 통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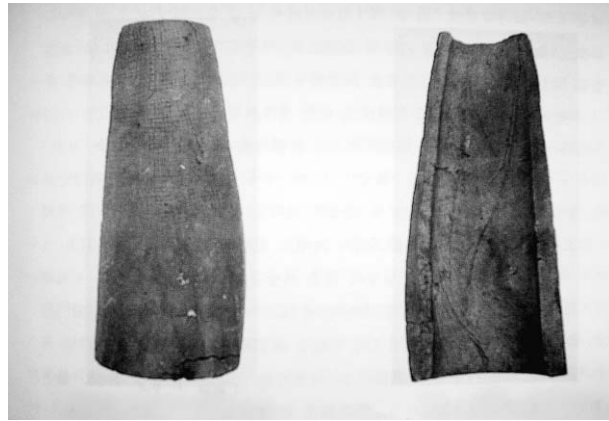
3) 양주 대모산성

대모산성은 일명 ‘양주산성’이라고도 한다. 대모산성이 신라의 대당 항쟁지인 매소성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1980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1995년과 1998년 한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다¹⁸⁾.

16) 한양대학교박물관, 1991, 『二聖山城 3차 발굴조사보고서』, 454~455쪽.

17) 심광주, 1988, 앞의 책.

18) 국립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박물관, 1990, 『楊州大母山城』, 192~214쪽.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 『양주 대모산성』.



대모산성 출토 수키와(와도 분할방향이 안팎으로 교차됨)

성벽은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나 북문지 좌우측과 동편 등지에 70~80m 정도의 성벽이 남아 있고 성벽의 높이는 4~5m이다. 성벽은 잘 다듬은 할석으로 경사지게 들어쌓기 하였으며, 성벽 하단부 바깥쪽에는 보축성벽을 쌓아 안정성을 높였다. 성문은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懸門式 구조이다.

기와류는 주로 1981~1984년도에 실시된 건물지 조사에서 수습되었다. 명문와가 17종, 평와류가 67종, 막새기와가 5종 출토되었다. 대모산성 출토의 명문와들은 기와등무늬에 명문을 함께 두드려 나타낸 예가 주종을 이룬다. 주로 「德部舍」, 「德部」, 「國」, 「富部」, 「官大」, 「浮雲寺」 등의 명문이 양각되었다. 「德部舍」銘 기와류는 북문지 기단 아래와 기단 내부에서 주로 보이고 제1건물지와 제3건물지, 제3건물지 동편의 저장공에서 출토되었다. 「德部」銘 와는 제3건물지 남편에 있는 주공에서 수습되는 등 건물지의 기단 내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평와류는 거의 토수기와이다. 문양은 선문이 주류를 이루며 무문, 어골문, 승석문, 격자문, 집선문, 방곽문과 기타 복합문이 사용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와의 제작수법은 거칠다. 와도의 분할흔은 주로 안에서 절단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안팎으로 교차하여 절단한 예도 보여 주목된다. 길이는 대개 30cm 이상, 41cm의 크기를 갖는다.

4) 남양주 퇴피산성

남양주 퇴피산성은 퇴피산 정상부와 남쪽의 봉우리를 연결하고 서쪽으로 산복을 감싸 안으며 구축한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성벽이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면석이 확인되는 곳은 북서쪽의 일부에 불과하다¹⁹⁾.

산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토기류는 대체로 장경호와 단경호, 각병과 주름무늬병 등이 있는데 특히 주름무늬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와류는 선조문이 약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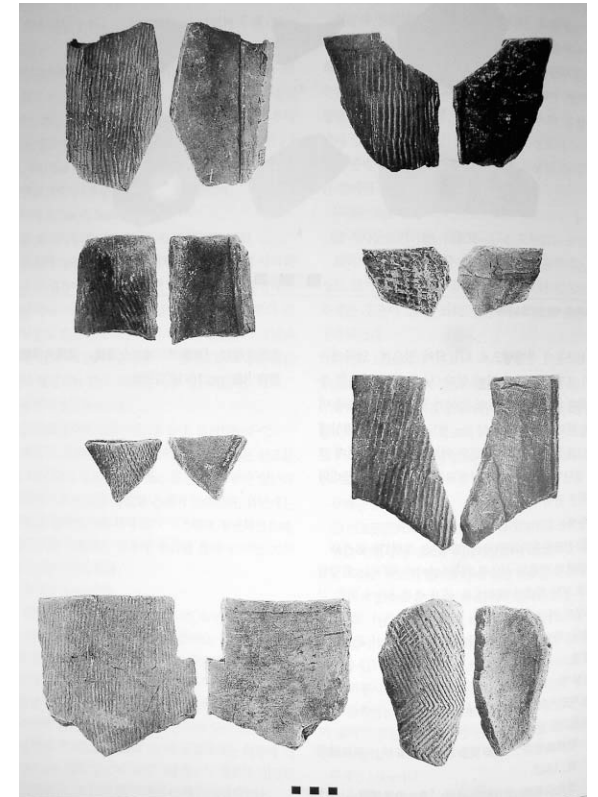
19) 심광주, 2003, 앞의 책, 189~191쪽.

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승문과 격자문도 발견된다. 이러한 유물 출토상황은 아차산성이나 호암산성 등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산성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다고 볼 때 통일신라 후기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5) 파주 칠중성²⁰⁾

칠중성은 중성산에서 북쪽으로 8부 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을 따라 내려오다가 동쪽 부분의 작은 계곡을 안고 있는 포곡형 석축산성이다. 삼국사기에서 ‘七重城’ 또는 ‘七重河’란 명칭으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성은 7세기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격전지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칠중현(또는 중성현)의 행정 치소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하기 이전에도 이 성의 군용 참호에서는 다량의 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기와를 보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기와까지 보이는데, 전부 평기와로서 「七」자가 양각된 명문기와 1점이 성벽의 보축성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또한 승문에 통쪽와통으로 제작된 기와편이 수습되어 고구려에서도 이 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평기와 문양은 종선문, 사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등이 보인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그어서 분할하였으며 1/2 이상 깊이 그은 것과 그 이하로 얇게 그은 비율이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수키와는 아미성이나 이성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당초문기와가 특징적이다²¹⁾.



퇴피산성 수습 기와류

2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보고서』, 28쪽~34쪽.

21) 심광주, 2003, 앞의 책, 193~195쪽.

6) 연천 호로그루²²⁾



호로그루 출토 고구려 수키와

호로그루는 연천군 장남면 원당3리 일대 임진강에 접한 현무암 천연 절벽위에 있는 삼각형의 강안평지성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관방유적 중 당포성, 은대리성을 포함한 3개의 평지성 중의 하나로 지정학적인 위치나 출토유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고구려성의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남한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고구려 기와가 수습되는 유적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와는 크게 繩紋, 鋸齒紋, 格子紋, 斜格子紋, 橫線紋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특징은 모래가 거의 섞이지 않은 泥質胎土에 산화소성을 하여 적갈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에는 예외없이 1.9~2.4cm 크기의 模骨이 찍혀있고, 분할면을 말끔하게 정면하였다. 또한 암키와의 경우 상단 양쪽의 귀를 접었고, 수키와는 제작과정에서 찍힌 타날문을 지워버린 것이 특징이다. 와당은 단 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당포성, 무등리1·2보루, 두루봉보루, 아미성 등 임진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기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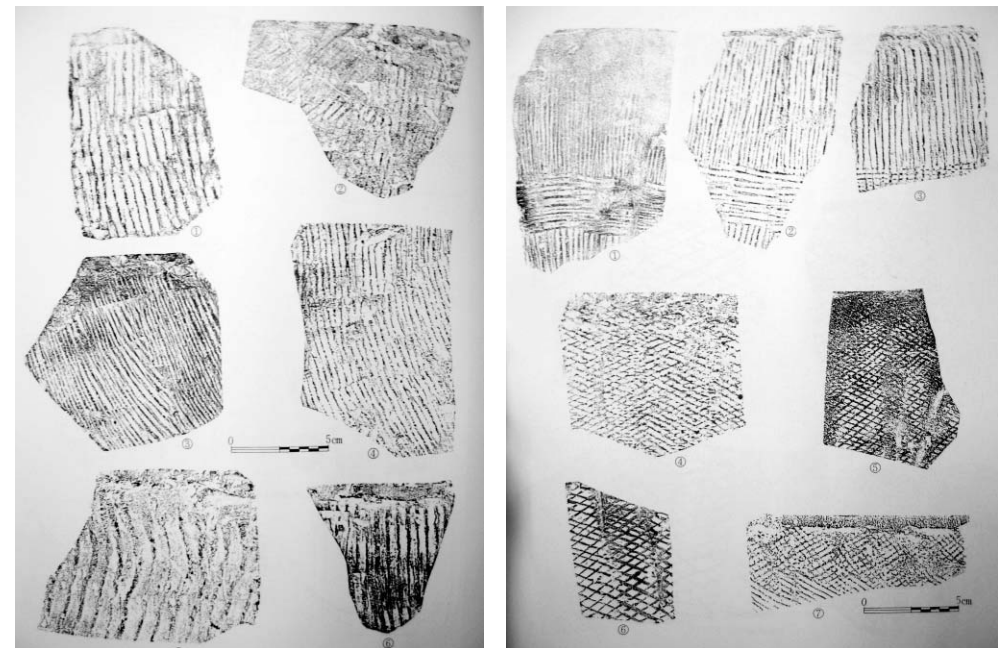
이에 비해 통일신라기의 기와는 선조문이나 격자문, 승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적갈색과 회갈색와가 혼재되어 있다. 태토는 고구려와와 비슷하지만 모래알갱이가 보강재로 혼입된 것이 많다. 내면에는 점토판 분할 흔적인 絲刀痕이 남아있고, 기와의 분할면은 역시 말끔하게 정면하였다.

고려시대 이후의 기와들은 복합어골문과 무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는 동시기의 기와와 별 차이가 없다.

7) 관악산 호암산성²⁴⁾

호암산성은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속하나 안양과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1990년 정비를 위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우물지 2개소, 건물지 4개소가 확인되었다. 제1우물지의 조선시대 문화층 아래로 교란되지 않은 통일신라시대 석축지가 확인되었으며 제2우물지에서 확인된 「仍伐內力只乃未」명문이 새겨진 청동순가락을 수습하였다. 이 명문을 근거로 하여 산성 축조 하한을 경덕왕 16년(757)으로 보았으며 7~8세기를 중심연대로 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산성으로 확인되었다²⁵⁾.

출토된 통일기 기와는 모두 평기와로 토수기와와이다. 무문와가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고 있으며 선조문이 어골문, 격자문과 함께 그 뒤를 잇고 소수 복합문도 보인다. 「仍大內」명을 비롯한 문자와가 927점에 이르는데, 특히 仍大內는 고구려 및 통일신라 초기의 지명인 「仍伐奴」 또는 「仍大內」와 통하는 것으로 통일신라기 문화층의 하한이 8세기 중엽경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일부 어골문은 이성산성의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고 한우물의 통일신라시대 층위에서도 확인되어 통일기부터 사용된 문양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호암산성 기와류 각종

2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연천 호로그루 정밀 지표조사보고서』.

2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연천 호로그루 1차발굴조사 약보고서』.

24) 호암산성은 7~8세기 통일신라기 산성으로서 단기간 사용되다 폐기된 산성이지만 당시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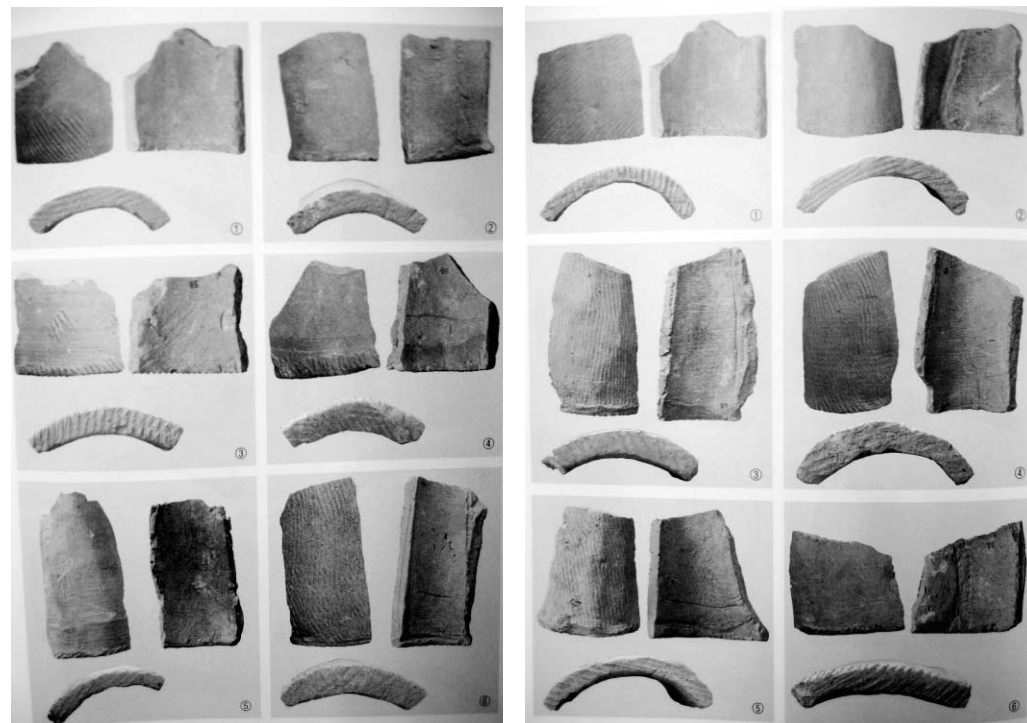
25)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한우물 - 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호암산성의 통일신라기 평기와는 명문과 결합해 해석함으로서 경기지역에서 출토되는 동시기 평기와들의 편년설정에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8) 포천 반월산성

반월산성은 지표조사와 1차부터 6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수막새와 암막새, 명문기와, 수기와, 암기와, 그리고 특수기와 등 다양한 기와가 출토되었다. 특히 1995년 발굴조사시 확인된 「馬忽受解空口單」명 기와는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되다가 고려시대에 폐성되고, 이후 조선시대 광해군 10년 후금의 침입을 방어하고자 개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심 사용 연대는 대략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기와는 모두 원통와통에서 제작되었으며 판형 소지로 제작되었다. 암수키와 모두 타날 문양을 기준으로 하여 무문, 선문, 격자문, 복합문, 어골문, 화문, 차륜문 등으로 분류되는데, 수량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암수키와의 하단부에 등무늬가 타날되어 있어 막새와가 갖는 장식적 효과를 내는 듯이 보여 주목된다.



반월산성 출토 기와류 각종

9) 여주 파사산성

파사산성의 건물지와 성벽의 석렬 구조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대다수의 와류는 토수 기와류인 평와의 파편이며, 막새기와는 암막새 파편 1점이 지표에서 수습되었을 뿐이다. 조선시대 이후로 편년되는 흑회색의 미구 달린 경질 기와류만이 완형을 갖추고 있을 뿐 편년이 올라가는 대개의 기와들이 회갈색이나 황갈색조로서 흡수성이 높은 연질와류에 속한다. 대부분의 기와가 연질이어서 완형보다는 파편으로 수습되었다.

기와류를 암수키와로 분류했을 때 체적이 적은 수키와의 경우는 完形瓦가 다량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체적이 큰 암키와의 경우는 대다수가 파편인 까닭에 암수키와의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마치 수키와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듯이 보인다. 본고에서 이들 다량의 기와를 전부 고찰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암수키와의 분류가 가능하고 殘存瓦의 평균 크기가 1/3이상인 와류만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해 본 파사성 와류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문양의 경우 어골문과 유사해 보이지만 침엽수잎을 표현한 듯이 보이는—이하 편의상 솔잎문이라 부르기로 한다—종류가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 수키와에서는 솔잎문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수를 점하는 문양은 집선문, 변형 선문이다. 그 외로 어골문, 사격자문, 창해파문 등의 순으로 보이고 있다.

둘째, 제작 과정상 나타나는 등문양을 나중에 물손질로 일부러 지운 와류가 다수 보인다는 점이다. 일부는 문양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나 거의 무문에 가깝게 지워버린 경우도 관찰된다.

셋째, 分割時에 나타나는 瓦刀 방향은 신라말 또는 통일신라기까지 올라가는 와류와 조선시대 기와, 그리고 암키와와 수키와에 따라 방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와류의 분할 방향은 外→內 방향이 소수 관찰되고 内外 방향이 섞인 경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수키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제작기법은 통일신라기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⁶⁾. 암키와의 경우 古式이라 하더라도 분할 방향이 內→外 방향으로만 관찰되었다. 암키와는 제작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안쪽에서 와도를 그어 분리하였고 따라서 와도흔으로 시대적인 특징을 잡을 수는 없다²⁷⁾. 그러나 고려나 조선시대로 보이는 와류는 분할 방향이 암수키와를 막론하고 內→外 방향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솔잎문 다음으로 많은 수가 보

26) 최맹식, 1999, 『백제 평기와 신연구』, 60쪽.

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부여 구아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서』, 49쪽.

27) 최맹식에 의하면 암키와의 경우 밖에서 와도를 그은 예가 미륵사에서 한 예, 부여 용정리에서 한 예 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변형 선문의 경우 와도를 여러 번 그어 분할 면을 다듬어서 분할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²⁸⁾. 특히 이 주목되는 2종의 혼합된 와도 분할흔의 점유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원통와통을 쓴 듯 모골흔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布文의 경우 대다수의 와에서 확인이 되는데, 빗질흔과 마찰흔이 함께 관찰되는 것이 다수라는 점이다. 布痕이 보이지 않는 와의 경우 통에서 떼어 낼 때 나타나는 擦, ㄷ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면이 박락되기도 하였다. 포목문이 없는 경우는 주로 암기와외의 경우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섯째, 대다수가 토수기와외고 언강이 붙어 있는 미구기와는 흑회색의 경질에 滄海波文이나 복합문이 남아 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기와에서만 관찰되었다.

여섯째, 규격에 있어서는 보통 암기와와 더 두껍고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암기와의 평면적이 수기와보다 넓고 편평하여 견고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수기와의 경우 길이 29~38cm, 협폭 11.5~14cm, 광폭 16.5~20cm 정도이고 암기와의 경우는 길이 35~40cm, 광폭 26~30cm, 협폭 24~26cm에 달해 중·대형에 속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²⁹⁾.

10) 안성 망이산성

망이산성은 시기를 달리하여 축성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성인 내성은 출토유물로 보아 백제가 쌓은 것으로 보이며 석성은 통일신라시기에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능선과 봉우리의 지세를 이용하여 쌓은 석성은 회곽도와 4개의 문지가 있는데 그 중 남문지와 서문지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구조가 확인되었고 건물지는 8곳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문지 조사에서는 통로부에 형성된 2층의 와적층에서 다량의 기와류가 수습되었다. 제1와적층에서는 주로 고려시대 평기와가 수습되었다. 크게 명문 평기와와 무문을 포함하는 문양평기와로 나뉘는데, 그 중 「峻豐 四年」명(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고려 초기에 제작된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명문 평기와는 7종류가 수습되었는데 「□□ /峻豐四年壬戌大介(?)山/竹州」명 기와 및 「興國」(고려 성종 980년대) 명 기와를 비롯하여 「□德進 /宮」, 「□德九蒲凡草□□」, 「日月」, 「京」명 등과 8엽 연화문 자방내에 「天」명을 새긴 명문와가 수습되었다. 문양 평기와는 격자문이 다수인 가운데 귀면문과 다양한 복합문 등 독특한 문양의 기와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28) 백종오는 임진강유역 출토 평기와의 분할방법이 1~6회에 걸쳐 완전 분할 후 깎기 조정하는 기법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고구려적인 제작방법으로 보는 한편, 배면과 내면의 각도에 따라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신라적 제작방법의 예도 제시하고 있다(백종오, 2001, 앞의 책).

29) 장기인, 1993, 『한국건축대계』4,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403쪽.

제2와적층에서는 통일신라기 기와들이 수습되었는데 암기와와 수기와 모두 사격자문 계통의 기와가 다수를 차지한다. 주목되는 점은 수기와의 경우 사격자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어골문와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시대 기와의 기본적 문양인 어골문이 통일신라기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하겠다³⁰⁾. 암기와가 수기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와도흔은 전면분할이 암수기와에서 모두 50% 이상으로 관찰되었다. 기와의 두께는 암기와가 상대적으로 두껍게 제작되어 있다.

11) 김포 수안산성³¹⁾

수안산성은 김포군 대곶면 울생리의 수안산 정상부에 축조된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685m이며 성내부는 약 3천평 정도이다. 1995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하였고, 2003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과 성내의 건물지에 대한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 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편과 와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기와류는 격자문, 어골문, 선문, 복합문 순으로 수습되는데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성은 진흥왕대 한강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축성한 성으로 판단하였으며 통일기 서해안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으로 추정하였다.

이 성은 8~9세기 이후의 유물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10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았는데,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로는 특이하게 암수막새기와가 수습되어 주목된다. 암막새는 곡선은 유려하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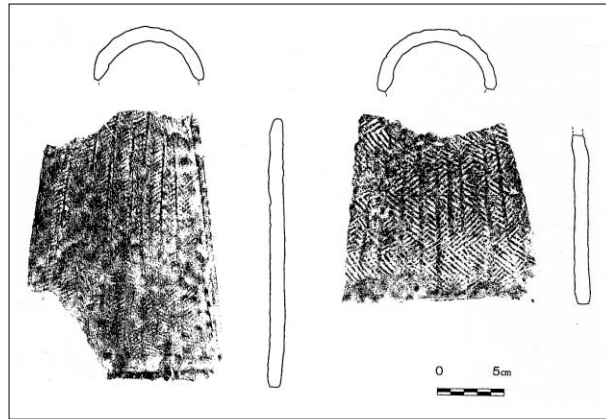
수안산성 출토 암막새



수안산성 출토 수막새

30)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223~236쪽.

31) 한양대학교박물관, 2003, 『김포 문수산성·수안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수안산성 추정건물지 출토 수키와

적 단순한 도안의 당초문으로 드림새 장식이 되어 있고 수막새는 연화문 장식이 되어 있다. 이들 막새기와는 나말려초기의 거치문이나 변형선문 기와 등과 결합되어 있다.

12) 남한행궁지

남한행궁지는 2005년까지 7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6차

조사시 행궁 마당과 문지 확장 트렌치에서 통일신라기 기와가 150여점 출토되었다. 암키와 중 길이 61cm, 폭 45cm, 두께 4.2cm에 이르는 대형에 속하는 것도 있다. 등면에 「村主」, 「城」, 「辰」 등이 타날된 명문와도 수습되었다. 발굴자는 이 촌주명과 기와의 제작 수법,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의 보정값이 A.D.780, A.D.790 등인 점을 참고 하여 통일신라시대 유구층으로 주장하고 있다³²⁾. 2005년에 진행된 조사는 행궁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의 서편 중앙부의 조선시대 문화층 아래로 기와층이 확인되었다. 단면 U자형으로 와적층이 확인되었고 그 아래로 여러 개의 기와포함층이 확인되었다³³⁾.

제7차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초대형 건물터와 함께 최소 5개 층에 이르는 같은 시대 기와 퇴적층이 발굴되었다. 이 건물터는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진 구간만 해도 정면 11칸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비교적 정연한 상태로 배치된 적심과 기단 석렬 등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통일신라시대 건물터로 이만한 규모는 경주 지역을 제외하곤 드문 상황이다³⁴⁾.



태선문이 타날된 암키와 단부



남한행궁지 출토 기와류



양쪽이 매끈하게 처리된 수키와 단면

3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4, 『南漢行宮址 제6차 발굴조사보고서』, 165~169쪽.

3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5, 『南漢行宮址 7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이런 규모로 미루어 조사팀은 이곳을 삼국사기에 나타난 바 신라 문무왕 때 남한산성에 쌓았다는 晝長城이라는 성곽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은 화재를 만나 붕괴된 듯, 붕괴될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지붕 기와들이 부분적으로 기와골을 유지하며 퇴적돼 확인되었다.

6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명문 기와에서는 아직 정확한 판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村主」명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天主」명 기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 초대형 건물지가 제사 관련 역할까지 부여되었던 건물로 기능하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³⁵⁾.

지금까지 확인되는 남한행궁지 통일신라기 기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키와는 길이 47cm, 너비 44cm, 두께 2~3cm에 이르는 크기가 많으며 특이하게 4.2~5.2cm에 이르는 두꺼운 암키와도 소수 보인다. 특히 이들 두꺼운 암키와는 상단 혹은 하단부에 등무늬와 같은 무늬를 타날하여 장식한 경우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³⁶⁾. 전체적으로 포목흔과 다듬은 흔적이 관찰되며 일부 와는 가래떡 소지로 제작하여 일정하게 소지 연결흔이 관찰되기도 한다. 또한 판형과 제작중에 소지를 덧붙인 흔적과 소수에서는 불탄 흔적도 관찰되었다. 분할시의 와도흔적은 안쪽에서 1/2, 1/3 정도 굵고 분할한 경우가 50% 이상이며 전체를 그어 와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관찰된 한편 밖에서 와도를 그어 분할한 경우도 소수 확인되었다.

13) 파주 오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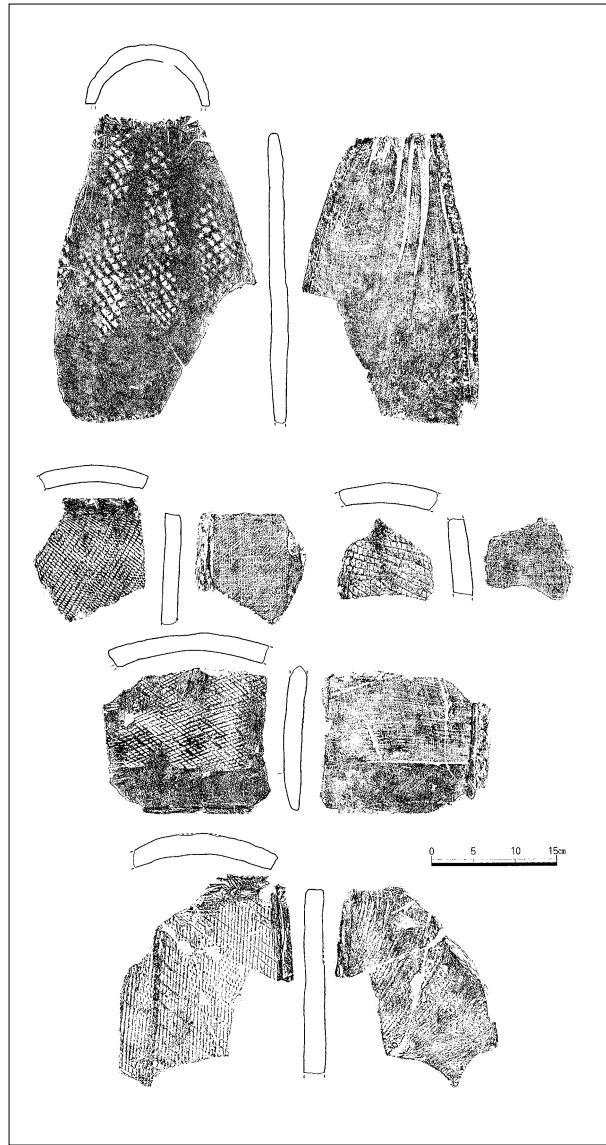
오두산성은 통일전망대가 세워져 있는 오두산 정상부에 축조된 퇴피식의 석축산성이다. 이곳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는 지점으로서 정상부에서 보면 한강하구는 물론 김포일대와 북한의 개풍군 일대까지 조망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1년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연구소에서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동벽과 북문지 추정지역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졌다.

성벽의 둘레는 1,200m 정도로 대부분의 성벽이 무너져내려 토사에 덮여 있으며 일부만이 노출되어 있다. 당초 오두산성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백제 관미성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근거는 찾지 못하고 성벽의 구조나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하여 신라계성으

34) 신라시대 北宮 자리로 거론되는 삼랑전지에서는 73m에 이르는 통일신라시대 건물터가 확인된 바 있다. 산성 건물터로는 경주 남산신성 일대에서 대규모급이 세 곳 정도 보고된 바 있다. 東倉址는 측면 5칸(15.6m), 전면 17칸(47.2m)이며, 그 맞은편 西倉址는 측면 5칸(15m)에 전면 16칸(43.8m)이지만 동창지에 비취 볼 때 전면이 17칸이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두 창고터 중간에 위치한 中倉址는 비록 일제강점기때 측량 자료이긴 하나, 건물 조석 기준으로 측면 20m, 전면 94m로 나타나 있다.

35) 사마천의 史記 중 제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封禪書에 의하면, 산동지방 일대를 점거한 전국시대 齊나라에서는 八神을 제사지냈으며 그 팔신 중 하나로 地主와 함께 天主가 거론된다.

36) 이와 관련하여 암막새의 초기형태라고 보는 입장이 일부 있다.



교산동 건물지 출토 기와류

하여 논란이 많던 유적으로 1999년도부터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결과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교산동건물지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관영건물지로 기능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통일신라기와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동쪽건물지와 서쪽건물지 최하층에서 확인되었다.

37) 김성대·허미형, 2006,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畿甸考古』5, 기전문화재연구원.

38) 심광주, 앞의 논문 218쪽.

로 밝혀졌다.

출토 유물중 기와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특히 「泉」, 「泉井」, 「元泉」명이 새겨진 기와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이들 명문은 선조문 기와 등에 좌서로 양각되었으며 꺾을 따로 만들지 않은 특징들은 신라계 기와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경덕왕대에 오두산성이 교하군으로 개명되기 이전에는 고구려 지명인 천정구현 혹은 천정구성 등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³⁷⁾. 또한, 신라가 676년 대당전투의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된 매초성전투 직전 당의 보급로 차단을 위한 전투를 벌여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이 명문와들이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오두산성일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자료로 보는 시각도 있다³⁸⁾.

14) 하남 교산동건물지

당초 교산동건물지 유적은 한성백제의 왕궁터일 가능성 여부와 관련

「哀宣伯土」명문와를 기준으로 건물의 건립 시기를 哀宣이 생존했던 이전 시기로 본 것이다. 이 유적에서 통일신라 말기로 본 기와는 태선문와류이다³⁹⁾. 서울·경기지역의 통일신라계 평기와의 마지막 단계를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3. 고찰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유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평기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지역의 평기와류는 동시기 경주 인근의 평기와의 제작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주 인근 ‘傳天官寺址’⁴⁰⁾ 출토 암기와의 경우 모골흔이 없는 원통와통 제작 기와가 대세인 가운데 통쪽와통을 이용해 제작한 기와가 소수 눈에 띈다⁴¹⁾. 그러나 경기지역의 통일신라계 평기와의 경우 원통와통으로 제작한 예만이 관찰될 뿐 통쪽와통으로 제작한 예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일매작법보다는 주로 와통을 사용하여 성형하였으며 통쪽와통⁴²⁾보다는 원통형 와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의 평기와에서는 대체적으로 통쪽와통의 제작기법이 관찰되지만 신라기와의 경우는 경주 부근의 ‘傳天官寺址’ 발굴조사 등 소수의 예에서만 확인되고 있고 여타의 6세기 이후 점유지역에서 신라 평와의 예로서 통쪽와통 제작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⁴³⁾. 최맹식은 이 점을 자료의 부족 혹은 신라가 통쪽와통을 선호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였거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도입된 기와제작법이 발달되고 편리한 방법 위주로 도입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⁴⁾. 이런 고신라적 전통이 통일신라로 넘어 오면서 원통와통의 전통이 주가 되면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키와의 경우 거의가 토수기와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산성과 건물지 어느 유적에서도 통일신라기 수키와 중 미구기와는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다. 이는 다양한 미구형태를 보여주는 백제나

3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187쪽.

40) 천관사는 2000년~2001년에 걸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존속 시기는 삼국시대 말기~고려전기까지로 보았다.

4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46~248쪽.

42) 통쪽와통이란 표현은 模骨瓦桶을 우리말로 고쳐 부른 것으로 최맹식의 견해에 따랐다(최맹식, 2003, 앞의 책).

43) 1999년 토지박물관에서 조사한 바 있는 연천 호로그루에서 통쪽와통을 이용해 제작한 격자문, 횡선문, 거치문 등의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확인된 바 있고, 2000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아차산성 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유구인 D지구에서만 8점의 통쪽와통 제작과가 확인된 바 있어 통일신라시대 평기와의 100% 원통형 와통을 사용해 제작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44) 최맹식, 2003, 앞의 책, 52~53쪽.

고구려수키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며, 또한 같은 시기 경주인근 출토의 평기와에서 미구기와의 비율이 높은 점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후 시기인 고려나 조선시대 수키와의 경우도 짧은 길던 미구 기와가 대다수인데 반해 신라계통의 기와는 거의 토수기와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암키와가 수키와보다 두꺼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암키와의 체적이 수키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까닭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통일신라기 뿐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 기와제작법에서 나타나는 공통되는 특징으로 보이지만, 특히 통일신라기 암·수키와의 두께 차이는 두드러진다. 남한행궁지 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확인된 기와류에서도 뚜렷한 두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일부 암키와의 두께는 5cm를 넘기는 예도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파손 방지 조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서 이전 시기의 태토에 비해 거칠다.

넷째, 素地는 주로 가래떡형 소지(또는 점토띠형 소지)보다는 널판지형 소지를 사용하였다. 가래떡형 소지는 삼국에서 모두 사용례가 관찰되었다. 고구려 평와에서도 널빤지형과 가래떡형 소지의 사용례가 확인되었고 백제의 경우는 널판지형 소지와 함께 공존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주인근의 고신라 유적에서도 판형 소지가 대세인 가운데 황룡사지와 천관사지 등의 출토기와에서 가래떡형 소지가 소수 보고되었으며, 이성산성의 통일신라 평와에서도 소수 확인된 바 있다⁴⁵⁾. 그러나 통일신라기에는 가래떡형 소지의 사용 빈도는 그리 많지 않고 널판지형 소지의 사용이 대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통보⁴⁶⁾는 주로 마포를 사용하였다.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일부에서 갈대통보와 승문통보의 예가 관찰되고는 있으나 신라유적에서는 지금까지 마포문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통일신라 이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여섯째, 문양은 정격자, 사격자 등이 응용된 다양한 격자문, 선문, 거치문, 승석문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고식기와의 등무늬의 다양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통일신라시대가 가장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어골문이, 조선시대에는 창해파문과 화문이 대표적인 문양으로서 여러 가지로 응용되어 나타나지만, 통일기 등문양은 기본적인 문양만 해도 다섯손가락 이상을 꼽을 수 있으며, 여기에 통일 말기에 이르면 초기적인 어골문 형태가 등장한다⁴⁸⁾. 이는 이성산성, 망이산성, 호암산성 등

45) 許美 著 1989, 『統一新羅期 平瓦에 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통보'라는 용어 역시 최맹식의 견해이다. 통은 瓦桶이란 의미이고 보는 뒤집어 씌운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포흔 혹은 포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갈대통보나 승문통보 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이다.

47) 최맹식, 2003, 앞의 책, 78~86쪽.

48) 최맹식은 통일신라 이후 기존의 문양을 혼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흥덕사지 출토『大中三年銘』기와를 근거로 하여 9세기중에 어골문이 등장했으며 이후, 통일신라 말경에는 100여종의 다양한 문양이 등장했다고 했다(최맹식, 2002, 『統一新羅 평기와 연구』, 한국기와학회 홈페이지, 4~5쪽).

여러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단위의 문양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와에 여러 문양을 혼용하기보다는 한가지 문양을 전체 기와면에 시문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며 2가지 이상의 다양한 문양을 섞어서 타날한 경우는 나말려초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적 어골문은 전형적인 어골문으로 정착하기까지의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성산성과 파사성에서 거치문이라 부른 문양이 다른 보고서에서는 어골문으로 분류되어 있고, 파사성의 어골문과 유사한 솔잎문 역시 초기적인 어골문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일곱째, 와도의 처리가 비교적 단정하다. 전면을 그어 분할한 예도 많이 보이고 있으며 2/3이상 그어 분할한 경우도 많다. 고려시대 이후 시기처럼 1/3만 그어 거칠게 부러뜨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와도의 분할 방향은 편년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성산성, 파사산성, 대모산성, 남한행궁지 유적의 예에서처럼 안팎이 교차된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이후 시기의 평와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이전 시기 평와의 편년 기준, 혹은 제작 국가의 표식은 되지 못하더라도 통일신라기와와 그 이후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⁴⁹⁾.

여덟째, 막새와의 예가 희박하다. 몇 개의 유적에서 한 두 점의 와당이 보고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막새기와의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雜志 屋舍條에 6두품과 심지어 진골까지도 당와(막새기와)를 지붕에 얹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다⁵⁰⁾. 그렇다면 당시 한강유역에 진골귀족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 해도 막새기와로 치장한 건물을 세울 수 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기록으로서 통일신라기 서울경기지역 건물지에서 막새와의 출토 예가 희박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동시기 통일제국의 수도 경주지역의 화려하고 세련된 막새기와를 비교한다면 이는 변방에 위치한 관방시설의 실용적인 사용례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수안산성의 경우 통일기 막새기와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산성의 활용 목적, 통일신라 말기의 정치적 난맥 등과 관련하여 향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하나 특이한 점은 남한행궁지 유적, 반월산성, 수안산성 등에서 기와의 하단 혹은 측면까지 문양을 타날한 예가 보이는 점이다. 특히 하단 혹은 와도로 절단한 측면에도 등무늬와 동일한 타날을 하여 마무리 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는 기와 성형과정에서 추가로 타날하여 경도를 높이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암수키와의 내림면에 새겨진 문양의 경우 암막새의 초기적

49) 최맹식에 의하면 수키와의 분할시, 9세기에 오면 그어 분리하는 경우가 나타나다, 고려시대에는 양면 모두 내측에서 그어 분리하였다고 한다(앞의 글, 8쪽).

50)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鎤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牆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 繡·野草羅 屏風禁繡 床不飾玳瑁·f香'

인 형태로 보기도 한다⁵¹⁾. 그러나 이는 삼국시대 막새기와의 초기적인 형태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4. 맺음말

이 글은 두가지 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하나는 경기지역의 통일신라기 기와를 반출하는 모든 유적을 살펴보지 못하고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미발굴 유적 뿐 아니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조차도 필자의 부족함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하였다. 주로 한강유역의 유적을 위주로 하였으며 일부는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고 보고서만을 참조한 경우도 많다.

또 하나는 고신라계와 통일신라계 기와의 구분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필자는 통일신라기 기와를 고찰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와의 내구 연한, 제작기법의 전통성 등의 요인으로 100여년의 시차밖에 나지 않는 두 시기의 평기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고신라의 평기와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기와 자체가 갖는 고신라적 특징을 잡아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정황과 동반유물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한 직후 바로 기와를 얹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서울경기지역의 신라계통 유적에서 반출되는 평기와류에서 한성백제계 와류를 제외한 고려시기 이전의 와류는 통일신라시기의 평기와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⁵²⁾.

두서없이 정리해 본 통일신라시대 평기와 제작의 몇가지 특징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큰 변화 없이 전통와의 제작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기타 주변국들의 다양한 기와제작법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 발달되고 간편한 제작방법 위주로 정리되고,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기능에 따라 조금씩의 변화는 보이나 한국 고식기와의 전통적인 제작법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51) 김동현, 1978, 『한국의 기와』-건축과 문양-, 한국건축사, 350~352쪽.

52) 이는 서울경기지역에 고신라계 기와 건물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선 고신라계와 통일신라계의 구분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후라도 두 기와에 대한 명백한 구분 기준이 확인될 수 있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기고

·新羅·伽倻의 활[弓] / 김일규

新羅 · 伽倻의 활[弓]

김 일 규 *

- 1. 머리말
- 2. 활[弓]
 - 1) 활의 종류
 - 2) 활의 구조
- 3. 신라 · 가야의 활
 - 1) 영남지방 고분출토 弓金具
 - 2) 弓金具의 형태 및 구조
 - 3) 弓金具에 대한 선행연구
 - 4) 弓金具의 기능
- 4. 맺음말

1. 머리말

활은 기늘고 기다란 나무 막대기의 양쪽에 시위를 매겨 그 반발력을 이용한 탄력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무기이다. 弓矢라는 단어가 있듯이 활은 화살과 세트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살촉은 출토예가 많아 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활은 木材 내지는 角材 등의 유기질로 제작되어 유존상태가 양호치 않아 실물자료의 출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고구려의 고분벽화 등에 묘사된 벽화자료 및 고분에서 출토된 활의 부속금구인 弓金具의 예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활은 출토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고고학적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고분에서 활의 실물자료의 출토예가 다수 있다. 이들 자료 중에는 활 고자 부분에 兩頭 玃狀의 철제금구가 장착된 채 출토된 경우가 있다¹⁾. 이 활의 부속금구를 弓金具라고 하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 田中新史, 1979, 『古墳出土の飾り弓』- 3輪りの弓の出現と展開-, 『伊知波良』1, 伊知波良刊行會, 福島縣いわき市, 1988, 『小申田横穴墓群』, いわき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 第20冊, 比座陽一郎, 1996, 『三 〃永古浦1號墳出土の弓金具』, 『三 〃永古浦遺跡』,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476集, _____, 2002, 『弓金具の再検討』, 『考古學ジャーナル』496.

는데 우리나라 영남지방의 삼국시대고분에서도 이와 거의 흡사한 금구의 출토예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金具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소고에서는 먼저 활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다. 그리고 영남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된 兩頭 𦏧狀의 철제금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라·가야의 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2. 활[弓]

1) 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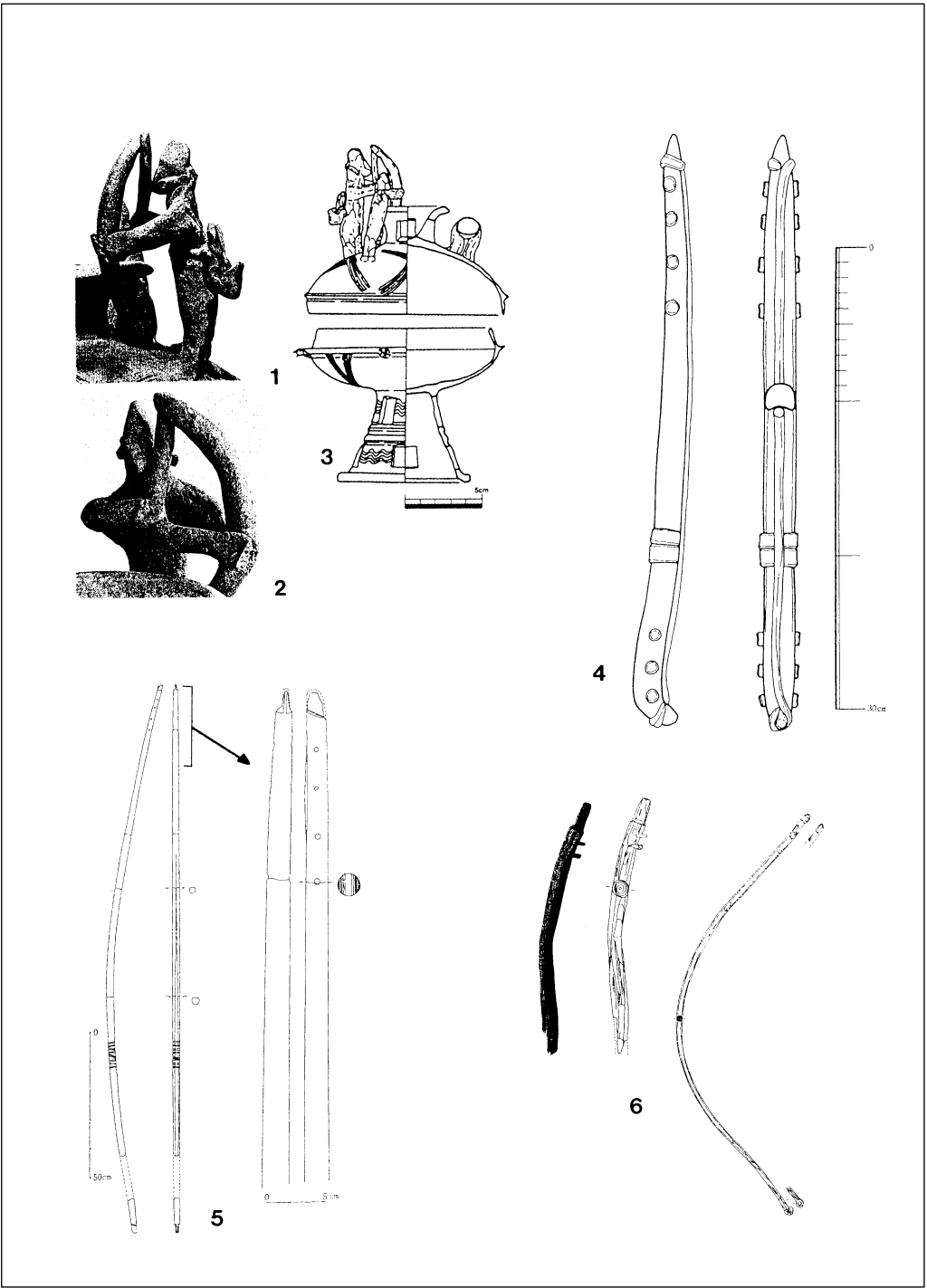
활(弓)²⁾은 외견상 直弓과 彎弓으로 대별되는데 弓體의 제작방법에 따라서 單純弓, 強化弓, 合成弓의 세 종류로 세분하기도 한다. 直弓에는 단순궁과 강화궁이 있으며, 彎弓은 대부분이 合成弓이다.

(1) 直弓(도면 1과 도면 5 참조)

直弓은 시위를 풀었을 때 궁체[韃]가 거의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며 고자[𦏧]에 시위를 매겼을 때에는 D자 형태이다. 그리고 나무로 제작되어 木弓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彎弓 보다 길이가 길어 長弓이라고도 하는데 2m 정도에 이르는 것도 있다.

直弓은 대체로 구조가 간단한데 한 개체의 나무만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木弓의 재료는 일본의 예를 들면 𦏧世時代에는 비자나무, 개비자나무 등 침엽수를, 古墳時代에는 느티나무, 참빗살나무 등 활엽수가 이용되었다³⁾. 木弓의 길이는 출토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도면 1-6은 광주 신창동 저습지에서 출토된 원삼국시대의 木弓으로 길이가 116cm이다⁴⁾. 中國 廣州漢墓의 東漢前期墓 4013에서 출토된 直弓은 漆이 되어있으며 길이는 89.2cm이다⁵⁾. 日本 고분시대의 木縣 下都賀郡 大平町 七廻り鏡塚古墳의 목관에서 목제의 直弓이 2점 출토되었다⁶⁾. 이 2점의 直弓은 크기가 각각 182cm, 185.3cm이다(도면 1-5참조). 그리고 메스리山古墳에서 출토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鐵製弓은 크기가 182cm이다⁷⁾. 大阪府 土保山古墳에서 출토된 목제궁 역시 直弓이며 길이는 188.2cm이다⁸⁾. 이처럼 直弓은

2) 『周禮』에는 王弓, 弧弓, 夾弓, 庚弓, 唐弓, 大弓의 六弓이 있는데 현재 그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比座陽一郎, 2002, 앞의 글.
4) 국립광주박물관, 1997, 『光州 新昌洞低濕地遺蹟Ⅰ』, 86~88쪽.
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外, 1981, 『廣州漢墓』, 文物出版社出版, 354~355쪽.
6) 大和久震平 編, 1964, 『七廻り鏡塚古墳群』, 帝國地方行政學會.
7) * 原考古學研究所 編, 1977, 『メスリ山古墳群』, 奈良縣教育委員會.
8)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1996, 『仁徳陵古墳 -築造の時代』,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8, 東洋紙業株式會社.



도면 1) 토우장식고배와 埴輪弓 및 木弓
1~3. 국립박물관소장 토우장식의 활. 4. 日本 群馬縣 邑落郡 大川村 출토 埴輪弓. 5. 日本 木縣 七廻り鏡塚古墳 출토 木弓. 6. 광주 신창동 출토 木弓.

크기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長弓의 형태로 발전한다.

直弓이 彎弓에 비해서 주로 長弓인 까닭은 활의 생명인 반발력 즉 탄력의 증대를 위한 것일 것이다. 즉 直弓은 合成弓과 달리 거의가 나무로만 제작되어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2) 彎弓

彎弓은 시위를 매겼을 때 만곡도가 심하여 거의 B자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合成弓이 대표적이다.

合成弓은 木材와 角材(물소뿔, 양뿔), 骨材(주로 소의 肋骨), 筋(소의 힘줄) 등의 여러 가지 재료를 아교로 접합한 후 방습을 위해 칠을 하여 제작 한다⁹⁾. 合成弓은 角材를 이용하므로 角弓으로도 불리는데 『後漢書』의 高句麗의 貊弓이 대표적¹⁰⁾이며 濊의 檀弓도 합성궁으로 추정된다.

활의 크기를 살펴보면 『後漢書』 婁條에는 四尺, 『晉書』의 肅慎氏條에는 檀弓의 길이가 三尺五寸, 『三國志』魏書 勿吉國條에는 三尺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문헌이 모두 漢代 이후에 편찬되어 漢尺¹¹⁾을 따르면 문헌에 기재된 彎弓인 合成弓의 크기는 대체로 70~100cm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고구려 벽화고분의 인물의 사실적 표현에 기초하여 벽화에 묘사된 활을 인물의 크기와 대비시켜 그 길이를 도출한 연구가 있다¹²⁾. 이 연구에 따르면 벽화에 묘사된 활은 대체로 상하 등간격의 5개의 마디로 된 合成弓이며 크기는 대체로 60~100cm 정도이다.

中國의 경우는 廣州市 龍生岡 43號 後漢墓¹³⁾에서 출토된 彎弓의 길이가 89.2cm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 벽화묘에 표현된 彎弓과 실물자료인 유적출토의 後漢代의 彎弓의 크기는 문헌상의 彎弓의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활의 구조

활은 기본 틀인 弓體[幹]에 손잡이인 楯[]과 양끝의 시위를 매는 활고자[𣪠]로 크게 구분된다.

9) 林 巳奈夫 編, 1976, 『漢代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462~463쪽.

10) 고구려 벽화묘에 묘사된 활은 안팎의 색을 달리하거나 중간에 간선을 넣어 뚜렷이 구분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활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내측과 외측의 재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각 다른 재료를 접합하여 활을 제작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색의 구분에서 고구려의 활이 확실히 合成弓임을 알 수 있다.

11) 尺貫法에 의하면 周尺이 19.42cm, 漢尺이 23.0cm이다.

12) 김혜숙, 1993, 「고구려무덤벽화의 수렵도에 반영된 사냥도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제4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3) 林 巳奈夫 編, 1976, 앞의 책.

활고자인 𣪠는 활을 쏘 때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末 𣪠, 아래쪽 부분을 本 𣪠라고 한다. 그리고 𣪠의 보호를 위해 씌우는 金具를 𣪠金具라고 한다. 楯통은 彎弓의 경우에는 궁체의 중간부분에 위치하지만 直弓은 궁체를 3등분하여 本 𣪠쪽의 1/3지점에 위치한다(도면 1-4·5, 도면 5 참조).

直弓인 單純弓과 強化弓은 弓體의 양 끝단을 깎아서 시위를 매는 고자를 만들지만, 合成弓은 궁체와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고자를 만들어 붙인다. 그리고 直弓과 彎弓 모두 고자부분의 보호를 위해 𣪠金具를 덮어씌우는 경우도 있다.

강화궁은 단순궁과 마찬가지로 목재를 재료로 하지만 제작 방법에서 한 층 발달된 구조이다. 궁체의 탄력과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궁체에 끈 내지는 쇠 힘줄을 감거나 楯통과 궁체를 따로 제작하여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合成弓은 나무, 뿔, 힘줄을 아교로 접합한 구조이다. 대나무 또는 나무를 이용해서 기본 틀을 잡고 內側에는 뿔을 外側에는 힘줄을 접합하고, 고자부분은 보다 탄력과 脆性에 강한 목재를 덧붙여 궁체의 반발력을 증강시켰다.

시위는 絹絲와 筋絲를 이용하였다. 筋絲는 소의 등 힘줄을 실처럼 여러 갈래로 만들어 이를 엮은 것으로 북방의 유목민족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일본의 七廻り鏡塚古墳¹⁴⁾에서 출토된 直弓은 長弓인데 楯통이 상하 대칭의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本 𣪠쪽의 1/3지점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도면 5의 日本 鎌倉時代の 前九年合戰繪詞와 室町時代の 結城合戰繪詞의 회화¹⁵⁾에 묘사된 直弓은 楯통이 본미부 쪽에 치우치고, 末 𣪠쪽의 궁체의 휘어짐이 더 크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直弓은 활의 시위를 당길 때 末 𣪠쪽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짐을 예상 할 수 있다. 즉 直弓은 楯통을 기점으로 상부, 즉 末 𣪠쪽의 반발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구조이다¹⁶⁾.

合成弓은 楯통을 경계로 上下 대칭이다. 이는 直弓과 달리 상하의 힘을 골고루 이용하는 구조이다. 고구려 벽화 등에서도 상하 대칭적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直弓은 末 𣪠와 本 𣪠에 兩頭 𣪠狀의 金具를 장착하는데 이를 弓金具라고 한다. 弓金具는 고분시대후기의 일본에서 출토예가 많은데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고분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영남지방 고분출토 弓金具의 검토를 통해서 신라·가야의 활에 대해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14) 大和久震平 編, 1964, 앞의 책.

15) 松木武彦·宇田川武久 編, 1999, 『人類にとって戦いとは2 戦いのシステムと對外戦略』,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監修, 東洋書林, 6~7쪽.

16) 이것은 直弓의 제작과정과 관련지를 수 있다. 즉 直弓은 한 개체의 나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나무의 단단한 밀통치 보다는 연하고 탄력이 좋은 윗부분을 末 𣪠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신라 · 가야의 활

1) 영남지방 고분출토 弓金具 (도면 2)

(1) 경주 황성동 22호분¹⁷⁾

주부곽식목곽묘의 주곽의 동단벽에서 철촉과 함께 출토되어 보고자는 활 또는 성시구의 부속구로 추정하였다. 대소 2점이 출토되었는데 도면상으로는 피금의 유무를 알 수 없어 弓金具인지 확실치 않지만 형태가 심금과 동일하다. 길이는 큰 것이 3.65cm, 작은 것이 2.85cm이다.

(2) 동래북천동 60호 주곽¹⁸⁾

주부곽식목곽묘의 주곽의 봉토 내에서 마구류와 같은 위치에서 4점이 출토되어 보고자는 마구의 부속구로 보고하였다. 심금과 피금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쪽 頤頤部가 화변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이다¹⁹⁾. 화변은 4엽좌의 형태이다. 길이는 2.5cm, 2.8cm, 2.9cm, 3.6cm이다.

(3) 동래북천동 10 · 11호분 주곽¹⁹⁾

주부곽식 석곽묘로 11호 석곽에서 출토되었다. 耳飾의 출토상태로 볼 때 피장자의 오른쪽 어깨위치에서 2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길이는 각각 4.8cm, 5.2cm이다. 심금은 양쪽의 頤頤部の 크기의 차이가 현저하다. 피금은 각각 2.2cm, 2.0cm로 거의 비슷하며 화변이 약간 잔존한다. 피금에 잔존하는 목질의 방향은 금구에 직교한다. 길이의 차이가 거의 없고 같은 위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때 11호분의 弓金具는 末 頤部에만 장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합천옥전 23호분²⁰⁾

2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관모와 이식으로 볼 때 弓金具는 피장자의 왼쪽 허리부근에서 2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길이는 각각 3.6cm, 3.8cm이다. 심금은 양쪽 頤頤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피금은 일부 결실되어 화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2점이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같은 위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때 23호의 弓金具 역시 末 頤部에만 장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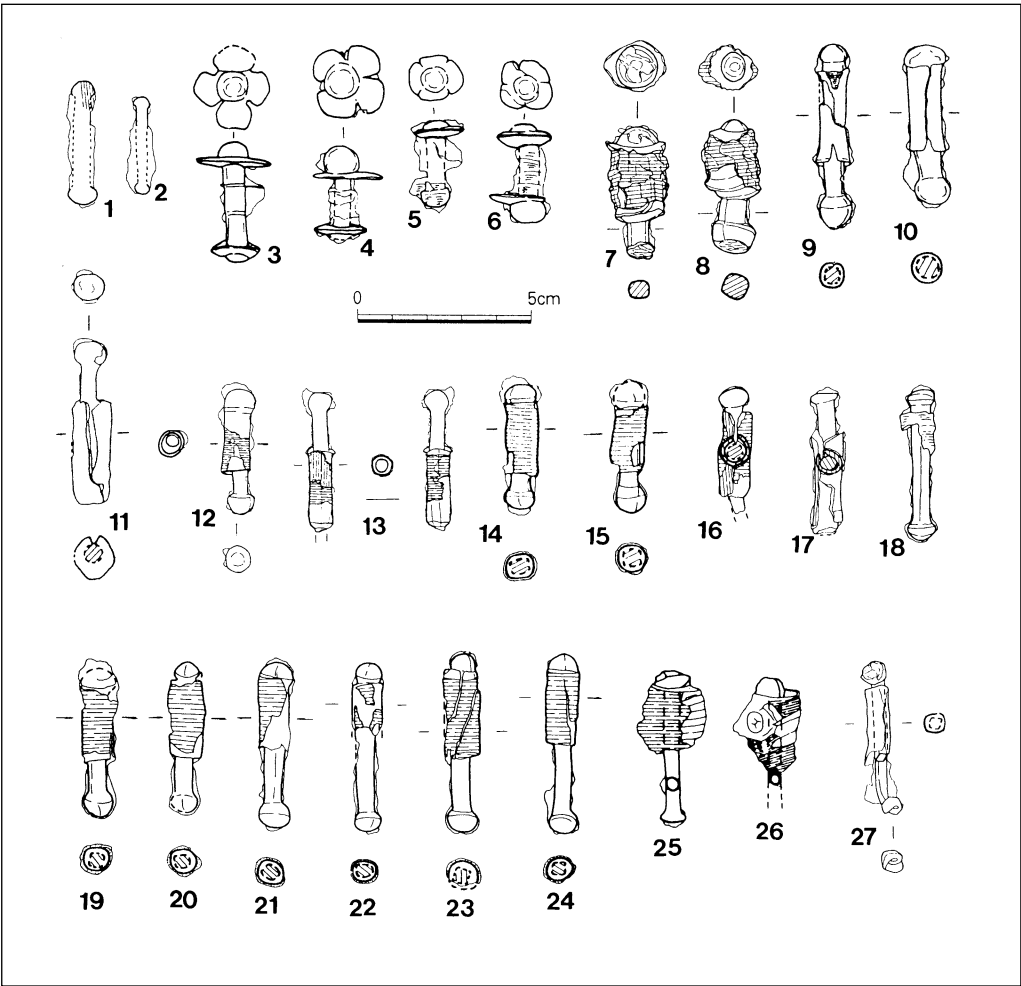
17) 東國大學校慶州캄퍼스博物館, 2002, 『陞城洞古墳群』.

18) 釜山大學校博物館, 1996, 『東萊福泉洞古墳群Ⅲ』.

19)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 『東萊福泉洞古墳群Ⅰ』.

20) 화변부와 심금사이의 공간이 전혀 없는 것에서 궁금구가 아닌 리벳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1) 慶尙大學校博物館, 1997, 『陝川玉田古墳群Ⅹ』.



도면 2) 영남지방 고분출토 弓金具
1, 2, 황성동22호분. 3~6, 북천동60호분 주곽. 7, 8, 북천동10·11호분 주곽. 9, 10, 임당ⅢG-3호분. 11, 임당CⅡ-1호분 부곽. 12, 청정리26호분. 13, 청정리4호분. 14, 15, 옥전23호분. 16, 17, 옥전67-A호분. 18, 옥전67-B호분. 19~24, 옥전28호분. 25, 26, 청강리17호분. 27, 우강리 가군28호분.

(5) 합천옥전 67-A호분²²⁾

67-A호 목곽묘의 피장자의 오른쪽 다리부근에서 2점의 弓金具가 같이 출토되었다. 2점 모두 한쪽 頤頤부분이 결실되었다. 잔존길이는 모두 4.2cm이다. 이 역시 末 頤部에만 장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2점이 길이가 동일하고 같은 위치에서 출토된 것에서 末 頤部에만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慶尙大學校博物館, 2000, 『陝川玉田古墳群Ⅸ』.

(6) 합천옥전 28호분²³⁾

28호 목곽묘에서는 총 6점의 弓金具가 출토되었다. 피장자의 머리 왼쪽에서 4점, 머리 오른쪽 윗 부분과 왼쪽 발치부분에서 각각 1점이 출토되었다. 크기는 앞의 4점이 4.3cm, 4.4cm, 4.8cm, 4.9cm이고 뒤의 2점이 각각 5.2cm로 동일하다. 弓金具의 출토위치와 크기에서 활의 복수부장이 예상되는데, 앞의 4점은 활의 末 𠂔部에만 장착한 것이고, 뒤의 2점은 末 𠂔部和 本 𠂔部에 각각 장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末 𠂔部和 本 𠂔部에 각각 弓金具를 장착한 활은 弓金具의 위치로서 활의 크기를 추정하면 거의 210cm 정도에 이르는 장궁임을 알 수 있다.

(7) 부산 생곡동가달 17호분²⁴⁾

17호 석곽묘에서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한 점은 한쪽 𠂔部가 결실되었다. 𠂔部가 완전한 것은 길이가 4.4cm인데, 한 쪽 𠂔部부분이 납작하게 되어 있다.

(8) 영천 청정리 4호²⁵⁾

4호 목곽묘에서는 머리 왼쪽 부분에서 1점의 弓金具가 출토되었는데 한 쪽 𠂔部는 결실되었다. 잔존길이는 4.2cm이다.

(9) 창녕 우강리 가군 28호²⁶⁾

28호 석곽묘에서는 1점의 弓金具가 출토되었는데 정확한 출토위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𦏧金의 단면이 방형을 이루고, 兩 𠂔部는 철봉의 끝부분을 말아서 처리하였다.

이외에 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상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23) 慶尙大學校博物館, 1997, 『陝川玉田古墳群Ⅵ』.
2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2001, 『生谷洞加達古墳群Ⅱ』.
25) 嶺南文化財研究員, 2001, 『永川淸亭里遺蹟』.
26) 慶南發展研究員 歷史文化센터, 2004, 『昌寧 友江里古墳群』.

<표 1> 弓金具 출토유구

번호	유 구	철촉	성시구	대도 (검)	철모	갑주	마구	금동관 (관모)	유자 이기	이식	출토위치	유구 성격	시기	비고
1	황성동22	○		○	○							목곽묘	4C2/4	
2	복천동60	○		○	○		○		○		봉토내 마구옆	목곽묘	4C3/4	리벳?
3	옥전49	○										목곽묘	4C3/4	도굴
4	도계동2	○									頭上 철촉옆	목곽묘	5C1/4	도굴
5	저포A48	○									頭右, 토기옆	목곽묘	5C1/4	장벽 유실
6	저포A25	○								○	頭右 토기옆	목곽묘	5C1/4	
7	청정리26	○		○	○		○			○	頭右 철부옆	목곽묘	5C2/4	
8	복천동11	○	○	○	○	○	○	○	○	○	頭右 환두도옆	석곽묘	5C2/4	
9	임당 III G-3	○			○	○	○		○			목곽묘	5C2/4	
10	옥전23	○	○	○	○	○	○	(○)		○	足左 환두도옆	목곽묘	5C2/4	도굴
11	옥전 67-A			○	○	○	○		○			목곽묘	5C2/4	도굴
12	옥전67-B	○	○	(○)	○	○	○		○		足下 갑주하	목곽묘	5C3/4	도굴
13	능동17	○									足右, 토기옆	목곽묘	5C2/4	
14	청정리4	○		○						○	頭左 단독	목곽묘	5C2/4	
15	임당ⅣC II-1부곽	○	○		○		○	○	○	○		목곽묘	5C2/4	
16	옥전28	○	○	○	○	○	○			○	頭右4, 頭左1, 足左1	목곽묘	5C3/4	도굴
17	가달17	○	○	○						○		석곽묘	5C3/4	
18	조일리49-2	○		○				○		○	頭左 금동관옆	석곽묘	5C4/4	
19	천군동 피막 유적 석곽3	○									頭左, 토기옆	석곽묘	5C4/4	
20	옥전91	○		○	○		○		○	○	頭左 철촉옆	석곽묘	5C4/4	
21	김해 능동25	○		○					○	○		목곽묘	5C후반	단벽 결실
22	달성문산리 1-1	○						○		○		석곽묘	5C후반	도굴
23	도항리47	○					○			○		석실묘	5C4/4	
24	가달8				○					○		석곽묘	6C1/4	도굴
25	청강리11									○		석곽묘	6C1/4	도굴
26	두산동1	○			○	○				○		석곽묘	6C1/4	
27	우강리가군28	○										석곽묘	6C1/4	
28	우강리가군 26-1	○										석실묘	6C2/4	
계		25	6	13	13	13	11	5	8	16				

2) 弓金具의 형태 및 구조

弓金具는 <표 1>에서 보듯이 철촉과의 동반출토예가 他유물에 비해서 월등하고, 거의가 별개로 출토되거나 관련가능성이 희박한 유물과 접하여 출토한다. 그리고 대부분 피장자의 머리부근 내지는 발치 등의 장축 상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출토상황과 도면 4의 日本 小申田横穴墓 北18號²⁷⁾의 弓金具의 출토상태를 고려해볼 때 궁금구는 활의 양쪽 고자부분에 장착되는 금구로 볼 수 있다. 즉 弓金具는 木弓의 상단인 末 𠂔部와 하단인 本 𠂔部에 장착한 금구이다²⁸⁾.

먼저 형태를 살펴보면 길이 2cm 전후, 직경 0.5cm 정도의 얇은 철판제의 圓筒狀의 管(皮金)에 양단을 둥글게 부풀린 兩頭 𠂔狀의 鐵棒(芯金)을 끼워서 조합시킨 것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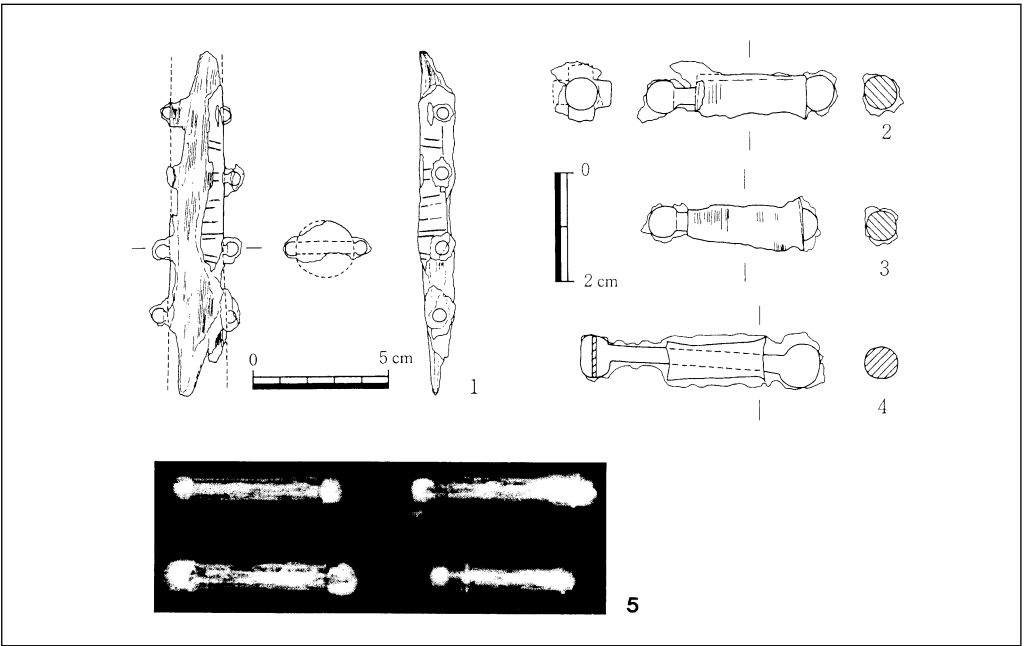
이 금구를 활에 장착하는 방법³⁰⁾은 ①활의 본체에 둥근 구멍을 뚫는다. ②철판제의 관 즉 皮金을 이 구멍에 넣은 후 활의 본체에서 돌출된 양단을 길이방향으로 자른 후 花弁狀으로 벌여서 활의 궁체에 고정한다. ③한쪽이 둥근 鐵製 𠂔狀의 棒인 芯金을 끼운 후 반대쪽을 두드려서 둥글게 처리하여 皮金에서 빠지지 않게 하였다³¹⁾.

皮金の 길이는 궁체의 직경과 같다. 도면 3-1의 日本 熊本縣 山鹿市 湯の口 129號³²⁾의 경우 고자 쪽 목질의 직경이 가늘어 지는데 이는 각 피금의 길이차이와 같다. 따라서 피금의 길이가 작은 것이 고자에 가까운 쪽임을 알 수 있다.

3) 弓金具에 대한 선행연구

市毛勳은 兩頭座金付留金具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막연히 馬具의 부속 내지는 불명철기로 인식되어오던 이 유물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유물의 정확한 성격과 용도는 밝히지 못한 채 유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그쳤다³³⁾.

田中新史가 群馬縣 邑落郡 大川村에서 출토된 埴輪에 표현된 弓(도면 1-4)과 木縣 七廻り鏡塚古墳에서 출토된 木弓의 末 𠂔部에 뚫린 구멍(도면 1-5), 그리고 千葉縣 市原市 持塚 7號墳에서 출토



도면 3) 일본출토 弓金具 및 궁금구 X선 사진(比座陽一郎 2002에서).
1. 熊本縣山鹿市湯の口129・横穴 2. 福岡市野方D-4・墳 3. 福岡市タカバン塚古墳 4. 大分縣佐伯市・野古墳

된 금구의 출토위치 등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이 금구가 활에 장착된 것임을 밝혔다. 더욱이 メスリ 山古墳群 출토 鐵弓의 銅製 金物, かろうと山古墳 출토의 金銅製 芯金, 皮金の 兩端이 花弁狀인 점 등을 들어 弓金具는 심금과 피금사이의 여유부분에 색실을 매달아 장식하는 활의 裝飾金具라고 하였다. 또한 금구의 出現과 終焉의 범위를 정하고 동시에 동반유물의 반출비율과 출토고분의 규모로 弓金具가 장착된 木弓의 보유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³⁴⁾.

福島縣 小申田横穴墓群의 北第18號에서 활의 양쪽 𠂔部의 잔존목질부분에 금동제의 芯金이 장착된 상태로 출토되어 이것이 弓金具임이 입증되었다³⁵⁾.

比座陽一郎는 三 永浦1號墳과 福岡市에서 출토된 弓金具자료를 정리하여 활의 複數부장과 新古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금이 피금 내에서 움직이는 稼動構造인 것에 착안하여 시위를 튀길 때 음향효과를 높이는 장치로 보았다. 그리고 弓金具의 출현시점이 5세기대로 소급되며 이는 窯業과 馬具 渡來의 시기가 같으므로 그 계보를 한반도에서 찾고자 하였다³⁶⁾.

比座陽一郎는 이후 「弓金具の再検討」에서 福岡縣内の 弓金具의 출토경향을 파악한 후 弓金具를

27) 福島縣いわき市, 1988, 앞의 책.
28) 모든 목궁에 궁금구가 반드시 장착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궁금구가 장착되지 않은 활도 물론 제작되었을 것이다.
29) 田中新史, 1979, 앞의 글.
30) 福島縣いわき市, 1988, 앞의 책.
比座陽一郎, 1996, 앞의 글.
31) 芯金은 아령과 같은 兩頭 𠂔의 형태지만 양쪽 비대칭이 많은데 이는 피금에 삽입 후 탈락방지를 위해 두드려서 둥글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32) 比座陽一郎, 2002, 앞의 글.
33) 市毛勳, 1978, 「古墳出土の鐵製留金形小品について」-その名稱と用途をめぐって-, 『古代學研究』87, 古代學研究會.

34) 田中新史, 1979, 앞의 글.
35) 福島縣いわき市, 1988, 앞의 책.
36) 比座陽一郎, 1996, 앞의 글.

장착한 활의 보유자에 관한 정보를 논할 수 없다고 하여 田中新史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X선 촬영과 현미경을 이용한 유물의 정밀관찰을 통해 심금이 가동구조임을 다시 확인하고, 弓金具를 장착한 활이 당시의 실용품과 동일한 廣葉樹를 재료로 한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弓金具는 음향효과를 위한 용도로 활이 가진 본래의 기능에 儀器的 기능을 부가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⁷⁾.

4) 弓金具의 기능

弓金具의 장착개수는 활의 末 ㄱ부와 本 ㄱ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일본의 경우 도면 4의 小申田 横穴墓 北18號³⁸⁾의 활은 末 ㄱ부 쪽에 4개 本 ㄱ부 쪽에 1개가, 도면 1-4의 埴輪에 표현된 활에는 末 ㄱ부에 4개 本 ㄱ부에 3개가 장착되어있다. 그리고 持塚 7號³⁹⁾의 경우에는 출토상태로 볼 때 한 쪽에서만 5개가 출토되었으며 도면 1-5의 七廻り鏡塚古墳⁴⁰⁾에서는 末 ㄱ부 쪽에만 4개의 구멍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弓金具는 末 ㄱ부에 주로 장착하고 本 ㄱ부에는 없거나 보다 적은 수를 장착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활의 사용상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활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시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활을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궁체와 시위의 탄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위를 풀거나 느슨하게 했을 것이다. 直弓 중 長弓의 경우에 있어서는 弓金具가 이러한 시위조절을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末 ㄱ부의 반발력을 주로 이용하는 장궁의 경우 末 ㄱ부에 시위조절장치가 많이 장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위조절장치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광주 신창동저습지 출토 목제 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활의 고자 부분에는 도면 1-6처럼 쐐기와 같은 나무못을 박은 것이 있다⁴¹⁾. 활의 시위를 당길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고자부분에 이와 같은 쐐기를 박는 것은 比座陽一郎의 지적⁴²⁾처럼 활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장치를 하는 것은 시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위조절장치를 위해 쐐기 내지 못을 박으면 활의 몸체에 직접충격이 가해져 목제로 제작된 활은 금이 가고 결국은 파손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弓金具일 것으로 생각된다

37) 比座陽一郎, 2002,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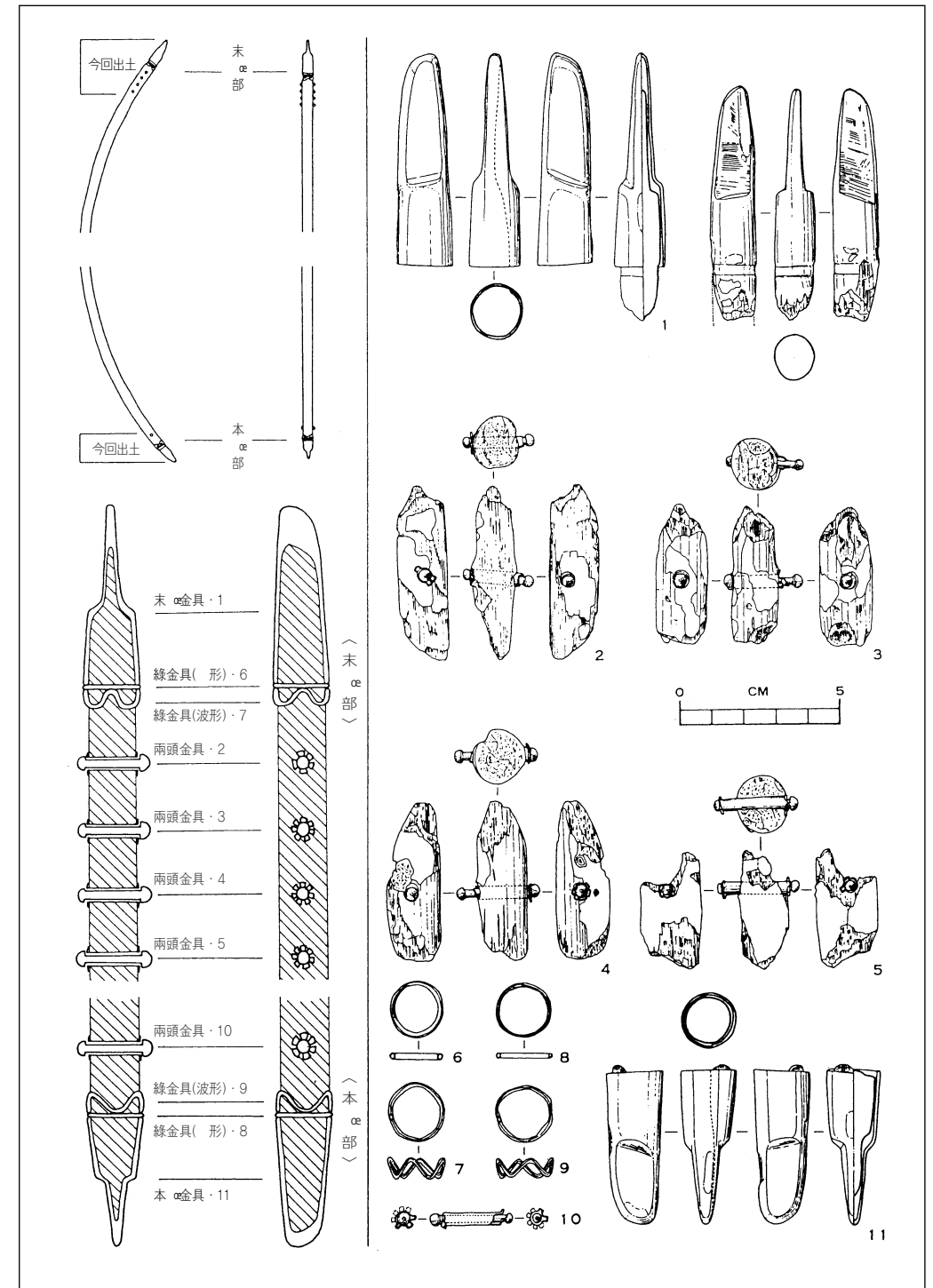
38) 福島縣いわき市, 1988, 앞의 책.

39) 田中新史, 1978, 앞의 글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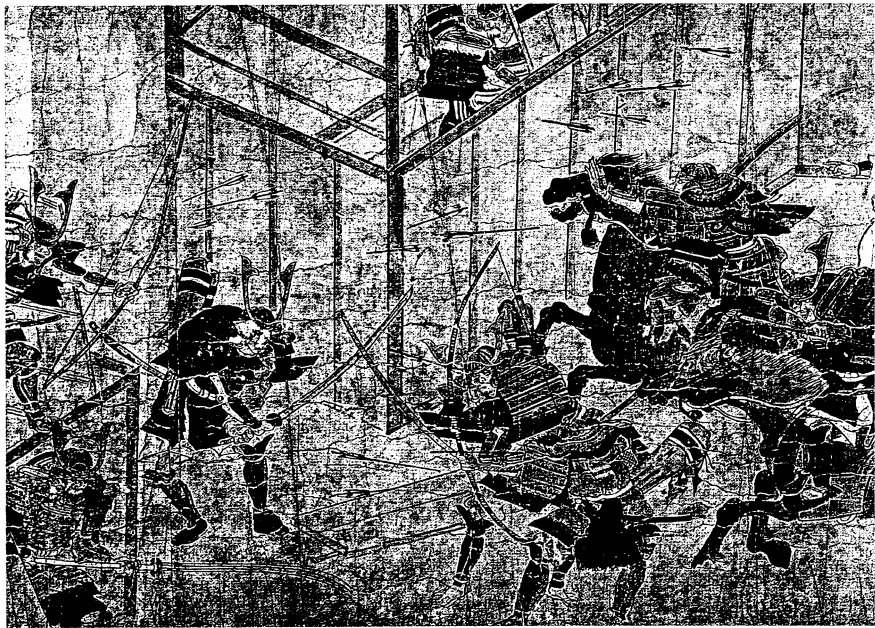
40) 大和久震平 編, 1964, 앞의 글.

41)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弦고리를 고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한 용도라고 보고하였다.

42) 比座陽一郎, 1996, 앞의 글.



도면 4) 日本 小申田横穴墓群 北第18號 横穴墓 出土 木弓



1



2

도면 5) 直弓이 묘사된 日本 繪畫
1. 結城合戦繪詞(室町時代). 2. 前九年合戦繪詞(鎌倉時代).

다. 즉 직접 철제 내지 목제의 못을 박는 것보다는 드릴 같은 穿孔具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활의 몸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또한 철관을 끼워서 구멍을 코팅하듯이 감싸 시위를 매기는 심금이 활의 몸체에 직접적으로 마찰되지 않게 하여 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심금이 피금 내에서 움직일 정도의 굽기를 사용한 것은 기온변화에 따른 심금의 수축을 고려하여 궁체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弓金具의 기능에 대해서 주로 음향효과와 시각 등을 고려한 의기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⁴³⁾. 그렇지만 활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시위의 울림이 절대적이다. 심금이 피금 내에서 가동하면서 내는 소리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심금이 피금 안에서 가동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좌우가 거의 같은 규격으로 대칭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남지방과 일본에서 출토된 弓金具는 좌우 비대칭이 많고 심지어는 도면 3-4와 같이 양쪽이 납작하거나 도면 2-27처럼 한쪽 끝부분을 말아서 처리한 것도 있으며 심금의 단면이 방형인 것도 있다. 즉 이것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금에서 빠지지 않도록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형태와 단면 방형의 심금은 피금 내에서 일정하게 가동될 수 없으므로 음향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弓金具는 음향효과와 시각을 고려한 의기적 기능을 가진 금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활의 기능적 장치인 시위조절장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신라·가야의 활은 弓金具의 출토와 토우⁴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直弓이다. 합천옥전 28호분 弓金具는 출토위치로 볼 때 210cm 전후로 추정되고, 일본 고분출토 활이 대부분 180cm를 상회하므로 直弓은 長弓임을 알 수 있다.

신라와 가야의 영역인 영남지방에서는 <표 1>에서 보듯이 4세기~6세기 전반에 걸쳐 弓金具가 출토되는 것에서 4세기 이전부터 6세기 전반까지는 直弓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이는 도면 1-1~3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우장식 유개고배에 활을 이용하는 수렵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토기는 천마총단계로 편년되는데 표현된 활은 크기가 인물상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며 굴곡이 거

43) 田中新史, 1979, 앞의 글.
比座陽一郎, 1996·2002, 앞의 글.
44) 국립경주박물관, 1997, 『신라토우』.
45) 『易』에 ‘…弦木爲弧…’ (나무에 시위를 매겨 활이 되게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賀平 “都表”』에는 ‘…刺木弦弧…’ (나무를 깎아 시위를 매면 활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들 문구에서 보듯이 木弓은 ‘弧’라고 표기되고 있다. 또한 『後漢書』東夷列傳의 辰韓條에 ‘…弓爲弧…’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辰韓의 활은 弧 즉 直弓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直弓이며 또한 장궁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신라·가야지역에서는 6세기 전반까지 直弓을 제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일본 고분에서는 5세기 후반이후부터 궁금구가 출토되므로 弓金具를 장착한 활의 조형은 比座陽一郎의 지적⁴⁶⁾대로 한반도의 신라·가야지방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남지방에서는 6세기 후반부터는 弓金具의 출토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경주출토의 7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수렵문전돌에 묘사된 활은 크기와 휘어진 상태로 볼 때 직궁보다는 만궁으로 볼 수 있다⁴⁷⁾. 이것으로 볼 때 신라지역에서도 6세기 후반이후에는 彎弓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궁은 중국동북지방의 영향으로 형성된 기승용마구가 출현하는 4세기대에 유입이 예상되지만 대체로 6세기 전반까지 直弓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起因하였을 것으로 본다.

첫째, 技術狀의 문제이다. 合成弓과 같은 활은 단순히 모방에 의해서만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품이 傳來에서 一般化까지는 ①製品의 傳來段階 ②製品의 模倣段階 ③製作技術의 傳來段階 ④技術의 習得段階를 거쳐 ⑤專門製作工房의 設置段階의 과정을 거쳐야만 大量生産에 의한 一般化가 가능했을 것이다⁴⁸⁾.

둘째, 必要性の 문제이다. 直弓과 같은 長弓은 步兵戰에 사용되는 武器이다. 新羅와 加耶는 好太王의 南征 때 騎馬戰에서 彎弓의 威力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487년 蜚驛의 설치에서 볼 수 있듯이 5세기 후반이 되면 말의 이용이 일반화되는 것에서 騎馬軍團의 增大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병의 확대에 따른 기마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直弓보다는 携帶와 馬上에서 사용이 편리한 단궁인 彎弓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甲 冑의 發達과 一般化⁴⁹⁾도 또한 보다 강력한 활⁵⁰⁾을 요구했을 것이다.

셋째, 材料需給의 문제이다. 直弓은 나무와 시위만으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만궁인 合成弓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필요로 한다. 나무, 뿔, 뼈, 소의 힘줄, 아교 등이 기본 재료이다. 이러한 재료는 농경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는 대량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활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료, 특히 뿔은 外部와의 교역을 통해 구입하였을 것이고, 그 교역대상은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中國과 직접 교류를 시작한 시점인 6세기 후반이후에야 재료의 직접적인 대량구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활의 대량생산과 일반화를 위해서는 製作技術과 必要性 그리고 材料需給의 문제가 가장 직접적이었을 것이다. 製品必要의 요구에 따른 기술의 習得에서 專門製作工房의 設置, 그리고 材料需給의 원활함을 감안할 때 6세기 이후가 되어야만 合成弓이 신라에서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6세기 전반까지는 直弓의 제작을 의미하는 弓金具가 출토되는 상황과도 일치한다.

46) 比座陽一郎, 1996, 앞의 글.

47) 국립경주박물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新羅瓦塼』.

48) 宋代에 7인의 職人이 9일 동안 8張의 활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國營의 調兵工場에서 분업화에 의한 것이다. 이는 1인이 1장의 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전문제 조공방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篠田耕一, 1991, 『武器と防具 中國編』, 新紀元社.

49) 영남지방에서는 5세기 후반이후가 되면 대형고분인 아닌 일반적인 소형의 고분에서도 마구와 갑주의 부장이 종종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5세기 후반이후가 되면 말의 사용과 갑주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0) 실제로 같은 크기의 彎弓(合成弓)은 直弓(木弓)에 비해 25배의 위력을 가진다.

『조선중세군사기술연구』, 198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8~90쪽.

IV. 글마당

• 고고학과 나 II / 지 권 길

고고학과 나 Ⅱ¹⁾

- 무령왕릉 발굴 이야기 -

지 건 길 *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성과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세 곳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공주 武寧王陵과 경주 天馬塚, 그리고 창원 茶戶里 1호분을 꼽을 것이다. 이들 세 유적은 모두가 고대의 왕릉이거나 왕릉급에 속하는 분묘 유적으로서 여기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와 엄청난 분량의 출토품으로 한국 고고학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들이었다. 더구나 이 유적들은 그 발굴 동기와 과정에서도 매우 극적인 요소를 띠고 있었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그 발굴 성과에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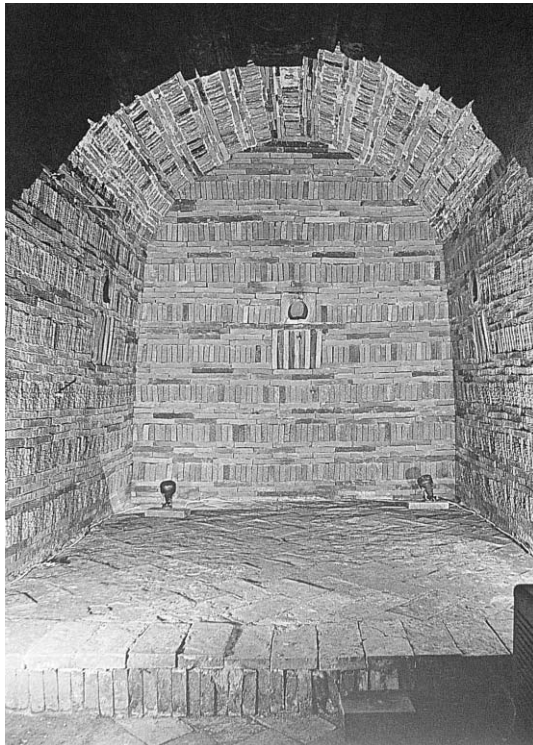
당시 나는 젊은 고고학도로서 운 좋게도 이 세 유적의 발굴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고 이 기회가 나의 학문적 성장에도 알찬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령왕릉과 천마총은 발굴의 경륜과 학문적 배경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약관의 학예사 초년병 시절에 이뤄진 경험으로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많은 것을 얻은 만큼 경험 미숙으로 인한 실수도 적지 않았던 아쉬운 기억을 갖고 있다. 이 두 발굴은 1년 반 남짓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지만 발굴 상황에서는 많은 대조를 이루어 모두의 화려한 발굴 성과에도 불구하고 뒷날 학계로부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 전경

* 동아대학교 교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1) 2003년도 기전고고 제3호에서 '고고학과 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다.



무령왕릉 입구에서 본 무덤 내부

이웃 다른 무덤-람세스 6세-의 축조에 동원되었던 인부들의 막사로 가려진 덕분에 삼천여년을 버텨 오다 세기적 발굴로 이어진 ‘투탕카멘’ 무덤과도 같은 운명을 지녔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고고학사상에서도 세기적인 발굴로 꼽을 수 있는 이 왕릉은 그 발견에서부터 발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너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들에게도 좋은 의미건 아니건 간에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갖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를 두루 갖춘 발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7월 6일 오후, 당시 경복궁의 문화재관리국 별관에 있었던 문화재연구실(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신)에 근무하던 나는 충남 공주 쪽에서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막연한 소식과 함께 다음날 현지조사를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 관리국 직원들이 부산하게 드나들고 술렁이는 연구실의 분위기로 보아 다소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으나 뭔가 속사정이 있겠거니 여기며 달리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다음날인 7월 7일, 이호관, 손병현, 조유전과 내가 선발대로서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공주 宋山里 고분군. 금강변에 자리 잡은 이곳 옛 무덤들은 백제의 熊津시대에 이루어진 고분군

터는 각기 질척과 찬사를 따로 받게 된 엇갈린 운명의 발굴로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나의 고고학 체험으로서는 가장 두드러진 첫 경험이면서 뒷날 나의 학문적 행보에 거울이 되어준 무령왕릉 발굴에 얹힌 뒷얘기를 정리함으로서 우리나라 고고학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학사적 배경의 한 단면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무령왕릉은 한국 고고학사상 피장자의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최초의 고대 왕릉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處女墳으로 드러난 유일한 백제 왕릉이었다. 그것은 주변의 다른 무덤과는 달리 일찍부터 封墳을 상실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오랫동안 숨겨져 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 입구 위에 이뤄진

으로서 해방 전 일본인들에 의해 모두 20여기의 크고 작은 돌방무덤(石室墳)과 1기의 벽돌무덤(磚築墳)이 조사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가 공개되고 있어 이미 학계에는 널리 알려진 유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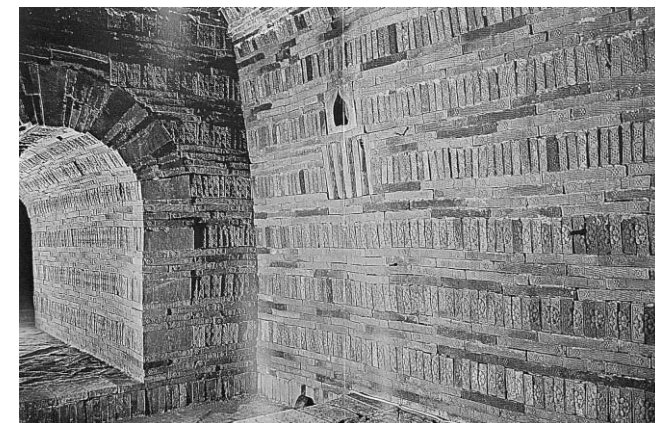
일행은 현장 감독으로 나와 있던 윤홍로 건축기사의 안내로 그간에 이뤄진 작업의 진척 상황을 둘러보았다.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의 김영배 관장을 비롯하여 안승주, 박용진 교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덤의 前面으로 생각되는 塼築 구조의 위쪽 상당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었다. 바로 인접한 6호 무덤이 전축분이었기에 일부만 노출된 상황이었지만 이 특수한 구조물도 같은 유형의 전축분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유구의 출현에 모두들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누구 하나 가벼운 농담 한마디 건네는 사람 없이 뜨거운 초여름의 햇살 아래서 오랫동안 묵묵히 한 곳만을 응시하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직은 초보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그것은 분명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듯한 짜릿한 시간이었다. 마음속으로 제발 전인미답의 처녀분이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조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현장을 지켜봤던 몇몇 신라 석실분들이 한결같이 도굴을 당했던 허망한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 무덤도 혹시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

오후에 김원용 국립박물관장과 장인기 문화재과장 등 나머지 일행이 도착했고 잠시 동안의 협의를 거쳐 그새 멈췄던 발굴을 계속해 나가기 시작한 때가 오후 4시경. 전축부의 양 끝자락을 따라 이루어진 원래의 구덩이 흔적(塹壁)을 따라 무덤 앞면을 넓게 파 내려갔다. 무덤을 만들 당시 구덩이는 파낸 흙으로 다시 채워졌었지만 천 수백년 동안 빗물로 다져져 있어 파들어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구나 벽돌을 가지런히 눕혀쌓기로 막아둔 무덤 입구는 강회 섞은 마사토를 덮어 씌워 이것을 걷어내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다.

무덤 입구가 서서히 드러나며 인접한 6호 무덤과 같은 전축분임이 분명해지게 되었고 여기에 벽돌을 한단씩 눕혀 쌓기로 채워 올린 가지런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적어도 입구 쪽에서만은 교란의 흔적이 없어 우리에게 일단은 안도감을 안겨 주었다.

해가 한창 긴 초여름이라지만 조금씩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군청에서 빌려온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이윽고 야간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로 작업에 대한



무덤 안쪽에서 본 입구



왕과 왕비의 금제 장식

지침이 내려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적의 성격과 그 때 현장의 정황으로 보아 모든 조사원들에게 철야작업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쯤 한낮의 열기가 조금 가시면서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든 주민들이 삼시간에 현장 둘레를 빠르게 둘러싸기 시작했다.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단단한 흙다짐을 파 내려가 이윽고 무덤 입구의 바닥에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후두두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금방 굵

은 빗줄기로 변하고 삼시간에 무덤 앞 구덩이에도 흘러든 빗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바게쓰’로 퍼내기 시작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무덤 입구를 벽돌로 채워 쌓았다고는 하지만 맨 아래쪽 몇 단까지만 석회다짐으로 채우고 그 위는 공돌쌓기로 올렸기 때문에 자칫 물이 차올라 무덤 안으로 역류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일 판이었다. 서둘러 남겨놓은 구덩이의 한쪽 벽을 뚫어 차오르는 물을 가까스로 빼낼 수가 있었다. 비 때문에 결국 철야작업계획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당장 물 막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 급선무였다. 한 동안 계속된 물 퍼내기 작업을 마치고 비가 그친 뒤 현장은 이곳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경찰관들에게 맡기고 조사원들이 마지막 이 숙소를 찾아들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뒤였다. 나는 손병현, 조유전과 같은 방에 들어 자리에 누웠다. 평소 베개가 뒤통수에 닿으면 몇 초를 넘기지 못하는 나였지만 그날 밤은 한 동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만큼 흥분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튿날인 7월 8일. 아침 일찍 우리가 현장에 나왔을 때는 벌써 몇몇 주민들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언론사 기자들이 먼저 나와 우리를 맞았다. 낄새를 알아차리고 한발 앞서 엿저녁부터 서울에서 내려와 태연한 척 꾸그리고 앉아있던 서울의 한 일간지 기자가 밤새 기사를 보내 조간 1면에 톱을 장식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려주었다. 이렇듯 소문이 퍼지며 아침부터 경향 각지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언덕은 삼시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채워졌다. 심지어는 현장 정리를 위해 나와 있던 경찰들조차도 구경꾼들에 휩쓸려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현장 정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침나절부터 조사단들은 기자들에게 부대껴야 했지만 발굴을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어 젊은 단원들은 무덤의 앞쪽을 계속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무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면서 구경꾼들의 호기심도 극에 달해 여기저기서 재촉하는 소리까지 들렸고 특히나 취재차 멀리서 온 기자들의 뒹달도 만

만치가 않았다.

이윽고 무덤 입구를 막은 閉塞塼의 전면이 정리되고 바닥에 다다른 시각이 오후 3시경. 곧장 祭床을 마련하고 무덤의 개봉을 서둘러야 했다. 준비해 온 제물이라야 북어 세 마리와 수박 한덩이에 祭酒로는 한 주전자의 막걸리가 전부였다.

근엄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제를 올린 뒤 제상을 물리고 입구의 개봉을 위해 우선 김원용, 김영배 두 관장이 무덤 앞으로 나아갔다. 두 사람의 얼굴은 비장할 만큼 엄숙함을 띄었고 이때는 밖에서 부산스럽게 서성거리던 취재진은 물론 둘레에 몰려든 구경꾼들조차 숨소리 하나 없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 볼 뿐 옆 사람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한동안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무덤 앞으로 다가선 김원용 관장의 키와 폐색전의 높이가 거의 같아 맨 위단의 벽돌만 뽑아내면 무덤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먼저 김원용 관장이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폐색전 위단에 쌓인 흙 부스러기를 쓸어내고 밖으로 빼져 나와 었힌 벽돌 두어 개를 들어낸 뒤 잘 빠지지 않는 맨 위에 박힌 벽돌 한 장을 한참 만에 힘줘 뽑아냈다. 이때 뚫린 벽돌의 좁은 틈새로 갑자기 하얀 김이 서려 밖으로 뿔어져 나왔고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들은 순간적으로 흠칫할 수 밖에 없었다. 밀폐되어 있던 무덤 안의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빠지면서 한 여름의 더운 공기에 닿아 이루어진 당연한 물리적 현상이었겠지만 잔뜩 긴장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김마저도 어떤 신비로운 造化의 징후처럼 여겨졌다.

뽑아낸 벽돌은 조심스럽게 김영배 관장에게 건네졌고 그것은 다시 다른 조사원에게 넘겨져 구덩이 한쪽 곁에 놓여졌다. 첫 벽돌은 힘들게 뽑혔지만 나머지는 그냥 차곡차곡 쌓아 둔 것들이어서 쉽사리 빼낼 수가 있었다. 이런 반복된 작업을 거쳐 위의 대어섯 단 가량이 치워지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두 김 관장이 먼저 안을 들여다 본 뒤 다른 조사원들도 차례로 한 사람씩 무덤 속을 살폈다. 마지막 내 차례가 와 고개를

디밀고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으나 눈 바로 아래에 우뚝 서 있는 희끄무레한 돌짐승 한 마리와 시신을 마주쳤을 뿐 그 북새통 속에서 나머지는 도통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한여름 긴 해라지만 그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작업이 늦어져 젊은 조사원과 인부들까지 구덩 안으로 투입되어 폐색전 제거 작업을 서둘렀다. 이윽고 폐색전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낸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부 조



왕비의 머리 받침 양쪽에 었힌 목제 봉황머리 장식

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맨 먼저 손전등을 들고 들어간 김원용, 김영배 관장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서야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나왔으나 잠시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이 무덤이 바로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그 왕비의 무덤으로 전인미답의 처녀분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하시던 김원용 관장의 흥분된 모습을 통해 이 무덤이 범상치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직감할 수 있었다.

곧 무덤의 내부 조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취재차 몰려든 보도진들의 성화를 더 이상 물리칠 수가 없어 차례를 정해 시간을 제한하고 서둘러 보고 나올 것을 다짐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다. 조사원들의 재촉 속에서 가까스로 보도진들에 대한 공개를 끝내긴 했지만 그 북새통 속에서 바닥에 널려진 일부 유물이 보도진들의 발에 짓밟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내부의 실측 조사에 들어가기 전 사진촬영 작업을 내가 맡아 새 카메라에 여유있게 준비해 온 필름과 실내 촬영용 ‘플래시’ 전구 등으로 서둘러 찍어나갔다. 실내 전경에서부터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진 유물들, 전돌 틈새를 뚫고 천정 가득이 빠져나와 치렁치렁 늘어진 잔뿌리들로 흡사 동화책에 나오는 ‘유령의 집’ 같이 변한 무덤 속을 실 새 없이 둘러봤다. 이렇듯 중요한 유적에 대한 발굴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더라면 미리 전문 사진사를 대동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려와 결국 사진 촬영은 초보나 다름없는 내 몫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몇몇 유적 발굴에서의 촬영 경험을 밑천 삼아 별다른 걱정 없이 자신 있게 대들었던 것이 애초부터 잘못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실내 촬영이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사무실로 돌아와 필름을 현상한 뒤였다. 이 새 카메라의 렌즈 쪽에 ‘플래시’ 용 ‘F’와 ‘스트로보’ 용 ‘S’로 표시된 두개의 작은 ‘체크’가 있었는데 ‘플래시’를 사용하면서 그 구분을 명확히 못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상당수의 사진이 반 토막으로 찍히고 온전한 것은 몇 안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촬영을 서둘러 끝내고 실측작업에 들어가야 할 차례였다. 최소한 실꾼이라도 친 뒤 실측에 임해야 되었지만 그럴만한 마음의 준비와 여유가 없었던지 컨벡스와 모눈종이(方眼紙), 그리고 연필 한 자루만 들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왕과 왕비 두 팀으로 나누어 왕비 쪽은 김영배 관장과 손병헌이, 왕 쪽은 김원용 관장과 내가 맡아 서둘러 그려 나갔다. 이것은 실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스케치였다. 내가 개개 유물의 크기와 유물 간의 간격을 불러 드리면 선생께서 모눈 종이에 대충 스케치를 해 나가는데 그런 식의 실측이었다. 우리가 서두르는 통에 왕비 팀도 우리의 진척 속도에 맞춰 그려 나가는 도리 밖에 없었다.

바깥은 벌써 해가 저 주위는 어둠에 싸였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취재진들과 구경꾼들은 움직이는 것을 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듯 어수선했던 분위기 때문에 발굴단의 수장격인 김원용 관장께

서도 덩달아 발걸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조바심으로 결국은 철야 발걸을 강행키로 방침을 굳힌 것 같았다.

천 수 백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널빤지(棺材)와 머리맡과 발치의 공간에 널린 그릇들과 발 베개, 신발 등 갖가지 着裝具, 널길(義道)에 놓인 돌집승(石獸)과 墓誌石들을 차례로 우선 눈에 보이는 유물들에 대한 실측을 마쳤다.

먼저 긴 널빤지를 현지에서 급히 조달해 온 흰 廣木 천으로 하나씩 돌돌 말아 차에 옮겨 실어 공주 박물관으로 보낸 뒤 널빤지 밑에 깔린 유물들을 실측해야 할 차례였다. 그러나 무덤방 바닥에 널려진 많은 부장품과 크고 자잘한 장신구들은 바닥 전돌 틈새를 비집고 나온 잔뿌리들로 얽히고 설켜 있어 이것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유물들이 움직이지 않게 가위로 조심스럽게 잔뿌리를 잘라나가야 했다. 이렇듯 亂麻처럼 뒤엉킨 상태에서 유물 하나하나를 그리고 수습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큰 유물만을 대강 스케치한 뒤 수거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뒷이야기지만 발걸을 끝낸 한참 뒤 국립박물관에서 학교로 되돌아가신 김원용 교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전화로 왕비 머리맡에 놓였던 청동 盒 속의 순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었는지를 물어오셨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으니 확인해 보겠노라고 우선 대답을 드리고 야장과 사진을 온통 뒤져보았으나 오리무중. 동송동 연구실로 찾아뵈었을 때는 여기저기 사진과 도면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진 채 한참 보고서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도와드렸던 낮익은 도면 한쪽에 순가락은 빠진 채 합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으나 그 뒤로도 자료는 영 나타나질 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에 나온 보고서에 문제의 순가락이 입구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몰아쉬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듯 노출된 중요 유물만 수습하였는데도 마지막 유물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바깥이 흰히 밝아 있었다. 이제 남은 것



윤주영 당시 문공부장관과 무령왕릉 내부를 살피고 있는 김원룡 선생(삼불 김원룡 선생 10주기 추모사이트)

은 죽히 한 뼀은 될 만큼 바닥을 덮고 있던 잔뿌리 더미에 뒤엉킨 무수한 자잘한 금붙이 장식들과 그 사이로 깔린 형형색색의 잔 구슬들. 이것들도 당연히 촬영과 실측을 거친 뒤 수습해 나가야 마땅한 것들이었고 그러자면 여러 날이 죽히 걸릴 성 싶은 분량과 상황이었지만 조사원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원칙적인 주장을 펴는 이가 없었다.

날이 곧은 ‘오삽’과 자루(布袋)가 동원되어 입구 쪽부터 잔뿌리와 유물들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한 꺼번에 자루에 쓸어 담겨졌다. 조사원 모두가 한결같은 밤샘 작업으로 인한 얼얼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이 기억은 삽날이 전돌 바닥에 긁혀 나는 금속음과 함께 아직도 나의 뇌리에 깊숙이 남아 있다.

천 수 백년의 오랜 세월을 침묵 속에서 이어져 온 이 왕릉 속에서의 발굴은 만 하루가 못되는 철야 작업을 거쳐 이렇게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왕과 왕비의 시신에 착장시켰던 장신구와 패용 품들, 그리고 갖가지 부장품은 가히 동아시아의 ‘투탕카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고학적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삽으로 ‘퍼 담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발굴의 책임을 맡았던 김원용 교수는 보고서에서, 또 그 후에도 두고 두고 이 발굴을 회고하는 많은 글을 통해서 당시의 실수를 수 없이 뉘우쳤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의 개인적인 책임만이 아닌 나를 포함한 조사원 모두가 질책을 받아 마땅한 ‘사고’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당시 한국고고학이 처해 있던 학문적 수준의 한계를 보여 주었던 한 단면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순간의 실수가 그 뒤 이루어진 크고 작은 많은 고고학 발굴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의 교훈으로서 기억된다면 그것은 적으나마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준 소중한 ‘귀감’이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편 집 진 |

총괄 : 윤근일

진행 : 윤한택, 허미형

편집 : 김성태, 허미형

교정·교열 : 김성태, 허미형, 김재호

畿甸考古

제5호 (2005)

발행일 : 2006년 9월 30일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편집 : 기전문화재연구원 ☎ 031-898-7990

제작 : (주) 경인M&B ☎ 031-231-5520~7

※ 이 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오.
☎ 031-898-7990(교515)

〈비매품〉